영통구,
상전벽해의 여정

SRI 수원시정연구원
수원학연구센터

수원특례시

9 791168 191426 94910
ISBN 979-11-6819-142-6
ISBN 979-11-90343-82-4 (세트)

수원학
구술총서
⑥

영통구, 상전벽해의 여정

SRI 수원시정연구원

수원특례시

수원학구술총서 ⑥

영통구, 상전벽해의 여정

SRI 수원시정연구원

영통구, 상전벽해의 여정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CONTENTS

제1부
마을 역사를 기억하다

격동의 역사, 그 한가운데를 살다 • 007
마을 역사의 궤적을 따라서 • 037
삼성전자와 빌딩숲 사이에 놓인 말통골 • 085

제2부
마을 공동체의 전통을 잇다

청명단오제를 통한 주민의 화합 • 125
마을의 뿌리를 이어 가는 산드래미향토회 • 163

제3부
마을을 위해 발로 뛰다

오지 마을 영통리 이장의 역할과 일상 • 193
아파트 공동체 대변자에서
시민과 도민의 일꾼으로 • 221
광교신도시 개발 지역 마을
주민들의 대변인 • 253

제4부
이웃과 삶을 함께하다

시집 와 긴 세월을 같이하다 • 285
아주대학교 학생들과 함께하는 생업과 일상 • 309
주민 삶을 여유롭게 만드는 곳,
원천저수지에서 광교호수공원까지 • 355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01 격동의 역사,
그 한가운데를 살다

02 마을 역사의
궤적을 따라서

03 삼성전자와
빌딩숲 사이에 놓인 말통골

제1부

마을 역사를 기억하다

신동 최학종

격동의 역사,
그 한가운데를 살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 일제강점기 식민지 청년의 삶

한국 근현대사의 격동기를 직접 겪은 인물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젊은이들에게 일제강점기나 한국전쟁 시기는 이제 역사책이나 다큐멘터리에서 볼 수 있는 먼 과거의 일들로 치부되고 있다. 우리 주변에서 굵직굵직한 역사적 경험을 하고, 산업화를 겪은 사람들 중에 자신의 경험을 생생하게 풀어낼 수 있는 인물들이 많지 않다.

영통구 신동 신나무실 출신 최학종은 1929년생으로, 만 95세의 고령임에도, 살아온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흔치 않은 분이다. 신나무실은 신성·신안·쌍용·진흥·주공·동보·신명·극동아파트 등이 들어선 곳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수원지사(영통구 매영로 293) 서남쪽 지역에 있었던 마을로, 옛날에는 '장죽' 또는 '신촌'이라고도 하였다. 신동 신나무실

부친 최의교의 회갑잔치에 신리 신나무실 집에 모인 친지들
(1965년, 수원박물관 제공)

은 영통신도시 개발로 이제는 옛 마을 모습을 찾기 어려운 상태이다.[1] 신나무실은 탐진 최씨(耽津 崔氏) 부호군파(副護軍派)가 대대로 살아온 집성촌이다.[2]

최학종은 신나무실의 대성(大姓)인 탐진 최씨 출신이다. 부친인 최의교는 농업에 종사하며, 소를 키우는 평범한 농민이었고, 최학종은 6남매 중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최학종 신나무실, 신동 동산말인데, 거기에 밭이 있었어요. 동네 가운데에. 거기서 잿간, 시골에는 잿간이라고. 거기를 아버지가 담집을 갖다가 거기다가 방을 들여 가지고, 그렇게 세간 난 거야. 정말 어렵게 살았죠. 집안일은 그렇게 어렵지.

최학종은 일제강점기에 태장공립보통학교(현재 태장초등학교)를 다녔는데, 형편이 넉넉지 않아 10세에 입학하여, 해방이 되던 해인 1945년, 17세에 간신히 졸업하였다. 학비가 없어 보통학교 교육을 받기 힘들 만큼 곤궁한 시절이었다.

학교를 졸업하고 1945년 3월 그는 수원비행장 비행기 격납고 공사에 노무자로 동원되었다. 중일전쟁 후 조선인 노동력 수탈을 위해 일제가 강제 연행하여 만든 근로보국대(勤勞報國隊)에 소속된 것이다. 근로보국대는 1941년 '국민근로보국령'에 의해 편성된 것으로 철도·도로·비행장 및 신사의 건립·확장공사에 동원되었다. 각종 직장보국대를 비롯하여 국민학교(지금의 초등학교) 고등과에서 전문학교·중등학교 고학년에 이르는 학도보국대, 형무소 재소자들로 구성된 남방파견보국대 및 농민들로 조직된 강제노역보국대 등이 있었다. 농민보국대의 경우 징용·징발·징병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다시 이에 강제 연행되었다. 근로보국대 형식으로 강제 연행된 조선인의 숫자는 1938~1944년에 762만 명 정도였다.[3]

일제의 1941년 근로보국대 동원 나이와 1941년 노무조정령, 1944년 국민근로보국협력령 규정에서도 노동 제한 나이를 만 14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나이 규정은 낮아져서 1945년 4월에 마련한 국민근로동원령 시행규칙은 남녀 12세 이상이었다.[4] 원래 최학종의 형이 보국대로 연행될 대상이었는데, 그는 이미 영등포 철도국의 기관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집안의 생계를 책임져야 될 장남 대신에 차남인 최학종이 수원비행장 공사에 참여하였다. 그때는 동생들이 형의 신분으로 대신 징병, 징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최학종 한국인 선생님. 학교 졸업 맞고 바로 또 수원비행기장(수원비행장), 수원비행기장을 그때 닦았어. 응, 45년에. (형은) 서울 영등, 영등포에서 기관사까지 했어요. 그래가지고 대전, 대구까지 갔다가 올라올 적에 사과 몇 궤짝 사가지고 오거든. 기관사니까. … 혼자 갔지. 그런데 난 형이. 아버지 젊지, 형이 있지, 나 있으니까. 그걸 내가 학교는 졸업했으니까 열일곱 살이니까. 그때는 학교 졸업하고 그래서, 옷도 형이 이제 철도국에 되니까 철도에서 옷을 주잖아. 그거 옷을 줄여서 입고.

근무보국대 동원 대상자와 실제 복무자가 동일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없었다. 그냥 인원수만 맞으면 바로 노동에 투입되었다. 최학종은 걸어서 비행장의 바깥까지 이동한 후, 노동자들이 숙식을 하도록 임시로 지은 건물인 '함바'에 머물렀다. 바닥에는 멍석을 깔고, 이불 대신 가마니를 덮고 자는 열악한 환경이었다.

최학종 비행장 아니고 바깥에 '함바'라고 있어, '함바'라고. 숙소가 있어가지고, 이불도 없고 멍석 깔아서 거기서. 가마니 같은 것 덮고 자고. 그것도 군대식으로 있어가지고. 내가 그때는 17살이라도 어려, 쪼그맸어. 내가 지금도 쪼그맣지만, 그땐 잘 못 먹어서, 못 먹어서 쪼그맣고 키도 안 자라고. 인원만 맞으면 그냥 가서, 숙소에서 어디 있는 숙소는 어디로 일하러 가라 그래서 가서. 삽질도 쪼그매도 삽질은 하잖아. 길

최학종이 근로보국대로 끌려갔던 수원비행장
(1945년, 국사편찬위원회 제공)

닦는데 거기 가서 하고. … 이렇게, 여기가 산이 있잖아. 산드레미 그 저기로 이렇게 도는 거야. 권선동 지금 사무실이야 이게 임광아파트 있는 데까지 이렇게 해서 그 산을 따라서 빙 돌아. 이쪽이 산이니까 산 쪽으로 하나씩, 하나씩.

그는 비행기를 반정리에 있는 골짜기에 감추기 위해 그곳까지 가는 길을 닦는 공사를 주로 했다. 골짜기마다 그렇게 비행기를 숨겨 놓는 공간이 많이 있었다. 최학종을 비롯하여 이 일을 담당한 사람들이 길을 닦으면, 비행기를 이동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었다. 그들 역시 근로보국대에 강제로 동원된 사람들이었다.

최학종 그 권선로 반정리, 반정리라고 있잖아. 임광아파트로 해서 이렇게 권선도로 산, 산에 이렇게 들어가서 비행기장까지. 이래 가지고 비행기를, 경비행기지 밀고 다니는 거. 그거 갖다 골짜기마다 만들어 놓고서 거기다 그거 갖다가 한 대씩 갖다 놔요.

1945년 3월에 들어갔다가, 4월에 나왔다. 원래는 더 오래 있어야 하는데, 최학중이 워낙 체구가 작고 어려 보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가라고 하여 빨리 귀가하였다. 그래서 실제로 일을 한 기간은 1개월 남짓이었다.

최학종 새벽에 가서 저녁에 저녁 9시나 이렇게 돼가지고 들어가서 밥 먹고, 자는 거지. 근데 하도 쪼그마니까, 먼저 가라고 그러더라고.

근로보국대에서 다녀온 후 집에서 농사를 돕던 최학종은 동흥직물공장에 취업을 하게 되었다. 탐진 최씨의 선산을 관리하던 산지기 박씨가 동흥직물공장에 다니고 있었는데, 일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전해 줘서 지원하였다. 수원에는 선경직물, 선일직물, 수원직물, 동흥직물 등의 직물공장이 있었다. 수원은 대구·강화와 함께 3대 직물도시로 공장 종사자도 많이 있었다. 동흥직물공장은 수원역 부근에 있었다. 전국에서 모여든 여자 직공이 100여 명 규모였는데 기숙사에서 합숙했고, 남자 직공들은 주로 동네 주민들이라 자기 집에서 출퇴근하였다. 다른 직원들은 100원씩 월급을 받았는데, 최학종은 어리고 체격이 작다는 이유로 한 달에 70원씩 받았다. 그는 기계에 기름을 주입하는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다.

최학종 내가 탐진 최씨라고 했잖아. 그게 세류초등학교 앞산이 우리 산이었어. 그런데 그 산 산지기 하는 사람이 박씨인데 그 사람이 동흥직물회사에 다닌 거야. 거기서 동네서 어르신네들이 아버지 그런 분들이, 쉽게 다니고 그랬잖아. 그래서 잘 아니까. "열일곱 살 먹은 아들이 있는데 내 아들 일 그거 좀." 그래서 거기를 갔지 뭐야. 거기도 쪼그마니까 그때는 100원. 100원, 한 달에 100원 저기인데 우리는 쪼그매서 70원인가 이렇게 받아. … 직물공장인데, 직물공장인데 기름 주는 거. 그때는 하도 헤서 그냥 눈 감고도 구멍을 찾았어. 거기서 해방을 맞았지, 해방이 거기서 됐어. 3개월인가, 4개월 다니다가.

일제강점기에 동흥직물공장에서 일하던 여자 직공들 중에 일본에 무진 통신원으로 취업한다는 말에 속아서 일본군 위안부로 가기도 했다고 한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역 부근에 있었던 동흥직물공장(1947년, 수원시 항공사진서비스 제공)

최학종 그때도 저 여자들은, 위문대라고 있어요. 여자들 저 뭐라고 해? 여자들 지금 강제로, 그러니까 위안부라고 그러잖아. 그때 갈 적에 뭐라고 그러냐면. 일본에 가서 무전 통신, 그 무전 통신이 뚜뚜뚜 소리 냈거든. 그래 무전 통신 배우러 취업한다, 그러고서 젊은 여자 데리고 그리로 여자들 많이 갔지.

최학종은 동흥직물공장을 3~4개월 다녔을 때, 동흥직물은 조선직물주식회사에 흡수되었다. 조선직물주식회사는 1932년 안양역 부근에 설립된 부지 4만 1,000평, 건물 9,100평의 인견직 전문생산업체였다. 일제는 태평양 전쟁 말기에 '전시기업정비령'을 공포해 전쟁에 필요한 군수물자를 총동원하기 위해 제조공장들을 재편하였다. 이때 안양에 있던 조선직물주식회사 터는 비행기 제작공장 부지로 전환되고, 조선직물주식회사는 수원의 직물회사를 흡수·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되었다. 동흥직물공장은 조선직물주식회사에 흡수되는 공장에 포함되었고 최학종은 조선직물주식회사 소속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선경직물은 1944년 8월 '전시기업정비령'에 의해 수원의 다른 직물공장들과 함께 조선직물(朝鮮織物)에 흡수됐다. 조선직물은 1934년 경기도 안양에서 설립된 부지 4만 1,000평, 건물 9,100평의 인견직 전문생산업체였다. 수도권에서 가장 규모가 큰 직물공장 중의 하나였지만 안양공장은 일본군용 항공기 제조창으로 징발됐다. 전황이 일본군에 불리하게 돌아가자 조선총독부는 군수시설 확충을 위해 기업 구조조정을 강제했던 것이다. 대신 조선직물은 수원에 산재해 있는 직물공장들을 전부 접수할 수 있었다. 당시 수원에는 선경직물 외에 선일직물공장, 수원직물공장, 동흥직물공장 등 6개 공장이 있었다. 조선직물은 이들 직물공장을 접수함과 동시에 선일직물을 제1공장으로, 선경직물을 제2공장으로 편성했다. … 1945년 8·15 해방과 함께 전국 도처에서 흥분한 군중이 일본인들에 대한 보복을 자행했다. 일본인들의 집에서 재물을 빼앗기도 하고, 자신들이 근무하던 공장 시설들을 부수고 창고를 털어가는 사례가 빈발했다. 최종건은 서둘러 선경치안대를 조직하고 직기 100여 대와 원재료 사수에 돌입했다. 대부분의 공장 직원들이 최종건의 지시를 순순히 따라준 덕분에 선경직물에서는 불상사가 없었다. 선경 공장은 경인 지방에서 제반 시설이 온전히 보전된 유일한 사례였다.[5]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2. 분단과 한국전쟁의 소용돌이

최학종은 조선직물주식회사로 바뀐 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해방을 맞았다. 해방이 되자 일제강점기에 교육을 받았던 그는 일본글만 알았지, 한글을 모르는 상태였다. 그래서 수원향교 야간반과 세류초등학교 주말반에서 틈틈이 한글을 배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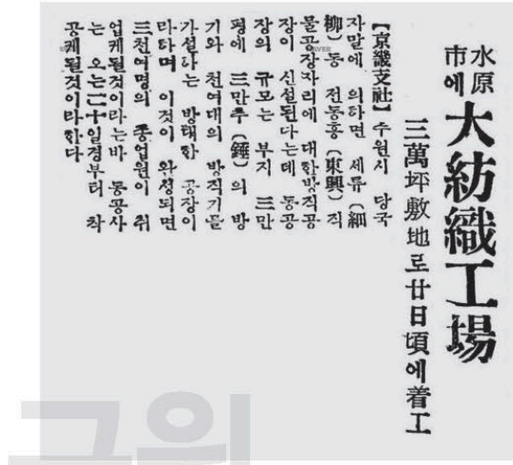
최학종 해방되고서 그때는 일본의 일본글만 알았지, 우리나라 글을 모르잖아. 왜정 때 졸업해서 왜놈 말만 배우고, 그래서 못 했지. 그런데 하도 배움이 저거 해서, 야간. 밤에 이제 지금 수원향교에, 야간 나가고. 주간에 노는 날이면 세류초등학교 가서 한글 배우고. 그리고 밤에는 야간학교.

해방이 된 후 수원역 앞에 노동조합사무소가 생겼다. 노동자들은 단체로 자동 가입되었다. 사회주의사상을 가진 이들이 주요 구성원인 이른바 적색노조의 성격을 띠고 있었고, 인민군들이 부르는 노래도 배웠다. 노조 활동가들은 공장에서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파업투쟁을 부추겼다. 조합원들은 혹시 훗날 문제가 생길까 봐 조합원 명단을 빼내어 소각시켜 버렸다.

최학종 '갈 테면 가라', 인민군 노래 있잖아. 그런 것도 배우고 그랬지. …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중에는 안 된다, 그 노동조합은 적색분자니까. 그러니까 거기 명단까지 다 빼가지고 다 소각시켰잖아. 우리가.

적산기업에 해당되는 조선직물주식회사는 해방 후 불하되었는데, 동흥직물공장이 있었던 부지에는 설경동의 대한방직이 신설되었다.

「수원시에 대(大) 방직공장」[6]
수원시 당국자 말에 의하면 세류동 전 동흥직물 공장 자리에 대한방직공장이 신설된다는데 동 공장의 규모는 부지 3만 평에 3만 추의 방기와 천여 대의 방직기를 가설하는 방대한 공장이라 하며 이것이 완성되면 3천여 명의 종업원이 취업케 될 것이라는바 동 공사는 오는 20일경부터 착공케 될 것이라 한다.


水原市에 大紡織工場
三萬坪敷地로 廿日頃에着工
【京畿支社】수원시 당국자말에 의하면 세류(細柳)동 전동흥(東興)직물공장자리에 대한방직공장이 신설된다는데 동공장의 규모는 부지 三만평에 三만추(錘)의 방기와 천여대의 방직기를 가설하는 방대한 공장이 타타며 이것이 완성되면 三천여명의 종업원이 취업케될것이라는바 동공사는 오는二十일경부터 착공케될것이라한다

동흥직물공장 터에 대한방직공장 신설
(『조선일보』 1954년 2월 20일)

최학종은 전쟁 전에 입대하여 인천 부평의 육군 조병창, 군대 군수품 제조공장에서 3개월간 훈련을 받았다. 당시 부평의 부대는 미군이 고문관으로 있었고, 나머지는 다 한국인들이었다. 최학종은 이때 탄약에 대한 공부도 하고, 운전도 익혔다.

최학종 처음에는 탄약부대라고, 탄약 창고가 있는데 탄약을 개조도 하고, 청소도 하고, 개수 싸인도 받기도 하고, 탄약 공부도 하고. 아, 그게 참. 미국이 고문관으로 와 있지. 고문관만 미군이고, 다 우리나라 사람들. 기술자도 우리나라 기술이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탄약 만드는 저 공장에 그 사람들이. 하여튼 그때 기술도 많이 배웠지만, 차도 그때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도 운전도 좀 하고. 탄약. 탄약을 새로 만들고, 빼서 다시 끼우고, 조립하고. 이런 거를 전부 우리 손으로 하는 거지.

1950년 6월 24일 토요일,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외출해서 서울 오류동에 있는 막내 작은아버지 집에 머무르고 있었다. 휴일에는 부대원의 1/5만 남기고, 4/5는 외출을 내보내어 각자 휴식을 취하게 했기 때문이다. 다음 날인 일요일 아침에는 동네에서 동생과 한가로이 산책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군인들이 차를 몰고 오면서 "전쟁이 났다!" "빨리 뛰어 들어가라!"고 하였다.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한국전쟁이 발발했던 것이다.

최학종 토요일 날 전부 외출 갔잖아. 그때는 특별히 근무자 외에는 전원 외출이야. 왜냐면 먹을 것도 없고, 쌀도 없고 이러니까. 그래서 내보내라고 막. 그날 저녁에 점심 먹고, 외출 내보내고, 저녁. 점심, 저녁 일요일 아침, 점심, 저녁 이거 이걸 아예 안 하는 거야. 그러니 오 분의 일, 오 분의 일만 고생해서 뭐 나오지, 사는 전부 외출해서 먹어라, 이거야. … 일요일에 가서 집에 수원 여기 와도 별로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그냥 거기 가서 저녁 얻어먹고, 아침 먹고. 아침 일요일 날 아침에 일어나서, 일어나서 동생하고 산책 가는데 차가. 그 오류동 고개 넘어오는 그 고개, 거기에 우리 부대 차가 쭉 온단 말이야. 그래 '이상하다' 하고 뛰어 내려가니까. 우리 군인들이 "빨리 뛰어 들어가라!"고, "지금 전쟁 났다!"고. 그래 바로 집에 가. 그때 6·25전쟁 났으니까 빨리 부대 들어가래서. 나오니까 길옆에 헌병이, 이 헌병이 헌병차를 세우더니 그거 "타고 가라!" 이거여. 그래 택시 타고 부대 들어 가가지고. 부대 들어가니까 문 전부 가리고 있어. 밤에 밤새도록 문 가리고 암흑 속에서. 그때

第3124號

共匪討伐記章授與證

所屬

階級

姓名

檀紀 42　年　月　日生

上記共匪討伐記章을授與함

檀紀 4286年 6月 25日

國防部長官

공비토벌기장수여증(수원박물관 제공)

第317805號

六.二五事變從軍記章授與證

所屬

姓名

檀紀 4267年　月 3日生

上記六.二五事變從軍記章을授與함

檀紀 4286年 6月 25日

國防部長官

國防部樣式 100—78. 4285.11.25. 031×021

6.25사변종군기장수여증(수원박물관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953년 군 복무 시절(수원박물관 제공)

도 문을 벌써 다 가리고 있어. 아침에 가니까. 새로 총 같은 것도 기름을, 기름 쳐서. 전부 기름에다가 구리스 있잖아, 구리스라고 그거 담아서 보관하는 거지. 새로 그거 닦고 이러고서. 캐리바 50이라고 기관총. 캐리바 50(중기관총) 그거 1조가 4명인가, 5명이 한 조예요, 그게. 그거 부속 하나씩 메고서 산에 올라가서 대공 사격, 대공 사격 했지. 그런데 벌써 인민군 비행기도 머리 위로 쭉쭉 지나가는 거야. 금방 쏘면 금방 맞을 것 같아. 그래도 절대 쏘지 말라고. 왜 그러냐면 거기서 쏘면 표적이라 이거야. 벌써 적이 군인이 있다는 거 아니까, 거기로 폭탄 터트리니까 일절 하지 말라고. 그래 머리 위로 휙휙 지나가도 꼼짝 못하고 겨누고 있었지. 발사 명령 날 때까지.

군에 복귀하자마자 부대는 탄약을 화물기차에 싣고, 경부선 철도를 따라 수원을 거쳐 오산 → 평택 → 대전 → 경산 → 영천으로 이동하였다. 탄약을 옮기며 지켜야 했기에 도보가 아닌 기차를 타고 다녔는데, 가는 길에 비행기 폭격이 있었다. 폭격이 시작되면 군인들은 기차에서 내려서 논에 숨어 있거나 물속에 들어가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사망하였다. 다행이 최학종과 같은 부대원 중에는 희생된 이가 별로 없었다.

최학종 그때 올라갔다가 내려가니까, 다 후퇴하고 없으니까. 쫓아가서 빨리 후퇴하라고. 그때 기계만 떼어 가지고 가고 탄약 뭐 이런 건 전부 땅에다 묻어 두고. … 그다음에 부대에서 저, 탄약고가 그때도 음 공군, 공군본부인가. 거기 있잖아요, 거기 시흥에. 거기에 탄약고가 있었어. 탄약고를 지키고 거기 가서 보초 서고 그랬지. … 우리도 차에 탄약 지키느라고 우리는 기차 타고 다니잖아. 그때 막 내려가지고 이게 팍 폭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1955년 군 복무 시절(수원박물관 제공)

격하는데, 논에 가서 물속에 들어가서 숨기도 하고.

그의 부대는 남쪽으로 내려가 경북 영천에서 주둔하였다. 부대에서 미군 고문관의 당번이 되어 간단한 영어와 손짓 발짓을 하며, 요리 보조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950년 입대하여 1955년 제대하였다. 전시에 3년가량 복무하고 비전시 기간에 2년 2개월간 복무하였다. 전쟁 시기에는 복무기간을 세 배로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그는 총 11년 2개월에 해당하는 급료를 받았다.

최학종 군대 3년. 3년 딱 저기 있다가. 그런데 그때는 군대 3년, 3년이면 급료를 지급해, 소급해서, 소급해서. 그래 11년 2개월 한 거야. 군대 생활을. 또 뭐 전부 해서 한 5년 있었는데. 그런데 3년씩 치니까. 3년도, 50년부터 53년 3년간 전쟁했잖아. 그거는 삼 곱을 해줘.

3. 수원형무소를 신축하다

최학종은 제대하여 집으로 돌아온 후,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가져서 생계를 유지할지 고민하였다. 마침 그때 교도관 시험이 있었다. 교도관은 교정시설인 교도소와 구치소에서 수용자를 관리, 감독하고 교정과 교화를 담당하는 역할을 한다. 그는 영어와 수학 시험을 보고, 합격하였다. 영어는 미군하고 합동작전을 하면서 익혔고, 수학은 군대에서 탄약을 세느라 셈이 빨랐다. 1955년 서울 서대문 병기학교에서 3개월 훈련을 받았던 최학종은 제식 훈련을 면제받았고, 감시 초소를 지키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수원형무소에 자리가 없어서 춘천으로 발령을 받고, 근무는 수원에서 했다.

최학종 서대문 거기에 이제 병기학교(兵器學校)가 있었어요. 군대, 군대학교. 가니까는 나는 '상사로 제대한 사람이 왜 거기를 그만하냐.' 일등상사로 제대했지. 그때는 제대하면 그냥 소위 달아서 제대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상사로 제대했어. 그래서 집에 가니까 그래도 상사를 했으니까 한 500명씩 내가 데리고 교육도 시키고, 탄약 교육도 시키고, 훈련도 시키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똑똑하지. 또릿또릿하고. "그러니까 너는 교도관을, 교도관이나, 경찰이나 군인들 군속 이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1956년 4월 24일 수원형무소 신축 정지공사 기공식(김창현 제공)

1956년 6월 1일 수원형무소 신축 정지공사 현장(김창현 제공)

수원학연구센터

런 거밖에 못 하겠다."라고. 농사를 알아? 뭐 알아! 그래서 그때부터 교도관 시험을 봐서 교도관 시험도 그때는 영어하고 수학이 있었어. 경찰은 영어, 수학이 없거든. 경찰이 그래. 근데 우리는 영어 시험, 저 수학이 있었어. 그래 수학은 군대서 탄약 세느라고 수학을 배우고, 영어는 미군하고 합동작전 하니까 대강 영어는 하고. 이래서 다행히 교도관이 된 거야.

1948년 7월 17일 정부 수립과 동시에 법무부가 설치되었으며, 11월 4일 법무부 행정국 아래 감사과·형무과·작업과·보호과·교육과·후생과 등 6개 과가 조직되었다. 1949년 부천형무소와 영등포형무소가 신설되었고, 1950년 형정국의 6개 과가 형무과·자재과·교화보건과로 통합 개편되었다. 1954년 영등포형무소가 폐지되고 수원형무소가 신설되었다.[7]

수원형무소 자리는 일제시기부터 서대문형무소 수원농장으로 사용되었고 1947년에 100명가량의 수감자가 있었다. 최학종은 1955년 수원형무소로

와서, 형무소 신축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복숭아밭과 구릉지를 정지한 후 형무소 시설을 축조하였다. 그는 신나무실 집에서 출퇴근하며 1년간 건축 작업에 투입되었다.

최학종 거기 수원교도소, 지금 월드메르디앙인가? 거기 전부 산이야, 산. 복숭아밭. 그거 밀고 터 차로 밀고서 그거. 처음에 그걸 시작해가지고 지을 때까지 내가 한 거야. 그때는 이 수원교도소가 그러니까 지도 저기 있잖아. 뭐라 그래, 그걸. 건축, 건축 도면. 그게 수원교도소는 '모범교도소'라고 해가지고 독일에서 만들어서 받아가지고 그걸. 그 도면. 그거를 다른 사람 볼 줄 몰라. 난 군대서 상사로 있었으니까 많이 그런 것도 해보고. 그러니까. 내가 기사, 사를 가르친 거야.

1954년 수원형무소는 모범교소도로 선정되어 독일의 원조를 받아 교도소 시설을 신축하였다. 선진국가의 중간형무소를 본떠 마련했고, 수세식 변소와 스팀식 난방장치도 마련하였다. 창살이 아닌 유리창 시설을 만드는 등 당시 여러 형무소 중 시설과 운영 등이 모두 뛰어난 수준이었다. 성실한 모범 죄수 위주로 수용하여, 이들이 형기를 마친 후 사회에 순조롭게 복귀하도록 했다.

「수원에 모범형무소, 수세식 변소와 난방장치도 시설」[8]

행형 당국에서는 방금 수원에 모범적 형무소를 신설할 계획을 예의 추진 중에 있다. 이 형무소 신설계획에 관해서는 이미 F.O.A 자금으로 45만 "딸라"의 배정도 받았다고 하며 그중 30만 "딸라"는 형무소 내 작업장의 기계 시설 등에 사용하고자 배당하고 그 설계도 등 준비를 진행 중에 있다고 한다. 이 모범 형무소는 특히 지난번 신형정 국장이 구미 각국의 형무소 실정을 시찰하고 돌아온 경험을 살리어 감방에 수세식 변소와 "스팀" 등 난방장치까지도 설치하는 한편 감방 건물도 세 가지가량으로 구분하여 여감방과 잔여 형기가 얼마 남지 않은 죄수들의 감방 과오를 뉘우치고 성실한 모범 죄수의 감방으로 분리하고 자치제를 실시케 할 뿐 아니라 더욱 흡연까지도 용허케 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리하여 전국 형무소 재감자중 모범적 죄수를 수용하여 재감 중에도 인권을 극도로 존중할 것은 물론 한편으로는 일반 죄수들에게 하나의 자극을 주어 그들의 개과천선을 촉구하는 데에 기여코자 하는 것이라고 한다.

「모범수들 수용」[9]

모범수들이 사회에 나서기에 앞서 영어생활을 맺게 될 수원형무소가 5년 1개월 만에 완공을 보아 3일 상오 11시를 기하여 준공식을 거행하였다. 이날 식전에는 고원증 법무부 장관이 「테푸」를 끊었다. 이 창살 없는 형무소는 선

수원교도소 재직시절(1980년, 수원박물관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GIONAL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법무연수원 재직시절(1975년, 수원박물관 제공)

> 진 국가의 중간형무소를 본떠 마련한 것이다. 2천여 명의 모범수를 수용할 이 형무소는 총부지 3만 9천 450평에 건평이 8천 5백 87평으로 총공사비 69만 「달라」의 「ICA」원조 자금과 환화 3억 9천 7백여 만 환이 소비되었다. … 재래식 감옥은 15척 붉은 벽돌담을 쌓아서 격세감을 주고 있는데 이곳은 회색 9척 담이 쳐졌을 뿐이고 철창이 아니고 양지 지른 깨끗한 유리창이 달려 있다.

형무소 안에 무도장이 있어서, 교도관들은 검도, 궁도, 유도 훈련을 하였다. 퇴직한 지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전직 교도관들은 상당 기간 모임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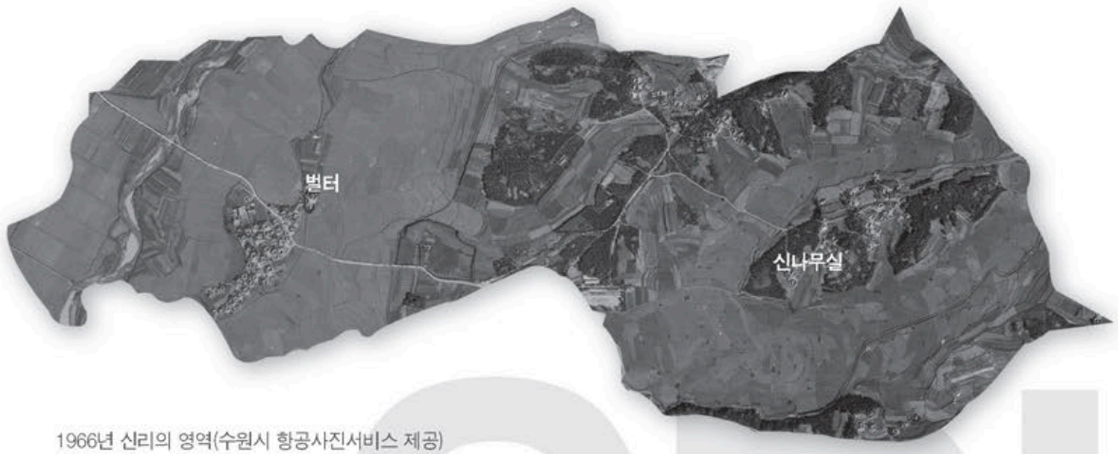
4. 신동에 부는 변화의 바람

신리는 수원시로 편입되기 전에 화성군에 속해 있었는데, 신나무실(신1리)과 벌터(신2리)로 나뉘어 있었다. 1969년 설립된 삼성전자공업주식회사는 신리와 매탄리, 원천리 일대에 토지를 매입하여 공장을 설립하였다. 이어 1975년에 화성군 태안읍 신리 319번지 일원에 삼성전자, 신리 454-1번지 일원에 삼성코닝의 공업용지가 조성되었고 1987년에 신리 368번지 일원에 추가로 삼성전자의 공업용지가 조성되었다. 또한 1970~1980년대 신리 지역에는 30~40개의 중소 사업장이 들어섰다.

이렇듯 신리에 삼성전자와 그 하청업체들이 설립되면서 사업체 종사자 등 외지인의 유입이 급증하였고, 농경지를 판 후에 공장에 취업하는 주민도 늘어 갔다. 1976년 신리의 가구수는 70여 호였고, 1990년대에 이르러 100여 호로 증가하였으며, 세대수로는 300여 세대에 이르렀다고 한다.[10] 이렇듯 외지인의 유입과 새로운 경제 경험은 전통적인 동족마을인 신리의 강한 결속력과 유대감을 느슨하게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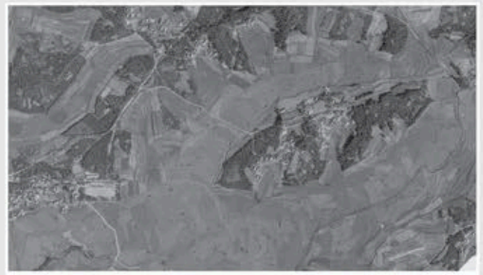
신리 벌터 북쪽은 1970년대부터 공업지역으로 변화하였던 데 비해, 신나무실은 1990년대 중반에 택지로 개발되었다.[11] 영통 택지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신리와 영통리는 1994년 수원시에 편입되었고, 각각 신동과 영통동으로 변경되었다. 보상은 이미 1993년부터 추진되었고, 이때 영통동과 신동 주민들이 개발에 따른 보상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주민대책위원회를 조직하였다. 당시 보상은 평당 15만 원에서 60여 만 원에 이루어졌다. 영통동 토박이들은 개발계획이 발표될 무렵 외지인들에게 땅을 매도한 경우가 많았던 데 비해, 신동 주민들은 대체로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 이에 신동 주민들은 영통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이후 다시 돌아와 정착한 경우가 많았다. 하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966년 신리의 영역(수원시 항공사진서비스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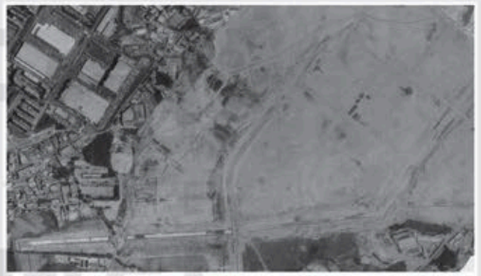
2022년 매탄동·영통동·신동·권선동으로 나누어진 신동
(수원시 항공사진서비스 제공)



1966년 신리 신나무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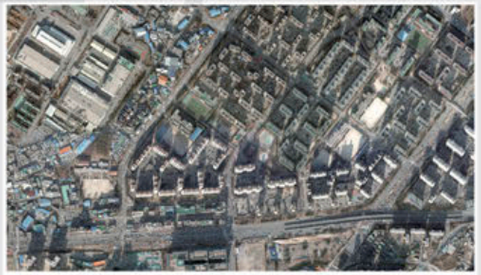
1985년 삼성전자 공장 지역 확대

1990년 삼성전자 공장과 신나무실



1995년 영통 택지개발로 사라진 신나무실

2000년 아파트 단지 건설



2009년 영통동 신나무실

신나무실의 변화
(수원시 항공사진서비스 제공)

SRI 수원학연구센터
SUWON RESEARCH INSTITUTE

2023년 영통동 신나무실(김승일 제공)

지만 개발과 행정구역 변경을 거치면서 신동(법정동)은 네 지역으로 나뉘었다. 삼성전자가 들어선 벌터 북쪽은 매탄동(매탄3동)으로, 신나무실은 영통동으로 각각 편제되었고, 벌터 마을 일대는 신동과 권선동으로 나뉘었다.

한편 최학종은 퇴직 후, 경기도 궁도회 활동, 심곡서원 고문, 6·25참전동지회 고문 등을 역임했고, 각종 문화행사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였다. 또 수원의 역사와 문화재에 대해 꾸준히 공부하고, 이를 주민들에게 알리는 데 열정적으로 임하였다. 최학종을 비롯한 신동 탐진 최씨들은 개인이 소장하고 있던 사진과 각종 물품, 종중에서 소장하던 청동수저 및 조선통보 등의 묘부장품 등 유물을 수원박물관에 기증함으로써 수원 지역학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최학종은 95세의 나이에도 문화유산해설사로서 신분을 유지하면서 외출할 때 국가유공자 마크가 그려진 모자, 문화유산해설사 조끼를 착용하고 다닌다. 그는 10대 소년시절부터 강제동원과 공장 취업을 하며 일찍이 어른의 세계로 접어들었고, 한국전쟁에 참전하여 폭격과 전우들의 사망을 겪으며 살아남았다. 한평생 성실히 살아온 삶을 통해 지역 사회와 국가 발전에 이바지했음에 자긍심을 갖고 있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 수원시, 『수원의 지명과 도로명 송람』, 2015, 475쪽.
2. 김세영, 『수원의 동족마을』, 수원시, 2006, 271쪽.
3. 다음백과사전(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b03g4554a).
4. 『직썰』 2023년 10월 21일(https://www.ziksir.com/news/articleView.html?idxno=9347).
5. 「[월간중앙 특별기획시리즈] 다시 기업가 정신이다-한국 경제의 개척자들(9) 최종건·최종헌 SK그룹 창업회장 上」, 『월간중앙』 2023년 9호(2023.8.17.).
6. 「수원시에 대방직공장(大紡織工場)」, 『조선일보』 1954년 2월 20일
7. 다음백과사전(https://100.daum.net/encyclopedia/v).
8. 「수원에 모범형무소」, 『동아일보』 1954년 12월 15일.
9. 「모범수들 수용」, 『동아일보』 1961년 11월 1일.
10. 김세영, 『수원의 동족마을』, 수원시, 2006, 286쪽.
11. 김세영, 『수원의 동족마을』, 수원시, 2006, 313쪽.

매탄동 진덕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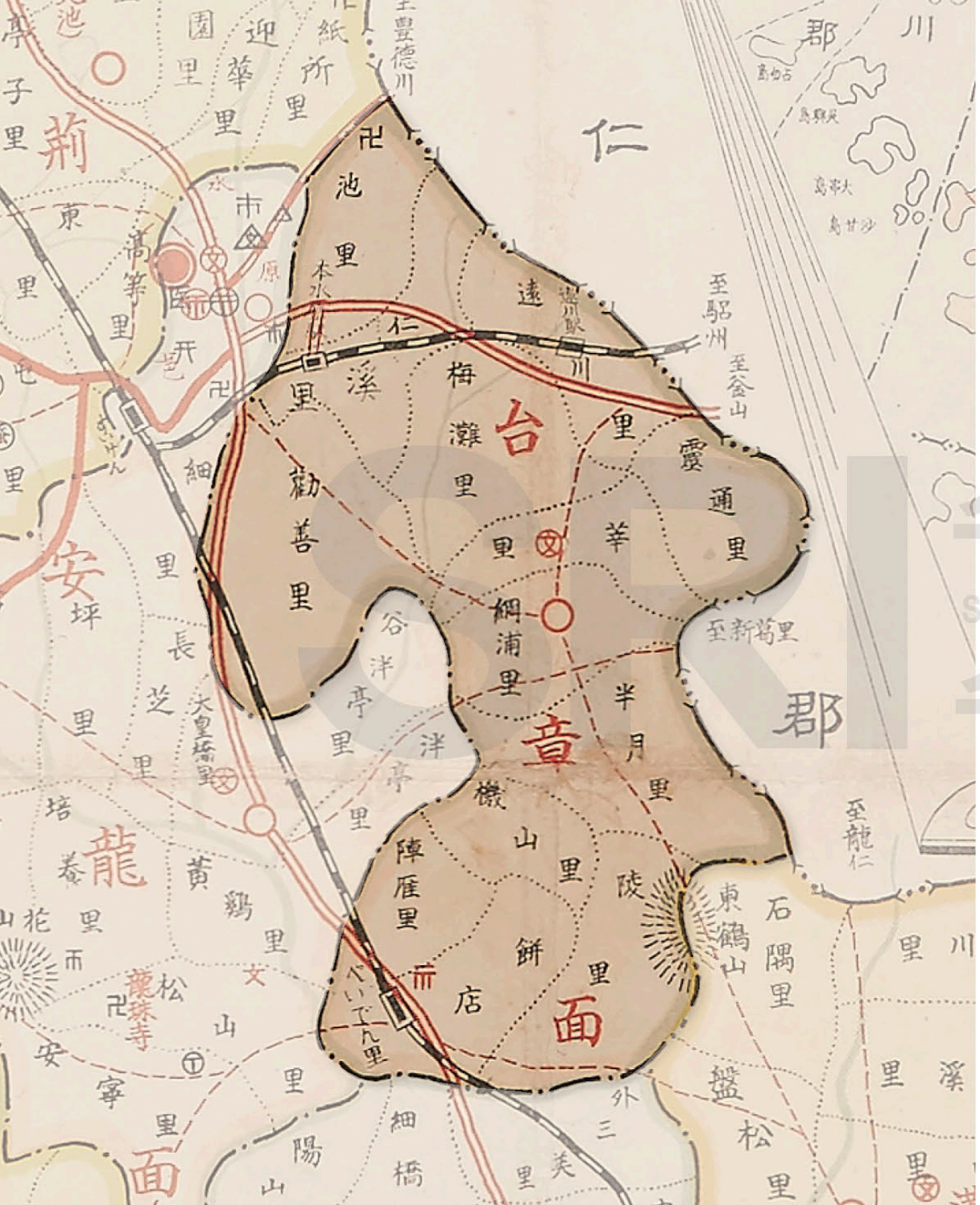
마을 역사의 궤적을 따라서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 내 고향, 산드래미

한 지역에서 대대로 살아온 마을 토박이, 50~60년 이상 동네에 머물고 있는 터줏대감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이다. 한국전쟁 이후 전통적인 촌락공동체가 해체되고, 1960~1970년대 도시화·산업화로 이촌향도가 급격히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수원 영통구 지역은 이농 현상과 인구 이동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마을이 크게 변화된 곳이다. 특히 매탄동은 1970년대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의 건립과 1990년대 대규모 택지개발로 마을이 해체되고, 토박이들이 대거 이주한 지역 중 하나이다.

이러한 매탄동에서 진덕용은 마을의 살아있는 역사이자, 이야기꾼으로서 귀중한 인물이다. 요즘 세태에서 마을 역사에 대해 해박한 어른을 만나 지역에 대한 다양한 사건과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는 그리



일제시기 산드래미(산남리)와 농경지

많지 않다. 진덕용은 1934년생으로, 이제 90대에 접어들었다. 최근 평균 수명이 크게 올라갔다고 하지만, 이처럼 고령의 나이에 기억력이 뚜렷하고 지나온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인물이 많지 않다. 그는 매탄동에서 겪은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개발과 도시화에 대해 세세하게 기억하고 해박한 지식을 보여 줬다.

부친 진수철과 모친 임숙연(진덕용 제공)

진덕용은 8대째 매탄동에 거주하는 토박이이다. 보통 한 지역에서 3대째 이상 대대로 거주하는 사람들을 토박이라고 일컫는데, 산업화와 택지개발 때문에 요즘은 토박이가 많이 감소한 추세이다. 진덕용은 진수철의 오남매 중 둘째로 출생하였다. 그가 출생하여 거주하고 있는 곳은 매탄4동에 해당한다. 이곳은 삼성전자를 배후로 한 인구 밀집지역으로 대단위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들어선 주거지역이다. 매탄4동에서도 진덕용이 사는 곳은 옛날 지명으로 '산드래미 마을'로 불렸다. 마을이 산을 둘러싸고 형성되어 '산둘레미'라는 이름으로 부르다가, '산둘레미'라는 이름이 발음하기 편하지 않아 '산드래미'로 바뀌었다고 한다. 요즘도 동네 토박이와 오래 거주한 노인들은 '산드래미'라고 부른다.

진덕용이 살았던 산드래미 고향 집(진덕용 제공)

진덕용 논밭이었고. 산드래미가 왜 산드래미냐 하면은, 이 동네가 그냥 야산이지, 저 광교에서 이 줄기가 내려와 가지고, 산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서 '산둘레미'. 산을 동네가 이렇게 돌려줘서 집을 짓고, 여기 산이지, 이 '산둘레미'인데 발음하기 나쁘니까 이제 '산드래미'라고, 산드래미가 되고 이제 수백 년, 수십 년을 이어온 거예요.

산드래미 마을은 논농사와 밭농사를 짓던 평범한 농촌으로, 총 100가구 정도 거주하였다. 송씨, 진씨, 유씨의 숫자가 많고, 최씨, 양씨, 이씨, 김씨도 있었다. 진덕용은 여양 진씨(驪陽 陳氏)로, 여양 진씨는 총 15가구 정도 살았는데, 현재는 다른 동네로 많이 이주한 상태이다. 마을은 웃말(윗마을), 아랫말(아랫마을), 마루터 등 3개 마을이 있었는데, 현재 진덕용의 자택이 위치하고 있는 매탄4동행정복지센터 부근은 지대가 가장 높아 마루터에 해당되었다. 매탄4동행정복지센터 옆 지상주차장 자리는 일제시기에 주막이 있던 자리였다. 산드래미 마을의 어린이들은 원천에서 친구들과 함께 물고기를 잡고, 산에서 칡뿌리를 캐 먹거나, 송기(소나무 속껍질)를 먹고, 참외서리를 하기도 했다. 집성촌 마을이다 보니, 일반적으로 같은 집안 아이들끼리 많이 뭉쳐 놀았다.

2. 일제 식민지 경험과 한국전쟁 시 학도의용대 훈련

일제강점기에 산드래미 마을에도 일본 순사들이 들어왔다. 한 달에 두 번씩 위생 검사라는 이름으로 외양간, 화장실, 부엌 등 세 군데를 확인하였는데,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남녀노소를 불문하여 따귀를 맞았다. 마을 주민들은 놋그릇과 수저를 모두 빼앗겼기에, 대나무로 만든 젓가락과 숟가락을 사용하였다. 일제의 공출을 피하기 위해 땅에 구덩이를 파서 식량과 물건을 숨겨 놓기도 했는데, 순사들은 이를 찾아내고자 꼬챙이로 땅을 찌르며 다녔고, 걸리면 물건을 빼앗고 심하게 매질하였다. 태평양전쟁 때 주민들은 새끼, 거적, 가마니 같은 군수용품을 만들어야 했고,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한겨울에 옷을 모두 벗겨 무릎을 꿇리는 수모를 겪었다. 일본 순사들이 마을

일장기가 걸려 있는 태장공립보통학교 운동회(1922년, 수원박물관 제공)

지주 등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함부로 하지 못했고, 일부 주민들은 어쩔 수 없이 친일파 역할을 하기도 했다.

공회당에 산드래미 주민들의 공용 물품인 농기구, 가마, 농악기구, 놀이기구 등을 보관하였다. 진덕용의 형인 진태용과 문종구 등 서너 명의 청년이 이곳에서 야학을 열었다. 야학에서는 주로 한글을 가르쳤고, 15~18세의 소녀들 10여 명이 참여하였다. 일본 경찰들이 이를 알고, 공회당 건물에 불을 지르는 바람에 공회당이 불 타 없어지면서 마을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던 물품들도 모두 소실되었다. 다행히 당시 죽거나 다친 사람은 없었다. 형 진태용은 순사들에게 쫓겨 춘천으로 도망간 후, 그곳에 있던 수력발전소에서 일하였다. 당시 진덕용의 연령이 7~8세였다고 하니, 1941~1942년쯤이었다.

진덕용 내가 어렸을 때 없어졌는데, 그건 왜 없어졌느냐 하면은, 이유가 있어요. 제정 때, 거기서 젊은 사람들이 야학을 했어요. 야학을 했는데, 우리 한글을 가르쳤다고. 한글을 가르쳤는데 그 선생이, 저 선생은 아니지. 우리 형님, 그 세 사람인가, 네 사람이 돌려가면서 한글을 가르쳤다고. 한글. 그럼 이제 밤에만. 그런데 이 일본 놈들이 그걸 알고 가르치지 말라고. 그래 자꾸 먼저 가르치지 그래가지고 거기다 불을 놨어. 일본 사람들이 경찰서에서 나와 가지고 경찰서에 나와서 불을 질러 가지고 홀랑 탔어요. 해방되기 전에 간, 우리 형님이 좀 그래 가지고 저기, 저 어디 갔느냐 하면은 춘천발전소 가신 거예요. 쫓겨 가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아마 일곱, 여덟 살 때. … 많이 놀랐지요. … 어린 애들은 없고. 여자들이 많았는데. 여자들이 한 15살, 17살, 18살 그 정도요. 가르치는데. 이제 동네에서 그 처녀들이 한두 명은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 이제 거기서 이제 하나하나 앉아 가지고 밤이면 내가 보기에는 한 열 몇 명 정도 공부했다고.

태장공립국민학교 시절(진덕용 제공)

마을의 청년들 중 징용이나 징병으로 끌려간 이들은 꽤 많았다. 정신대로 끌려간 간 여성은 없었으나, 진덕용의 누이가 16~17세쯤 동흥직물공장에 일하러 갔었다.

진덕용은 태장공립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수원공립농림학교에 진학하였다. 집에서 학교까지 걸어서 1시간가량 걸렸는데, 일본 나막신인 게다(げた)를 신고 뛰어 다녔다. 일제강점기 산드래미 마을 인근 학교의 교사는 일본인

SRI 수원학연구센터 SUWON RESEARCH INSTITUTE

이 많았는데, 해방되면서 한국인으로 바뀌게 되었다. 진덕용이 초등학교 4학년 때 고개를 넘어 귀가하는데, 마을 사람들이 "만세를 부르고 야단났다."고 했다. 자전거포에 있는 라디오 앞에 주민들이 모여서 일본 천황이 항복하는 뉴스를 듣고, 광복을 맞이한 걸 알게 되었다. 해방이 되면서 일본인들이 한국을 떠날 때 주민들과 큰 분규 없이 조용히 나갔다.

진덕용 저기 뭐야, 여기 고개요, 이렇게 오니까 만세 부르고 야단났더라고. 그래서 "야! 이제 해방이 이렇구나!" 그랬고, 이제 거기 자전거포 거기 들으니까는 일본 천황이 항복을 하는 뉴스가 나오더라고. 일본 말로.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거기 한 데 모여서 들었지. 그때가 해방된 걸 알았다고.

수탈과 감시가 횡행하던 일제강점기를 버티어 내고, 해방을 맞이한 지 5년 만에 한국전쟁이 발발하였다. 수원은 수원화성, 관공서 건물, 성당, 주택 등이 파괴되는 등 전쟁의 참상을 겪었다. 산드래미 마을은 도심의 중심가가 아니라 다소 외진 마을이었기에, 폭격당한 곳도 없고, 큰 피해 없이 전쟁 시기를 넘길 수 있었다. 그러나 수원공립농림학교에 다니던 17세의 진덕용은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전쟁이 일어난 지 하루 뒤인 1950년 6월 26일 10시를 기하여 문교부는 서울 이북 지역의 초등학교에 임시휴교령을 내렸고, 중등학교 이상에 대해서는 학교장의 재량에 의해 휴교가 가능하게 하였다. 전세가 위급해지자, 6월 29일 수원에서 학생들의 자발적인 모임을 통해 '비상학도대'가 발족했는데, 이것이 학도의용군의 기원이 되었다. 이날 국방부 정훈국의 후원으로 수원성냥공장에서 조직된 비상학도대는 정훈국장 명의의 신분증을 발급

1950년 6월 21일 수원공립농림학교에 재학 중인 진덕용(진덕용 제공)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받았으며, 3개 소대로 편성되었다. 이들은 노량진전투와 안양전투에 참가하였다.

그러나 7월 4일, 수원도 함락되자 비상학도대 대원들도 후퇴하는 국군을 따라 후퇴하여 남하하게 되었다. 정부를 따라 남하한 학생들은 대전에서 국방부정훈군의 지도 아래 '의용학도대'를 조직하였다. 그러나 또다시 전세가 악화되자 이들도 대구로 이동하였다. 비상학도대와 의용학도대는 대구에서 통합하여 7월 19일 대한학도의용대로 개편하였고, 이에 소속된 학생들은 '학도의용군'으로 출정한다. 이들은 낙동강, 다부동, 기계, 안강, 영천, 포항, 창녕 등 주요 전투에 참전하였다.

진덕용은 1950년 11월 28일, 국방부 정훈국 학도의용대 제1기 훈련생으로 입소하였다. 훈련은 팔달산에 있던 남창초등학교에서 받았고, 숙식은 화성행궁 근처 김동욱내과였다. 김동욱내과는 일대 병원 중 가장 규모가 컸으며, 당시 학도병 120여 명이 합숙하였다. 지원병들은 숟가락, 젓가락, 그릇, 이불, 요 등을 각자 집에서 챙겨서 입소하였다. 밥, 김치, 국 등으로 구성된 간단한 식사가 제공되었다.

진덕용 전부 학생들이에요. 지원병이에요. 수원서 서울로 통학하는 학생, 삼일중학교. 전시를 나가라고 그랬는데. 국방부 학도의용대, 제가 1기생이요. 그때가 4283년 11월 28일이니까 1950년도 … 어디서 훈련을 받았냐면 수원 팔달로 거기엔 저 김동욱내과가 있었어요. 그 병원 중에 거기가 제일 컸어요. 지금 어디냐 하면, 저기요, 저기 수원에 화룡장인가? 저 종로 옆에 큰 광장 만들어 놓고, 거기서 행사를 많이 했어요. 훈련은 한 달 반밖에 안 받았어요. 그때 팔달산에서 받았어요. 남창국민학교 거기서. … 그때 합숙 훈련을 했으니까 수원 김동욱내과 거기서 먹고 자고. (학도의용대 규모가) 120명인가? 120명이에요. 그때 이제 자진해 가지고 숟가락 하나, 젓가락 하나, 그릇 두 개, 또 이불, 요. 그건 자기가 각각 가져가지. 그거 깔고, 이제 입을, 얇은, 덮고. 각자 이제 가져갔다고. 그 가지고 이제 훈련을 받는데. … 어디냐 하면은 수원 종로교회 아시오? 그 앞에 크게 운동장 만들어 놓고. 그때 먹는 거, 뭐 밥, 김치, 국하고. 그 세 가지 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훈련을 어떻게 받느냐 하면은, 아침 일찍 거기서 이제 저기 모여 가지고 거기서 잠자고, 자고, 먹고.

훈련은 늦가을에 시작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옷통을 벗고 화서동 서호저수지까지 달려 갔다. 수원극장까지는 추위를 느꼈지만, 매산동 수원세무서 앞쯤 도착할 때면 땀이 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서호에 도착하면 얼음을 깨고 세수하였다. 진덕용에 의하면, 당시 수원에 모인 훈련병들은 15~18세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도망치거나 훈련에 빠지는 사람이 없었다. 이들은 모두 전쟁에 참여할 목적으로 훈련을 받았다. 진덕용이 볼 때 이들은 모두 책임감과 애국심이 투철한 상태였다.

진덕용 어디를 저 옷통 벗고, 그때 엄동설한이야. 그때 이제 저기 보면은 11월 28일인가? 엄청나게 추웠어요. 화서 저수지, 역전 그 뒤, 거기로 옷통을 벗고 뛰어가 가지고, 여기서 뭐 수원극장까지는 추워. 수원극장에서 저기 뭐야, 저 매산동 세무서까지 가면은 이제 땀이 나. 땀이 나. 이제 역전에 가면 땀이 줄줄 나. 근데 거기에 가서 서호저수지 가 가지고, 그래서 댕댕 얼었어요. 그걸 깨 가지고 거기서 세고, 또 모여가지고 거기 왔다고. 다 책임감이 강했네. 그때는 오직 저 애국심이 있었지. 그래도 젊을 때 뭐 나이 열대여섯, 열여덟 살. 그때는 전부 애국심이지, 참 그때는 오직 나라야. 애국심.

1951년 3월 국군과 유엔군이 전선의 균형과 안정을 회복하자, 피난을 떠났던 국민들도 생업을 되찾았다. 1951년 3월 16일 이승만 대통령은 청년학도들은 학교로 돌아가 학업을 계속하라는 담화문을 통해 '종군학생 복교령'을 내렸다. 이 복교령에 의해 학도의용군은 군복을 벗고 학생 신분으로 바뀌게 되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싸우기를 주장하는 학도들은 입대하여 계급과 군번을 받고 전투에 임하였다.

수원시립박물관
SUWON REGIONAL MUSEUM OF HISTORY
수원학연구센터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① 수원공립농림학교 교장 최계남
② 수원중학교 교장 홍사운
③ 수원특무대 대장
④ 수원경찰서 서장
⑤ 수원징학사 김충인
⑥ 수원징학사
⑦ 학도의용대 대장
⑧ 수원특무대
⑨ 교관
⑩ 수원공립농림학교 훈련 고문
⑪ 조교
⑫ 조교

1950년 11월 28일 국방부 정훈국 학도의용대 제1기 훈련생 기념사진
(진덕용 제공)

종군학생 복교령은 ① 모든 학도는 원래의 본분인 학업으로 돌아갈 것, ② 군복무로 학업이 중단된 학도의 군복무 사실이 인정되면 학교 당국은 무조건 복교를 인정할 것, ③ 군 및 각급학교는 군복무로부터 복교하는 학도들에게 특별 배려를 해줄 것, ④ 군복무 중 학년 진급이 누락된 학도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학년 진급을 인정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도의용대가 해산하면서, 진덕용도 훈련만 받고 실제 전투에 참여하지 않은 채 집으로 귀가하게 된다. 그는 한 달 반 남짓 훈련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70년이 훌쩍 넘은 지금, 진덕용의 자택 거실에는 '국방부 정훈국 학도의용대 제1기 훈련생 기념사진' 액자가 걸려 있다. 당시 촬영했던 작은 사이즈의 흑백 사진을 크게 인화하여 벽에 걸어 둔 것이다. 사진의 첫줄에는 수원공립농림학교 교장 최계남, 수원중학교 교장 홍사운, 수원특무대 대장, 수원경찰서 서장, 수원장학사 김종인, 학도의용대 대장, 수원특무대, 교관, 수원공립농림학교 훈련 고문, 조교 등이 있다. 수원농고 출신이자, SK그룹 회장인 최종현도 포함되어 있다. 사진 속에는 훈련에 참여한 학도병들 백여 명의 모습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진덕용은 전쟁에 직접 참전하지는 않았지만, 학도병 중에는 실전에 참여하거나, 후방에서 지원 활동을 펼친 이들도 많다. 그 과정에서 이름도, 군번도 없이 스러져 간 젊은 청춘들이 있었다. 진덕용은 구십 평생 중에서 젊음과 애국심으로 가장 치열하게 빛나던 순간을 늘 기억하기 위해 거실 벽면에 학도병 훈련 액자를 걸어 뒀다. 그는 그 시절을 함께했던 사람들에게 존경심을 표현한다.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번영을 누리고 있는 오늘의 수원, 그리고 현재의 대한민국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개인의 희생도 불사했던 소년들이 있었기에 이룩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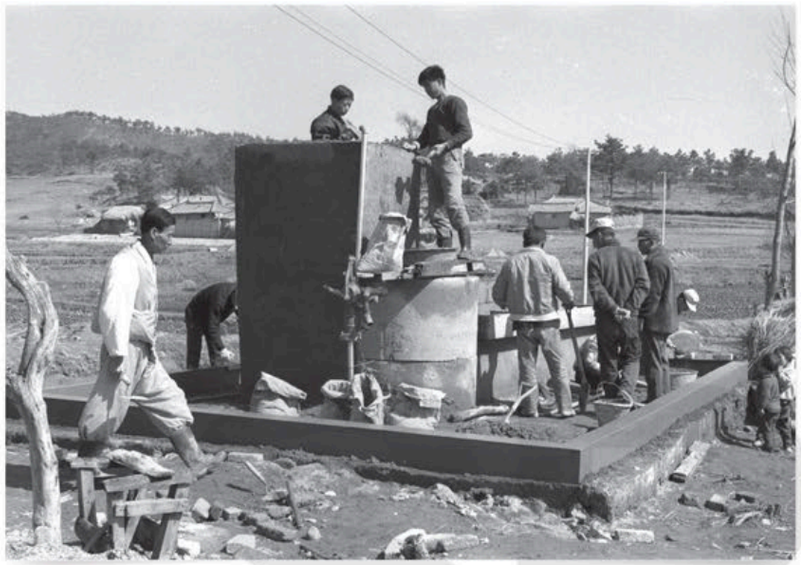
3. 삼성전자와 택지개발, 그리고 산드래미의 변화

한국전쟁이 끝나면서 산드래미 마을도 사회·경제적 변화가 일었다. 산드래미는 비교적 이른 시기에 전기가 가설되었는데, 진덕용의 아버지 진수철이 전기를 가설하는 모임의 추진위원장이 되어, 자택 사랑방에서 마을 사람들과 모여 여러 차례 회의를 진행하며, 일을 추진하였다. 현재 녹산빌딩 자리(팔달구 구천동 13-2)에 한국전력공사가 있었고, 그 앞에 전기 가설에 관한 일을 하거나, 전기 기구 등을 파는 전업사가 몇 개 있었다. 그 중 '원전사'라는 곳에서 기술자를 데려와 마을에 전기를 놓았다. 당시 산드래미에 가구가 102호였는데, 전기를 끌어오는 가구가 80%, 그렇지 않은 가구가

1970년 10월 10일 매탄동 전기 점등식
(수원박물관 제공)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972년 매탄동
산드래미 마을 안길 개설공사
(수원박물관 제공)



1972년 산드래미 마을 공동 빨래터 개설공사(수원박물관 제공)

20% 정도 있었다. 비용이 부담되기도 하고, 그냥 막연하게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다.

수도는 새마을운동이 시작된 후, 도로가 생기면서 들어왔다. 마을 안에 우물이 5~6군데 있었는데, 진덕용의 집은 일찍 펌프를 설치하였다. 마을 사람들이 우물을 공용으로 사용하면서, 우물은 주민들의 미팅 장소이기도 했고, 생명과 건강을 관장하는 신성한 장소이기도 했다. 그래서 예전에는 모든 우물에 고사를 지내면서, 주민들끼리 친목을 도모하고, 풍년을 기원하였다. 1970년대 새마을사업이 추진되면서, 마을 정비를 위해 담장 개보수, 지붕개량, 마을안길 확장, 전기가설사업도 함께 추진되었다. 농촌의 생활수준이 높

1977년 7월 1일 산드래미 전화 개통식(수원박물관 제공)

SRI 수원
SUWON
수원

1972년 삼성산요전기주식회사 진입로(수원박물관 제공)

아지고, 현대화되었다.

매탄동은 삼성전자와 함께 마을 변화를 맞이한다. 오늘날 수원은 삼성의 도시라고 불릴 만큼, 삼성과 밀접한 지역이다. 삼성전자의 본사인 삼성디지털시티가 영통구에 있고, 일자리가 많기에 자급자족 도시의 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다. 이러한 수원과 삼성의 인연은 196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삼성의 이병철 회장은 전자산업에 진출하려고 부지를 알아보다가, 수원시 매탄동 314번지 일대인 매탄벌 45만 평(148만㎡)을 매입하였다. 경부선 서쪽으로는 수원비행장이 자리 잡고 있어 공장 건설이 어려웠던 데 비해, 매탄동은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기 용이하면서, 수원 시내에서 떨어진 농촌 지역

1975년 매탄동 산드래미 마을과 삼성전자(국토지리정보원 제공)

이라서 땅값도 싼 편이었다. 수원에 정치적 기반을 둔 이병희 국회의원도 삼성전자의 수원 유치에 힘을 쏟았다고 한다.

1969년 1월에 일본 산요와의 합작 공장으로, 삼성-산요TV공장이 완공되고, 삼성전자공업주식회사가 세워졌다. 처음 수원에 공장을 지을 때는 전자기기 생산라인이었는데, 1980년대 들어 생산단지에서 R&D 연구단지로 탈바꿈하기 위해 1980년에 수용인원 390명 규모의 종합연구소(R1)가 완공되었다. 그 후 DMC연구소(R2), 정보통신연구소(R3), 정보통신연구소(R3), 디지털연구소(R4), 모바일연구소(R5) 등이 완공되면서 수원에서 삼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 삼성전자 본사가 매탄동에 위치하고 있고, 계열사와 협력업체 등이 인근에 모여 있어, 이들의 근무 인력이 약 30만 명에 달한다.

1972년 산드래미 마을 농경지
(수원박물관 제공)

1972년 산드래미 마을 주민 모임(수원박물관 제공)

매탄동의 논밭은 공장으로 바뀌었다. 당시 진덕용 네의 땅값 시세가 평당 540원이었는데, 보상금으로 평당 560원이 제시되었다. 진덕용의 집이 마을에서 가장 컸기에, 그의 사랑방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가 열렸다. 보상 문제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방문하여 주민들을 모아 놓고 설득했고, 시세에서 약간 더 올려 준다고 하니, 주민들은 도장을 찍고 계약하였다. 토박이들은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며 소박하게 생활하던 사람들이다 보니, 세상 물정에 어둡고 순박한 편이었다. 진덕용은 요즘 같았으면 그렇게 헐값에 팔지 않았을 것이라고 회고한다.

SRI 수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진덕용 그때 평당에 560원. 그때 왜 560을 받았냐면은, 내 땅 540원이었어요. 근데 20원 더 준다는 바람에, 560원을 준다는 바람에. 우리 사랑방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해요. 그 20명, 30명씩, 40명씩, 오는데 그 이름 다 와서 도장 찍어야 해요. 이 시골 사람들이 모르니까 도장 다 찍었지. 그래가지고 딱지 넘어간 거예요. 지금 같으면 어림없지.

한편 1980년대 중반 산드래미 마을은 매탄2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었다. 개발사업이 추진되자 산드래미의 주민들의 삶에 큰 변화가 일었고, 일상생

1975년 공업지역 진입로(삼성로) 개통식
(수원박물관 제공)

활, 직업, 가족관계, 노후 등에 대단히 큰 영향을 미쳤다. 진덕용은 "99%의 주민들은 망했다."고 표현하였다. 토지 보상금으로 사업을 시작했다가 손해를 본 사람도 있고, 자식이나 주변인들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받지 못하여 사이가 멀어진 경우도 있다. 평생 농업에 종사하다가 중장년이 된 사람들 혹은 노인들은 갑자기 손에 쥐게 된 현금을 제대로 운용하기 어려웠고, 주변에는 그들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진덕용 뭐 사업한다고 들어 먹은 사람도 있고, 또 뭐, 이 사람 자식에다가 손 벌려서 준 사람도 있고. 그래서 한 마디로 해서 99%는 다 망했어요. 99%는 다 망했어요!

토지 보상금을 받은 후 삶을 안정적으로 이어 간 사람도 없지 않다. 인근에 땅을 사서 이제껏 해 오던 대로 계속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큰 기복 없이 평온하게 생활할 수 있었다. 매탄동 주택가에 살며 방을 월세 놓아 임대수익을 얻는 사람들도 여럿 있었다. 삼성전자가 들어온 이후 생산라인 노동자와 하청업체들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숫자가 많아지면서, 이들이 거처할 공간이 필요하였다. 진덕용도 자택의 방 2개를 월세 놓았다. 오래된 옛날 집들은 방의 크기가 작기에 한 집에 최대한 5~6개의 방을 월세로 놓을 수 있었다.

진덕용 일찍 그때 방 세를 많이 놨죠. 방, 내 방 두 개밖에 안 줬어. 옛날 방이기 때문에. 잘해야 한 방 다섯 개, 여섯 개, 그 정도요. 많아야.

비교적 나이가 젊은 사람들 중에는 삼성전자에 취업한 이들도 있다. 그런데 학력이나 기술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 공장에서 단순노동 등의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1981년 개발 전 산드래미(국토지리정보원 제공)

1983년 산드래미 개발

말단 업무를 담당했고, 계약직이라서 몇 년 후 나오게 되었다. 드물게는 정년퇴직까지 한 사람도 있었는데 그들은 노후가 안정된 편이었다.

진덕용 그 사람들은 한 몇 년 해 보고 그만둬요. 정직원이 아니고. 그리고 또 그냥 그때만 해도 뭘 배웠나? 많이 배워야 초등학교, 저기 뭐야 중학교, 그 학벌로 그냥 선창에 가지고 이렇게 슬슬 내 쫓긴 거여. 막노동도 하고 뭐. … 나도 그건 안 가봐서 모르지. 작은 말단이야, 말단. 그래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좀 미리 썼는데. 삼성전자는 저기 뭐야, 한마디로 정년이 빨라요. 정년이 빨라가지고 그냥 내쫓는다고. 정년퇴직한 사람이 몇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괜찮았어요.

진덕용의 아들은 삼성전자에 부품을 납품하는 하청 공장을 지어 운영하였다. 공장 부지는 과거 마을에서 곡식을 찧고 빻던 연자방아가 있던 자리로, 대지가 500평이 넘는 곳이었다. 처음에는 잘 운영되었으나, 삼성전자에서 점차 정밀한 기술을 요구하다 보니, 기술과 자본이 부족한 하청업체로서는 한계를 느꼈다. 그래서 폐업하고 그 자리에 빌라를 지었다.

진덕용은 매탄동이 개발되면서, 오래 거주하던 주택을 떠나, 매탄동 한국1차아파트에서 부부가 함께 생활하다가 새로 건축한 빌라로 이주하였다. 그가 사는 건물의 위층에 아들이 살고 있으니, 매탄동에서 9대째 살고 있는 것이다. 한때 산드래미에 거주하는 여양 진씨는 열다섯 가구였는데, 지금은 대여섯 가구 정도 된다. 매탄동에 삼성전자가 들어와 산업단지로 변하면서 진덕용의 집안은 선산을 이장하게 되었다.

진덕용 이게 뭐냐 하면, 그전에, 방아가 있었는데, 우리 아들이 공장 한

여양 진씨 선산 이전(진덕용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다고. 저기 뭐야, 조립식, 철집으로 지어요. 컨테이너는 아니고, 슬레이트 지붕 그냥 이런. 공장들 많이 짓지. 그런 식으로 이제 단층을 지었는데, 그때 좀 오래되니까 또 저기도 된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 막내아들이, 작은 아들이 다시 지었지. 이렇게 3층까지 지었는데. 공장이라는 게 쉽고도 어려운 거예요. 그때는 처음에는 좀 잘 되는데 자꾸 이제, 한 마디로 해서 기계도 다르고, 정밀하니까는, 정밀하게 이제 하니까는 하청업체가 정밀하게 갖다 납부할 수 있나? 그러니까 이제 서로 거래가 잘 안됐지. 뭐, 부품. 그래 가지고 자동차 부품도 하고 그러는데.

삼성전자가 들어오고, 택지가 개발되면서 다른 지역에서 이주한 사람이 증가했고, 생활 구조도 변화하였다. 진덕용은 마을이 개발되면서 전통 촌락이 해체되어 아쉬운 점이 크다고 했다. 이렇게 삶이 크게 바뀔 줄 알았다면 끝까지 마을에 남아 있거나, 보상금을 더 많이 받았으리라 후회하는 이들도 있다. 산드래미 마을이 개발로 사라지면서, 건설업체에서 대토에 산드래미 경로당을 지어 줬다. 경로당에는 원래부터 마을에 살던 주민도 있고, 외부에서 들어온 이주민들도 있다. 남자방과 여자방 2개로 나뉘어 있었는데 남성들이 고령으로 일찍 작고하면서 여성들의 비율이 높아지자 자연스레 여성들만 노인정을 이용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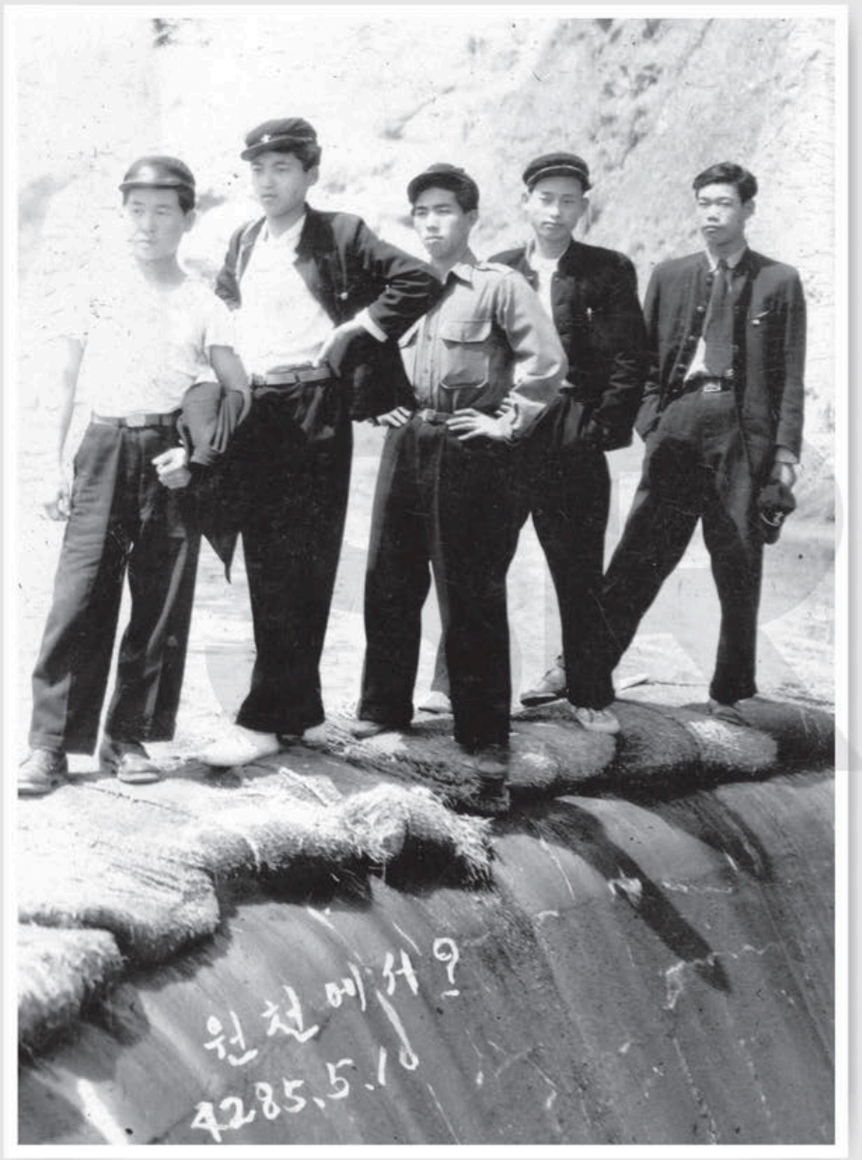
진덕용 좋은 점 별로 없어요. 좋은 점 없고, 전답만 뺏기고, 그냥. 시골 사람들은 양순하잖아요. … 그때는 여기 개발되는 바람에 이제 코오롱도 있고, 현대건설도 있고. 그런 데서 땅을 이제 그 사람들이 뺏어 가지고, 이제 그 대토에다가 지어 준 거야. 크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 아니, 그전에는 남녀가 같이, 그거를 반으로 나눠 썼어요. 평균 보면은 남자 분들이 먼저 돌아가요. 그 때문에 이제 뭐 여자가 한 20명 이상 있으면 남자 한 댓 명 가면 안 가지. 서로 어렵지. 남자들이 안 가요 근데 남자들 가면 또 담배 피지. 여자들은 담배 피는 거 싫어하지.

4. 90세 터줏대감의 '보물창고'

1934년생인 진덕용의 어린 시절 꿈은 무엇이었을까? 그는 유년기에 동네 선배들, 집안 형들을 따라 교동삼거리에 있던 수원극장에 영화와 연극을 보러 다녔다. 일제강점기라서 당시 볼 수 있는 영화는 사무라이 영화가 전부였으나, 스크린을 통해 보는 세상은 매우 신기하였다. 그는 태장공립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수원북중학교(당시 수원공립농림학교)에 진학했는데, 이때 연극부 활동을 했다. 한국전쟁 전 산드래미 마을에서 이 학교에 진학한 이는 총 4명이다. 삼성전자가 들어오기 전까지 산드래미는 시골 농촌 마을과 다름없었고, 학생들의 진학률도 저조한 편이었다. 진덕용은 마을에서 손꼽히는 엘리트 학생에 해당되었다.

진덕용은 본인의 관심과 재능에 따라 예술대학에 진학하고 싶었으나, 보수적인 집안 어른들의 반대가 예상되었다. 그는 대학 시스템에 대해 잘 모르는 부모님께는 서울대학교로 유학 간다고 둘러댄 후, 서라벌예술대학 연극영화과에 진학하였다. 서라벌예술대학은 1953년에 서라벌예술학교라는 이름으로 개교한 예술대학교이다. 진덕용이 다니던 시절인 1956년에는 교사를 서울 후암동에서 돈암동으로 이전한 상태였고, 9월 초급대학(지금의 전문대학) 인가를 받아 서라벌예술대학이란 이름으로 신입생을 받았다. 한국전쟁 이후라서 폭격 맞은 건물이 제대로 정비도 되지 않은 상태였다. 수원

수원시정연구센터
SUWON RESEARCH INSTITUTE



1952년 수원북중학교 시절 원천에서(진덕용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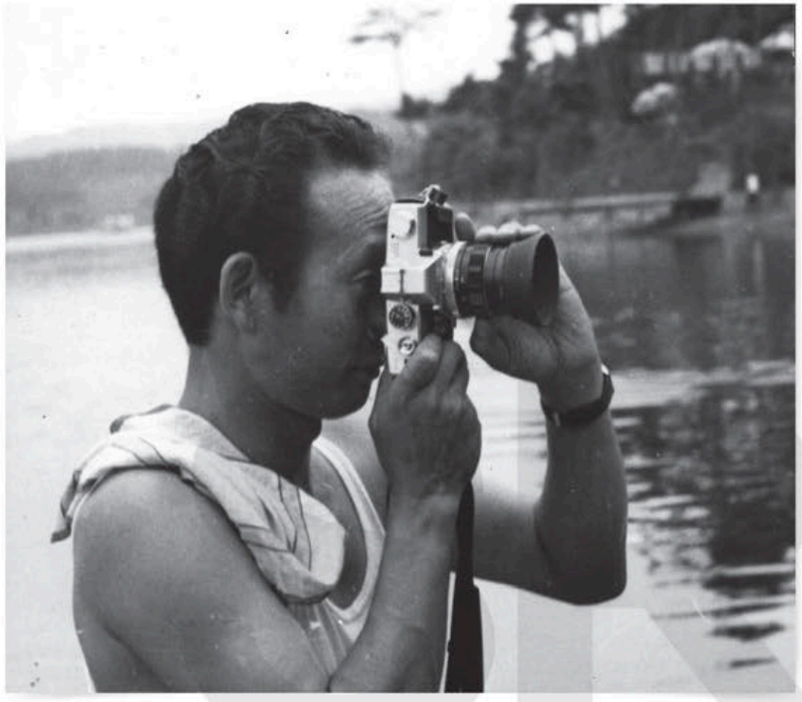
수원농림고등학교 시절 교련 수업(진덕용 제공)

수원학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1955년 수원농림고등학교 졸업기념(진덕용 제공)

수원농림고등학교 시절 연극부 활동(진덕용 제공)

서라벌예술대학 연극영화과 시절(진덕용 제공)



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진덕용(진덕용 제공)

에서 서울행 기차를 타고 다니며 통학하였다. 상급학교 진학이 드물던 시절, 서울 유학을, 그것도 예술을 전공하다니 그의 끼와 꿈을 향한 집념이 어떠했는지 미루어볼 수 있다.

진덕용 젊었을 때는 제가 서라벌예술대학 다녔어요. … 거기가 서울, 그러니까 저기 뭐야 폭격 맞고, 그냥 벽돌로 이렇게 만들어놓고 하는데 거기를 댕겼어요. 과가 나눠져 있었어요. 연극영화과가 있었는데. 연극하고, 영화도 저기 뭐야? 나오고. 조감독도 하고. … 그때는 뭐 여기서 서울로 공부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여기서도 수원농림중학교를 다녔는데, 4명밖에 없었어요.

서울 친구 집에서 숙식하면서 친구인 황인규·김봉수와 영화제작사를 설립하였다. 친구 두 명 모두 부잣집 아들이었기에, 집에서 자금을 빌렸다. 진덕용의 집에서도 농토 1,200평을 팔아 지원해 줬다. 그는 '해정'이라는 영화제작에 참여했는데, 장르는 로맨스 멜로물로 1956년 1월에 개봉하였다. 영화는 한 여자를 사랑하는 두 친구의 이야기였다. 한 마을에 같은 여자를 사랑하는 두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중 한 명이 그 여자와 결혼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풍랑을 만난 남편이 실종되어 돌아오지 않자, 외로운 부인을 동정하던 다른 한 친구는 결국 그녀와 결혼하게 된다. 그러나 죽은 줄로만 알았던 남편은 살아서 돌아왔고, 어느덧 친구와 결혼하여 행복한 모습을 보이는 부인을 본 그는 둘의 행복을 빌며 떠난다는 내용이다. 수원 근교 서해 바다에서 보름 동안 촬영하였다.

진덕용 독립영화사. 그때는 서울에서 이제 이 친구 집에 만나가지고 여기서 자고, 거기서 자고, 이제 그때 뭐 방도 시원치 않고, 생활을 했는데 하여튼 또 친구들이 이렇게 서로들 좋아지고 가치가 있고. 네 거, 내 거 없이 이렇게 도와주고. 친구 영화감독들도 다 죽었어요. 우리 강대균이라고, 그 사람은 목포 사람인데, 그 양반도. … 내가 동창이야, 또 남궁원이.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진덕용은 '구원의 정화'라는 영화에 직접 출연하기도 했다. 조선 말기, 대원군 섭정기에 천주학자와 천주교인들이 박해받던 이야기이다. 이만흥 감독, 윤인자, 한은진, 서춘광, 이룡 등이 출연했고, 1956년 2월 개봉한 한국 시대극이다. 그는 영화를 통해 유년기의 꿈을 이루고, 창작 활동을 지속하고자 했으나, 영화 제작에서 큰 손해를 보면서 군에 입대하였다.

진덕용은 제대 후 고향인 산드래미 마을로 돌아왔다. 한동안 서울에 있는 직장으로 통근하면서 생활하였다. 그는 영화에 대한 꿈은 접고, 팔달산 위에 있는 수원직업전수학교에서 17~18년가량 교사로 근무하여 미술과 사회생활 과목을 담당하였다. 이 학교는 직업 훈련과 취업을 지도하는 학교로,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많았다. 당시 대학까지 나온 엘리트인데다가, 경제적으로도 여유 있던 그가 고향에서 교사로 활동한 것은 지역사회에도 기여를 한 셈이다.

직업학교 교사로 근무할 때 학생들을 데리고 광교산에 소풍을 갔다가, 상광교동 묘목 밭에서 젓가락 크기 정도의 작은 묘목을 두 그루를 사 와서 집 뒤뜰에 심었다. 1963년경 개발되면서 나무 한 그루는 친구에게 주고, 다른 한 그루는 매탄4동주민센터 옆 주차장으로 옮겨 심었다. 주목나무 앞에는 "주목나무 암수(1963년생). 진덕용 기증"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다. 젓가락처럼 작고 얇던 나무 묘목이 자라 벌써 60년 넘게 산드래미에 자리 잡고 있다.

진덕용 제가 직업학교 선생을 했는데, 몇 년을. 팔달산 위에 있었어요. 수원전수직업학교요. 그때 미술하고, 사회생활인가? 딱한 학생들 가르치고. 이제 취직시켜 주고, 뭐 수험료도 많이 안 받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가을 보면 소풍을 가요. 소풍을 광교산으로 갔는데, 묘목 밭

수원직업전수학교 교사 시절(진덕용 제공)

SRI 수원학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팔달산에 위치한 수원직업전수학교(진덕용 제공)

이 있더라고, 거기서 이제 묘목을 저 다듬고 그냥 절더라고요. 이렇게 지나가면서 "저 못 판 뭐냐?" 이렇게 나무가 여러 가지 나무가 있어요. "이거 하나 살 수 없느냐?" 했더니 "아, 가지고 가시라."고. 그래서 이제 그때 두 개를 는데 두 개에 그때 천 원인가? 아니 천 원이, 한 천 원인가? 하나에 작은, 오백 원이야. 오자 들어가는데, 오십 원인가, 오백 원이야. 그 두 개에다가. … (굵기가) 얼마냐면 젓가락 정도요, 젓가락 정도. 그래서 하다가 이제 우리 뒤뜰이 뒤가 넓어요. 거기다 앉아 심었다

수원라이언스클럽 활동(진덕용 제공)

고, 심었는데 이제 잘 가꿨지. 그것만 심은 게 아니고, 그것도 심고, 대추나무, 또 오엽송, 또 뭐야 저기 하얀 꽃 피는 목련, 아마 한 일곱, 여덟 정도는 있었어요. 그렇게 심었던 나무가 지금까지 이렇게 남아 있는 거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63년도인가? 주차장. 이제 한 나무는 친구를 주고, 한 나무는 이제 갖고 와서 여기 공장 끝에 모여 다 심었어요. 그런데 개발되는 바람에 이제 그것도 또 캐내게 되더라고. 그래서 그때 동장하고 타협해가지고 이걸 내가 기증을 하게 되니까 여기다 심었으면 좋겠느냐고 그래가지고 거기다 심은 거에요. 두 번을 옮긴 거지. 원래 나무 밭에서, 묘목 밭에서, 밖에서 옮기고 또 여기 공장 옆으로 옮기고. 공장 옆에서 이제 걸고 간 거에요.

수원학연구센터 SUWON RESEARCH INSTITUTE

산드래미기적비 추모사를 읽고 있는 진덕용

그는 직업학교 교사로 퇴임한 후, 로타리클럽과 와이즈맨즈클럽 등에서 상당 기간 봉사활동을 하면서 지역사회에 계속 관심을 쏟았다. 마을 대소사에서 본인의 역할을 하면서, 행동이 깔끔하고 신사다운 사람으로 평가 받으며 동네 후배들에게 존경받고 있다.

진덕용이 노년이 되어 마을 역사에 본격적으로 관여하게 된 것은, 향토회를 만들고, 기적비를 설립하면서부터이다. 마을이 개발되며 주민들이 흩어지고 예전 마을의 모습을 잃게 되면서, 안타까움을 느끼던 주민들은 '산드래미향토회'를 결성하였다. 그리고 1991년 2월 느티나무 앞에 마을의 유래와 역사를 기록한 비석인 '산드래미기적비(紀績碑)'를 세웠다. 매탄동을 비롯

1950년 학도의용대 제1기 훈련생 기념사진을 설명하고 있는 진덕용

한 수원 곳곳에 흩어진 주민들은 비석 앞에서 음력 정월 대보름 무렵 제사를 지내며, 마을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화합을 다지고 있다. 그는 산드래미향토회가 만들어질 때 고문을 맡았다. 산드래미기적비를 설치한 지 1주년 되던 1992년 음력 정월 15일 추모사를 직접 지어서 추모식에서 읽었으며, 추모사는 아직까지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다.

진덕용의 자택 거실에는 수백여 권의 책이, 방에는 사진 앨범이 가득하다. 그는 꼼꼼하게 읽고, 메모하고, 보관하는 습관을 갖고 있다. 그래서 학도의용대 사진을 비롯하여 젊은 시절 사진, 영화 관련 자료, 산드래미향토회명감, 산드래미기적비 추모사 등을 모두 보존하고 있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

SRI 수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매탄4동 산드래미 일대(김승일 제공)

회원증, 육군부관학교 졸업증 등 각종 증서도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

90세의 그가 보존해 온 것은 개인의 역사뿐만 아니라 격동의 세월 속에서 변화를 거듭해 온 매탄동 산드래미의 역사이며, 나아가서 한 국가의 역사이기도 하다. 그가 걸어 온 삶의 궤적을 살펴보는 것은 단순히 고령의 나이라거나, 엘리트라서가 아니다. 그는 자신이 갖고 있는 사진과 자료가 귀중하게 쓰여 마을 역사를 보여 주고, 새로 동네에 이주하는 주민들에게 이를 설명하고 자긍심을 갖게 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 우리는 국가, 시군, 중앙 중심의 역사를 '역사'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런데 작은 마을의 소소한 기록과 자료도 마을 구성원과 개개인에게 중요한 역사이다. 90세 터줏대감이 걸어 온 삶을 되짚어 보면서, 그를 '매탄동 역사의 산증인'이라 부르는 이유이다.

매탄동
김진섭과 김진환

삼성전자와
빌딩숲 사이에 놓인 말통골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 말통골 김씨 형제가 겪은 일제 식민지와 한국전쟁

김진섭과 김진환은 매탄동 토박이이자 친형제간이다. 어머니가 12남매를 낳았는데 김진섭이 첫째이고, 김진환이 둘째이다. 증조부가 신동의 신나무실에 살다가 분가하면서 매탄동 말통골로 이주하였다. 그래서 어릴 때까지는 명절이나 제사를 지낼 때 신나무실에 가서 마을 한 바퀴를 돌며 김씨 어른들에게 일일이 인사를 드렸다.

김진환의 아버지는 1918년생으로 도청과 토목관구(土木管區) 사무소 등에서 근무하였고, 면장까지 지냈다. 1934년생인 김진섭은 말통골 이장과 노인회장을, 1936년생인 김진환은 말통골 새마을지도자와 노인회장을 지내는 등 두 사람 모두 말통골의 다양한 변화를 경험했고, 마을의 근대화와 발전의 최일선에서 활동한 인물이다.

1950년 태장국민학교를 졸업한 김진환(김진환 제공)

김진환은 태장공립국민학교(태장초등학교) 출신인데, 마을 어린이들은 대부분 이 학교에 다녔다. 일제강점기인 2학년 1학기까지 일본인 교사에게 공부를 배웠다. 일본인 교사는 학생들에게 카드를 10장씩 나눠 준 다음, 학교에서 우리말을 쓸 때마다 한 장씩 빼앗아 갔다.

김진환 나도 일제시대 때 2학년 2학기까지 다녔어요, 태장학교. 일본 사람한테 배웠고, 한국 사람도 선생이 있었고 그랬는데. 일본 사람들이 얼마큼 많았는지, 그 학생들한테 쪽지를 열 장 줬어요, 열 장, 그래 가지고 한국말 하면 쪽지 한 장씩 뺏기기도 했어요. 열 장 다 뺏기면 벌을 받게 되지, 선생한테. 한국말 썼다고. 그때는 손으로 벌서고, 매도 맞고 그랬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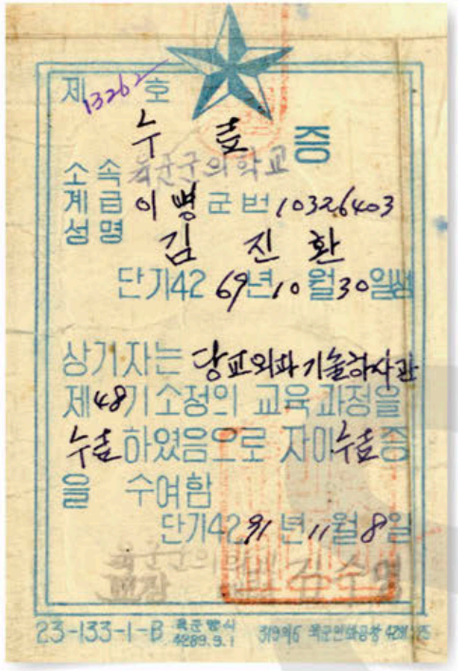
마을 사람들이 일제강점기에 수원비행장 활주로 공사에 동원되었다. 일당도 받지 못했던 강제 노역이었다. 김진환은 나이가 어리고, 호적이 늦게 등록되어서 이에 동원되지 않았다. 일제 말기 B-29폭격기가 하늘 위에 떠다녔던 기억이 있다.

김진환은 10세에 해방을, 15세에 한국전쟁을 경험하였다. 망포리 태장면 사무소에 인민위원회가 들어섰는데, 영통리 해주 오씨네 집에서 일하던 머슴이 사회주의자가 되어, 태장면 인민위원회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인민군 점령시기에 김진환의 할아버지를 비롯하여 망포리 고광업, 병점 이철용 등 태장면 유지들은 면사무소 창고에 갇히는 수난을 겪었고, 이 중 이철용은 인민군에게 끌려간 후 살아 돌아오지 못하였다. 김진섭은 한국전쟁 발발 당시 17세였다. 인민군은 16세 이상을 인민의용군으로 차출하였기에, 김진섭은 이를 피하려고 숨어 있었다.

인천상륙작전 후 인민군이 후퇴하면서 총을 놓고 가자, 여자 동창생의 아버지인 권태남이 이 총을 주워다 집에다 쌓아 놓았다. 태장면을 수복한 미군들이 이를 알게 된 후 권태남을 '빨갱이'로 의심하여 그가 살던 집 주변까지 모두 불태워 버렸다.

김진환의 가족은 1·4후퇴 때 피란 행렬에 올랐다. 김진환과 아버지는 김천에서 머물다가 철길을 따라 죽 남쪽으로 내려갔다. 피란민수용소가 아닌, 개인 집에서 1년 정도 머물며 피란 생활을 했다. 말통골 동네에서 같이 피란 간 사람과 가재를 사서 겨울 방한용 마스크를 만들어 장사하였다. 김진섭은 평택과 향남에서 피란 생활을 하다가 전선이 안정화된 후 돌아왔다. 마을에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김진환의 육군군의학교 수료증(김진환 제공)

들어왔던 좌익들은 청명산 쪽으로 도망갔다. 말통골에도 피난민이 많이 들어와 생활했고, 전쟁이 끝나자 돌아갔다. 수원과 화성을 비롯하여 경기도 곳곳에 좌우갈등이 있었지만 말통골은 주민들은 대체로 온건하고 얌전한 편이라서 큰 보복이나 후환 없이 마무리된 편이다. 김진섭·김진환 일가는 조부모를 포함하여 부모, 형제, 삼촌 등 16명에 달하는 대가족이었다. 삼촌들이 용인까지 가서 나무를 해 오며 겨울을 났다.

김진섭은 경찰관이던 삼촌의 주선으로 포천 이동면 미군 부대에서 6개월간 하우스 보이(House Boy) 생활을 했다. 그는 K.P.(Kitchen Police)라고 불린 취사근무병으로 일하였다. 김진환은 22세에 입대하여 36개월간 복무하고 만기 제대하였다. 입대할 때 청년들은 매산국민학교에서 집합해서 출발하였다. 한국전쟁 시기 입대한 청년들 중에는 돌아오지 못하는 이들도 많았기에, 동네에서 큰 태극기에 '잘 갔다 오라. 건강하게 다녀오라.'고 글을 써 주며 배웅하는 관행이 있었다. 김진환이 입대하던 시기는 1957년인데 당시까지 이러한 전통이 남아 있었다.

1966년 농경지로 둘러싸인 말통골(수원시 항공사진서비스 제공)

김진환 36개월이 조금 못 되죠. 내가 그때 마지막이었어요. 그때는 군인 가면 큰 태극기 이만한 걸 해 가지고, 동네 사람이 모여 가지고. 그때 군인 가는 게 특별한 거예요, 그때는. 거기다 죄 썼어요. 잘 갔다 오라고 쓰는 사람, 건강하라고 쓰는 사람, 별것 다 썼어요, 그때. 그거를 가져갔죠, 내가. 가져가서 옷 보따리 싸는데 지나고 보니 어디로 갔어, 없어졌어. … 내가 마지막으로 했었어요. 그다음에는 그냥 갔고. 그때는 동네서 모여서 했고. 난리도 겪고 그랬으니까, 군인 가면 까딱하면 죽는다고, 동네 사람들이 인식했었나 봐요.

수원학연구센터
SUWON RESEARCH INSTITUTE

형 김진섭은 장남이기에 농사일을 잇느라 수원농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농업에 종사하였다. 아버지가 면장까지 지내는 걸 봤기에, 그 역시 공무원이 되길 희망했지만 농토를 가진 대가족 집안에서 장남에게 부여되는 의무가 컸다. 학교 입학시험에 합격해도 가족들은 농사지을 사람이 학교에 붙어서 뭐하냐며 그리 반가워하지 않았다. 그는 2,000평 토지에서 소 한 마리를 키우며 논농사를 지었다.

김진섭 대부분 잘하는 사람만 갔는데 참, 집 안에서 우리 할머니가 내가 참 안 할 소리를 하는데 중학교를 붙어 가지고 오니까 할머니는 밭을 매고 계시고 삼촌은 나무를 하고 있어요. 나는 내 깐에 중학교에 붙었으니까 좋아서 "와! 붙었다!"니까 "이놈 새끼야! 학교에 붙으면 뭐하냐?"고. 장남이고 그러니까 농사지을 사람이, 일할 사람이 없어서. 내가 그야말로 직장을 못 잡은 거야. 아버지가 공무원이니까, 나도 공무원 하고 싶고.

차남인 김진환은 장남보다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이라, 직장 생활, 사업, 임대업 등 다양한 직업을 경험하였다. 그의 나이 27세에 22세의 여성과 결혼하였다. 처가는 용인인데, 처갓집에서 전통 혼례를 치르고, 매탄동으로 들어와 집에서 성대히 식사를 하였다. 결혼 53년 만인 2015년 부인이 먼저 작고한 후, 그는 혼례식 사진과 아내의 젊은 시절 사진을 종종 꺼내 보며 부부가 함께했던 추억을 회고한다.

김진환은 1970년대부터 새마을지도자를 했고, 매탄3동 통장도 지냈다. 마을 주민들이 사촌계를 운영했는데, 가까운 친척들끼리만 하는 게 아니라, 동네 주민 모두가 가입하였다. 마을에 상여는 없었고, 이웃 마을에서 빌려서

김진환의 결혼식 후 말동골에서 열린 잔치(1962년, 김진환 제공)
맨 왼쪽부터 부친, 김진환, 신부, 신부 작은아버지이다.

김진환 새마을지도자증(1975년, 김진환 제공)

사용하였다. 마을 주민 김진묵의 아버지인 김명기가 회답이 소리를 잘하였다. 회답이는 장사를 지낼 때 흙을 한 켜 덮고 다지고, 또 흙 한 켜 덮고 다지고 하는 전통 장례식이다.

김진섭 동네 일 중에 가을에 쌀 한 말씩, 한 집이 이거 한 말씩 가져오고, 여름에는 보리 자루를 해도 한 말씩 가져 와 가지고 하는 거야. 집집마다. 동네가 전부 다. 사촌계라고 계가 있었어요. 그래 누가 돌아가시면 부줏돈을 해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기라는 격동의 시기를 겪어낸 이들은 새마을운동과 마을의 근대화, 삼성전자 입주, 농촌의 공업지대화, 생업 변화 등을 경험하며 긴 세월을 함께하였다. 노인정과 사랑방에서 이들의 오래된 사진 앨범을 보며 이야기를 듣노라면 개인의 삶은 물론 마을의 역사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2. “농사 대신 세놓아 살지”

말통골 사람들은 오랫동안 농업을 생업으로 삼아 살아왔고 주로 논농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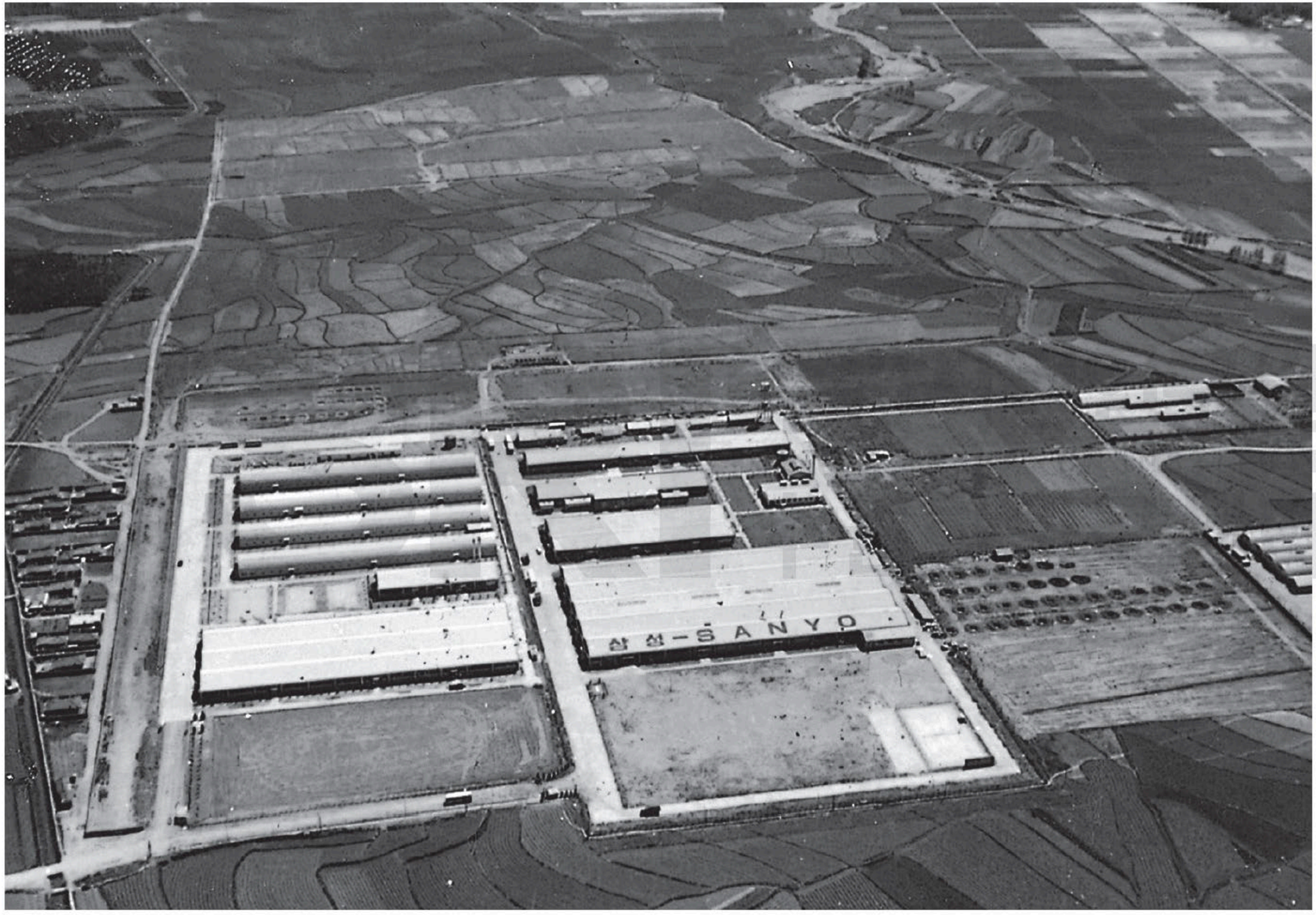
를 지었다. 김진환은 차남이다 보니 부모에게 물려받은 농토는 없고, 지금 거주하는 집터만 받았다. 본인이 착실히 일해서 1,500평 규모의 토지를 구입한 후, 토지를 담보로 하여 돈을 빌린 후 서울에서 동서와 함께 공장을 운영하였다. 그런데 어음 사기를 당하면서 이 1,500평 규모의 땅을 모두 날리는 처지가 됐다.

김진환 여기 땅이지. 잡혀 가지고 공장을 했는데,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때 300만 원이면 좋은 집 몇 채 값도 넘어요. 그때 돈이 300만 원이면. 근데 내가 얘기 한 거요. 나 생각하지 말고 150만 원만 주고, 150만 원 해서 공장 돌리고. 나는 공장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왔는데 아이고, 어음을 바꿔 가지고, 큰돈을 벌려고 그랬는데 가짜 어음에 사기 맞은 거죠.

재산을 잃은 후, 고향 말통골에 내려와 삼성전자 자재과에서 막일을 하는 잡부로 취업하였다. 김진환은 하루 품값으로 500원을 받았는데, 다섯 식구가 생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였다. 그는 자재과장을 찾아가 “하루 500원 가지고 다섯 식구가 도저히 못 사는데 어떻게 하냐?”고 물으며, 월급을 올려주거나, 정직원으로 삼아 달라고 했다. 제일 하위직이었던 그가 과장을 찾아가 용감하게 따지자, 동료 직원들은 환호를 보냈다.

김진환 잡부는 가서 막일하는 거죠. 그게 형수 아는 사람이 거기 과장 다음, 차석인데. 그 사람한테 해 가지고 거기 들어갔죠. 나 정식 직원인 줄 알고 들어갔지. 신사복 입고 가니까. 자재과 잡부예요. 자재과에서 일하는 거예요. 일을 했는데 하루 품값이 500원이에요. 500원인데 도저히 500원 가지고 다섯 식구가 못 살겠어요. 그래 자재과장더러 그랬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970년대 삼성-산요전기
(수원박물관 제공)

1975년 매탄동 삼성전자와 말통골(국토지리정보원 제공)

1971년 삼성전기 텔레비전 생산라인(수원박물관 제공)

수원학연구센터
SUWON RESEARCH INSTITUTE

지, "500원 가지고 도저히 못 살겠어요." 과장이 그때 여기 개척이 덜 됐는데, 사무실하고 과장실하고 같이 있었어요. 사무실에 들어가니까 직원들이, 그때 직원들도 전부 과장 이런 사람들 벌써 거기는 쓰여 있어요, 이력서에 누구 딸이면 누구 딸, 이렇게 쓰여 있어서 그 사람들이 다 정식 직원이 된 거예요. … 이 동네 사람도 있었죠. 근데 과장 사무실에 딱 들어가니까, 그때 잡부는 제일 하층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거기서 막일하는 사람이여. 자재과장이 딱 들어가니까 직원들이 흉보는 거예요. 잡부가 사무실 들어갈 자격도 없잖아요? 그래서 자재과장한테 가서 의자에 앉아서 얘기했죠. "정식으로 해 주든가, 월급을 더 올려 주든가. 뭐

가 있어야지." 그때 이병철이가 회장 했을 때인데. "그래야 희망이 있어 가지고 일하지, 정식도 안 되고, 올려 주지도 않고, 500원 가지고 도저히 못 살겠다고, 과장님은 집에 애들 간식 사 가지고 가도 적어도 1,000원, 2,000원어치는 사갈 거 아니냐?"고. "하루 500원 가지고 다섯 식구 도저히 못 사는데 어떻게 하냐?" 그 과장도 어쩔 수 없으니까, "회사 방침이 그런데 어떻게 하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만들어 준 담당한테 가서 미안하다고 그랬지. "내가 쓸데없이 소리했는데."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 직원들이 다 좋아했대요, 그 직원들도 월급도 안 올리고 그러니까. 그때 월급이 형편없었죠. 남으려고 그랬었는데. 내가 과장한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금성전자인가, 금성전자 텔레비전이 제일 좋았고, 삼성전자 것이 그다음이었어요. 일본 사람들이 왜 나쁘냐면 일본서 그때 흑백텔레비전인데, 그때는 컬러텔레비전도 없고 흑백텔레비전인데, 거기서 만일 100대를 신청해서 물자를 다 갖다 줘요, 일본서. 그럼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알미운지 60대나 70대 만들면 다시 변경됐다고 다시 해요. 그러니까 이 자재가 쌓여 있을 거 아니야? 여기 창고가 있는데 그게 가득 쌓였어요. 그래도 과장한테, 그 과장하고 나하고 가까웠지. 내가 그랬지. "지금 삼성전자 텔레비가 거기보다 떨어지는 거는, A급을 수출하고, B급을 파니까 시장에서 나쁘다고 그럴 거 아니냐? 자재 남은 거를 여기 쌓아 두지 말고 이거를 만들어 가지고 팔면 될 거 아니냐?" 그랬지요.

그는 회사를 그만두고, 현재 살고 있는 집터에 집을 지어 월세를 놓기로 결심하였다. 자본금이 없었기에 자재과에서 남은 박스를 헐값에 사들여 이를 재료로 하여 집을 짓기로 했다. 매탄동에서 벽돌공장을 하는 친구에게 외상으로 벽돌을 받았다. 그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일한 터인 500평 대지에, 단층의 30평 규모로 집을 지었다. 동네 주민들은 집을 짓는 그에게 뭐 하러 짓느냐며 물어봤고, 그는 세입자가 없으면 방에서 병아리라도 기를 거라고 대답하였다. 원래는 11개 방을 지었는데 계속 방을 하나씩 추가로 더 시공하여 나갔기에 한창때는 총 42개의 방을 임대하였다. 한 달 방세는 처음에 1,500원에서 시작하였는데, 몇 년이 흐르자 몇 십 만 원대로 올라갔다.

김진환 평수가 500평. 그러니까 안 벌면 농사도 없고, 살기 어려워 다섯 식구가. 그래서 집짓기 시작했지. 그때 왜 집짓기 시작했냐면 가만히 보니까 삼성전자 자재과에 집 짓고 이런 건 박스 이런 게 나무가 많이 쌓여 있었어요. 그래 안 되겠다고 나는 나왔지. 난 도저히 그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나와 가지고, 그거 사 가지고 여기다 집을 짓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이 동네 사람들은 짓기 전에 한 거야. 동네에서 깜짝 놀라는 거야. 저 집은 뭐 하려고 지었냐고. 아니 살 사람 없으면 나중에 병아리라도 기른다고, 방에서. 그래서 짓는 거라고. 그래 가지고 집짓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해. 그때 친구들이 전부 최종원인가, 이 양반한테, 이 사람이 브로꾸(벽돌 블록) 공장을 했었어요. 내가 집을 조그맣게 짓는데 브로꾸 외상으로 달라고, 어디 갔을 적에 그러니까. "아 그래." 가져가라고, 얼른 줬죠. 30평을 짓는데, 그때 브로꾸를 30평 짓는 걸 한꺼번에 다 가져온 거예요. 다 가져왔어요. 30평 짓는 거 다 가지고 온 거니까. 지나가는 길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 브로꾸 공장에 와 보니까 브로꾸가 하나도 없더래. 그걸 여기 산더미 같이 쌓아 놓은 거야. 한 번 달래고, 두 번 달랠 때는 갚으면서 달래야 하잖아요. 또 못 달라잖아. 여기 다 가져온 거예요. 여기 30평 짓는데 그 집 짓는다고 다 털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975년 말통골 김진환의 주택(국토지리정보원 제공)

어 넘어왔어요. 이놈이 조그맣게 짓는 건데, 크게 짓는 거라 그래 가지고, 집을 지어 가지고 이제. … 그때 품값 줄 돈도 없으니까 집 짓는 어른들 둘을 불렀어요. 그 품값도 "외상으로 할 테니까 지어 주세요." 그랬어요. 지금 품값 줄 게 없다고, 집을 짓는데. 그때 자재만 조금 구했고, 외상으로 안 주는 것만 구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집을 짓기 시작해 30평을 지었죠. 단층으로 세놓게끔 지은 거야. 내가 그렇게 지어 가지고 처음에 짓고, 기와도 외상으로 갖다 하고 그러니까. 오산서 기와 공장이 오더니, 돈도 아니고 외상으로 갖다 30평이면 그거 큰 거예요. 그다음에 안 준단 말이여. 두 칸인가는 이따 받았지. 다 이고, 방, 부엌, 방, 부엌 해서 만드는 거예요. … 지었는데 그때 11개 지었는데, 그 후에 또 집을 지어 가지고 그랬는데. 내가 방을 50개를 계산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그때 방세가 1,500원 했었어요. 한 달 방세가. 1,500원이면 쌀이 몇 말이냐면, 쌀이 다섯 말이에요. 쌀 다섯 말. 그렇게 지어 가지고 내가 방을 42개를 지었어요. 방을 셋방을 42개. 자꾸 지어 가지고 이제 42개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외상으로 짓고, 세 나오면 짓고, 이렇게 해서 42개를 만들었는데. 원래 방을 50개 지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42개 지으니까 정부에서 하도 단속이 심하니까, 그때 못 지은 거죠. 그걸로 끝마쳤는데. 그때 방세 하나 나오면 쌀이 다섯 말이었어요. 얼마 받았나? 1,500원인가, 한 달 방세 1,500원이에요. 그다음에 올려서 받으니까 2,000원 아니에요? 그때서부터 쌀이 네 말이야. 착착 올라가지고 몇 십 만 원이 된 거지.

월세방에 입주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임대인은 주로 삼성전자 직원들이거나 하청업체 직원들이었다. 공장에 입사한 직공들은 매탄동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에 월세방이 많다는 소문을 듣고 마을로 찾아왔다. 남녀 독신 직원, 어린아이를 둔 가정 등 다양한 성별과 연령대의 사람들이 들어왔다. 한 달에 같은 방을 세 번 임대하는 경우도 있었다. 부산에서 살다가 매탄동 삼성전자에 입사했으나, 입사하자마자 부산에 있는 삼성공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한 달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나가 버리는 경우도 있었다. 이 경우 입주, 퇴거, 새로운 임대인 입주가 한 달 새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김진환 방을 그렇게 지어 놓으니까, 삼성전자에서 한번은 부산 저쪽에서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시커멓게 몰려오는 거야, 겨울에. … 부산, 저 이런 데서. 그게 방이 없지 별안간에 그 사람들이 오니까. 그래 방이 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내가 좀 일어나기 시작해서 지금 사는 거야. …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한 달 월세를 세 번 받을 때도 있었어요. 왜냐면 삼성에서 이제 왔다가 부산에 발령 나는 것도 있었어요. 왔다 가고, 왔다 가고 이래 가지고 삼성에서. 그러니까 방 얻었다가 내 돈 받아서 그냥 가버리니까, 나는 다시 또 놓지. 이렇게 세 번 놓을 때도 있었어요. … 왜냐면 여기 살다 돈 치르고서 가니까. 삼성에서 부산 공장으로 보내는 애들도 있었어요.

부부가 수십 명의 임대인과 계약을 진행하고, 집을 관리하면서, 눈 코 뜰 새 없이 분주하였다. 김진환의 부인이 42개 방의 월세 계약서를 관리하고, 전기세와 수도세 등을 점검하면서 알뜰하게 살림을 불려 나갔다. 장모님이 한 번씩 방문하면 딸의 월세방 관리를 돕느라고 한두 달씩 머물렀다. 김진환이 말통골에서 제일 먼저 월세방 임대를 시작했으며, 임대 규모도 가장 컸다. 처음에는 의아하게 여기던 주민들도 김진환을 따라서 너도 나도 방을 만들어 임대업을 시작하였다. 농토 시세가 올라가자 팔고 나간 주민들 중에는 사업을 시작하거나 자식이 일을 벌이면서 경제적으로 망한 사람도 많았다. 동네에 머물며 월세방 임대를 하던 사람들은 그나마 안정적으로 생활을 유지하였다.

김진환 방을 가운데는 크게 짓고, 가상이(가장자리)에는 조그맣게 지었어요. 방세 나왔는데. 청을 하는 거예요, 내지가. 여기는 왜 크게 하고 그러냐고, 조그맣게 더 여러 개 만들지 그랬냐고. 아니라고, 방을 크게 해야 산다고 해서 크게 해 가지고 양쪽만 늘리고 그랬죠. … 가운데는 큰방을 만들어 놓고, 가상에는 조그맣게 해놓고 그래가지고 했죠. 방 42개인데. 내가 결혼한 지가 됐는데. 그 방 42개를 세받잖아요? 이걸 다 마누라한테 다 준 거예요. 구멍가게 했었죠, 가게도. 42개니까 방세가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이제 25만 원이 된 거죠. 5형제 중에서 막내딸하고 결혼했는데. 장모님이 오시면 우리 집만 왔다 한두 달씩 있다 가시는 거예요. 다른 딸한테는 안 가고. 왜 오시면 뭐냐면 방세 받으러 오는 사람, 방 얻으러 사람, 돈 꾸러 오는 사람 정신이 없어. 장모님이 오시니까 정신이 없지 뭐예요. 딸이 죄 하고 있으니까. 장모님이, 노인네가 도와줄 건 없고 그냥 계셨지. 근데 장모님이 놀라시는 거예요. "그렇게 일 안 하면 못 사니?" 한 번도 안 움직이는 게 없으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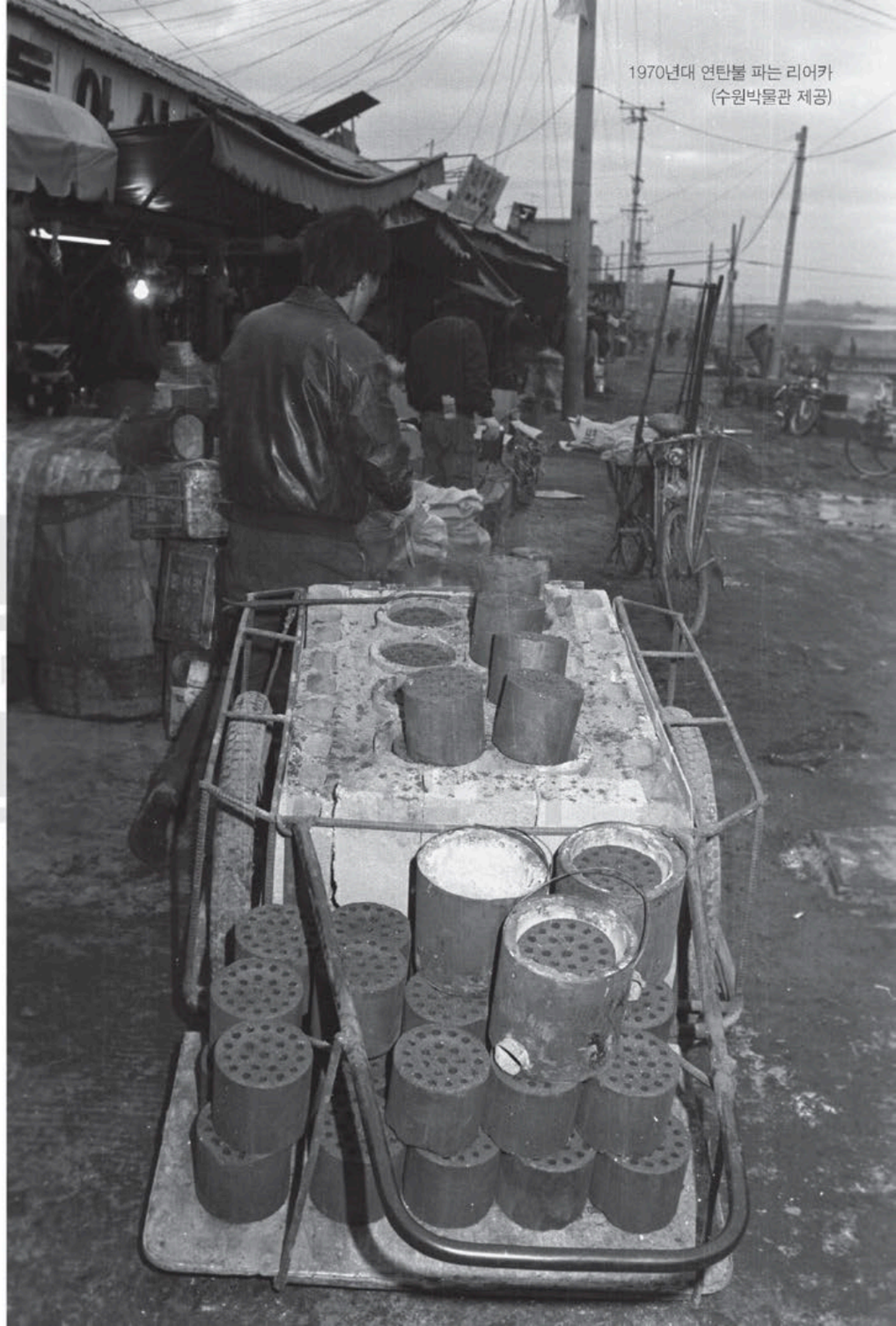
김진환은 삼성전자 직원들과 월세방에 거주하는 임대인들을 주요 고객으로 하여 원일상회라는 잡화점을 시작하였다. 사업장 소재지는 매탄동 556-3번지로, 사업종류는 소매업, 종목은 식잡업으로 등록하였다. 소주, 맥주, 과자, 담배 등을 주로 취급하였다.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김진환 잘 됐어요. 공장이 많으니까, 저 앞에서 장사하니까. 납품하는 사람들 차로 한 차 싣고 오잖아요, 공장에. 그리고 우리 가게가 길옆이니까 딱 세워 놓고 소주 한 짝, 무 두 짝, 맥주, 과자 뭐해서 차에다 싣고 가요. 그리 들어가요. 그럼 공장 직원들이 그 물건 내리는 데 좋다고 내리고 그러죠. 대우받지. 그 사람한테 납품하니까. 그렇게 안 하면 납품 못하거든. 그렇게 해 가지고 장사가 잘됐죠. 지금 생각하면, 그때 그렇게 장사 잘했는데 내가 왜 땅도 많이 못 샀을까 그런 생각도 나지. … 그때는 땅 살 생각도 없어요. 애들 가르치고 그랬는데.

월세방이 많았기에 겨울이면 연탄이 많이 필요하였다. 그런데 연탄 장사를 하는 사람이 매탄동에 제때 배달을 안 해 줘서 세입자들이 추위에 떨며 곤란을 겪었다. 이에 김진환이 나서서 부녀회 명의로 연탄 판매 허가를 취득하였다. 수원역에서 연탄을 수레에 실어 오면, 마을 부녀자들 30여 명이 늘어서서 연탄을 운반하였다.

김진환 그때는 석유곤로가 아니고, 뭐냐면 연탄을 땠었죠, 연탄. 연탄도 그것도 역사가 깊죠. 방이 42개인데, 연탄이면 몇 차가 들어와야잖아요? 그런데 연탄값을, 일주일이라도 연탄을 안 갖다 주는 거야. 42개 사람들이 아우성을 하는 거요. 왜 연탄 안 갖다 주냐고. 연탄 장사 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둘이 했는데. 이 사람이 동사무소에서 하고서 다른 사람은 허가를 못 내주게 했어, 자기네들만 허가 나고. 두 사람이 했는데. 그 돈을 준 사람이 잊어 먹었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 가지고 내 그 사람더러 그랬지. "연탄을 안 갖다주면 갖다줄 새가, 미처 못 갖다주는 거 아니냐? 그럼 나도 연탄 허가를 내라." 그러니까, 이 사



1970년대 연탄불 파는 리어카
(수원박물관 제공)

김진환이 세를 주어 운영하였던 주택(김진환 제공)

람이 배짱으로 그랬던 거예요. 그 동사무소 사무장이, 내 사무장한테 가서 그랬지. "연탄 허가 내야 할 텐데 어떻게 하는 거냐?" 그랬더니 "허가를 못 낸다." 이거예요, 사무장이 그러면 "시청에 직접 가서 해라." 이거요. 시청에 가서 얘기했지. "연탄 장사를 저 두 사람이 했는데 도저히, 여기 부녀회 앞으로 허가를 내야 하겠다." 고 그랬지. 허가를 시(市)에서 해주는데 여기 있는 사람이 돌리다 못 돌린다고 그러니까, 이놈의 허가를 취소를 해버리고 우리 걸 내줬네. 역전에 연탄 공장이 두 개인가 있어요. 삼천리연탄, 대성연탄, 그게 있었는데. 거기 가서 차로 실어,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탄에서 허가 내는 거 여기 쩍 그어버리고서 취소해 버리고, 부녀회 앞으로 낸 거예요. 그때 부녀회가 30명이 했었는데. … 싸우는데 내가 안 그랬지. 이거 아니라고. 두 사람이 못 다 돌려서 우리가 또 내는 거니까, 그 사람이 취소하면 또 못 돌린다고, 안 된다고. 허가장을 다시 주잖아요. 취소한 거 말고 다시 줘서 사이좋게 잘 내라 그러고서 줬지 뭐야. 그랬더니 우리 거 내니까 너의 것 취소됐다, 내가 못 하게 하고서 허가장 다시 등록하라고 했지 뭐여. 그니까 너희가 돌릴 적에는 우리가 안 돌릴 테니까. 돌리라고. 그때 연탄 해서 부인네들이 용돈을 많이 썼어요. 뭐냐면 연탄을 실어 와서 구루마(수레)로 한 구루마 오면 30명이 쭉 서 가지고 돌리는 거야. 그니까 이렇게 연결해서 쌓으니까 금방이지 뭐야.

김진환이 세를 주어 운영하였던 주택 마당(김진환 제공)

김진환 부부는 53년간 함께 살면서 한 번도 큰 소리를 내며 다툰 적이 없다고 한다. 부부가 의기투합하여 재산을 일군 끝에 건물 4채를 소유하게 되었다. 김진환은 사별하여 8년째 혼자 살고 있다. 형 가족, 아들 내외가 같은 동네에 거주하지만 부인의 빈자리를 메우기에는 함께한 세월과 추억이 너무 크다. 현명하고 알뜰했던 아내 덕분에 노후가 편안하다는 것을 종종 실감한다.

수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990년대
말통골 주민들 척사대회
(김진환 제공)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3. 공업지역 내 주거지로 변한 말통골

영통구 매탄동 '말통골'의 서쪽에는 삼성전자가 자리한다. 매탄3동 삼성전자 정문 동쪽, 교통안전공단 수원검사소 근처에 있는 말통골은 하나 둘씩 늘어나는 고층의 상가, 오피스텔에 점점 에워싸여 있다. 말통골은 삼성전자와 빌딩숲 사이에 위치한, 중소 기업체가 운집한 공업지역이자 주택가로 변모하였다.

여행을 할 때 천천히 걸어야 제대로 보이는 풍광이 있다. 말통골도 천천히 마을을 들여다보며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느린 속도로 들어볼 때, 마을이 담고 있는 추억과 역사를 느낄 수 있다. 말통골의 경관은 가까이 입주한 삼성전자와 하청업체들, 곳곳에 건축되고 있는 고층 오피스텔, 상가 건물 때문에 계속 달라지고 있다.

하지만 변화 속에서도 마을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 노인들이 '말통골노인정(영통구 신원로 209-2)'을 비롯하여, 동네 사랑방과 비슷한 공간에서 삼삼오오 모이기에 마을의 오래된 이야기며, 이들이 살아온 역사를 들을 수 있다. 특히 김진환은 본인 소유 상가 건물 지하의 작은 공간에 테이블과 의자, TV 등을 마련해 두고 여가를 보내며 동네 노인들을 불러 모은다. 이들은 신문과 방송을 통해 접하는 세상 이야기를 하며 각자의 견해를 나누기도 하고, 재미로 화투를 치거나, 커피를 한 잔씩 마시며 여가 시간을 보낸다.

과거 나무 그늘 아래 혹은 주막에서 휴식과 담소를 취하던 문화가, 도시화 이후 공간이 바뀌어 계속 이어지는 셈이다. 마을에 두릅나무가 있었는데, 일제강점기 때까지는 지도에도 나와 있어서, 일본 군인들이 지도에서 나무 위치를 확인하는 것을 김진환이 목격하기도 했다. 김진섭에 의하면, 어린 시절 마을에 큰 엄나무가 있었는데 해방되던 해 '해방바람'이라는 강풍에 쓰러

김진환 소유의 상가 건물

말통골노인정 경로잔치

졌다고 한다.

말통골 서낭당은 현재 수원자동차검사소 자리(영통구 신원로 240)에 있었는데, 주민들은 서낭당에서 개인적으로 치성을 드렸다. 마을에 있던 주막집은 이동국 네가 운영하던 곳으로, 원천양조장에서 술을 받아 판매하였다. 삼성전자가 들어오면서 공장 부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여 땅 주인들이 외지인들에게 토지를 팔면서 없어졌다.

매탄동에는 '주막거리경로당(영통구 매여울로68번길 23)', '가마니골경로당(영통구 권광로304번길 32)' 등 자연마을에서 딴 명칭들이 남아 있어, 여러 모로 정겹고 향토적인 느낌을 준다. 작은 단층 건물인 말통골경로당은 원래 마을회관이었다. 김진환이 새마을지도자로 일하던 시기, 동네에 마을회관이 없었는데, 시청에 허가를 요청하여 보조금 200만 원과 본인의 사비를 투입하여 회관 건물을 건축하였다. 건물 위에 마이크 시설을 설치하여, 아침에 동네에 공지사항과 소식을 전달하였다. 이 건물은 마을의 공동 재산인 한편, 과거 냇가를 메운 하천 부지에 세워진 것이기에 세금을 내고 사용하고 있다. 건물 한켠에 철물점이 입주하여, 그 월세를 받아 운용하는 데 보탬이 되고 있다.

김진환 새마을지도자 할 적에 동네 회관이 없었어요. 그래 가지고 내가 여기 지금 회관이 된 게 냇가였어요, 거기가 냇가였는데. 그때는 구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말통골노인정

2000년 삼성전자 일대의 공업지역과 말통골

청이 없었고, 시청이지. 거기다 허가를 내달라고 그랬어요. 회관, 지금은 노인정으로 쓰이지만 원래 동네 회관이에요. 내가 지은 거예요, 그때 보조해 준다고 해서 그 회관을 내 돈 들여서 다 지은 거예요. 외상으로 하고, 내 돈 들이고 해서 그 회관을 지었는데. 시청에 갔더니 일주일을 갔지. 보조받는다고 갔지. 그때 내가 돈이 없었으니까. 갔더니 일주일을 가도 안 주는 거예요. 돈을 그 담당이. 그래 가지고 일주일 후 가니까 그때 돈 200만 원인가 주더라고요. 그걸 지어 놓고서 마을회관으로 쓰는 거죠. 거기 마이크도 달아놓고, 동네에 그 유물들 같은 것도 거기 있었고 그랬는데, 그걸 동네 어른들한테 놓고 나는 장사하고 그랬는데. 내가 볼 적에 동네, 시에서 무슨 일 있으면 마이크에 대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마이크는 노인정 위에 남아 있어요.

말통골이 자리한 곳은 영통구에 위치한 공업지역으로, 이 지역의 지가가 높아지고 주거시설이 들어서며 산업 네트워크가 적어지는 등 새로운 공업기능의 진입장벽이 높아짐에 따라 공업지역으로서의 기능이 저하되고 있다. 이에 수원시는 공업지역의 재배치를 위하여 대상지의 일부를 상업용지나 주거용지로 용도변경을 계획 및 시행하고 있다. 삼성전자 연구단지 일대 15만 2,000㎡는 일반공업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원천동 일대 4만 9,944㎡는 준공업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각각 변경하였다.

「대도시 공업지역 내 주거시설 특성에 관한 연구」(성균관대학교 미래도시융합공학과 석사학위논문, 2022)에 따르면 삼성 수원사업장 일대 일반공업지역 건축물의 용도는 고시원,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단독일반 순으로 고시원이 절반 이상 구성되어 있다. 주거시설의 건축연도는 2011년 이후(53.6%), 2001~2010년(35.1%), 1991~2000년(5.1%), 1980년 이전(3.3%),

한국자동차검사소 일대 경관

말통골에 들어선 중소기업과 원룸

SRI 수원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매탄동 공업지역 주거시설 현황
(강주녕, 「대도시 공업지역 내 주거시설 특성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미래도시융합공학과 석사학위논문, 2022)

원룸 및 상가 건물

옛 가옥을 개조한 주택

수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

1981~1990년(2.9%) 순으로 20년 이내에 건설된 건축물이 약 88.7%를 차지하고 있다.

원룸형 주거시설의 거주자는 20~30대 청년층의 비율이 높았다. 근무지 위치는 수원시 영통구(73.9%), 서울특별시(13%), 그 외 지역(13.0%) 순으로 나타났다. 원룸형 주거시설은 출퇴근 시 일부 장거리를 제외하고는 공업지역 내 직주근접을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공업지역 내 근무(56.5%), 공업지역 외 근무(43.5%)로 공업지역 내에서의 출퇴근의 비중은 절반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업지역 내 원룸형 주거시설의 가구원은 1~2인이 전체 가구의 91.3%로 나타나 소형가구의 비중이 매우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전체 가구원 수를 살펴보면 1명(56.5%), 2명(34.8%), 3명(8.7%) 순으로 나타났다. 원룸형 주거시설의 전용 면적은 20㎡ 미만(30.4%), 20~40㎡(26.1), 40~60㎡(26.1%), 60~80㎡(17.4%) 순으로 나타났다. 최저 거주면적 수준 1인당 25㎡ 기준에 미달되는 주거시설이 30.4%을 고려한다면 공업지역 내 원룸형 주거시설의 질은 양호하지 않았다.

매탄동에 삼성전자가 들어설 당시, 정부나 기업이 제시했던 장밋빛 전망과는 다른 미래가 전개되었지만, 산업화 시대의 경제적 팽창에 힘입어 농토를 박탈당한 농민들조차 그런 대로 삶의 안정을 이룰 수 있었다. 그러나 산업화가 한창이던 1970~1980년대와 달리 경제 성장세가 둔화하고, 서비스산업 발달이나 신시가지 개발 등으로 경제 발전의 축에 변화가 생긴 1990년대 이후의 상황은 같은 도시개발이라도 상이한 결과를 가져왔다. 이것이 주민들의 삶에 새로운 위기가 되었음은 물론이다. 매탄동의 경우 이웃한 영통지구의 급속한 개발과 대비를 이루면서 지역의 상대적인 낙후성과 정책적 배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의 소외감이 확대되고 있다.

1974년 말통골 서쪽에 설립된 삼성전자

1985년 삼성전자 공장지대의 확대

1990년 영통 개발 전 말통골

1996년 영통 개발과 아파트 건설

2009년 삼성전자와 아파트 단지 사이의 말통골

2022년 공업지역 내 주거지역인 말통골

매탄동 말통골의 변화
(수원시 항공사진서비스 제공)

SRI 수원학연구센터
SUWON RESEARCH INSTITUTE

01 청명단오제를 통한
주민의 화합

02 마을의 뿌리를 이어 가는
산드래미향토회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제2부

마을 공동체의 전통을 잇다

청명단오제를 통한 주민의 화합

영통동 오이환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 영통동 큰말 '구석집' 장손 오이환

수원의 영통동은 한국토지공사의 '수원영통·용인영덕 택지개발' 사업을 통해 1997년부터 조성된 수도권 신도시이다. 대규모 아파트가 밀집해 있고 일반주택, 상업시설이 병존하는 곳이다. 경기지방중소기업청, 동수원세무서, 수원우편집중국, 수원출입국사무소 등 관공서가 소재해 있으며, 초·중·고교 및 경기외국인학교를 비롯해 경희대학교가 인근에 있어 수원 최고의 학군과 교육환경을 갖춘 교육의 중심지로 꼽힌다. 주민의 상당수가 삼성전자 및 관련 업체에 다니고 있어 소득 수준이 높으며, 평균 연령이 젊은 세대로, 학력과 의식수준도 높은 편이다.[1]

지금의 영통동은 수원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유명한 주거지역이지만, '수원영통·용인영덕 택지개발' 사업이 진행되기 전까지는 전통적인 농촌마

1993년 농촌마을이던 영통리 큰말 경관(한신대학교박물관 제공)

2002년 신도시 개발로 아파트단지가 즐비하게 들어선 영통동 전경

1966년

1974년

1987년

1990년

1995년

1996년

1998년

2002년

영통리 큰말 구석집 일대의 변화(수원시 항공사진서비스 제공)

1993년 영통리 큰말 구석집(한신대학교박물관 제공)

수원학연구센터

을이자, 교통이 불편한 오지에 해당되었다. 원주민들이 떠나고, 대규모 아파트가 준공되어 지금과 같은 도시로 거듭나면서, 최근 30여 년간 영통이 보여준 변화는 상전벽해(桑田碧海)란 단어를 떠올릴 만큼 대단하다.

오이환은 현재의 영통동, 과거 '영통리'에 속하던 마을인 '큰말'에서 1947년 출생하여 성장하였다. 오이환이 태어난 영통리 143번지는 현재 위치로는 영통 대우동신아파트[2] 316동 잎 주차장에 해당된다. 그의 집은 대지가 940평에 이르는 큰 규모였는데, '구석집'이라는 옥호(屋號)를 가졌다. 동네의 끄트머리 높은 곳에 위치하여 그러한 이름이 붙여졌다고도 하고, 큰말에서 가

오이환의 증조부인 오철선의 회갑잔치에 모인 일가친지(1917년, 수원박물관 제공)
대한제국 제복을 입은 이는 큰할아버지 오득영이고, 양복을 입은 이는 할아버지 오덕영이다.

장 후미진 곳에 있어서 '구석골' 또는 '구석집'이라고 불렸다고도 한다. 오이환의 집은 대지가 넓고 정원도 아름답게 잘 꾸며 놓아, 택지개발 전까지는 인근 초등학생들이 오이환의 집 근처에서 소풍하면서, 집을 구경하기도 했다.

오이환 우리 집을 보고 '구석골'이라고 불러갖고. 사실은 구석골이라고 별도로 있었던 것은 아니고. 우리 집의 옥호가 '구석집'이에요. 사실 그렇게 구석도 아닌, 제일 그 높은 데서, 우리 집에서 내려다보면 동네가 다 내려다보이고. 근데 끄트머리에 있으니까 구석집이라 그래갖고. 구석에 있지도 않은 거야. 근데 구석집.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영통리에는 해주 오씨가 많이 살았는데, 한때는 영통리 전체 60~70여 호 중 해주 오씨가 30여 가구를 차지할 정도였다. 영통리 해주 오씨가는 지주 집안이었는데 오이환의 증조부 오철선은 큰부자였다. 차자였던 조부 오덕영은 대지주는 아니었지만 집안의 대소사를 관장하는 역할을 하였다. 오이환의 삼종조인 오희영(할아버지의 육촌 형제)은 오랫동안 마을 이장으로 활동하였다.

영통리는 행정구역으로는 화성군 소속이었지만, 생활권과 교육에 대한 부분만큼은 수원과 더 밀접하였다. 주민들은 남문시장을 이용했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똑똑한 아이들은 수원의 중·고등학교로 진학하였다. 특히 대성 집안에서는 종손이나 장남을 서울로 유학을 보내기도 하였는데, 오이환은 태장초등학교, 수원북중학교를 거쳐 서울 정릉에 있는 친척집에 머물면서 경동고등학교에 다녔다.

경동고등학교 졸업 후, 고려대학교 경제과에 진학한 오이환은 학생 봉사 클럽인 '한국농어촌문제연구회'라는 서클에 가입하였다. 농촌에서 성장한

高大죽세공품전시장에서 陸여사는 대바구니 5개를샀다。

竹細工品돌아봐
陸英修여사칭찬

17일상오11시 朴대통령부인 陸英修여사는 高大학생봉사클럽 한국농어촌문제연구회주최 죽세공품전시장을 돌아보고 정교한솜씨를 치하했다。

高大교수회관에서열린 이 전시회는 江原도溟州군玉溪면주민들이 67연도부터 고대학생들의 가내부업지도로 익혀온 솜씨자랑이다。

고려대에서 열린 죽세공품 전시장을 방문한 육영수 여사(좌)와 오이환(우) (『경향신문』, 1969년 3월 17일)

오이환의 입장에서는 서울이나 도시에서 성장한 학생들이 농어촌의 현실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답답하였다. 이에 그는 제대로 활동해 보고자 마음먹었다. 유명 교수들을 초빙하여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선후배들이 농촌의 현실에 대해 직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는 클럽을 주도하는 입장이 되어, 3학년 때는 회장까지 지냈다.

오이환 내가 이제 시골 사람이니까, 농촌에 그때는 한참 봉사활동하고 오는 게 유행이고 그랬었어요. 고대에 농어촌문제연구회를 학생 서클이 있었는데. 1학년 때 거기 들어가서 보니까. 야, 이게 선배 3학년, 4학년 선배들인데 농촌에 대해서 쥐뿔도 알지도 못하고, 무슨 이런 사람들이 연구회는. 그래가지고 내가 제대로 만들어야겠다. 교수님도 초빙해서 세미나 하고.

강원도 명주군 옥계면 농촌마을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화장실 개량, 농사일 돕기 같은 기존의 활동을 넘어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심하였다. 그가 대학에 다니던 1960년대 후반~1970년대 초반은 대학생 숫자가 많지 않았고, 대학에 재학 중이라는 신분으로도 사회적으로 크게 대우받던 시기였다. 비록 헤어진 교복과 모자였지만 단정히 착용하고, 산림청에 근무하던 고려대학교 선배들을 방문하였다. 농어촌문제연구회에서 작성한 활동내역서를 가지고 가서 농가 소득을 창출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문의하였다.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주민들에게 대나무 숲을 조성하여 죽세공품을 만들게 권유하였다. 이는 마을에서 큰 호응을 얻었고, 농사 소득에도 기여하였다. 1969년 3월, 고려대학교 교수회관에서 옥계면 주민들의 죽세공품 전시회를 열었다. 이때 영부인이던 육영수 여사가 방문하여 전시회를 둘러보고 칭찬하며, 대바구니 5개를 구입하였다. 각종 TV와 신문에 이러한 내용이 보도되었다.[3]

육영수 여사가 경비를 지원하여 오이환은 청와대 접견실을 방문하였다. 그는 박정희 대통령에게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산품에 대해 집중 지원해 줄 것, 공동 생산, 공동 출하, 판로 등을 정부에서 신경 써 달라고 건의하였다. 젊은 대학생에 불과했지만 대통령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열의와 패기로 가득한 채 소신을 피력하던 시절이었다.

오이환 "이 동네는 뭐가 소득이 될까?" 하고 찾다 보니까. 울타리에 거기가 대나무가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해. 명주군인데, 강릉 밀창인데. 이렇게 굵은, 끄트머리가, 잘라서. 전에 옛날에 이렇게 굵은 것들이 군데군데 보이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굵은 게 여기서 되나. 그래 동네 어른들보고, "아이고! 여기 굵은 게 있었어요." "아, 있었지. 요새는, 이 요새는 우산대같이 그냥 가는 것들밖에는 없지만, 옛날에는 굵은 거 많았어." "아 그래요?" '그럼 이거를 공부를 좀 해봐야겠다.' 그래가지고 학교도로 와가지고서. 그때 당시에 대나무 박사가 두 분 계셨는데, 산림청에 선배들이 많거든. 고대 뭐 하면 가서 이렇게 보면 아무나 그냥. 고대 출신이면 "형님!" 늙수그레한 사람한테도 "형님" 저 아무아무 이렇게,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교수회관 좀 비워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그때는 끗발이 대단했지. 그때는 그런 게 다 통했고. 우리가 그런 걸 하는 게 교수님들이 참 대견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당신 바쁜데도 와서 강의도 해주시고, 공짜, 다 공짜지. 그 누구 하면 전국에서 다 알 정도의 유명 교수들 모시고. 그래서 학교에서 지원을 해 주셔가지고 교수회관에다가 큰 이런 거 해놓고. 거기다가 우리가 활동했던 사진을 크게 뽑아가지고, … 죽제품 바자회를 학생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바자회를. "이게 우리가 가서 이렇게, 이렇게 활동을 하고 동네 주민들이 만든 거다, 이건 우리가 팔아줘야 되겠다." 아휴, 한창 오픈을 하려고 그런데 학교에서, "너 빨리 좀 나와 보라" 그러고. "아, 왜? 바빠 죽겠는데 그래?" "육영수 여사가 오셨답니다!" … 그게 참 묘한 얘기긴 하지만 내가 텔레비전에 뉴스에, 대한뉴스, 거기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내가 한동안 그냥, 한 얼굴을 들고 어디 댕기기가 미안스러워가지고 그랬으니까. 근데 육영수 여사는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고. 또 우리가 그런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 사전에 아셨고, 비서들을 통해서. 그래서 불러서 그 집에 가서 국수도 얻어먹었고.

그는 대학 때의 이러한 경력을 살려 졸업 후, 서울에서 농협중앙회 홍보요원도 하고, 농협신문사에 근무하면서 3년 4개월간 소식지 발행업무를 담당하였다. 전국을 다니며 직접 발로 뛰며 충실히 취재 활동을 하였다. 오이환이 이렇게 농촌 경제에 관심을 가진 것은 성장기 영통 농촌마을에서의 생활, 그리고 마을의 화합을 주도하던 부모와 조부 세대의 역할과 무관하지 않다. 그는 당시로서는 다소 늦은 나이인 37세에 결혼하여 가정을 일구었다.

이후 고향 영통으로 돌아와 서울에 있는 무역회사까지 출퇴근하였다. 산

영통청명단오제 보존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한 오이환(2008년, 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SRI 수원시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

업화와 도시화 속에서 이촌향도 현상이 심해지고, 고등교육을 받은 이들이 농촌을 떠나는 분위기가 가속되는 가운데, 오이환의 귀환은 마을에 큰 도움이 되었다.

그는 1990년대 중반 영통이 개발된 후에도 20년 넘도록 영통동에서 거주하다가 얼마 전 영통구 망포동으로 이주하였다. 기존의 영통 마을에서는 떠났지만, 예전 토박이들과 교류하며 영통의 대표적 축제인 영통청명단오제 보존위원회에서 계속 활동하고 있다.

지역의 큰 어른이자 터줏대감으로서의 역할을 지속하고 있는 오이환은 영통의 역사를 거론할 때 빠질 수 없는 인물로, 그의 생애와 경험은 영통리 촌락 공동체를 설명하고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영통리 사람으로 오이환을 꼽을 수 있다면, 마을 주민들의 삶에서 중요한 구심적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느티나무와 단오제 행사이다. 오이환의 경험과 기억을 통해 영통 원주민의 생활과 영통청명단오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그려 보고, 영통의 주민들이 시간과 세대를 뛰어넘어 소통하고 화합의 모습을 살펴보겠다.

2. 소박하고 정겨운 농촌 마을, 영통리

영통동은 원래 수원군 장주면 영통리 소속이었다가, 1914년 화성군 태장면 영통리로, 1949년 수원군이 화성군으로 개칭되면서 화성군 태장면 영통리로, 1963년 태안면 영통리로, 1985년 태안읍 영통리가 되었다. 1994년 영통지구가 개발되면서 화성군 태안읍, 용인군 기흥읍 영덕리 일부와 함께 수원시 팔달구로 편입되었고, 2003년 영통구가 신설되면서 영통구 관할이 되었다.[4]

1966년 영통리 행정구역
경계와 자연마을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영통리는 큰말, 뒷골, 새터말, 안영통 등의 자연마을로 구성되었는데, 영통신도시가 개발되면서 모두 사라진 상태이다. 영통리에는 해주 오씨, 경주 김씨, 청주 한씨, 전주 이씨 등이 세거하였다.

지금의 영통동은 수인분당선 청명역, 영통역, 망포역을 이용할 수 있고, 버스로 수원역까지 30여 분 걸리며, 서울로 가는 버스의 배차 간격도 짧아, 교통이 좋은 편에 해당한다. 하지만 과거 영통리는 수원시와 화성군·용인군의 경계지역에 위치하였고, 구릉지 사이 골짜기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어서 교통이 불편한 오지였다. 즉 영통리는 화성에서도, 수원에서도, 용인에서도, 변방에 해당하던 동네였다.

오이환 영통이 옛날에 화성군이었어요, 태장면의. 화성군하고 용인군의 경계. 우리 집에서 집터에서 직선거리로 한 70m 정도가 그 용인군. 직선거리로 그렇게 돼요.

영통리는 인구가 많지도, 경제적으로 윤택한 마을도 아니었다. 수원, 화성, 용인에 접해 있다 보니 어느 지역에서도 중심지가 아닌 변방지대였고, 다소 소외된 마을이었다. 오지마을이다 보니 전기 가설이 늦어져 오이환이 여러 기관을 방문하여 전기를 신청하고 독촉하면서, 1974년에 들어왔다. 집성촌 대성(大姓) 가문의 나이 지긋한 남성들이 마을의 중심이 되어 의사 결정을 하고, 똑똑하고 적극적인 이들이 마을의 발전을 위해 발 빠르게 행동하며, 다른 마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애썼다.

영통리는 소박하고 정겨운 분위기의 농촌 마을이었다. 농경지가 넓지 않아 경제적인 사정은 그리 좋지 않았다. 주로 논농사를 지었고, 밭작물로 콩, 보리, 수수, 잡곡류 등을 소량 생산했으며, 과수원은 없었다. 빗물에 의존하

"樹種개량·燃料林확보·山林조성
一拳三得 효과얻게"
朴대통령 指示

영통리 산1번지(영흥산)에서 실시된 농촌연료 채취 교육에 참석한 박 대통령(『경향신문』 1973년 10월 25일)

여 농사를 짓던 천수답(天水畓)으로 운영하다가, 1970년대 농업용 관정(管井)을 파고 펌프를 설치해 물을 구하였다. 천수답이 잘 되어 있다 보니 서로 물을 사용하려는 다툼도 없고, 주민들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영통리는 땔감이 부족하여 먼 산에 가서 땔나무를 마련하는 '먼산나무'를 하였다. 아침에 밥과 짠지를 넣은 도시락을 메고, 용인 삼가동의 부아산에 가서 땔나무를 마련하였다. 1973년 박정희 대통령 재임 시절, 영통리 산1번지 일대에서 농촌연료를 채취하는 시범 교육이 있었다. 여러 시도에서 참

SRI 수원학연구센터 SUWON RESEARCH INSTITUTE

석한 산림 관계관에게 가지치기, 솎아내기, 추풍령식 벌채에 대해 연료 채취 방안을 가르쳤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내무장관, 산림청장, 경기도지사, 각 시도 관계관,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큰 규모였기에,[5] 주민들 사이에 큰 화제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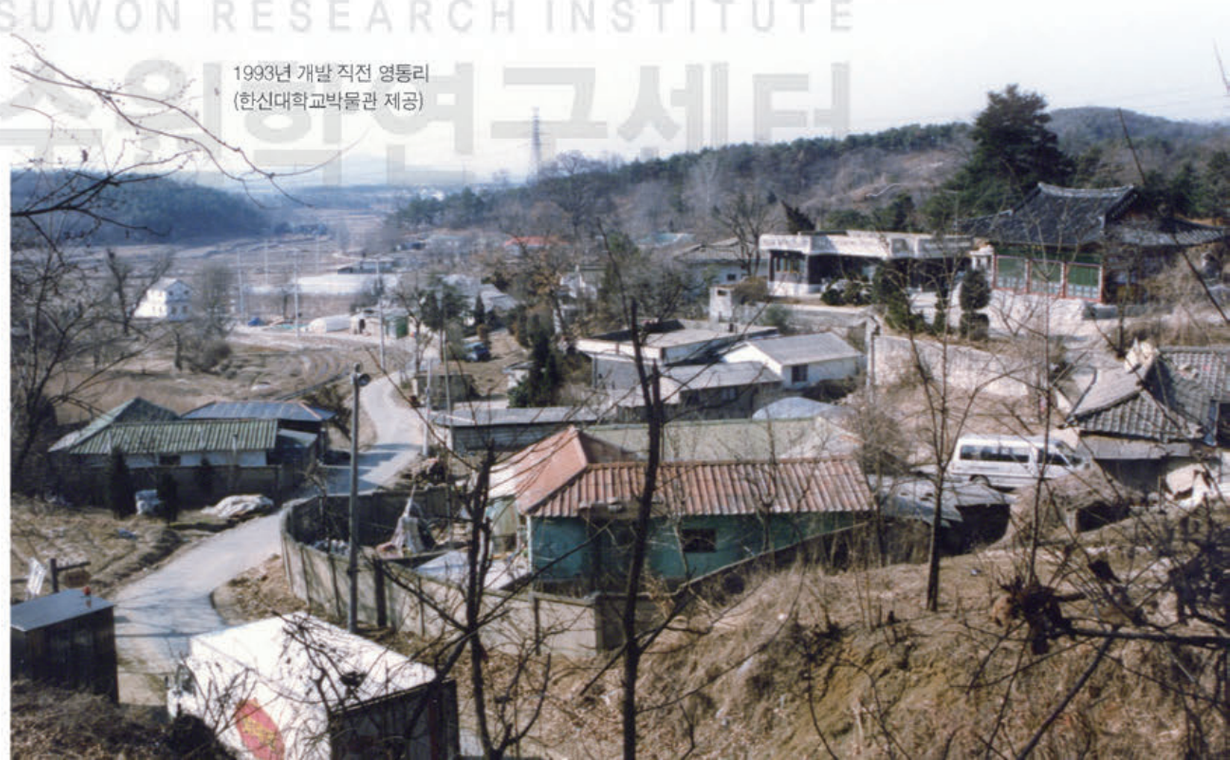
수원, 화성의 중심가에 비해 발전이 더디고 불편한 점도 있었지만, 영통리에는 시골 특유의 여유와 낭만이 있었다. 오이환은 유년 시절 평상에 누워 밤하늘을 수놓은 은하수를 보며 감탄하던 기억이 지금까지 생생하다.

오이환 우리 집에서 큰댁까지 직선거리로 한 300~400미터. 이렇게 가니까 한 500미터는 되겠지? 밤늦게 오고 가고 하면서 하늘을 보면, 그 옛날 어른들 얘기, '천개(天蓋)'라고 하늘 '천' 자, 뚜껑, 하늘 뚜껑, 진짜로 하늘 뚜껑이에요! 난 그걸 봤다고요. 별이 그냥 이렇게!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가끔 별이 이렇게, 완전히, "아! 이게 진짜로 하늘 뚜껑을 덮은 거로구나!" '천개'라는 말이 아! 그래서 생긴 거로구나. 은하수가 그냥 쏟아지게. 어렸을 때 기억이 생생한 거죠.

논농사로 바쁜 중에 잠시 한가한 틈이 되면, 주민들은 용인 신갈 쪽의 개울가에 가서 고기를 잡아 매운탕과 수제비를 끓여먹고, 빈대떡을 나눠 먹으며 여가를 즐겼다. 남녀노소가 모두 참여했기에 마을 잔치나 다름없었다.

오이환 그게 조금만 타고 넘어가면 기흥면 쪽이고, 조금 더 내려가면 이제 신갈 개울이 흐르는데. 큰 개울이 흐르는 거 지금은 그걸 막아가지고 저수지를 만들었는데, 지금 그러니까 대한항공연수원인가 자리가 하나 있어요. … 민속촌까지는 안 올라가고, 아래쪽에 개울가에 그런 게 있었지. 그 개울에 가면 물고기가 많고, 모래무지, 뭐 피라미, 이런 건 상당히 워낙 깨끗했으니까, 옛날에는. 해마다 느티나무 밑에서 모여서들 그런 걸 하든지. 아니면 넘어가서 거기서 차일 쳐놓고 천렵을 해요. 동네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다 솥단지 들고 가서 밀가루로 수제비 떠놓고 끓여가지고서. 젊은 사람들은 다 첨벙거리면서 이만한 뜰채 그물 가지고 물 젓고. 아주머니들은 계란 깨가지고, 저 뭐야, 메밀 갈아가지고, 뭐야, 녹두 갈아가지고, 전, 빈대떡도 부치고 뭐. 이게 잔치지!

영통리 아이들은 대부분 태장공립국민학교(태장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이 학교는 오이환의 조부인 오덕영이 자신의 재산을 출자하고, 동네 주민들의 지원을 받아내어 1919년 조선총독부로부터 공립보통학교의 설립인가를



1993년 개발 직전 영통리
(한신대학교박물관 제공)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받아 낸 곳이다.[6] 학교 운동회 때는 학생과 학부형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들도 모두 모여 흥겹고 떠들썩한 마을 행사가 되었다.

3. 과거와 현재를 잇는 청명단오제

1) 오랜 세월 마을의 구심점이었던 느티나무

영통에는 수백 년간 마을에 존재하며, 주민들의 일상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던 느티나무들이 있다. 하나는, 영통동 1047-3번지 청명마을 건영아파트 앞 단오어린이공원에 있는 느티나무로, 400년 이상 된 것으로 추정된다. 다른 하나는, 영통동 1092번지 청명중학교 앞 도로 가운데에 있는 나무로, 큰황골의 천석꾼이 심었다는 이야기가 있으며, 200여 년 된 것으로 추정된다.[7] 이 중 영통리 큰말 사람들의 삶과 함께했던 단오어린이공원 안 느티나무는 지역축제인 영통청명단오제를 통해 유명해졌고, 영통구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기도 했다.

어느 마을에서나 큰 나무가 휴식과 안식의 공간이 되지만, 영통 사람들에게 느티나무는 더욱 각별하다. 오지마을인데다가, 주민 숫자도 적고, 전기가설을 비롯해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늦게 들어온 곳에서 주민들의 모임과 화합에 나무 그늘은 큰 역할을 한다. 영통리 큰말 사람들은 여름에는 느티나무 아래 멍석을 깔고 나무가 내뿜는 산소와 그늘을 즐겼다. 남자들이 그 아래에서 새끼를 꼬아 큰 밧줄을 만들어 그넷줄로 삼으면, 여성과 어린이들은 그네를 탔다. 아이들은 나무 중간의 뻥 뚫린 빈 공간을 왔다 갔다 하며 술래잡기를 하였다. 말하자면 느티나무가 공공장소이자, 놀이터의 기능을 하였다.

오이환 느티나무가 그 보통 동네에 소위 '정자나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당산나무'라고도 하고, 그 밑에는 좀 이제 그늘이 좋으니까 평상 같은 거만 같은 건 없었어요. 그냥 멍석 깔고 그 느티나무가 산소를 배출해요. … 시원한 이유가 그늘이 져서 시원하기도 하지만은, 산소를 많이, 그래서 더 청량감이 느껴지는 거라. 그러다 보니까 느티나

영통동(1047-3번지) 느티나무(1992년, 한신대학교박물관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무가 여름에는 동네 사랑방 비슷하게 되는 거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자주 모이게 되고, 애들 뭐 거기서 맨날 놀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하나의 이제 공공장소, 놀이터 비슷한 그런 게 되니까 거기서 그렇게 하는 거죠. 내 어렸을 때 동네 어른들이 거기 느티나무 밑창이 나무 그늘이 좋으니까, 이제 여름에는 멍석 깔아 놓고들 앉아서 쉬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어른들이 모여서 얘기도 나누고 그런 자리가 됐잖아요. 느티나무가 이렇게 가장이가 아주 이렇게 쭉쭉, 거기에다 그네를 매주신다고요. 이렇게 꼬아서, 그 동아가 짚으로 이렇게 하면 돌려 하는 게 있어요. 뒤에서 돌아가면서 퍼져, 그러면 꼬아 가지고 기다랗게 해서 한번 다시 세 번을 꼬면 완전히 동아 밧줄이 되는 거지. 이렇게 굵은. 어른들이 하지, 나는 못 꽈 봤어요. … 그때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 가지고, 그네도 타고, 그 다음에 천렵도 하고.

오이환은 서울에서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다니고 직장생활까지 하다가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1970~1980년대 젊은이들은 도시로 유학을 가거나 취업을 위해 마을을 떠났다. 영통의 원주민 숫자도 감소하였다. 그런데 1969년 삼성전자가 매탄동 일대 2만 5,000여㎡에 자리 잡고 대기업으로 성장하면서, 생산라인의 근로자들이 증가하였다. 이들이 공장 근처에 거주할 공간이 필요해지면서, 1980년대에는 가까운 영통리까지 집을 구하는 사람들이 들어왔다. 원주민 중에 집을 새로 지어 월세를 놓는 사람도 생겼고, 표준주택을 구입해 들어오는 이들도 있었다. 인구가 감소하던 영통리는 이주민들로 다시 채워졌다.

혈연관계로 얽힌 집성촌이자, 태장초등학교 동문으로 이루어진 작은 마을에 적잖은 변화가 생겼다. 이주민들은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퇴근하는 생활을 하면서 토박이들과 가까워질 계기가 없었다. 오이환은 대지주의 후손이자 마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기에 큰말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었지만, 이주민들은 그조차 알아보지 못하였다. 소박한 마을에서 경조사를 챙기고 어려움을 헤쳐 왔던 주민들로서는 끈끈한 마을 공동체가 붕괴되는 느낌이었다.

오이환 영통이 가구 수가 좀 있다가, 좀 줄었다가, 그게 이제 이농현상 등등하고 맞물려 가지고 그런다고 그랬었잖아요. 한동안은 그렇게 뭐 별 변동이 없이 그렇게 지내다가 변동이 생기기 시작한 거는 영통에 이제 가구 수가 늘기 시작을 하는 거에요. 그 이유가 삼성전자가 활성화되면서 전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삼성전자 쪽으로 많이 몰려가서 한 때는 엄청난 사람들이, 80년대, 그쯤 됐을 거에요. 80년대에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집을 구하기도 마땅치 않고, 방 구하기도 그렇죠. 힘든 그 상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흘러흘러 영통까지 이렇게 해서 …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오이환은 영통리 큰말의 장점이었던 주민 간의 단합을 이어 가고, 서로 소통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모색하다가 단오제를 추진하였다. 사람들이 서로 인사하고 안면도 트려면 한자리에 모일 만한 명분과 볼거리, 즐길 거리가 필요하였다. 원래 영통은 다른 마을에서 "영통 두레를 못 이긴다."는 말이 나올 만큼 두레의 수준이 높았고, 대장먼 대표로 선발되어 화성군 두레 대회에 출전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그의 유년 시절 영통리 두레패를 이끌던 노인들은 고령으로 작고했거나 건강이 좋지 못했고, 오이환과 비슷한 연령대의 남성 중 이를 제대로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980년대 중반 영통리 두레 풍물(이정우 제공)

물려받은 이가 없었다. 그는 무작정 한국민속촌에 가서 풍물패의 사물놀이 공연을 관람한 후, 그들의 숙소에 가서 동네 상황을 설명하며 두레 농악을 가르쳐 줄 사람을 물색하였다. 풍물패를 지휘하는 상쇠가 직접 영통리에 와서 주민들에게 몇 달간 장단을 가르쳤다. 동네 남성들은 이를 함께 배웠다. 오이환은 사비를 써서 영동시장에 가서 옷과 음식 등을 장만하였다. 주민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일요일 날을 선택해 미리 고지를 하였다.

영통 두레패 깃발과 악기(한신대학교박물관 제공)

아침 일찍 가까운 청명산에 올라가 산신제를 지내고, 마을에 내려와 느티나무 아래에서 고사를 지냈다. 아침부터 마을이 종일 떠들썩하자 이주민들도 하나 둘 느티나무 앞으로 모여 들었고, 토박이들과 자연스레 인사를 나눴다. 떡, 과일, 국밥, 막걸리 등의 음식을 다 같이 나눠 먹었다. 단오제는 원래 농사가 잘 되게 해 달라고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마을 평화, 주민 화목 등을 기원하는 농경사회의 전통이다. 영통리는 농사에 대한 기원보다는, 단오제를 통해 토박이들과 이주민들이 서로 안면을 트고, 소통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취직을 하면서 영통리에 들어온 외지인들도 단오제에 참여하면서 토박이들에게 뜻깊은 장소인 청명산, 옹달샘, 느티나무 등 마을 곳곳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과 친숙해졌다. 단오제는 1983년 시작하여 택지개발이 되어 아파트가 들어서기까지 10년 넘게 지속되었다.

오이환 과일 가지고 이제 동네 사람들하고, 주로 젊은 사람들이고, 어른들도 이제 재미있으니까 그 힘들어도 이제 올라오시고 해 가지고 그냥 거기서 뭐 놓고 뭐 그 저거 한 번씩 하고. "우리 동네 좀 잘 화목하게 하고, 그 무병하고 편안하게 좀 해 주십시다." 하고 이제 빌고. 느티나무 밑창에서 빌고. 그리고 그날 떡도 했다, 무슨 과일도 좀 장만했겠다, 막걸리 받아오고 또 이제 이 국밥도 좀 끓이고 이 잔치가. 그날은 미리서 광고하고 그래서 일부러 일요일 날을 선택을, 단오날이 아니라, "일요일 날 이거 하니까 다 와라." 그 다들 모여 가지고. 그때 이제 인사하고 뭐 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친해지기 시작하고 태안농협에서 조합장도 막걸리 몇 개 가지고 오시고.

2) 세월을 뛰어넘어 어울리는 주민들

영통리 큰말은 '수원영통·용인영덕 택지개발사업'으로 대변화를 맞이한다.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주택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사회문제로 부상하자, 한국주택공사는 수도권 택지난을 완화하기 위해 1993년 9월, 수원시 팔달구 매탄동 일원, 화성군 태안읍 영통리, 용인군 기흥읍 영덕리 일대에 100만 평 규모의 신시가지를 건설한다고 발표하였다.[8] 이에 따라 영통 주민들은 1994~1995년 무렵 대부분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 했다.

마을이 개발됨으로써 토지보상금을 받아 편안한 여생을 보내는 이도 있지만, 장사를 시작했다가 재산을 대부분 잃은 이도 있고, 보상금 때문에 일

수원 영통·용인 영덕지구 대규모 택지 건설

수원 영통동및 용인 영덕지구에 오는96년까지 아파트 2만6천여가구와 25개 교육시설등이 들어서는 1백만평 규모의 대규모 종합주거단지가 건설된다.

한국토지개발공사는 9일 총사업비 7천1백15억원을 투입, 수원시 매탄동 일원과 화성군태안읍영통리, 용인군기흥읍영덕리 일대등 3개 행정구역이 걸쳐있는 곳에 인구 10만여명이 거주하는 주거지역을 내년3월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통·영덕 택지개발지구에는 아파트 2만6천4백90가구와 단독주택 5백40가구등 주택 2만7천30가구가 건설되며, 상업용지 4만1천8백여평에는 업무·판매시설이 들어설 계획이다. 〈崔榮允기자〉

수원 영통 택지개발 사업 발표(『조선일보』 1993년 9월 10일)

가친척과 분란이 생긴 경우도 있다. 소박하고 조용한 환경에서 평생 농사만 짓던 큰말 토박이들의 삶은 개발로 송두리째 달라졌다. 1997년 공사가 끝난 후 마을 주민 중 다시 영통에 입주한 사람은 10~15%쯤 된다.

그렇지만 정겨웠던 시골 마을은 이미 세련되고 웅장한 도시로 변모하였고, 마을 공동체도 해체되었다. 영통으로 돌아온 이들은 물론, 이주자 택지나, 인근 동네에 거주하던 영통 원주민들은 소멸된 기존의 공동체와 사라진 마을에 대해 늘 아쉬움을 느꼈다. 단오제의 명맥이 끊어지고, 신도시 아파트 숲 가운데 외롭게 서 있는 느티나무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었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영통택지개발지구에 건설되고 있는 아파트 단지(수원박물관 제공)

2023년 영통동(김승일 제공)

2017년 청명단오제(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2017년 대한민국 보호수 100선에 선정된 영동 느티나무(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수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이에 영통동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하여 과거의 단오제를 다시 한 번 살려 보자고 하였다. 영통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주민들의 존경을 받던 오이환이 초대 보존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2005년 '영통청명단오제'라는 이름으로 단오제 행사를 시작하였다. 2005년부터 재개된 영통청명단오제 행사는 코로나19로 중단된 해를 제외하고 꾸준히 이어져서 2023년까지 벌써 16회째나 진행되었다.

보통 오전 7시부터 청명산 산신제를 올리기 시작해, 9시부터 식전행사, 10시부터 느티나무에서 행해지는 단오제 행사로 이어진다. 청명단오제를 주도한 오이환을 비롯하여 수원시장, 도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구청장, 등 지역의 주요 인물들도 대거 참여한다. 유교식으로 치르는 단오제 행사에서

청명산 산신제

이들은 초헌관, 아헌관 등의 역할을 맡는다.

1980년대에 시작한 영통의 단오제는 혈연 중심의 전통적인 촌락 공동체에 이주민이 증가하면서 마을 분위기를 환기하고 화합을 도모했다면, 현재의 청명단오제는 영통뿐만 아니라 수원을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하였다. 전통 제례의식(산신제, 당산제), 단오부채 가훈 쓰기, 봉숭아 물들이기, 단옷날 소원 빌기, 제기차기, 투호놀이 등 다양한 전통문화와 놀이를 체험할 수 있고, 팔씨름, 제기차기 등 동별 대항 민속경기, 어린이뮤지컬, 영통여성합창단, 주민자치 동아리 공연 등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공연이 펼쳐진다. 느티나무 주변 부스에 각종 먹거리와 지역 특산품도 나열되어 있다.

영통리 마을공동체의 구심점과도 같은 역할을 했던 느티나무는 지금 영

2009년 제5회 영통청명단오제 당산제
(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영통청명단오제 풍물패와 행사부스(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2008년 제4회 영통청명단오제 행사
(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2018년 6월 26일 태풍으로 부러진 영동 느티나무(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통단오어린이공원 안에 있다. 느티나무는 2018년 6월, 강한 폭우에 높이 3m 부분에 자리한 큰 가지 4개가 동시에 꺾이며 부러졌다. 오랫동안 영통 주민들의 사랑을 받던 나무의 처참한 모습에 많은 주민들이 안타까워했으나, 수원시의 조치와 관리를 통해 후계목과 실생묘가 성장하며, 느티나무의 생명력이 지속되고 있다. 긴 세월만큼 마을도, 나무도 우여곡절을 겪은 것이다.

6월 초여름 일요일에 열리는 영통청명단오제에는 남녀노소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한다. 마을을 떠난 후 과거의 공동체 행사와 분위기를 그리워하며 찾아오는 토박이 노인들, 장기자랑에 직접 참여하여 재능을 뽐내는 신도시 주민들, 공연을 보러 온 중고생들, 유모차를 끌고 나온 젊은 주부들이 단오

2020년 영동동 느티나무 후계목(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어린이공원을 가득 메운다. 아파트로 가득한 신도시에 입성한 주민들은 단오제를 통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영통이 과거 어떤 마을이었는지, 느티나무가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알게 된다.

오이환 처음에도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요즘 내가 제일 흐뭇하고 마음에 드는 게 고마운 게, 젊은 부인들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많이 참여를 해요. 그 젊은 부인들이 애들한테 그런 거라도 좀 어떻게 보여주려고 하고, 우리의 전통 등등, 전통 문화하고 오늘의 문화하고 이렇게 연계해 가면서 이런 거를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다는 게 일단은 얼마나 고

SRI 수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영통 느티나무의 가지를 보새기는 영통 주민들(2022년)

마운지 모르겠다. 붙들고 인사는 안 했지만은 뒤에서 이렇게 보면서 고마웠던 거 같은데. "잘했다!"

현재 단오제 고문으로 활동하는 오이환은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단오제에 참여하는 젊은 어머니들을 볼 때 정말 흐뭇하고 고마운 마음이 든다고 한다. 영통리 사람들의 휴식과 놀이, 소통을 담당했던 느티나무는 세월을 뛰어넘어 사랑받으며, 주민들끼리 서로를 이해하고 지역을 사랑하는 데 보탬이 되는 "아낌없는 나무"이자, "수원의 수호신"이 되었다. 영통청명단오제는 과거와 현재를 잇고, 원 거주민들의 전통 문화와 아파트 주민들의 현대 문화를 연계하면서, 수원 주민들의 자랑거리로 새겨지고 있다.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 수원시, 『수원의 지명과 도로명 총람』, 2015, 464쪽.
2.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460.
3. 17일 상오 11시 박대통령 부인 육영수 여사는 고대 학생봉사클럽 한국농어촌문제연구회 주최 숙세공품전시장을 돌아보고 칭찬한 솜씨를 치하하였다. 고대 교수회관에서 열린 이 전시회는 강원도 명주군 옥계면 주민들이 67연도부터 고대학생들의 가내부업 지도로 익혀온 솜씨자랑이다.(「숙세공품 돌아봐 육영수 여사 칭찬」, 『경향신문』, 1969년 3월 17일)
4. 수원시, 『수원의 지명과 도로명 총람』, 2015, 465쪽; 영통동 주민센터 홈페이지(https://yt.suwon.go.kr/).
5. 「박대통령 참석 가지치기 솎아내기 벌채등 농촌연료채취 시범교육」, 『조선일보』, 1973년 10월 25일; 「농촌 연료 채취 시범교육 박대통령 참석 화성군 영통리서」, 『매일경제』, 1973년 10월 25일.
6. 이동근, 『수원근현대사 증언자료집4-영통해주오씨가의 삶과 영통의 개발』, 수원박물관, 2010, 17~18쪽.
7. 수원시, 『수원의 지명과 도로명 총람』, 2015, 466쪽.
8. 「수원 영통, 용인 영덕지구에 1백만평 규모 신시가지 건설」, 『연합뉴스』, 1993년 9월 8일; 한국도지개발공사, 「수원영통-용인영덕지구택지개발사업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1994.

매탄동 이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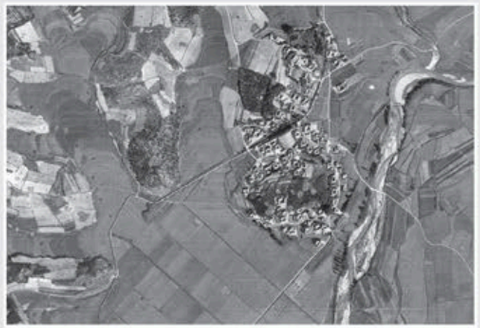
마을의 뿌리를 이어 가는 산드래미향토회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 농촌 마을에서 삼성 도시로

산드래미는 매탄4동 매원중학교 동쪽 길 건너에 있던 마을로, 원래 매탄동의 중심 마을이었다. '매탄'이라는 이름은 '매여울'에서 비롯되었다. 원천 물줄기가 흐르다 이 지역에서 여울을 이루고 있다고 해서 '매여울'이라 불리던 것이 한자어로 표기되어 '매탄'이라 불렸다고 한다.[1] 산드래미라는 이름은 매봉 둘레에 병풍을 두른 듯이 아늑하게 자리 잡고 있는 마을 모습에서 비롯되었다. 산 둘레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으로 '산둘레미'라고 불렸다가 소리 나는 대로 편하게 '산드래미' 또는 '산드레미'로 바뀌었다.[2]

도시가 개발되면서 산이 없어지고, 단독주택, 상가, 대단위 아파트 단지 등이 밀집된 주거지역으로 바뀌었다. 매탄공원과 생활체육시설을 갖춘 상태이다. 또 1㎞ 조금 떨어진 거리인 매탄3동에 삼성전자가 들어서 있다.



1966년

1974년

1985년

1990년

2000년

2022년

매탄동 산드래미 마을의 변화(수원시 항공사진서비스 제공)

1972년 매탄동 산드래미 새마을사업(수원박물관 제공)

수원학연구센터
SUWON RESEARCH INSTITUTE

이제는 마을 경관을 보고, '산드래미'라는 어원을 떠올리기 쉽지 않다. 다만 식당, 슈퍼마켓, 부동산, 경로당, 도서관 등 '산드래미'라는 명칭을 붙인 곳들이 몇 군데 있기에, 주민들 사이에 '산드래미'라는 이름이 낯설지 않고, 동네에 새로 이주해 온 사람들도 마을의 기원에 대해 알게 된다.

예전 산드래미 마을은 어떤 곳이었을까? 산드래미는 매탄동에서 규모도 크고, 중심이 되는 마을이었다. 윗마을은 송씨, 아랫마을(마루터기공원)은 진씨가 주로 살았으며, 윗마을과 아랫마을에 산이 크게 둘러싸여 있었다. 이 마을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인물 중에 이필대가 있다. 그는 1938년생으로, 인터뷰 당시 85세의 고령이었으나, 건강을 유지하며 마을 일에 적극적으로 참

1972년 매탄동 산드래미 마을 안길 넓히기(수원박물관 제공)

1972년 매탄동 산드래미 새마을사업(수원박물관 제공)

ORI 수원학연구센터

여하고 있었다. 젊은 시절 새마을지도자를 역임했으며, 최근 20여 년간 산드래미향토회의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매탄동 마루터기 어린이공원 인근의 주택 거주하고 있어 동네 소식에도 해박하다. 여주 이씨인 이필대의 아버지 고향은 수원시 하광교동이었고, 산드래미는 아버지의 외가 동네이다. 아버지가 이곳으로 이주하였기 때문에 이필대는 산드래미 마을에서 출생하였다.

산드래미에는 홍양 류씨, 여산 송씨, 여양 진씨, 수성 최씨 등 4개 성씨가 주류를 이루었다. 마을에 논밭이 많아 주민들은 주로 농업에 종사했으며, 이필대의 부모도 농사를 지었다. 주민들끼리 단합이 잘 되었고, 농악도 근방에서 제일 뛰어났다.

이필대 산드래미 하면 이 근방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산드래미' 이러면은, "아! 거기!" 마을 규모가 무지하게 크지. 농악도 여기가 제일, 이 근방에서 이 산드래미가 제일 유명했었고, 이 벌판, 여기 저 삼성전자 지금 있는 거기가 전부 전답이었었어요. 논밭이었고, 이 안에도 지금 저 비행기장까지, 비행장까지, 거기까지, 곡반정동 거기까지 다

논이었었어. 원천저수지에서 여기 물이 흘러서 여기 농사를 짓게.

이필대는 수원농고(현재 수원농생명과학고등학교) 17회 출신이다. 그 시절 수원농고 출신은 꽤 엘리트에 속하였으며, 졸업 후 직접 농사를 짓기 보다는 취업을 하여 사회에 진출하는 분위기였다. 이필대도 농고를 졸업하고, 체신부에 입사하였다. 체신부는 우편·전기통신·전파관리·우편환·우편대체·체신예금 및 체신보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던 중앙행정기관이었다. 이후 정보통신부, KT, 우정사업본부가 되었다. 그는 KT 소속으로 1996년 정년퇴직을 맞았다. 10년 정도 서울에 살던 시기를 제외하고는 계속 매탄동에 거주했고, 수원에서 서울의 사무실까지 출퇴근하였다.

매탄동 산드래미는 1960년대까지 논, 밭, 배와 복숭아를 재배하는 과수원이 많았다. 주민들 대부분이 채소 농업을 병행해서 농산물을 지동시장에 갖다 팔았다. 1970년대까지는 마을에 논이 많고 땅이 질어 장화를 신고 다녔다. 수원의 여러 마을이 산업화, 도시화, 택지개발 등으로 많은 변화를 겪었는데, 매탄동은 특히 삼성전자가 들어서며 1970년경부터 크게 변모한 곳이다.

1968년 삼성은 전자산업에 진출하려고 수원 매탄벌 148만㎡, 약 45만 평의 토지를 매입하였다. 이때 주민들은 살고 있던 집과 농토를 팔았고, 매탄동의 논, 밭과 가옥은 공장으로 바뀌었다. 매탄동 삼정전자를 통해 1970~1980년대 가정생활과 밀접한 가전제품인 TV, 비디오, 컴퓨터, 전자레인지, 가스레인지, 세탁기, 에어컨 등이 대량으로 생산되고, 반도체와 컴퓨터 등의 기술발전과 산업 육성이 시작되었다.[3] 1983년 6월 삼성전자 주식회사의 소개 글을 보면 당시 회사 목표와 위상 등을 가늠할 수 있다.

산드래미 마을회관에 나부끼는 삼성전자 깃발
(1975년, 수원박물관 제공)

1975년 6월 10일 매탄동 산드래미와 삼성전자 자매결연식(수원박물관 제공)

수원시 매탄벌 40여 만 평의 부지 위에 대규모 전자공업기지를 형성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설립된 것은 불과 14년 전인 1969년, 전자산업을 통해 "풍요로운 미래 창조"를 위한 기업 이념으로 출발하였다. 가정용 전자기기에서부터 시작하여 불모지였던 국내 전자산업은 오늘날까지 이끌어 온 삼성전자는 이제 세계 속의 전자업체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으며, 전자종합연구소를 중심으로 최첨단의 반도체 및 컴퓨터 등의 기술개발 및 산업육성에 앞장서 '전자기술립국'의 과제를 주도해 가고 있다.[4]

1969년 매탄동에 삼성전자가 입주하면서, 여러 하청 업체들이 들어왔다. 삼성전자 생산직 근로자들의 숫자가 많아지면서, 매탄동은 물론 인근 마을까지 월세 수요가 폭증하였다. 산드래미 주민들은 창고와 외양간 등을 방으로 만들어 월세를 받으면서, 농민에서 임대소득자로 생업이 전환되었다. 육체적으로 힘든 농사일 대신 월세를 통해 돈을 버는 것이 안정적이고 편하다는 사람들도 있었다. 마을이 개발되고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1970~1980년대 초반에는 집성촌이 아닌, 토박이와 이주민이 섞여 사는 마을로 바뀌었다. 원주민들이 텃세를 부리지 않아, 서로 원만한 사이였다.

그러던 중 1985년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농촌 마을이자 곡창지대였던 산드래미는 급격하게 시가지로 바뀌었다. 주민들은 토지를 팔고, 그에 대한 보상금을 받았다. 산드래미에서는 토지를 많이 소유한 여양 진씨 일가가 가장 많은 보상을 받았는데, 간혹 몇 억 혹은 몇 십 억 단위의 큰돈을 받은 이도 있었다. 그런데 도시의 직장에 다니며 사회생활을 병행하던 이들은 이 돈을 잘 썼지만, 평생 농사를 지으며 소박하게 살던 노인들은 보상금을 다 써보지도 못하고 사망하기도 했다. 토지 보상금으로 사업이나 장사를 시작하거나, 친인척들에게 빌려주거나, 사기를 당하면서 오히려 경제적으로 악화된 사람들도 다수 있었다.

이필대 외곽에다가 땅도 좀 사고, 돈도 좀 쓰고. 농촌이라 돈 써본 사람도 없잖아. 농촌에서 그 큰 돈 보상 받은 돈 쓰기가 그거 힘들잖아요. 농사짓던 사람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 이렇게 갑자기 돈이 몇 십 억이, 몇 십 억이, 딱 들어왔다! 놀라지. 내가 농사를 못 짓지. 그 사람은 다 똑같으니까. 그런 식으로다가 이제 살다가 돈도 못 쓰고 돌아간 거예요. 그 자리에 농사짓던 사람들 돈 10억, 몇 십 억 이렇게 들어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오면은 큰돈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에요. 그 농사짓던 사람들, 사회생활을 하던 사람들은 또 써요. 농사짓던 사람들은, 들판에 여기가 다 들판이었었어요. 이 아래가 다 반정리까지 비행기장 그 있는 데까지 다 논이었었어요. 어마어마한 농촌이었거든. 그렇게 대대적으로 농사짓던 분이 있고 갑자기 도시화되면서 보상이 나오니까 깜짝깜짝 놀라시더라. 그 돈도 써보지 못하고 돌아간 분이 허다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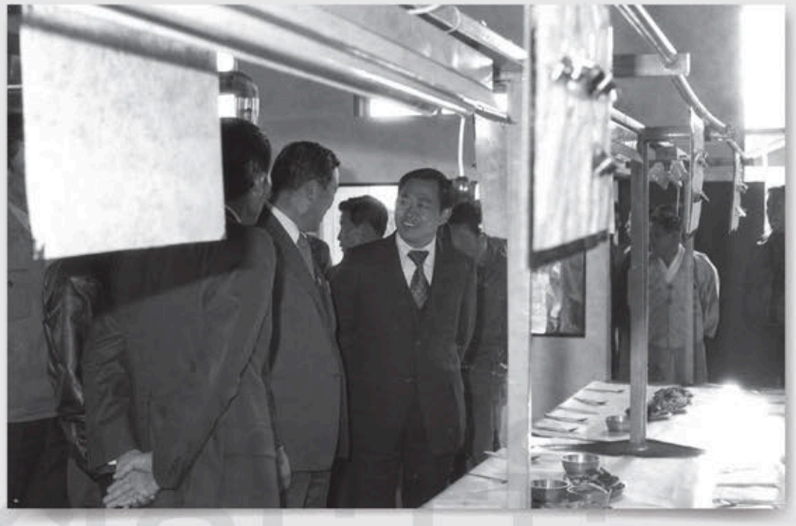
2. 30년째 이어 가는 향토회

매탄2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고향을 잃고 여러 동네로 흩어진 산드래미 주민들은 1989년 산드래미향토회(鄕土會)를 조직하였다. 향토회는 보통 토박이들의 모임으로, 친목, 지역 발전, 애향심 고취 등을 목적으로 만들어진다. 고향에 남아 있거나 떠난 사람들끼리 연락하며 경조사를 챙기기도 하고, 정기적으로 모여 식사도 하면서 끈끈한 정을 이어 나가는 모임이다. 산드래미도 1989년에 향토회가 결성되었다.

향토회가 출범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인물은 유중갑(1924~1994)으로, 산드래미의 입향조 유세웅의 13대손이다. 경찰관 출신으로, 행정 업무, 공직 경험이 있었기에 본인의 능력을 십분 발휘했다고 한다. 그는 "우리 주민들이 동서로 남북으로 떨어져 살망정 옛 정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토박이 주민을 모았다고 한다. 향토회 초대회장으로 선임되었고, 이후 3차의 회장을 연임하는 10여 년 동안 산드래미 주민들의 단결과 화합을 도모하는 데 많이 기여하였다.[5]

산드래미향토회가 만들어지는 데 토대가 된 비용은 과거 박정희 대통령

1976년 12월 10일 산드래미 새마을공장 준공 및 가동(수원박물관 제공)



1976년 12월 10일 산드레미 새마을공장 준공(수원박물관 제공)

1976년 12월 10일 산드레미 새마을공장 가동(수원박물관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산드래미향토회 총회

이 하사한 새마을기금이었다. 1970년대는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새마을공장을 설립하고 농공품을 개발하여 농가에서 얻는 수입 외에 소득을 늘리는 추세였다.[6] 산드래미는 대통령 하사금을 받아 공장을 운영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1억 넘는 기금을 모은 상태였다. 주민들은 이를 향토회 기금으로 운용하였다.

이필대 새마을공장이, 삼성전자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새마을공장을 운영을 해서 그래 가지고, 새마을공장으로 운영을 해가지고. 새마을공장을 운영하면서 1억이 넘었는데 이걸 쓰느냐 안 쓰느냐. 그런데 그러면 그때 당시 대통령 하사금을 받은 거야. 그것이 기금이 돼 가지고. 그것이 큰 거지. 이제 그걸 그렇게 쓰지 말고 향토회 본 저기를 저거 해서 향토회 이렇게 해서 이걸 대대로 이어가는 방법으로 하자. 그렇게 해서 이게 조직이 된 거예요. … 그 양반들이 지금 다 돌아가고 젊은 사람들만 조금 남았는데, 이걸 운영을 하려니, 사실 나도 이게 벌써 저거(사퇴)를 했어야 되는 건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여기까지 그냥 밀고 내려온 거예요. … 이 당시에 이제 이 양반(유중갑)이 주축이 돼 가지고 여기가 도시화가 되고 그러니까 다 흩어져 살 수 없으니까, 향토회라는 걸 조직을 해서. 이 양반이 시초가 됐는데.

1991년 산드래미기적비 제막식

산드래미향토회에는 2018년 기준으로 120가구, 인원수로는 500여 명이 소속되어 있는데, 노인들이 작고하면서 인원이 줄어들고 있다. 향토회 회원들은 수원에서 이러한 공동체 조직을 찾기 힘들 정도로 단합이 잘 된다며 자부심이 강하였다.

'산드래미향토회 회칙'은 설립 목적, 임원의 구성과 임무, 재정과 재산관리, 행사 및 제례 시기, 부의금에 대한 규정, 상벌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향토회 회칙에 따르면 이 모임은 "산드래미 마을의 번영을 위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공동노력하며 부락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각종 기록의 보관 관리를 목적으로" 조직되었다. 구성원은 "산드래미에 고향

SRI 수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2000년대 신드레미 마을과 삼성전자

산드래미향토회 회장 유중갑 추모비와 향토회 역대 회장 공적비

을 둔 출신과 설립 당시의 회원 직계 가족, 부락의 번영과 발전을 위한 부락 주민"으로 규정하였다. 임원으로는 고문(약간 명), 회장(1명), 부회장(1명), 총무(1명), 재무(1명), 감사(2명)를 두도록 하였고 운영위원은 10명으로 정하였다. 향토회 1대 회장은 유중갑, 2대 회장은 차광수, 3대는 진어용, 4대는 최송무, 5대는 송항섭, 6대는 이필대이다. 선뜻 회장을 맡으려는 사람이 없어, 이필대가 1998년도부터 2022년 7월 인터뷰 당시까지 회장으로 재임하고 있다.

향토회는 총회와 운영위원회를 통해 운영되었는데, 총회에서는 회칙 개정 및 개정안, 재산 취득 및 처분, 임원의 선출, 예산 및 결산 승인, 사업계획 및 집행 보고 등을 의결한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총회에 상정할 의안 심의, 재산증식 및 경비지출에 관한 사항 등을 의결한다. 주요 사업으로 매년 음력 1월 15일 전후 공휴일에 기적비 행사 및 제례를 시행하도록 하였고, 단합대회는 총회에서 결정하여 개최하도록 하였다.

3. 산드래미기적비와 마을 공동체 행사

산드래미 주민들은 1991년 2월 향토회의 이름으로 '산드래미기적비'를 매탄동 866-25번지(아랫말)와 매탄동 205-32번지(윗마을)에 각각 세웠다. 기적비(記績碑)에는 마을의 유래와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7] 이에 따르면 산드래미에는 중종 대에 흥양 류씨, 선조 대에 여산 송씨, 인조 대에 여양 진씨, 영조 대에 수성 최씨가 각각 입향하였다고 한다.

> 이 마을은 서기 1500년경 이조 중종조에 정국공신 흥양 류씨 세웅공이 낙향하여 세거하면서부터 형성되었다. 그 후 1590년경 선조조 진사로 사옹원 봉사인 여산 송씨 시신공이 한봉산 하에 세거의 터를 닦았으며 1630년경 인조조에 여양 진씨 한림학사를 지낸 경명공이 산남리 중턱을 잡았고 1730년경에 효력부위 수문장을 지낸 수성 최씨 대웅공이 오산에서 이곳으로 이주하니 아랫마을 윗마을 마루터기가 산을 둘러싸여 마을이 형성되었다 하여 산드래미라 불렀다.

오랫동안 번성하였던 산드래미는 1985년 수원시 도시계획에 따라 개발이 추진되면서 마을이 해체되었고 주민들은 흩어졌다. 산드래미가 사라지자 옛 고향을 그리는 향토회 회원들은 "선령을 위안"하고 "후손들에게 선조들의 유지를 영원히 잊지 않게" 하고자 산드래미 마을 터에 기적비를 건립하였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산드래미기적비(매탄동 866-25)

400여 년간 조상들이 피땀으로 일구어 물려받은 이 땅 더욱 아름답게 가꾸어 후손들에게 물려줄 이 마을이 1984년 수원시 확장계획으로 수용케 되었으니 청천벽력이었다. 대대로 이어오는 고향을 버리고 정든 이웃과 이산해야 하는 비애를 맞은 것이다. 그러나 국가시책을 어찌하리오. 발전을 위한 희생을 감수하였도다. 고향 잃은 우리 주민들은 향토회를 조직하고 수시로 모여 구정을 이어간다.

고향 잃은 설움을 달래면서 이렇게 이산한 지 불과 5년여 고향의 옛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구나. 바둑판 같이 정연하게 뚫린 도로 빽빽이 숲을 이룬 고층빌딩 상전벽해라드니 이를 두고 한 말인가 감회가 새로워질 뿐이다. 옛 고향을 그리는 향토회원들이 정성을 모아 산드래미의 구지에 기적비를 건립하오니 선령을 위안함이요 후손들에게 선조들의 유지를 영원히 잊지 않게 함이로다.

산드래미기적비를 건립한 후 매년 음력 정월 대보름 무렵에 기적비 앞에서 제사를 지내기 시작하였다. 기적비 제사는 원래 마을에서 내려오는 신앙이 아니라, 기존의 마을이 사라

산드래미기적비(매탄동 866-25)

산드래미 윗마을 당제(https://cafe.daum.net/maetannewspaper)

산드래미 아랫말 당제(https://cafe.daum.net/maetannewspaper)

산드래미 마을 척사대회(https://cafe.daum.net/maetannewspaper)

수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지면서 이를 안타깝게 여기던 토박이들이 새로 만들어낸 동제(洞祭)의 하나이다. 기적비의 존재와 제사를 통해 마을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고, 주민들이 모일 명분이 만들어지고, 함께 어우러지며 즐기는 자리를 갖게 된 것이다. 향토회 회원들은 기적비 제사를 영통청명단오제처럼 지역의 대표적인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싶어 했으나, 코로나19와 향토회 회원들의 고령화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배탄4동 산드래미 마을에는 예전에 풍성한 숲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보호수가 있다. 산샘어린이공원에 있는 느티나무와 삼성전기 후문 길 건너편에 있는 느티나무이다. 이들 나무는 1982년 보호수로 지정되었는데, 수령이 각

산드래미 아랫말 느티나무

고사된 산드래미 아랫말 느티나무(『e수원뉴스』 2020년 3월 19일)

수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각 270년, 320년 정도로 추정되었다. 보호수는 100년 이상 된 나무 중 20m 이상의 높이에, 1m 이상의 굵기인 나무 또는 노목(老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으로 고사 및 전설이 담긴 수목이나 특별히 보호 또는 증식가치가 있는 수종이 지정된다.[8]

그런데 2017년부터 나무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다. 염분과다로 토양이 황폐화되고, 수분과 영양 공급 부족으로 나무가 고사하고 말았다 한동안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 수액을 맞추는 등 노력을 했지만, 커다란 나무는 생을 다했다. 오래된 마을의 상징이었던 나무가 죽으면서 마을 주민들의 실망감도 컸다. 도시화, 끊임없는 공사, 환경오염 속에서 나무가 숨 쉴 기반이 사라

2022년 12월 20일 옛 산드래미 마을 표지석 제막식

지듯, 토박이들도 설 자리도 없어지는 듯 느껴졌기 때문이다.

토박이들은 1994년 12월 『산드래미향토회명감』을 발간하였는데, 이 안에는 회원들의 명단, 가족관계, 주소록, 가족사진 등이 담겨 있다. 옛 마을은 사라졌지만, 마을을 구성하던 토박이들은 기적비와 명감을 통해 고향을 기억하고, 서로를 추억할 수 있게 되었다. 이주가 빈번한 요즘 세태에서 마을 공동체의 전통을 현대까지 이어 나가고, 마을의 뿌리를 기억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산드래미 마을은 정월대보름 기적비 행사와 척사대회를 개최하면서 마을의 옛 주인들뿐만 아니라 새로 들어온 사람들과도 어울리며 안녕과 화합을 다지고 있다. 30년간 지속된 향토회의 발자취를 보면서, 도시화와 개인주의 속에서도 따뜻하게 유지되는 마을 공동체의 온기를 느낄 수 있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 수원시, 『수원의 지명과 도로명 총람』, 2015, 434쪽.
2. 「산드래미 마을과 참새골을 찾아서-산과 샘은 사라졌지만 지혜는 남아 이어져요」, 『e-수원뉴스』, 2018년 3월 28일.
3. 조용태, 「탐방-수원 삼성전자」, 『한국화재보험협회 防災와 保險』 Vol.76, 1998.
4. 편집부, 「特別 會員紹介② 三星電子株式會社」, 『정보과학』 제1권 제1호, 한국정보과학회, 1983년 6월.
5. 충청민속문화연구소, 『수원의 동제와 마을축제』, 수원문화원, 2018, 170~181쪽.
6. 吳瀅甲, 「새마을 工場의 經營改善方案에 關한 然究 : 全北 새마을工場의 經營實態分析을 中心으로」, 『全北大學校 論文集』 Vol.18, 1976.
7. 수원시, 『수원의 지명과 도로명 총람』, 2015, 436쪽.
8. 「매탄4동 산드래미 마을 고사된 느티나무」, 『e수원뉴스』, 2020년 3월 19일.

01 오지 마을 영통리 이장의 역할과 일상

02 아파트 공동체 대변자에서 시민과 도민의 일꾼으로

03 광교신도시 개발 지역 마을 주민들의 대변인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정책연구센터

제3부

마을을 위해 발로 뛰다

영통동 이정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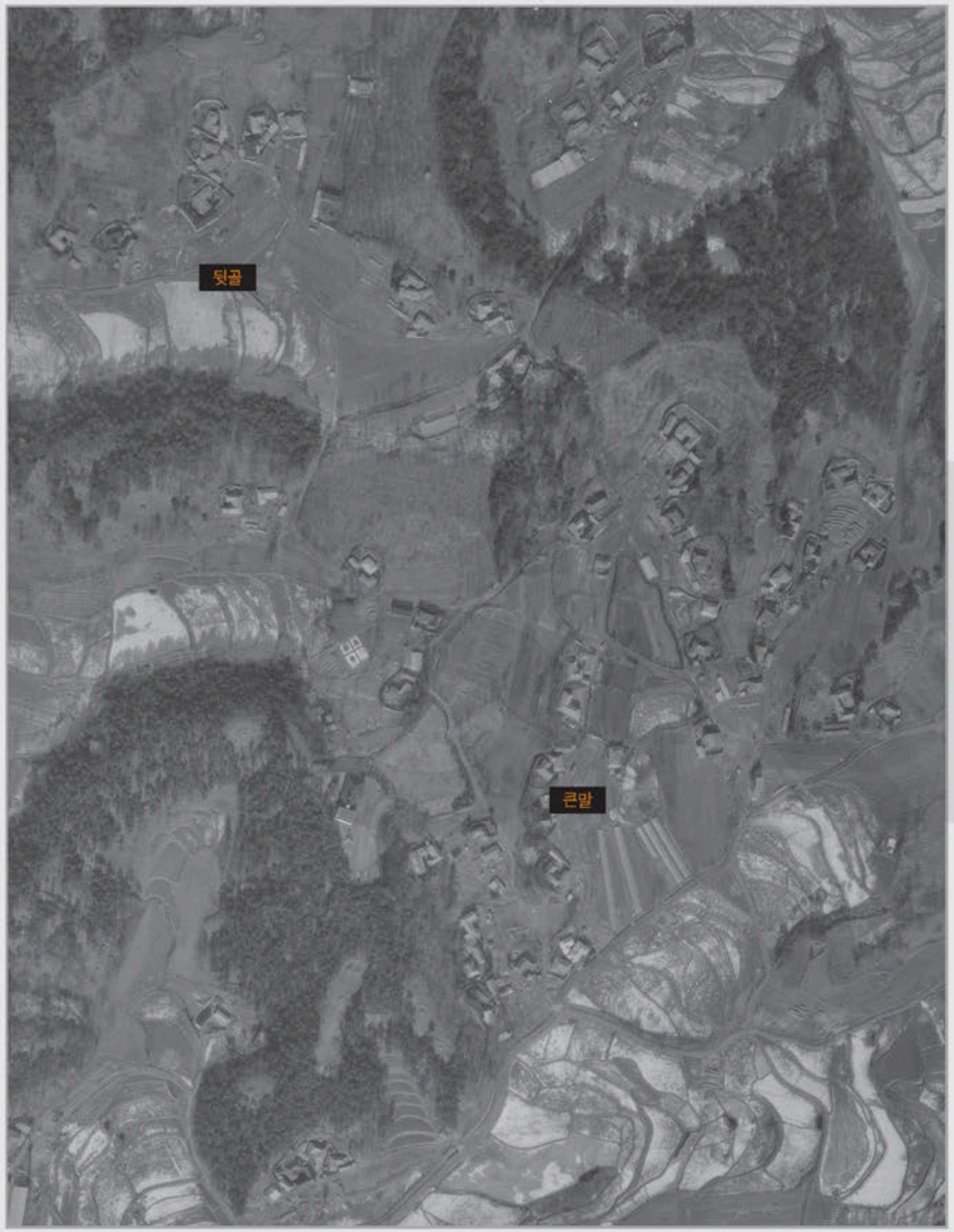
오지 마을 영통리 이장의 역할과 일상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리연구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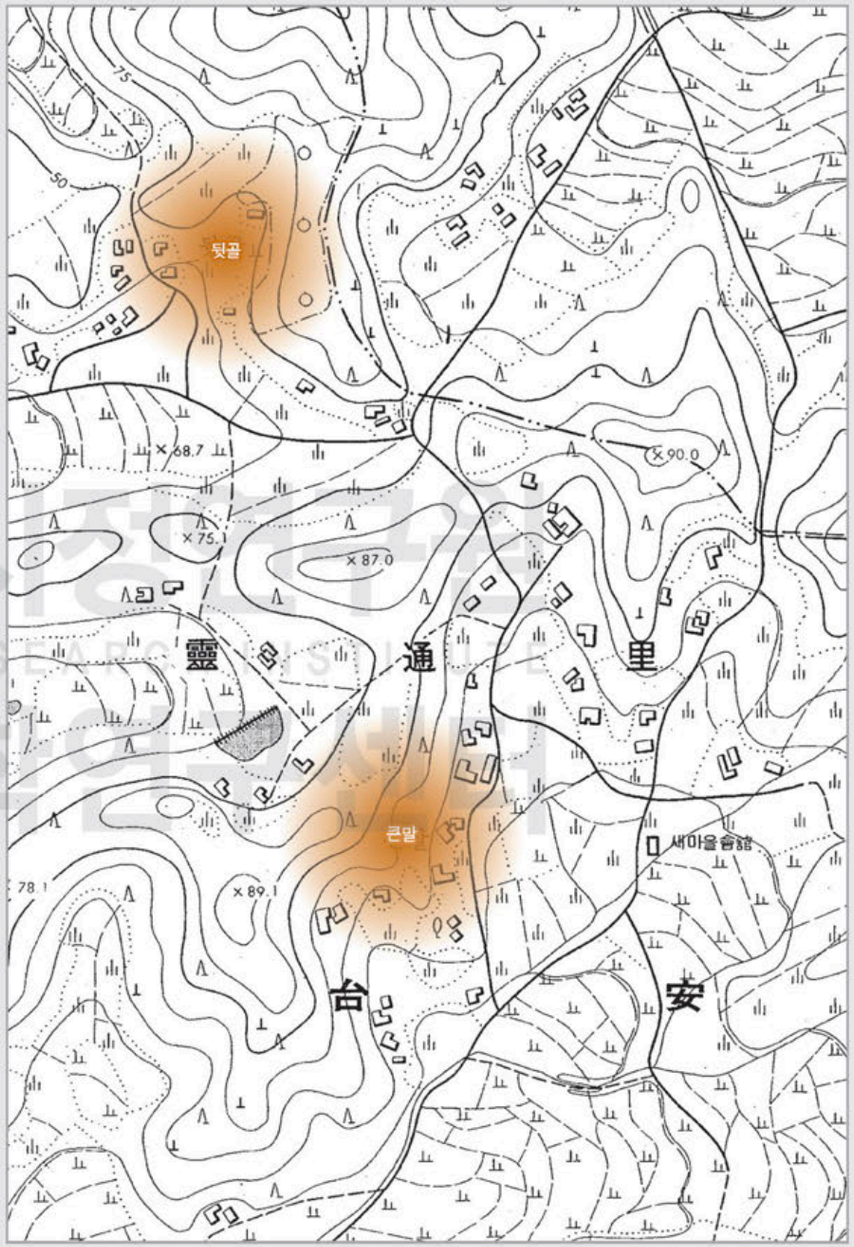
1. 오지 마을 영통리 이장 이정우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수원의 영통동은 중산층과 젊은 층의 비율이 높고, 높은 교육열과 쾌적한 학원가, 살기 좋은 도시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지금은 대기업 배후도시이자 학원과 상권의 중심지이지만, 불과 3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이곳은 농업을 주로 하던 전통적인 촌락공동체였다. 한국토지공사의 '수원영통·용인영덕 택지개발'로 마을이 해체되고, 토박이 주민들이 이주하면서 큰 변화를 맞이한 곳이다.

'수원영통·용인영덕 택지개발'은 수원시 권선구 매탄동, 화성군 태안읍 영통리, 용인군 기흥읍 영덕리 일대 99만 4,000평을 사업지구로 하여, 용지보상비 5,366억 원 등 총사업비 8,410억 원을 들여 10만 명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총 2만 7,030가구의 주택을 짓는 대규모 택지조성사업이었다. 영통



1980년 영통리 큰말과 뒷골



1983년 영통리 큰말과 뒷골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택지개발에 따라 수원 지역의 주택난이 완화되고, 영통은 각종 기반시설을 갖춘 수원의 중추적인 신시가지로 탈바꿈하였다.

한편 농사를 지으며 대대손손 살아온 자연마을이 자취를 감추고, 원 거주민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기도 하였다. 이에 과거 영통리 모습은 어떠하였는지를, 농민들이 중심이 된 농경사회에서 산업화와 도시화를 겪으며 영통리가 변화되는 과정을 오지 마을 영통리 이장의 일상을 통해 살펴보겠다.

영통구 영통동은 1914년 4월부터 1994년 12월까지 '영통리'라는 동네였는데, 큰말, 뒷골, 새터말, 신영통 등의 자연마을로 구성되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지금은 과거의 자취가 대부분 사라진 상태이기에 예전 모습을 상상하기 어렵다. 영통리는 1949년 수원군 태장면에서 화성군 태장면

개발 전 영통리 뒷골
(1992년, 한신대학교박물관 제공)

영통리 136번지 집에서 이정우와 자녀들(1985년, 이정우 제공)

SRI 수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으로 행정구역이 바뀌었다가 1994년 수원시 영통동으로 편제되었다. 이에 주민들은 영통리가 수원에서 화성으로, 다시 수원으로 소속이 변하는 것을 경험하였다.

이정우는 영통리 이장, 농지위원회 위원장, 영농회장 등을 지냈다. 그가 태어나 성장한 지역은 영통리의 '뒷말'로, 영통리 136번지 우물이 있던 집이었다. '뒷골'이라는 이름은 영통에서 후미지고 외진 곳이라 해서 붙여진 것이다. 뒷골은 영통리 독침산 북동쪽에 있었는데, 현재 영덕중학교와 영덕초등학교가 들어선 자리이다.

영통리는 수원, 용인, 태안, 오산 등 어느 지역에서도 20~30리 길을 걸어

가야 도착할 수 있었다. 교통이 좋지 않고, 시장을 보러 다니기에도 매우 불편한 오지 마을이었다.

이정우 '영통'이라는 데가 아주 오지 마을이었거든요. 고개를 하나 넘어가야 동네가 있고, 또 있고, '큰말'이라는 데가 제일 큰 동네고, 그 다음에 '뒷골말'이라고, 우리 이제 '뒷골말'이야. 오이환 씨는 '큰말'에 살았고, 나는 '뒷골말'이고, 고개 하나 넘어가서, 이렇게 다 고개 너머에 하나를 가. 거기가 경계가 용인시하고 같은 경계에요. 수원시도 경계가 되고, 화성군도 경계가 되고, 거기에서 들은 데가 영통이에요. 이렇게 해서 태안농협의 태안면에서 제일 오지였어요. 영통리는 (태안면) 42개 부락에서 제일 오지 마을이었어요. 사실 이게 부락이라는 게, 내가 이장 볼 때 (태안면) 42개 리가 있었어요. … 영통리는 1, 2리가 없었어요.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고개 넘어가서 이제 큰말, 뒷골말, 은안골, 샛말, 사탄말, 그렇게 마을 몇 가구가 살면서 그런 이름이 다 붙어서. 고기를 가려면 고개를 넘어.

뒷골에는 15가구가 거주했는데, 전주 이씨가 7가구로 가장 많았다. 이정우는 전주 이씨 건성군파이다. 영통리 뒷골 주민들은 대부분 농업에 종사했는데, 토지가 많지 않고, 교통도 불편하여, 경제적으로 빈곤한 편이었다. 논농사, 밭농사를 통해 나온 경작물들을 동네 여성들이 이고, 지고, 남문시장까지 가서, 노점을 열어 판매하였다. 영통리는 지리적으로 외진 곳이다 보니, 주민들은 한국전쟁 때 피난을 가지 않고 마을에 머물렀다. 오히려 서울 등 외지에서 피난민들이 들어온 '피난골'이었다.

이정우 그래서 영통이 아주 빈곤했었어요. 토지도 많지도 않고. 이렇게 길만 이렇게 뚫려서 넘어가면 한 마을이 있고, 또 고개 넘어가면 또 한 마을이 있고.

이정우는 1943년생인데, 호적을 늦게 신고하여 법적으로는 1945년생이 되었다. 그는 한국전쟁 이후 태장초등학교(당시 태장공립국민학교)에 입학하였다. 영통의 어린이들은 대부분 가까운 태장초등학교에 다녔고, 주민들은 지연과 혈연뿐만 아니라 학연으로도 끈끈하게 이어졌다. 태장초등학교에서 열린 체육대회는 학생과 학부모뿐만 아니라, 마을의 큰 행사이자, 잔치이기도 했다.

2. 농촌 마을 이장의 일상

1) 마을방송국 겸 주민센터 역할

청년이 된 이정우는 제대 후, 서울로 상경하였다. 그의 형 이동우는 수원농고를 졸업하고, 전주 이씨 대동종약원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이정우는 처음에 형수가 운영하는 양품점 업무를 도왔다. 형제는 낙원동에서 계란 도매상을 시작했는데 장사에 실패하였고, 이정우는 앞으로의 삶을 새롭게 모색해야 했다. 결혼하고, 잠시 숨을 고를 겸 서른네 살이 되던 해 영통리로 돌아왔다. 고향에는 노부모님이 계시고, 소소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는 5년 정도 마을에서 일한 후, 자금을 모아 다시 서울로 갈 계획을 갖고 있었다.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이정우 이제 낙원동에다가 계란 도매상을 하나 내줬어요. 우리 그때가 장사할 때 참 장사가 잘 됐어. 그때는 그게 내주고, 이제 그렇게 해서 장사에 실패를 하다 보니까, 아, 내가 실패를 한 거예요. 그것도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가게까지 힘이 들게 되니까, 그때까진 내가 결혼을 안 했지. 그러다가 이제 힘드니까 이제 나도 "살아야 되겠다." 하고, 그때서 결혼하고 시골로 내려온 거예요. 노인네들이 계시니까.

이정우가 마을에 내려오자 동네 주민들로부터 마을 이장을 맡아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1970년대 후반,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영통리를 포함한 수원과 화성의 젊은이들 상당수가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로 떠났다. 또한 1970년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이 매탄동에 건립되면서, 생산 라인의 노동자로 가거나, 인근 하청업체에 취업을 하는 사람들도 생겼다. 농사를 짓는 주민들이 점점 고령화되면서 마을에서 젊은 사람이 이장을 하는 게 좋겠다는 여론이 형성되었고, 주민들이 그를 추대하여 투표를 통해 이장으로 선출되었다. 이정우는 10여 년간의 서울 살이 끝에 고향에 와서 아직 적응을 마치기도 전, 등 떠밀리다시피 하여 영통리 이장이 되었다. 그의 나이 36세, 이렇게 젊은 이장이 탄생하였다.

이정우 내가 내려오니까, "젊은 사람이 하는 게 좋겠다!" 동네 사람들이 "이장을 바꿔야 되는데, 할 사람이 없다!" 이거야. 그래서 나를 자꾸 그런 식으로, 나는 지금 내려가서 동네 아직 저기도 안 되고 그랬는데. "안 한다." 그랬더니, 그냥 넣어 가지고, 옛날에 다 투표로다가 했잖아. 투표를 했어요. 그냥 추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투표가 있어요. 추대를 해서 올려놓고 거기에서 투표를. 그래 가지고 나를 이제 찍어서.

1980년대 영통리 새마을회관 앞에서 이장 이정우와 주민들(이정우 제공)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SRI
수원학연구센터

1970~1980년대 농어촌에서 이장은 막강한 권한과 의무를 갖고 있는 지역 책임자이자, 봉사자이자, 마을 대표였다. 마을의 각종 공무를 진행하고, 농사 지원, 재해 복구지원, 치안, 범죄 예방 등 다양한 역할을 했기에 사실상 읍장, 면장 다음으로 중요한 사람이었다.

농촌은 농번기에 새벽부터 논밭에 나가 종일 일을 하기에, 주민들이 한 자리에 모이기 쉽지 않았다. 당시 가정집에 전화도 설치되지 않았기에, 일일이 소식을 전하기 어려웠다. 그러다 보니 마을 회관이나 이장의 자택에 방송 장비를 설치해서 마을 방송을 했다. 읍사무소, 면사무소, 농협 등에서 전달되는 공지사항, 마을 경조사, 각종 대소사 등을 알려 주어, 주민들이 농사일

새마을사업을 추진 중인 영동리 주민과 이정우(이정우 제공)

을 하는 중에도 이를 듣고 공유할 수 있었다.

이 시기에 이장의 집에는 앰프와 방송 시설을 설치하여 마을에 공지할 사항을 방송으로 전달하였다. 이장이 바뀌면, 새 이장 집으로 방송 장비와 전화 시설도 옮겨졌다. 설치비용은 원래 정부 비용으로 하는 것인데, 전임 이장이 전화를 설치할 때 영통이 오지 마을이다 보니 빨리 개설되지 않아, 설치비에 자신의 돈도 일부 들어갔다며 인수인계를 해 주지 않았다. 이정우는 전화국에 방문하여 이전 설치를 해 달라고 민원을 넣은 끝에 본인 집으로 장비를 이전할 수 있었다.

이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화기와 방송 앰프를 설치했던 이정우 자택(이정우 제공)

SRI 수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이정우 먼저 이장하고 인수인계가 안 돼. 그때는 전화기도 없었어요. 그 전 이장 집에다가, 이장 집에 하나씩 그거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인수인계를 안 해 주는 거지. 전화를 받아야 되는데, 엠프 같은 건 다 인수를 했는데, 전화기를 인수를 안 해 주는 거예요. … 그래서 내가 그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느냐? 그 비용을 내가 해 줄 테니 인수인계 해 달라. 안 해 주는 거예요. 전화국에 가서 이러니까 그거를 옮기게 해 달라고.

전화기와 방송 앰프가 자택에 놓이면서 본격적인 이장 업무가 시작되었다. 예전에는 대개 이장 집에만 전화기가 있어서, 외지에 나가 있는 가족과

친지들은 소식을 전하거나 용건이 있을 때 이장 집 전화를 사용하였다. 그래서 이장은 가가호호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요한 소식,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와 형제들의 근황까지 자동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이정우는 아침마다 새마을사업 관련 소식, 민원 등을 방송하여 주민들에게 알렸다.

이정우 (방송 장비가) 이장 집에 있었어요. 이장이 아침이면 민원 같은 거 주민들이 알게 방송을 다 해주고, 또 무슨 뭐 행사 같은 게 있으면 행사 같은 거 전부 방송으로 해서. 이제 새마을사업 하면 "몇 시까지 어디로 나와라."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방송을, "오늘은 뭐가 있으니까 그거 주의해 달라." 내지는 "무슨 행사가 있으니까 …" 하고.

이정우가 이장을 맡았던 시기는 1978~1984년이다. 마을 이장 임기는 2년씩 총 3번까지 할 수 있는데, 이정우는 이 6년을 다 채웠다. 마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다 보니, 당초 몇 년간 버물며 상경 준비를 하겠다는 계획도 무산되었다. 그는 영통 택지개발 전까지 뒷골을 지키는 최후의 주민이 되었다.

이정우의 역할과 일상을 보면 당시 농촌마을 분위기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영통리는 태안, 수원, 용인, 오산 등 어느 지역의 중심지에서도 20~30리를 가야 도착할 수 있는 곳으로, 교통 여건이 좋지 않았다. 이렇게 교통과 통신이 불편한 지역일수록 이장이 해야 될 업무도 증가하였다. 이장의 집은 지금의 주민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했다. 출생 신고, 전출입 신고를 그의 집에서 담당했기에, 전출입하는 주민들은 이장 집에 가서 서류에 도장을 받았다. 그의 집은 주민등록 서류를 비롯한 온갖 문서의 사본으로 가득했고, 출퇴근 시간의 구분 없이 일을 처리해 달라고 오는 사람들의 방문으로 늘 북적였다. 문맹률이 높은 시기였기에,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의 일을 대신 처리해 줬다.

1970~1980년대 마을 이장은 영농회장, 농지위원회 위원장, 예비군 소대장 직책을 겸하였다. 농협과 관련된 모든 일들은 이장이 대표로 주관하였다. 비닐하우스 설비에 필요한 비닐, 농약, 농기구 등 농사에 필요한 각종 물품은 일단 이장이 구입하여 마을에 가지다 놓았다. 마을 농민들은 추수 후 자금이 생기거나, 경제적 여유가 있을 때 이 비용을 갚아 나갔고, 이장은 수금하러 다니느라 바빴다. 수금이 원활치 않아 이장 앞으로 빚이 생기기도 했다. 면사무소에 들어가면 직원들과 식사를 하느라 식비가 들 때도 있었고, 교통비를 비롯해 여러 가지 비용이 제법 들어갔다. 이장의 수당은 월 7~10만 원 수준이었는데, 이것으로 다양한 업무를 관장하기에는 부족하였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봄과 가을에 두 번, 쌀과 보리 등 곡식으로 추렴해 주는 풍습이 있었다. 영통리는 주민들 간의 관계가 매우 돈독한 동네였다. 이정우가 이장직을 맡았을 때, 영통리 세대수는 60여 호였다. 영통리는 주민들끼리 화합이 잘 되고 결속력이 높아 대동회가 정기적으로 열렸다.

이정우 그때는 '연대보증'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농협에. 왜냐하면 이장이 모든 것을 다 동네에서, 뭐 하다 농사지으면 비닐하우스, 저 하우스에 오면 비니루(비닐), 뭐 하여튼 농약, 이런 걸 다 끌어다가 줘야 돼. … 그 이장이 다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이 그때는 전부 빚을 졌어. 왜냐? 이장 앞으로 하잖아요. 그럼 이장은 맨날 면사무소 들락날락거리지. 그러면 나는 위에다가 다 개별로다가 줬는데, 이 개별로 받은 사람들이 돈을 지금 꺼내 주는 게 아니고, 생각나면 갖다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받아 넣는 거예요. 그러면 맨날 돌아다니고, 이장은 돌아다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새마을유아원이 설치된 영통리 새마을회관(이정우 제공)

니니까 돈을 쓰잖아. 가면 면 직원들하고 점심 식사하고. 자꾸 그래 돈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연말에 가서 갚으려면 목돈으로 갚아야 되요. 그러면 뭐 농사지은 거 공판 해가지고설랑 다 틀어놓고 그걸 해결을 해야 그 이듬해 또 농약이고 뭐 그런 걸 또 가져오지. 그걸 안 하고, 안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장들이 빚을 지는 거야. … 내 월급이라고 그러나? 수당이지. 월급이 7만 원, 월 10만 원 정도. 10만 원. 그러면 마을 주민들끼리 조금 추렴해서, 보리 때는 보리, 쌀 때는 쌀, 두 번을 하는데, 대동회를 하잖아요. 그럼 대동회라면, 내 할 때는 우리가 세대 수가 한 60호가 됐었고.

새마을유아원 개원식에서 공로패를 전달하는 이정우(이정우 제공)

영통리 30~40대 중년 남성들이 매달 15일 날 모이는 모임이 있어서 '십오회'라고 호칭하였다. 마을 대동회 때는 쌀 한 말씩 가지고 이장집에 가서 밥을 짓고 음식을 나누었다. 영통리에는 상촌반, 하촌반, 후곡반, 말통골 등 총 4개 반이 있었다.

영통 택지개발에 대한 소문이 돌면서 서울 사람들이 토지를 구입하러 들어왔다. 외부인이 마을 토지를 구입하거나 팔더라도 이장이 겸하고 있던 농지위원회 위원장의 도장을 찍어야 등기를 신청할 수 있었다. 이정우는 일일이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 도장을 찍느라 더욱 분주해졌다.

SRI 수원학연구센터 SUWON RESEARCH INSTITUTE

이정우 외부에서 땅을 팔고 사면 그거를 농지위원장이 도장을 찍어줘야 등기가 나와요. 아, 그때 영통이 이제 개발이 된다고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이 땅을 많이 샀잖아. 그러면 여기에 살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농지위원장이 사실 확인을 해줘야 돼. 그 일도 만만치 않았어. 그래서 그때는 이장이면은 수원시로 치면 통장하고 같다, 그걸 얘기를 한 거예요. 옛날에.

이처럼 온갖 중요한 일들을 하며 마을을 이끌어 나갔기에 이장으로 선출되는 조건도 까다로웠다. 외지에서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이주민이거나, 정치적으로 야당을 지지하던 사람은 마을 투표를 통해 이장으로 선출되더라도 면에서 수락해 주지 않았다.

2) 대소사와 경조사를 관장하는 일꾼

영통리는 오지 마을이라 태안면사무소와 수원 시내 출입이 수월하지 않았다. 이정우는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농협, 면사무소에 가서 일을 처리했는데, 마을 사람들은 외출을 하던 그에게 개인적인 대소사도 부탁하였다. 당시 영통리는 행정구역상으로는 화성군 태안면 소속이었지만, 시장을 이용하거나, 볼일을 볼 때 수원을 빈번하게 드나들었다. 주민들 중 결혼식이 예정된 사람이 있으면, 수원 시내에 오가는 길에 인쇄소에 들러 청첩장 인쇄를 해 달라고 맡겼다. 요즘은 신랑, 신부의 친구나 친척들이 예식장에서 방명록 관리와 축의금 접수를 담당하지만, 당시에는 이장이 접수대를 담당하였다.

이정우 그런데 결혼식이 또, 이장님한테 이제 이장님이 알려줘야지.

마을 주민들의 애경사를 돌보는 이장 이정우(이정우 제공)

결혼식이 되면 또 거기서 접수를 또 봐줘야 해요. 접수를 또 얼마나 부탁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동네잔치가 있으면 또 "아, 이장님이 와서 이 접수를 좀 봐 달라!"고.

마을 주민들 중에 사망자가 생기면, 이장이 호상(護喪)을 맡았다. 호상은 상례를 거행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절차를 제대로 갖추어 잘 치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가 안팎의 일을 지휘하고 관장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을 지칭한다. 상주, 지관과 함께 무덤을 쓸 장소와 위치도 의논하여 정하기도 한다. 상가에 조문하러 온 귀한 손님을 접대하는 책임도 맡는다. 따라서 호

SRI 수원학연구센터 SUWON RESEARCH INSTITUTE

상은 상주를 대신하여 상가를 대표할 수 있는 식견이 높은 사람이라야 맡을 수 있었다. 상가와 상주의 명예가 달린 상례를 총괄하는 일을 했기에, 이장이라는 직함을 갖고 있고, 관공서를 대상으로 수년씩 업무처리를 하던 이장이 담당하기에 여러모로 구색이 맞았다. 이는 영통리뿐만 아니라 농촌마을 곳곳에서 그러하였다. 초상을 당하는 집이 있으면 쌀 세 되씩 갖고 가서 초상을 도와주고 식사를 하는 등 상호 부조를 목적으로 하는 상계(喪契)에 마을 사람 대부분이 가입하였다. 상여는 독침산 동쪽에 있던 새터말의 농지 가운데에 집을 지어 보관하였다.

이정우 동네 '호상'이라고 해서. 그거 다 치러. 그러니까 그 계산도 맞춰 줘야 되고, 또 노름을 하잖아요. 그러면 또 호상에 가서 돈을 또 끌어오는 거예요. … 호상이 지금 여기 장례위원장이랑 같다. 호상이라고 그러지 뭐. 다 이렇게 이런 것들을 다 밟아서 이제 장례를 치러주는 거예요. 제 부조 들어오는 것도 다 기입을 해 가지고 다 돈 쓰고, 이제 그 비용을 다 제외하고는 그걸 맞춰 줘야 돼.

태장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마을별로 체육대회 겸 동네잔치를 열기도 했다. 삼성전자가 입주하면서 증가한 인근 하청업체, 영통 토지를 구입하고 외지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서 찬조금을 받기도 했다. 이장을 비롯한 주민들은 외지인들의 땅을 대신 관리해 주고, 여러 가지 마을 소식을 전해 줬다.

이정우 또 체육대회가 있었어요. 학교 다니는 태장초등학교에서 리(里)별로다가 체육대회, 부녀회, 줄다리기, 배구, 육상 뭐 이런 게 다 있었어요. 그거 하면은 동네잔치야, 그 이제 동네가 잔뜩 차려 가지고 동

영통리 마을 잔치(이정우 제공)

네 사람이 다 가. 학교를. 다 응원하고 뭐 해서 또 이기면 또 와서 동네 와서 그냥 크게 잔치 벌이고. … 이장이 다 준비를 해야지 이제 기업 가진 데 가서도 찬조금을 좀 받고. 여기 매탄이나, 여기 영통 주변에 공장으로 있는, 온통. … 이제 땅을 영통에다가 사놨는데 외지에서 살잖아. 그럼 그 사람들 자기들 저기 적용이 안 되니까, "여기 동네 협조 좀 합쇼." 해 가지고 기금 받아가지고 이제 체육대회도 열고, 동네잔치도 해 주고 그래서.

영통은 오지 마을이라 비가 올 때는 장화 없이 다니기 힘들 정도였다. 이정우는 면사무소 총무과에 근무하던 영통 출신 친구의 도움을 받아, 사업계

SRI 수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영통리 마을 도로 포장(이정우 제공)

획서를 작성하여 새마을 자금을 받고, 도로 포장을 진행하였다. 주민들이 신갈까지 가서 나무를 해 와 공사에 참여하는 등 동네 사람들이 합심한 덕분에 마을 발전과 개선이 이루어졌다.

이정우 영통이 원래 오지 마을이다 보니까 도로가 전부 진짜 장화 없이는 못 다녔어요. 비만 오면 고개를 넘어가니까, 고개를 또 못 넘어가고. 왜냐면 소 마차도 다니지 못할 소로이니까 차도 못 다니고. 그래서 이제 그게 새마을사업이 벌어져 가지고. … 그냥 비만 오면 차도 못 들어오지. 그러니까 그냥 질퍽거리고. 그러니까 그, 이제 취로사업으로다가 해서 면사무소에서 해서 이제 그 도로를 깎아서 낮춘 거예요. 취로사업으로. 그걸 하고 이제 그리고 이제 해다 새마을사업에서 이제 새마을 자금 또 정책 자금 그런 걸 받아가지고 내가 이제 도로를 포장하기 시작하는 거야. … 그 동네 사람들이 이제 나와서 뭐 산에 나무는 많으니까 산에 나무를 미루나무 같은 걸 베어 가지고 저 신갈까지 가서 마차로 끌고 가서 그걸 박석(두께가 얇고 넓적한 돌)을 키워오는 거예요. 옆에 대고 해야 되니까, 이걸 갖다가 나무를 사서 하면 돈이 들어가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새마을사업으로 나와 가지고 일을 해가지고, 가서 제재소에 가서 켜 가지고, 그걸로다가 하는 거 도로 포장을 해주기 시작을 한 거예요.

3. 택지개발과 영통리의 변화

영통리는 1990년대 들어 큰 변화를 맞이한다. 1993년 9월, 수도권 택지난을 완화하기 위해 한국토지개발공사는 수원시 팔달구 매탄동 일원, 화성군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부동산

水原 영통
龍仁 영덕

『제2신도시』 조성

모두 百萬평 96년까지 택지개발

고속도로변 교통요지·전원풍경등 立地조건 "만점"

신도시 단독택지 채권폐지 검토… 이달 아파트 8우8좀가구 공급

소형위주로 2萬7千여가구 건립

매매부진탓 내달부터

仁川 송도 359가구

龍仁 수지 619가구

佳公 상가점포 758개

분양정보

수원 영통과 용인 영덕지구 개발사업(『경향신문』 1993년 2월 1일)

태안읍 영통리, 용인군 기흥읍 영덕리 일대에 100만 평 규모의 신시가지를 건설한다고 발표하였다.

영통·택지개발은 영통리 주민들의 삶에 큰 변환점이 되었다. 평생 살아왔던 터전을 떠나고, 생업을 잃게 되었다. 해주 오씨, 탐진 최씨 등 일부 지주들은 보상을 많이 받았지만, 뒷골은 토지 규모가 작고 소규모 농사를 짓던 이들이 대부분이라 토지 보상금 규모가 작았고, 부자가 된 이도 드물었다. 보상금으로 장사나 사업을 시작한 사람들 중에 잘 풀린 이가 적었다. 농사꾼에게 보상금으로 갑자기 현금이 들어오자 외지에 거주하던 형제나 일가친척 등이 돈을 빌려 달라거나, 나눠 달라고 요구하며 분란이 생겨 사이가 소원해지는 경우도 생겼다. 평생 농사만 짓던 순진한 마을 사람들에게 온갖 종류의 사기꾼들이 접근했고, 이들의 속임수에 피해를 입은 사람도 여럿 있었다.

택지개발 때문에 이정우가 마을을 떠난 시기는 그의 나이가 이미 50세가 넘은 때였다. 그가 영통의 젊은 이장이었으니, 원 거주민들 중에는 60~70대를 훌쩍 넘긴 이들이 많았다. 평생 농사를 천직으로 여기며, 직장 생활을 해보지 않았던 사람들은 앞으로 무엇을 할까 막막해하였다. 건물 경비나 인근 공장의 노동자로 취업하기도 했다.

이정우는 1994년 매탄동 주택가에 집을 한 채 구입하였다. 매탄동은 살고 있던 영통리와 지리적으로 가까웠고, 삼성전자와 그 하청업체에 다니는 생산 라인 공장 직원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이다. 그는 보상금으로 마련한 집에 월세 방을 놓고 임대업을 시작하였다. 보상금으로 다른 일을 벌이기보다, 인근에 작은 주택을 구입하거나, 새로 집을 지은 후 월세를 받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제일 안정된 편이었다. 이들은 재산을 잃지 않고, 노년기까지 비교적 평탄한 생활을 할 수 있었다.

영통영덕신시가지 조성사업 2공구 현장사업소 입구(수원박물관 제공)

영통 택지개발 공사 현장(1994년, 수원박물관 제공)

ORI 수원학연구센터

이정우 그래서 변환점이 됐는데 물론 거기서 사는 것보다야 나와서 사는 게 다 괜찮게들 됐지요. 사실 거기서 힘들게 살았지. 어렵게 살았으니까. … 그래도 이제 집을 사고, 이렇게 해서 임대를 하고 사는 사람들은 안정적인데. 그 돈을 가지고 나와서 사업을 한다, 뭘 한다고 그랬다, 경험 없이 시골에서 있다 나와서 하니까. 그때는 여기 내가 원하고 올 때만 해도 매탄동이 상당히, 삼성전자가 있고 그래가지고, 수원시에 이렇게 보러 다니면은 여기가 '수원시의 명동'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상가가, 그때는 삼성전자 직원들이. … 그때는 나이가 먹었으니까. 뭐 일자리가 뭐 있어? 그때는 생전 직장 생활을 안 해봤던 사람이 그러다가 뭐 사실 경비 생활도 했고, 집 사 가지고, 세 받아 가지고 살고. 아이들 학교 공부 가르쳐야 되니까 그렇죠.

영통리는 경제적으로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소박하고 아늑한 동네로, 주민들이 한 가족처럼 다정하게 지내던 마을이었다. 군 입대를 하는 청년이 있으면 주민들이 송별식을 꼭 해 줬고, 이사를 가는 주민이 있으면 모두들 배웅하며 앞날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해 주곤 했다.

이러한 공동체가 사라지고 구성원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었다. 그래서 주민 개개인에 대한 보상이 확정된 후, 마을회관 등 공동재산에 대해 받은 보상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택지개발이 완료된 후에 사무실을 지어 원 거주민들의 모임터로 갖자는 의견이 있었다. 그런데 주민들이 각각 어느 동네로 이주하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고, 훗날 누가 다시 마을로 돌아오게 될지, 사무실의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불확실했기에 사무실 설치는 결국 무산되었다. 이에 토박이들이 다시 모일 수 있는 공간도 사라졌다.

화성, 수원, 용인의 경계 마을이자 교통의 오지로 다소 소외된 지역이었지만, 이장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새마을사업을 하고, 경조사를 공유하며 한 가족처럼 지내던 영통리 마을은 해체되었다. 주민들은 "참 그런 좋은 마을이 없다."고 회상하곤 한다.

이정우 주민들이 나중에 확정이 된 다음에 그때서 이제 마을에도 인제 마을회관이 있고, 동네 그 자본들이 있으니까, 공동재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회의를. 어디 가서 토개공(한국토지개발공사)에 가서 시위도 해보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땅 많은 사람들은 다 찾아가. 없는 사람들만 갔다 들어와요. 무슨 효과가 있어요? … 거기다가 여기 와서 사무실을 하나 하자. 사무실 하자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자고 그랬더니 거기에 또 반대가 많은 거야. 각자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어디다가 뭐를 지어 놓고, 누가 사후 관리하나? 그다음에 그 혜택을 또 볼 사람들이 여기에 살지도 않을 수 있으니까,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니까. 충돌이 있어 가지고서 나중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해지한 거예요. 마을 사람들끼리 한마을, 한 가족처럼 그렇게 다정하게 대했으니까. 그래서 개발이 안 되고 지금 있었으면, "참 그런 좋은 마을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모든 게 그런 거 다 이제 꿈이지, 뭐. 다 소용이 없는 거지. 이제 시내 복잡하다 보니 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나는 거지.

화성군 태안읍 영통리는 1994년 12월 26일 수원시 팔달구 영통동으로 개편되었다. 이정우는 화성군에 소속된 주민으로 52년, 수원시 주민으로 29년째 살고 있다. 그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화성 사람이면서 수원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 화성군 소속으로 이장 활동을 할 때도 시장을 보거나, 농작물을 내다 팔거나, 각종 볼일을 볼 때 수원으로 다녔다. 하지만 농협, 읍사무소 등의 공적인 업무는 화성군 소속으로 진행하였다. 아직도 화성 태안농협으로부터 농업 관련 소식을 받고 있고, 선거철이 되면 화성에서 입후보한 정치인들에 대한 홍보와 선거운동 부탁을 받기도 한다.

이정우의 삶은 개인의 역사이자, 영통리 마을을 살펴볼 수 있는 역사이기도 하다. 그는 "이장은 열두 가지, 하나서부터 끝까지 다 책임을 지고 일을 하는 게 이장이야" 라고 말한다. 이장이 존재했고, 그와 손발을 맞춰가며 협조하고 단합한 수많은 주민들이 있었기에, 뒷골은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고, 남부럽지 않게 경조사를 치러냈으며, 즐겁게 여가를 보냈다.

이제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 신도시가 된 영통동에 마을 이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장이 담당했던 온갖 역할은 주민센터를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마을 안 방송시설 대신, 홈페이지와 인터넷 카페,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소식이 공유된다. 하지만 과거 이장들이 그러했듯 지역의 일에 솔선수범하고, 이웃의 사정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기에, 영통의 마을 공동체는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다.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영통동 이남옥

아파트 공동체 대변자에서 시민과 도민의 일꾼으로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이남옥은 1987년 수원으로 이주했고, 영통구에서 37년째 거주하고 있다. 매탄동 주공아파트 동대표, 영통동 벽산풍림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청명초등학교 운영위원장, 제7대 수원시의회 의원(2002~2006), 제7대 경기도의회 의원(2006~2010) 등을 역임하였다. 수원 영통은 물론 나아가 경기도 지역 주민을 대표해서, 경기도의 제도를 만들고 점검하는 역할을 했다.

그는 명문가에서 출생했다거나, 유명 대학 출신이거나, 사회적으로 승승장구하며 정치권에 진입한 인물이 아니다. 이남옥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서민이자, 우리 이웃에 살던 아파트 주민 중 한 명이었다. 그런 그가 어떻게 정치인으로 변신하여 수원시는 물론 경기도를 대표하는 역할을 하며 종횡무진 할 수 있었을까? 영통 아파트 주민으로서 그의 삶과 정치인으로서의 자취를 통해 영통의 아파트촌, 수원과 경기도에서 중요한 현안이 무엇이었는지를 들여다보겠다.

1. 아파트촌의 열혈 일꾼

1) 수원에서 시작한 신혼 생활

1959년에 태어난 이남옥은 결혼 전 패션 계통의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어느 곳에서나 잘 적응하고, 사람들을 고루 사귀었으며, 활달한 성격이었다. 생활력이 강하여 열심히 돈을 버는 한편, 즐겁고 쾌활하게 젊음을 보내기도 했다. 이남옥은 스물아홉 살이 되던 1987년 결혼하면서 수원으로 왔는데, 남편이 원천동에 있는 전지자재 부품 회사인 퍼시픽콘트롤즈의 직원이었기 때문이었다. 남편의 직장과 가까운 고색동 주택에 전세로 신혼살림을 차리고, 2년간 거주하였다.

계약 기간이 끝난 후 매탄동 주공4단지 아파트로 이주하였다. 5층 규모의 계단식 아파트로서 이남옥은 25평형에 살았다. 그가 살던 동과 라인은 인간미 넘치던 공간이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촌은 개인주의가 팽배하여 이웃집 얼굴도 잘 모르는 게 일반적인데, 이곳 주민들은 현관문을 열어 놓고 이웃끼리 서로 들락거렸다. 이남옥은 이 아파트에 살면서 임신하고 아이를 출산했는데, 시장을 보러 가거나 외출을 하면 동네 여성들이 아이를 업어 주기도 하고, 대신 봐 줬다. 그는 이때의 경험을 통해, 대형 평형보다 소형 아파트가 더 인간미가 넘친다고 평가하였다.

이남옥 이제 2년 계약 끝나고 매탄동으로 갔죠. 주공 4단지로, 되게 재밌었어요! 거기 살다가 임신해서 애기 낳았는데 통로의 아줌마들이 우리 애를 다 봐줬어요. 저층 5층짜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103세대니까, 그러면 애기 놔 둬 놓으면 아줌마들이 다 키워 줬어요. 업어 주고.

1988년 매탄 주공4단지아파트(수원박물관 제공)

그냥 어디 외출할 때도 놔 놓고 가도 아줌마들이 대신, 대문을 안 잠그고 살았어요. 거기에서는 내가 어디 뭐 장에서 2박 3일이든 어디 가지 않는 이상에는 대문 열어 놓으면 아무나 들락날락하고, 이게 평수가 작으면 더 인간미가 넘치더라고요. 이 평수 큰 데보다. … 오르락 내려가면서 문이 다 빼꼼빼꼼 열려 있으니까 인사하고 다니고.

아파트 같은 라인 주민들끼리 저녁에 고기를 구워 먹고, 아이들은 아이스크림 파티를 했다. 아파트 다른 라인 사람들도 부러워해서 합류하다 보니, 급기야 아파트 사람들끼리 다 같이 친해지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이남옥 남편들 퇴근 시간에 맞춰 갖고, 거기 돗자리 깔고, 부르스타(휴대용 버너) 갖다 놓고, 이제 고기 굽고, 소주, 막걸리 사고, 이제 조무래기 애들이 많으니까, 이제 내가 아이스크림 또 사 가지고 애들 아이스크림 주고 이래 갖고 막 어우러지게 된 거예요. 유일하게 그 통로만. 그러니까 이제 옆 동네에서도 재밌어 보이니까, "우리도 붙여 주라!" "우리도 붙여 주라!" 이래가지고 좀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그렇게 하고 친했어요. 그래서 재밌었어요!

1990년대만 해도 지금처럼 대중교통 노선이 발달하지 않았고, 자동차 보급률도 높지 않았다. 그래서 명절을 앞두거나, 반찬거리를 사러 남문시장에 가야 되면 차 있는 사람과 여러 명이 모여 같이 가는 문화가 있었다. 이남옥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던 주부들은 집에서 부업을 하기도 했다. 이쑤시개 머리 부분에 꽃장식 달기, 웨딩드레스 스팽글 수놓는 일, 인형 눈 붙이기 등을 했다. 저임금의 단순 노동이라 벌어들이는 수입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한 집에 모여 같이 일을 하면서, 간식을 먹고, 어울리는 시간 자체가 즐거웠다.

이남옥 그때는 주부들 부업이 많았어요. 보통 이쑤시개 이래 말기, 이쑤시개에 왜 이래 꽃 달렸잖아. 그런 거 하는 가내 공업하고, 또 웨딩드레스 스팽클부터 또 하는 분이 있었어요. 이제 조금 손재주가 좋아야 하는 거지. 자동차 전선. 그거는 좀 고가예요. 전선, 우리가 이제 이 잭을 다 뽑아야 되잖아요. 전선 이렇게 해 가지고, 그래서 그거 부업하는 데도 있었고, 부업이 되게 많아 가지고 주부들이 모여서 한 집에 모여 하는 경우도 있고. 인형 만들고, 인형 눈 붙이고, 이런 것들은 그냥 와서, 한 방에다가 이렇게 해놔 놓고. 이제 또 갔다가 다음 날 아침 되면 이제 먹을 것들 조금씩 사 들고, 또 그 집에 모여 했죠. 그게 되게 재미있었어요! 그 돈은 몇 푼 안 되는데, 동네 분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어서 너무 재밌고 좋았어요.

신혼 첫 아파트 생활, 크게 넉넉하진 않았지만 공동체 구성원들끼리 서로 돕고 나누던 경험, 남녀노소가 폭넓게 어울리던 친목과 교류의 시간은 젊은 이남옥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다. 이후 그가 아파트 공동체를 위해 앞장서는 데 큰 원동력이 되었다.

2) 구석구석 발로 뛰며 성장하다

1990년대 중반 영통택지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속속 들어섰다. 뉴스, 신문, 주택공사의 홍보 등을 통해 아파트 분양 소식이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알려졌고, 많은 수원 사람들이 영통에 들어서는 새 아파트에 관심을 가졌다. 이남옥과 친하게 지내는 지인들이 청약을 받고 속속 입주하기 시작하였다.

이남옥은 매탄 주공아파트에서의 삶에 만족했지만, 영통으로 이주하는 분위기에 합류하였다. 황골마을 주공1단지아파트 25평으로 이주했는데, 1997년 12월 준공된 이 아파트는 3,129세대의 대단지였다. 동대표를 모집하는 공고가 있었는데, 이남옥은 본인의 활달하고 적극적인 성격과 매탄 주공아파트에서 주민들과 원만하게 지냈던 경험을 발휘하고 싶어 이에 지원하였다. 그의 이러한 발걸음은 초대 동대표, 동대표 회장, 입주자 대표연합회 활동으로 이어졌다.

아파트 동대표는 아파트의 각종 현안 처리, 장기수선 충당금 사용 의결, 승강기, 청소, 소독, 전기 안전점검, 소방설비 점검 등의 업체 선정하기, 동대표 회의 소집과 진행, 입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관리사무소에게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사무소와 동대표인 입주자대표회의가 동등한 관계에서 공유 부분과 전유 부분(사적 재산공간)을 오랫동안 잘 유지하고 쓸 수 있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입주하고 몇 년 지나 어느 정도 안정된 상황이 아닌, 대단위 신축아파트에서 이들이 할 일은 굉장히 많았다. 동대표와 입주자 대표 등이 어떻게 일을 처리하는지에 따라 아파트의 안전과 가치가 달라졌다. 이남옥은 초기 동대표가 되어, 먼저 아파트 등기를 내기 위한 법무사 선정 작업부터 시작하였다.

이남옥 동대표를 이제 모집 공고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러면 내 이거 기본이 있는 걸 발휘를 해 봐? 대표를 나간 거죠. 초대 동대표를 했죠.

… 제일 큰 문제가 법무사 선택. 그거 왜냐하면 등기를 내야 되니까. 이게 금액이 어마 무시하게 크잖아요. 단위가 3129세대야. 주공 1단지가. 그러면 그게 세대당 그때 100만 원, 150만 원씩 등기비만 해도 200만 원이었어요.

첫 입주하는 아파트는 하자가 있는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1~2년 안에 이를 제대로 보수 받는 일이 중요하다. 어느 아파트나 화장실 문, 타일, 옥상 누수, 아파트 조경 등 조금씩 미흡한 부분들이 있게 마련이다. 주공아파트는 지하 2층까지 있던 아파트 단지 주차장 지하에 가스가 차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남옥은 아파트와 주변의 지형을 잘 알고 있었고, 건축설계사인 오빠를 통해 귀동냥으로 듣는 바도 있었다. 토목 사무실에 들어가 직접 물어 보니 물길 때문에 그런 것 같다는 의견을 받았다. 동대표가 발로 뛰어 가며 알아보고, 서적을 통해 공부하고, 외부 자문도 거친 후에 건설 업체 관계자를 만나 문제점을 설명하고 해결책을 제안하였다. 상대방도 "이 아파트의 동대표는 그저 평범한 아줌마, 아저씨가 아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성실하게 처리하였다.

이남옥 지하 2층까지 주차장이 있어요. 그런데 원래는 거기가 개발하기 전에 냇가가 있었어요. 1단지 지하가 냇물이 흐르던 곳이었던 거예요. 아니, 냇물이 흐르는 게 아니고 물길이야, 물길이. 밑에서 봤을 때 주공 1단지에서 봤을 때. 근데 메웠는데 이 물기를 만들어 주고, 애를 터파기를 해 갖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걸 무시하고 했으니까. 이 물의 압력에 의해서 이게 들고 일어나 버린 거야. 어디 가스가 차잖아. 애가 빠져나갈 데가 없으니까 이걸 들고 일어나 버리는 거죠. 가스 빼는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시정연구센터

2000년대 입주 직후 영통 황골마을 주공1~2단지아파트

이제 배관 사업 업무를 이 작업을 해 가지고, 그건 전부 다 건설사에서 해야 하죠. 그런데 이제 동대표들이 그래도 총 구성된 사람들이 그런 제안을 하고 의견을 내니까, 그 사람들도 "여기 동대표들은 수준이 좀 있구나. 막 동네 아줌마, 아저씨들이 모인 게 아니구나." 이제 건설업체를 만나기 전에 동대표들끼리 이제 임원끼리 이제 하면서 이제 건설업체에다가 이런 거는 어떻게 제안을 하고, 이렇게 다 만들어 갖고 건설업체를 만나고 그랬었죠.

이남옥은 평범한 주부였기에 끊임없이 공부하였다. 아파트 하자 분쟁에서 입주 예정자들은 시공사보다 불리한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다. 건설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 하자를 발견해도 적절히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일이 공부하고, 전문가에게 문의하고, 원하는 바를 얻어내는 것은 어찌 보면 큰 피로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자리였다. 그러나 본인의 노력 여부에 따라 아파트 시설이 개선되어 살기 편해지고, 새 보금자리에 많은 기대를 걸고 들어온 수천 명 입주민들의 삶이 나아진다는 것을 생각하면 즐겁고 행복하였다.

이남옥 즐거웠어요. 행복했고, 왜냐하면 내가 해 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고쳐지고 또 새로운 게 만들어지고!

아파트 환경에 대해 전반적으로 지식이 축적되었다. 그러다 보니 건설사, 시공사, 하자보수업체 등에서는 환영받지 못할 깐깐한 주민이 되었지만, 입주민들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2023년 영통동 황골마을 벽산풍림아파트와 쌍용아파트,
황골마을 주공1~2단지 전경(김승일 제공)

이남옥 조경이 아파트 단지 안에 이렇게 조경들 해놓잖아요. 이런 이제 수종이라든지 이런 것도 싸구려 갖다가 막 해놔 놓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시 이제 그게 하자 보수 기간이 돼가 2 년 지나면 한 번 신청할 수가 있어요. 죽은 나무 빼내고, 다시 갖다 심어야 되고, 그 느티나무가 죽었다고 이러면 여기 느티나무 심지 말라고, 이제 많이 제지를 했죠. 이제 벚꽃나무도 심어라, 뭐도 심어라, 이래 수종도 선택해 주고, 이제 그런 거 좀 많이 그것도 이제 뭐 조경이 돼서 모르니까 또 조경 책을 사 가지고 밤새 공부를 하죠.

평수를 조금 넓히고 싶어, 2년 후 영통동 황골마을 벽산풍림아파트 33평을 매매하여 이주하였다. 입주한 후 일마 되지 않아, 제2기 동대표를 구성한다는 모집 공고가 있었다. 그는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지원하였다. 제법 베테랑이 되어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교통정리'를 잘하는 수준이 되었다.

이남옥 사람들을 끌고 갈 힘이 있으며, 대안을, 의견은 많이 받아 들여야 되죠. 받아들이는데 이걸 누가, 어떻게? 그렇죠? 교통정리를 잘하느냐에 달렸죠. 교통정리 한 방에 딱 끝내면 되죠.

벽산풍림아파트에서는 정화조 직관화 사업에 힘썼다. 예전에 살던 주공아파트는 정화조가 없었는데, 민영 아파트는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 때문에 집 화장실에 벌레가 자꾸 생겼다. 그는 분뇨처리업체의 사기 행각을 발각하고 환불까지 받았다. 동대표로 구성된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받고, 주민들 사이에 큰 신뢰를 쌓았다.

이남옥 와서 보니까 정화조 벌레 혹시 아세요? 끼맣게 생긴 거 개가 집에 자꾸 생기는 거야. 주공에는 없거든. 그래서 알아보니까 풍림벽산은 정화조가 있는 거예요. 이제 수원시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여기에 있잖아요. 분뇨처리장이랑 거기로 이 지하 배관이 묻어 갖고 직관이라 그래요. 아파트에서 쓰면 모이지 않고 바로 절로 들어가. 주공, 일단 지금 그렇게 바로 보고, 주공은 모든 게 영통이 내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정화조가 없고, 민영만 다 정화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수원시에 들어가서 이게 무슨 현상이냐 물으니까 이제 그 직관을 하면은 이제 수원시에다가 분담금을 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화조 하는 게 더 싸게 치니까 정화조를 다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면 동대표가 돼 갖고 저거 없애야지. 그냥 일반 사람이 얘기해봐야 콧방귀도, 안 믿기니까. 그래서 이제 동대표 들어가서 "내가 해결하겠다." 했죠. "수원 영통의 모든 정화조 내가 없애겠다. 우리 아파트뿐만 아니고." 내가 시범적으로 하면 다른 아파트도 따라갈 거 아니에요? … 정화조 용량에 비해 갖고, 탱크 용량에 비해 갖고, 대수가 너무 많이 나간 거야. 이거 봐라! 그래 갖고 바로 이제 동대표 회장 돼가지고 이 분뇨처리장을 와 갖고 달라 그랬죠. 그러니까 분뇨처리 업체가 뻥튀기 해 먹은 거지. 빈 차 갖다 대고, 관리소에서는 차 들어 왔다 나간 것만 확인을 하고, 이 차가 들어왔다가 빈 차가 가는지, 분뇨를 채워서 갔는지 확인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대수 뻥튀기 해 먹은 거지 딱 걸렸네! 그래서 그거 다 환불받고, 환불 다 받았죠.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2. 옆집 이웃에서 정치인으로의 변신

1) 수원의 현안을 살피다

이남옥은 직장에 다니는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환경 개선을 위해 몇 년간 적극적으로 공부하고, 행동하였다. 적극적이고 활달했지만 평범한 주부였던 그가 어떻게 정치인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을까?

그는 영통신도시 아파트에서 이웃이 된 사람들과 어울리며 다양한 지역 활동으로 반경을 넓혀 가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국회의원 남경필의 고모를 알게 되었다. 남경필의 집안은 대대로 수원의 지역 유지이다. 그의 조부 남상학은 경남여객을 창업했고, 부친 남평우는 수원시 팔달구에서 제14~15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15대 임기 중 심장 질환으로 갑자기 사망하자, 남경필은 유학 도중 귀국하여 1998년 7월 재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하여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후보와 경쟁하게 되었다. 남경필의 고모는 영통 아파트 단지에서 주민들 사이에 신망이 있는 이남옥에게 조카의 선거운동을 도와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는 사람을 한번 보고 결정하겠다고 하여 남경필과 만나게 되었다. 30대 초반의 앳된 모습을 본 후, 이남옥은 그를 꼭 도와야겠다는 결심을 했다.

이남옥 제일 먼저 하게 된 게 주공 1단지에서 할 때 남경필 국회의원이,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오게 됐죠. 아주 젊었었죠. 이제 남경필 의원님 고모를 우연히 보게 됐어요. 친구 그 꽃가게에 가 가지고, … 이번에 우리 조카가 미국에서 들어오는데 영통에 아는 사람이 없다. 좀 도와주

1995년 쓰레기소각로 점화식(수원박물관 제공)

시면 안 되겠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도 안 보고 어떻게 도와준다 할 수 있어요? 사람을 봐야죠. 부모님 보고 내가 일을 해준다, 안 해준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랬던 거는 이제 남경필 의원이랑 이제 미팅을 시켜 줬어요. 고모가. 주공1단지 동대표 할 때, 그래서 이제 그 만났는데, 너무 예리 예리하고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보는 순간 도와주고 싶다. 아무 생각 없이 도와주고 싶다. 이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도와드릴게요."

아파트 단지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진행하면서, 유선업체에 빔 프로젝트를 지원받아 영화를 상영하고, 동네 어린이들에게 자비로 학용품을 사서 나눠 주면서 주민들을 자연스럽게 모았다. 동네 호프집 등 주민들이 많이 모이

SRI 수원학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1999년 11월 23일
영통쓰레기소각장
가동 반대시위
(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1999년 11월 23일 영통쓰레기소각장 가동 반대시위(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수원학연구센터
SUWON RESEARCH INSTITUTE

는 곳에 가서 틈틈이 남경필에 대해 홍보하였다. 남경필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됨으로써, 이남옥의 선거 운동도 좋은 결실을 맺었다. 남경필은 영통동 대우동신아파트에 살았고, 이남옥은 매탄동 주공아파트에 살았기에 이웃 주민이기도 했다. 그렇게 정치인과 인연이 시작되었다.

이남옥은 자녀가 학교에 입학하면서 학교 운영위원장도 맡게 되었고, 수원환경운동센터, YMCA 등에 멤버로 합류하여 활동하였다. 영통쓰레기소각장 이전과 폐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도 맡게 되었다. 당시 영통쓰레기소각장의 쓰레기 반입과 가동에 대하여 수원시와 주민들 사이에 대립이 있었다. 1999년 심재덕 시장은 임시 가동을 주장하고, 대책위원회는 가동 중지를 주장하였다.

이남옥은 가동은 하되, 감시를 철저히 하여 산업용 폐기물이 안 들어오게 하고, 대신 지역에 편의시설을 유치하자는 의견을 갖고 있었다. 그가 비상대책위원장을 할 때, 영통동 아파트에 사는 젊은 남성이 소각장 때문에 전 재산인 아파트 가격과 가치가 떨어지는 것에 절망을 느껴 분신을 시도하였다. 이남옥은 시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 목숨이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그가 병원에 실려 갈 때 보호자로 동수원병원에 동행하였다. 상태가 위중하여 서울 한강성심병원으로 이송되었는데, 그의 신원 확인과 병원비 해결을 위해 수원시 공무원들과 연락하며 동분서주하였다. 그는 얼굴과 다리에 3도 화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회복하여 훗날 가정을 꾸렸다.[1]

이남옥 영통에 아파트마다 막 몇 시까지 이 소각장으로 더 와라 이래서. 또 막 사람이 막 몇 백 명이 모였잖아요. 모였는데, 그날 택시 기사였어. 총각이야. 바로 앞에 … 그 아파트 25평짜리거든. 그 아파트에 살아. 소각장 가동하면 내가 피땀 흘려서 벌었던 돈, 아파트 여기다가 구입을 했는데, 아파트 떨어지면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한 거다. "나 불 붙인다!" 이러다 자기도 모르게 탁! 켜져 버린 거.

남경필 의원이 그에게 수원시의원이 되길 권유하였다. 그때는 당내에서 후보를 공천하는 형식인 내천제였다. 이남옥은 영통 지역사회에서 많은 활약을 했고,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지며 호감과 신뢰를 쌓은 인물이 되어 있었다. 그렇지만 수원에서 평범한 직장인으로 근무하는 남편에게 지장을 줄까 부담되기도 했고, 초등학교만 나온 학력 때문에 그 자리를 감당하는 것이 버겁게 느껴졌다. 남경필은 이제까지 혼자 공부해서 아파트 건축, 환경 문제에 대해 그만큼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되었는데, 재능이 아깝지 않냐고 반문하였다. 이남옥은 깊은 고민과 가족회의 끝에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2020년 제7대 수원시의회 개원식(수원시의회 제공)

이남옥 내가 사실은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밖에 안 돼 갖고, 그것 때문에 안 하려 했고. 남편은 퍼시픽에 이제 동국대를 나와 갖고, 관리직에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제일 안 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내가 이게 이력이 다 나가면 남편 직장생활에 지장이 가까워서. 그게 좀 하고는 싶은데, 그것 때문에 안 한다고 했거든. 남경필 의원이 또 괜찮다고, 오히려 그게 더 초등학교 나와 갖고, 이렇게 혼자서 공부해 갖고, 환경도 그렇게 많이 알고, 건축도 또 그렇게 많이 알고, 재능이 아깝지 않냐? 그 학교는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다. 검정고시를 해도 되고. 그러니까 일단은 시의원

SRI 수원학연구센터 SUWON RESEARCH INSTITUTE

2005년 11월 영흥체육공원 기공식(수원시의회 제공)

2005년 12월 수원시의회 예산심의(수원시의회 제공)

SRI 수원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을 출발을 하자. 그래 갖고 그냥 남편도 한다고 해라고 하고.

2002년, 42세에 한나라당 소속으로 제7대 수원시의회 의원이 되었다. 시의원은 시의 의결기관인 시의회를 구성하는 의원으로 지역의 지방의회에 소속되어 조례 제정이나 개정, 예산 심의 및 의결, 감사 등의 일을 담당한다. 그는 주부의 시선, 생활인의 경험에서 생활 밀착형 정치를 펼쳤다. 당시 동사무소 등에서 주민들에게 탁상용 캘린더를 무료로 나눠 주었는데, 가져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 쌓여 있었다. 이를 줄여서 예산을 절감하였다. 또 관공서에서부터 쓰레기봉투 사용을 줄이자고 했다. 영통동에 구보건소 유치, 영흥체육공원 조성 등을 추진하였다.

이남옥 처음에 가서 예산서를 다 봤는데 책이 이래 두꺼워. 집에 싸 들고 가 갖고 봤는데 머리에 하나도 안 들어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 딱 하나만 잡았어요. 탁상용 카렌다(캘린더)에 비용이 엄청 많이 잡혀 있더라고요, 거기 비용 안에 책정돼 있는데 이건 너무하다 싶으면이, 그래서 아니 동사무소에 가면 막 이만큼씩 쌓아 놓고 있잖아 아무도 안 들고 가. 달력 주는 데가 너무 많았었어. 그때는, 지금 달력 구하려면 힘들어. 이거 동사무소에 가면 쌓아놨다가 버릴, 이게 왜 이렇게 많지? 그러고 이제 그걸 먼저 이제 물고 늘어진 거지 예산할 때, 감사할 때 이제 감사해서 내가 뭐부터 할까 하다가 일단 내가 아는 거 내는 걸로, 예산 심의할 때 그래서 아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이제

2004 우수관리단지로 선정된 영통청명 주공아파트 단지 시계탑 건립(2005년, 수원시포토뱅크 제공)

세무과에서 담당이니까 그 이제 뭐 세금 내는 이거 표시되는 달력이에요. 탁상 달력 이걸 이제 내가 이거 비용 너무 과다하고 이것 보니까 동사무소마다 사여서 결국 나중에 폐기 처분하는데, 폐기 처분한다고 돈 들고, 찍는다고 돈 들고, 이거 뭐 하는 거냐? 이거 삭감하겠습니다. 그랬더만은 세무과장이 있다가 "아 그거 시비는 얼마 안 들어가고 도비 받아갖고 하는 겁니다." 딱 이러길래 "도비는 세금 아니냐고? 삭감하세요!" 그러니까 반만 하겠대. "반도 필요 없어요. 하는 김에 삭감 다 하세요!" 이제 그게 이슈가 돼갖고 막 기자들이 그냥 막 몰려와 가지고, 도대체 저 어디서 굴러먹다가 온 여자가. 전체 예산의 1조에서 보면 별 거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게 쌓여서 1조가 된 거잖아. 그때 삭감을 시켜버렸네. 이게 이슈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집에 가서 또 공부를 해가지고 쓰레기봉투를 내가 얘기했던 것 같아 너무 과다 잡혀 있다. 이제 그렇게 생활 밀착형으로 처음에는 접근을 했어요.

그는 수원 출신이 아니었기에 지연도, 학연도 없었다. 본인의 노력과 적극성만 가진 평범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시청의 각 과마다 방문하여 배우려는 자세로 공무원들에게 물으며 공부해 나갔다. 각 과에 방문할 때마다 보통 믹스 커피를 한 잔씩 대접받았는데, 어느 날은 커피만 10잔 이상 마시는 날도 있었다. 담당 공무원들 앞에서 군림하지 않고, 소통하면서, 지역 현안에 관심을 갖고 노력하는 시의원에 대해 공무원들도 매우 호의적이었다.

이남옥 팀장이나 과장, 그분들이 맨 처음에 막 부담스러워 해요. 그러다가 이제 횟수가 지나니까 아 저거 이남옥이 스타일, 이래서 오히려 존중해 주고 더 잘 가르쳐 주고, 이제 예산 편성할 때도 미리 설명을 해주러 오는 거에요. 공무원들이. 아니, 이제 내가 이제 과마다 인사를 잘 다녔어요. 시간만 나면 과마다 다녀요. 가서, 이제 뭐 하루에 믹스 커피 열 몇 잔 먹은 적도 있어요. … 내가 독학으로 공부했다고, 환경도 그렇고, 소각장에 대해서 다 이제 공무원들 못지않게 제가 너무 많이 알고 있잖아요. 비상대책위원장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 하고. 이래서 공무원들도 많이 인정해 주고 지금도 그분들하고 만나요.

2) 경기도의 환경을 살리다

수원시의회 의원으로 성실히 활동하던 이남옥에게 경기도의원으로 진출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할 길이 열렸다. 2006년 제7대 수원시의회(2002년 7월 1일~2006년 6월 30일) 의원 임기 말, 경기도 광역의원 수원시 8선거구 후보자로 공천되었다. 이번에도 한나라당 남경필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추천이 작용하였다. 당시 정치권에 여성 할당제가 있었다. 도의원으로 나갈 수 있을 만큼 경력과 실력을 두루 갖춘 인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남옥이 수원시의원으로 활약한 이력이 크게 작용하였다.

2006년 5월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가 서울 신촌에서 커터칼로 얼굴을 피습당한 사건이 있어서, 한나라당 후보들이 우위를 점하는 분위기였다. 수원 사람들은 영통에 거주하는 평범한 이웃이자, 지역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했던 이남옥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였다. 선거운동을 지원하겠다는 사람들도 많았다. 그는 제7대 경기도의원(2006년 7월 1일~2010년 6월 30일)에 당선되어 도시환경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경기도는 수원시에 비하여 예산이 10배쯤 많았다. 도의원이 되자 수원뿐 아니라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 대하여 모두 관심을 갖고 지켜보며, 다른 지역구 의원들과도 협력해서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해야 하였다. 책무가 막중한 자리였다.

이남옥 이제 경기도의원은 31개 시군을 전부 다 내가 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 내가 뭐 환경이다, 이러면 수원의 환경적인 문제만 보면 안 되잖아요. 각 시군의 환경문제를 이제 내 스스로 공부를 하든, 공무원한테 가서 배우든, 각 지자체별로 어떤 환경문제가 있는지 이런 걸 빨리 감사를 해야지. 그래서 꼭 내 시(市)에 것만 따고 올 게 아니라, 경기도, 연천에 만약에 환경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연천은 엄청 멀잖아요. 그래도 그건 내가 관심을 가지고, 그쪽으로도 예산이 갈 수 있도록 같이 그쪽 지역구 의원들이랑 같이 협력해서 그쪽으로 예산 편성되도록 해

2006년 팔당상수원 수질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팔당유역 7개 시군간 협약식(경기도 멀티미디어 제공)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줘야. 나중에 수원시에 내가 이런 이제 예산 편성 받을 일이 있을 때 도움을, 그 의원들이 똑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해 주니까 이제 그런 차이죠.

이남옥의 임기 동안 도시환경위원회가 다룬 큰 이슈는 팔당상수원보호구역과 관련한 것이었다. 상수원 보호 차원에서 농약을 최소화하고 친환경 농약을 사용해야 하는데, 농민들 입장에서는 일반 농약과 친환경 농약의 가격 차이가 크고, 농약을 제대로 쓰지 않으면 농사가 안 되었기에 이를 지키기 힘들었다. 무단 경작, 불법 경작하던 농민들을 나가게 하고, 농사짓는 사람들과 마찰을 조정하면서, 팔당호 수질을 개선한 것이 큰 성과였다.

2008년 8월 22일 팔당호 중첩규제 및 수도권 규제 철폐 위한 범도민 결의대회 거리행진(경기도 멀티미디어 제공)

이남옥 그때 당시는 환경이라면은 이제 우리 팔당상수원보호구역, 그거 거기에 이제 농사짓는 사람들이랑 조금 이제 마찰 약간 있고. 농약 쓰지 마. 이제 그쪽 사람들 농약 안 쓰면 농사가 됐나? 농약 안 쓰면 농사 안 돼. 벌레가 다 먹어 버리지. 그래도 어쨌든 최소화를 하고 친환경 농약을 사서 쓰고. 그 농약 값 차이가 엄청나더라구요. 이게 친환경 농약하고, 일반 농약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하고 이제 주변에 이제 천변에 이제 농사 는 사람들 이렇게 자기 땅 아니니까 이제 일정 수준은 이제 나가게 하고. 철조망 걷어내고. 팔당 철조망 많이 걷어냈거든요. 그 시점에 그러니까 그 시점에 가장 이슈가 된 건 팔당상수원 지역 보호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이슈였구요.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현장점검(경기도 멀티미디어 제공)

이남옥은 '경기도 아파트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 내에 공급되는 아파트의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아파트의 품질을 검수하기 위해 경기도가 '아파트 품질검수단'을 운영하는 것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그는 "모델하우스와 구조가 다르게 시공되거나, 마감재 등 자재 바꿔치기 문제가 많아 품질검수단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하였다.

아파트 품질검수단의 품질검수 위원은 건축, 구조, 시공, 설비, 조경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전문가 120명 이내로 구성하되, 현장 품질검수를 위해 위원 가운데 분야별 전문가 15명 이내로 검수반을 운영토록 하였다. 품질검수 과정에서 아파트 구조와 단지 내 조경, 안전과 실내 내장,

SRI 수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가전, 난방 방재 등의 시공 상태 자문, 아파트 주요 결함과 하자 발생원인의 시정 자문, 나아가 아파트 품질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권고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파트 품질검수단 조례안 발의로 통해 앞으로 아파트 품질을 보다 더 전문적이고 엄격하게 검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2]

이남옥 본인이 아파트 동대표와 입주자대표회의 활동을 했고, 특히 신축 아파트에 첫 입주하면서 공부하고 하자를 개선해 나간 경험이 있기에, 이렇게 실생활과 밀접한 정치를 펼칠 수 있었다. 이 외에도 광교신도시 생활쓰레기 자체처리 소각장 설치를 이뤄내는 등 직접 발로 뛰는 정치를 펼치고, 실질적인 개선을 이뤄냈다.[3]

그는 8대 경기도의회 공천을 앞두고, 다른 사람이 후보로 선정되는 상황을 맞이하였다. 한번만 더 지역을 위해 활동하고 싶다는 꿈이 있었다. 민심과 여론 또한 이남옥에게 호의적이었다. 그래서 무소속으로 수원시 8선거구(영통1·2, 태장동)에 출마하였다. 지역 유지거나 정치 명문가에서 정치에 입문한 것이 아니라, 회사원 남편을 둔 평범한 가정에서 열정 하나로 선거에 뛰어들러니 선거 자금도 많이 부담되었다. 15% 이상 득표하면 선거비용을 보전받기에 최선을 다했으나, 아슬아슬하게 이에 미치지 못하였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거대 양당 사이에서 무소속 후보라는 한계가 있었다. 낙선 후 미련 없이 정치판에서 은퇴하였다. 그의 나이 52세였다.

이남옥 내 개인의 욕심이긴 하지만 내가 좀 더 하면 수원시나 경기도에 내가 할 역할이 있다. 그래서 한 번은 더 해보고 싶다. 길 게가 아니라 딱 한 번만 더 하면 내가 정리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공천 못 받았으니까, 가족회의를 하면서 "내 떨어진다. 근데 돈, 우리 집에 1억 없어도 사는 데 지장 없으니까 이거 마지막 쓴 거다. 1억 쓰고, 나 정치판에 깨끗이 정리할 수 있는 기회다. 언젠가는 정리해야 된다." 스스로 물러나기에는 내 마음이 아직 남아있지. … 단독 입후보를 했어요. "그래! 없으면 없는 대로 살자!" 그렇게 해서 선거를 치르게 됐죠. 떨어지는 게 당연히 떨어지죠. 무소속. … 엄청 많이 나온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나 목표가 15%였거든. 15% 이상 받으면 이제 보전이 80%가 되잖아. 이차피 떨어지는 거 그러면 내가 보전이라도 받자! 그랬는데 50% 보전 받는, 11점 몇 %인가? 13점 몇 %인가? 그거는 기록을 봐야 알겠네.

3. 커피향과 함께하는 제3의 인생

이남옥의 정치 인생은 빨리 마무리되었다. 영통에서 신혼 생활을 시작하며, 아파트 동대표부터 시작하여 차근차근 정치인으로 성장한 그에게 주민들은 큰 애정과 기대를 갖고 있었다. 동네 민원을 원만히 처리했고, 지역의 크고 작은 현안에 늘 열정적이었기에 보는 사람들마다 그의 낙선을 언급하며 아쉬워하였다. 그는 주변의 이런 반응에 부담을 느껴 오래 거주한 영통동을 떠나 인계동으로 이주하였다.

2010년 6월 선거에서 떨어지고, 7월부터 바리스타 과정을 공부하기 시작하였다. 무엇인가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싶었는데, 마침 일간지 안에 끼워져 있던 영통복지관 홍보 전단지를 발견하였다. 당시 커피를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바리스타가 직업적으로나, 취미로서 유행하기 시작하던 때였다. 그래서 복지관에도 바리스타 과정이 개설되어 있었다. 이남옥은 시의원, 도의원까지 지내던 본인이 복지관에서 강의를 듣는 것이 담당 직원들에게 혹시라도 부담이 될까봐 고민하였다. 그래도 과거를 털고, 평범한 사람으로서의 삶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을 재개하기 위해 수강 신청을 했다.

이남옥 사람들이 자꾸만 이제 인사치레로 하는 말이 있잖아, "됐어야 됐는데…." "안타깝다." "일 잘했는데…." "일 잘했는데"는 뭐냐 하면, 자기네들한테 민원 주고 했을 때 내가 잘 해결해 줬다는 거거든. 내가 밥을 사줘서 좋다는 거, 이런 게 아니라, 동네 민원 처리 잘해 주고, 이제 그랬다는 거니까. 그 소리 듣기 싫어서 영통에서 인계동으로 이사를 나왔어요. 보는 사람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이러면 내 마음이 정리가 안 되고, 내가 또 4년 후에 또 나간다고 그러지 않을까. 나이는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그렇죠. 그때 52인가, 그랬으니까. 안 되겠다. … 그래서 이제 인계동으로 이사를 와서 제가 이제 커피를 배워요. 내가 2010년도 6월 달에 선거 떨어지고, 7월 1일부로 커피를 배우러 가네.

무엇이든 적극적으로 임하는 성격답게, 그는 짧은 기간에 여러 개의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수원시에서 동사무소에 최초로 바리스타 과정을 개설해 강의를 했고, 직업 전문학교, 주민자치센터에서도 핸드드립 자격증반 등에서 수업을 했다. 지역에서 유명한 인사인 이남옥이 강의를 한다니까, 수강생이 들끓어 강좌마다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그는 제자와 후배들을 양성해 이들이 강의를 맡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기도 했다.

그는 2011년 이후로 수원 망포동, 인계동, 광교에서, 현재는 용인 기흥에서 커피전문점을 운영한다. 카페 이름은 본인의 이름을 따서 '이남옥커피'이다. 매달 1일에 들어오는 수익금 전액을 수지구청에 기부하고 있다. 정치 일선에서 은퇴하였지만, 기부를 통해 우리 사회가 나아지는 데 참여하는 것이다.

이남옥 이제 수익금 나는 거 일부를 이제 기부도 용인시에다가, 이제 내가 가게가 용인시니까, 수지구청에 매달, 1일 날 들어오는 수익금 매출 전액 수지구에, "1일 날 들어오는 거는 무조건 전액 기부한다." 내가 매출의 몇 % 이렇게 하려니까, 그, 신경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루 딱 계산해 가지고 그거는 하루에 50을 팔든, 100을 팔든, 이게 이제 들쭉날쭉해. 비 오면 좀 매출이 적고.

그는 현재의 삶을 '제3의 인생'이라고 표현한다. '제1의 인생'은 영통에서 신혼을 시작하고, 아파트 환경 개선을 위해 치열하게 살던 주부였고, '제2의 인생'은 시의원과 도의원이라는 직함을 달고 정치인으로서 활동하던 시기였다. 그리고 지금은 '제3의 인생'으로, 진한 커피향과 멋진 분위기를 갖추고 바리스타로 살아가고 있다. 아파트, 도시, 환경의 대변자이던 이남옥은 멋진 향과 맛으로 이웃과 교류하며 봉사하고 있다.

이남옥 이제 내가 이렇게 배웠으니까 내가 이제 "제3의 인생을 산다." 이제 주부로 살다가, 의원이 돼서 제2의 인생을 살고, 이제 이걸 다 접고 제3의 인생을 내가 새로 펼친다.

1. 「영통 소각장 항의 주민 분신」, 『한겨레』 1999년 12월 15일.
2. 「아파트품질 검수단 운영한다」, 『수원신문』 2010년 3월 16일.
3. 「[후보 인터뷰] 이남옥 "영통·태장동 위해 할 일 남았다"」, 『수원신문』 2010년 4월 29일.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광교신도시 개발 지역 마을 주민들의 대변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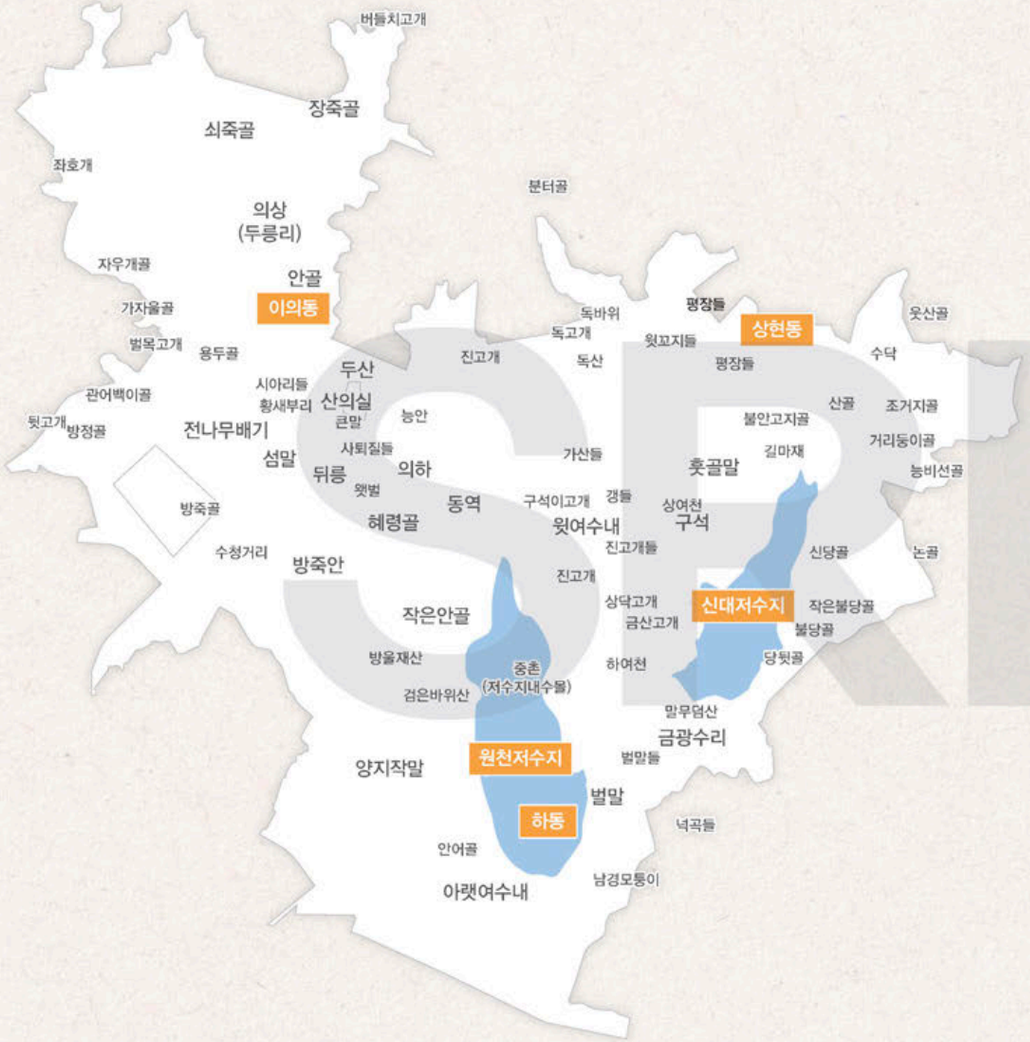
하동 한상진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 하동 '여수내 호랑이'

영통구 하동은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국내 최대의 도심 속 호수공원인 광교호수공원을 품고 있는 살기 좋은 지역이다. 행정동으로 광교2동에 해당하며, 광교신도시 지역이다. 수원지방검찰청, 수원지방법원, 수원고등법원 등의 공공기관이 들어와 있고, 갤러리아백화점 광교점, 수원컨벤션센터 등이 있어 여러모로 생활하기 편리하다. 지금은 '수원의 강남'이라 불리며 영통구 내에서도 가장 화려한 신도시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 이곳은 불과 20년 전까지만 해도 전통적인 집성촌 마을로 주민들 상당수가 농업에 종사한 농촌이었다.

하동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변화상은 마을 토박이이자, 현재 광교에 거주하고 있는 한상진의 삶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한상진은 1951년생으로



광교신도시 개발 지역 마을과 지명

1959년 여수내 청주 한씨 일가(한상진 제공)

용인시 수지면 하리 400번지에서 출생하였다. 그가 태어났을 당시 주소는 용인군 수지면 하리였으나, 1983년에 행정구역 변경으로 수원으로 편입되면서 수원시 하동이 된 곳이다.

하동은 집성촌으로서 청주 한씨, 청송 심씨, 안동 김씨, 죽산 김씨의 4개 성이 대성(大姓)을 이루었다. 한상진은 청주 한씨로, 하동 여수내에서 터를 잡고 살아간 터줏대감이다. 여수내는 '여수천(麗水川)', '여천', '원천'으로 불린 하천의 명칭이었으나 하동 5통 일대의 마을 이름으로도 사용되었다. 청주 한씨 장도공파가 여수내에 자리를 잡은 것은 평해공 한탁(韓倬)의 묘소

SWRI 수원학연구센터

공무원이었던 부친 한건수(1964년, 한상진 제공)

를 하동(산12번지)에 쓰면서부터이다. 평해공은 성종의 외사촌이며 사헌부 감찰 및 금산, 아산, 양주, 평해 4군의 군수를 역임한 인물이었다.

한상진 이제 그 집이 수지면 하리, 원천 방조제 최고 상류, 여수내 다리라고 여기 있잖아요. 지금 LH아파트가 그게 여수내야. 저기 LH아파트 , 거기가 바로 이의동, 하동, 상현동 넘어가면서. 이쪽은 저기 정유선생 묘 산소 옆에, 정유 묘 산소 옆에 거기 거기까지가 하동이고. 그 위에는 이의동이야. 여수내가 이제 청주 한씨(淸州 韓氏)의 원본인데, 우리가 이제 그 하동은 돌 던진다 한가, 하동 자체에요.

1935년 조선총독부에서 조사한 동성촌락 현황을 보면, 청주 한씨 72세대가 여수내 일대에 거주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1929년 둑을 쌓아 여천(원천)저수지를 만들면서 저수지 안에 모여 살던 청주 한씨들은 상류와 하류로 흩어져 살게 되었으며, 이는 청주 한씨 동성촌락 규모를 축소시키는 결과로 작용하였다. 더욱이 1990년대 중반 유원지 개발로 아랫여수내 마을이 없어지고 윗여수내만 남게 되자, 청주 한씨는 더욱 줄어들었다.

1970년대 모친과 이웃들(한상진 제공)

수원학연구센터
SUWON RESEARCH INSTITUTE

1950~1960년대 하동은 전형적인 농촌이었고, 주민의 50% 이상이 문맹이었다. 한상진은 대대로 부농이었던 조상 덕에 어려서부터 2,000평 규모의 큰 기와집에서 풍족하게 성장하였다. 조부인 한순석은 마을 구장을 맡았고, 아버지 한건수는 1918년생으로 산림과 공무원을 지냈으니, 마을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한 엘리트로 손꼽혔다.

한상진은 1957년에 산의초등학교, 1963년에 수원북중학교, 1966년에 수원고등학교에 입학해서 학교를 다녔다. 당시 수원북중학교는 연합고사 성적이 우수해야 입학이 가능한 명문중학교였기에,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진학한 것은 큰 경사였다. 북중학교 학생들은 자부심이 강했고, 학교 분위기

1969년 한상진의 수원고등학교 졸업식(한상진 제공)

도 대체적으로 엄격하였다. 그는 왕복 8~9㎞가 넘는 통학 길을 매일 뛰다시피 다녔다. 당시 대학에 진학하려는 학생들은 수원의 최고 명문고인 수원고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서울로 유학하는 분위기였다. 한상진은 부유한 집안의 장남이었기에 진학의 길을 선택하였다. 수원을 비롯한 경기도의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하는 분위기 속에서 2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하였다. 한상진은 설악산 수학여행비로 여행에 참여하는 대신, 대창양복점에 가서 새 교복을 맞췄다. 당시 멋쟁이 학생들은 기성복 교복을 구입하지 않고, 대창양복점과 문화양복점 등에서 몸에 딱 맞게 맞추는 문화가 있었다. 청소년기 한상진은 공부 외에도 멋과 폼을 중요하게 여겼다.

연합고사 시험을 봐서 중앙대학교 사범대에 입학하였다. 1970년대 청년문화는 통기타, 청바지, 생맥주로 상징되는데, 한상진은 신사복 한 벌 값에 해당하는 청바지를 입고 다니며 유행의 최전선에 서기도 했다. 그는 수원에서 중앙대학교로 진학한 이들의 모임인 '중우회' 회장을 맡았고, 수원에 사는 대학생들끼리 1년에 한 번씩 여는 대학생 체육대회 때면 축구부에서 활동하였다.

대학시절 한상진(한상진 제공)

그는 하동 지역 유지 집안의 장남이자 수원의 엘리트였으나, 사회활동을 하면서 이를 드러내지 않았다. 다양한 배경의 구성원들이 모인 사회에서 우월감을 드러내기보다는, 함께 어울리고 섞여 사는 게 더 필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장기와 청년 시절 호기롭게 살아본 경험과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은 훗날 '원천(여수내)의 호랑이', '원천 하리마오'로 살아가는 데 원동력이 되었다. '하리마오'는 인도네시아어로 호랑이라는 단어 Harimau에서 유래한 말로, 호랑이처럼 야성이 있고 무서운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한상진은 수원시의회 의원, 수원시연화장 이사장, 광교원주민개발투쟁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내며 주민들의 대변자이자, 하리마오 역할을 하였다.

SRI 수원학연구센터 SUWON RESEARCH INSTITUTE

한상진 '원천의 하리마오', '원천 호랑이'. 하리마오가 호랑이 아니요! 내 원천서 별명이 하리마오요. 내가 원천 하리마오로 원천 군기 잡기 시작한 지가, 33살 때부터. 내가 스스로 만든 거요. 그거 하리마오. "아! 앞으로 하리마오, 원천 하리마오요! 원천 대장!"

2. 지역 변화의 최일선에서

한상진은 대학을 졸업한 후, 몇 년간 직장생활을 하다가 장남은 고향을 지켜야 한다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집으로 내려왔다. 예비군 중대장을 하다가 주변 사람들의 추천을 받아 용인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에 들어갔다. 용인군 통대의원을 1년 하다가 행정구역이 수원시로 바뀌면서 수원시 통대의원이 되었다. 한상진은 민정당 중앙당에 가서 시험을 봐서 조직부장이 될 정도로 열성적으로 활동하였다.

1983년 하리와 이의리의 수원시 편입이 결정되었다. 문제는 하동과 이의동의 인구수가 적어 이 지역을 관할하는 행정동을 설치할 수 없어서 여러 행정동으로 나누어 편제된다는 것이었다. 당시 행정동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주민수가 3,000명을 넘어야 하는데 이의동과 하동은 2,800명 정도였기에, 단독으로 동을 만들 수 없었다. 게다가 젊은이들이 빠져 나가고 고령자만 남아 당장 인구 증가가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4개로 분리해 배속시키는 것이었는데, 이는 한 동네로 400년을 살아온 전통과 소속감이 없어지는 것이라서 주민들로서는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한상진은 경기도청에 가서 경기도지사 면담을 요구하였다. 33세라는 젊은 나이에 혈기 왕성하고, 정의감에 불탔으며 통대의원이라는 직함을

1983년 수원시로 편입된 이의동과 하동
(1985년, 수원시 항공사진서비스 제공)

SRI 수원학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한상진의 고향 마을(1984년, 국토지리정보원 제공)

갖고 있었기에, 한상진은 누구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당당한 자세로 임하였다. 도지사와 이야기하면서 이의리와 하리는 수원시 면적의 8분의 1에 해당할 정도로 넓은 지역이라서 아파트 한 동만 들어와도 바로 3,000명을 넘게 되고, 4~5개의 동이 나올 수 있는 지역임을 강조하였다. 수원시 도시계획법을 풀어 달라고 요청했으나, 행정구역 변경 주체는 중앙정부였기에 도지사는 권한이 없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직접 내무부의 담당국장을 찾아가서 이의리와 하리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담판을 지었다. 마침내 담당국장도 이에 수긍하였다. 결국 이의리와 하리 주민들은 이의동이라는 단일 행정동 관할에 놓이게 되어 광교신도시 개발이 될 때까지 같은 마을을 유지하

수원시 하동 400번지 한상진 자택(한상진 제공)

며 오랜 전통과 정체성을 지켜 나갈 수 있었다.

한상진 여기가 바로 원천 여기 용인시 수지면 하리 400번지, 요렇게 돼 있다가, 요게 바로 저기 2월 15일 날이 수원시로 편입이 됐는데, 83년 2월 15일. 우리 기억력은 좋아. 83년 2월 15일 날 수원시로 됐어. 그래 가지고 주소가 수원시로 됐을 때 그때 통대의원을 용인서 합격해 갖고 이제 수원 할 때 끗발이 좋았어요. "이의리를 연무동으로 편입을 시키고, 하리를 원천동으로 편입을 시키겠다." 그래서 내가 경기도청을 쫓아가 데려갔어. 내가 32살이야. 정확하게. 여기서 알다시피 우

SRI 수원학연구센터
SUWON RESEARCH INSTITUTE

리 이렇게, 당신은 용인 사정을 잘 알면 잘 알잖아. 우리는 칸츄리맨(countryman) 아니냐? 여기는 도시 사람들이고 . … 왜냐하면 인구가 3,000명이 넘어야 동을 만들어 주는 거야. 우리 2,800명이야. 그래서 한 동으로 묶을 수가 없고. 그러기에 "여보세요! 도시계획을 당신들이 만들어 놔 가지고, 개떡이 됐는데." 내가 따졌어요. "중요한 건 뭐냐? 수원시의 1/8 면적이다. 수원이 이 안에 도시계획을 여기다가 지구 설정, 아파트 지구 하나만 해 놓으면 금방 인구 늘어, 금방 인구 느는데 당신들이 안 내려놓고." 수원이 재네들한텐 애기해 봐야! … 그때 내무부에 못 올라갈 게 뭐 있어? 나는 그때 정의를 갖고 살았어. 내가 사범대 학회장까지 한 사람이, 중앙대학교, 정치를 했기 때문에 예비군 중대장도 하다가 통대의원을 내가 나간 게 정치에 야심이 있었어요. … 한 동네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 다른 데로 이제 떨어지는 겁니다. 한 동네 살면서 반은 이리로 가고, 남남북녀가 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거 아니 생일잔치에도 같이 노놔 먹던 이웃들이었는데 이제는 남남이 되는 겁니다. 거기는 공부 좀 하고 애들 가르쳤던 사람들은 다 도시 나가서 다 직장 생활하러 나가고, 고령자들 할머니들만 삽니다. 고향에. 거기 인구가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인제는 시골 사람들끼리 그때 수지면에 살 때는 이장이 가서 출생신고 시켜 주고, 이장이 조금 배운 사람이 대행 업무도 해 줬는데 이제는 도시는 누가 대행 업무를 누가 해 줍니까? 면사무소 가서 하던 게 이제(李梯) 동사무소에 가서는 직접 가서 주민등록 등본 떼어야 되는데, 중요한 건 50% 이상 한글을 모릅니다. 자기 이름 그냥 간신히 그저 그냥 이쁘게도 안 쓰고, 이름도 쓰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간신히 자기 이름 간신히 쓰는 사람인데 못 쓰는 사람들이 문맹자도 많고. 우리가 중학교

1995년 7월 11일 제5대 수원시의회 개원식(수원박물관 제공)

때 사랑방 가서 그 할머니들 공부를 다 가르쳤다. 그래서 깨운 사람도 있는데 하기 싫은 사람들은 마이동풍이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많다. 그 설명을 했더니 "알았습니다! 명령 내리겠습니다!"

그는 경기도청의 경기도생활체육회에 들어가 사업을 꾸려 나가는 일을 했다. 1991년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후 그만두고, 경기도의원 선거를 준비하다가 수원시의원으로 진향해서 선거를 치렀다. 35세의 젊은 나이에 1995년 제5대 시의원에 당선되었다. 일찍이 행정 경험을 쌓고, 시의원으로 활동한 경험은 훗날 지역과 원주민의 권리를 지키는 데 크게 작용했다고 회고한다.

SRI 수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한상진이 이사장으로 활동했던
수원시연화장(2002년)

2001년 1월 15일 하동에는 수원시연화장이 개장하였고 한상진은 이사장에 취임하였다. 화장장은 혐오시설로 여겨졌기 때문에 수원시는 이 시설을 수용한 지역 주민들이 연화장을 수탁받아 운영하도록 했다. 이에 수원시연화장 이사장이 된 한상진은 삼성의료원과 현대아산병원 장례식장을 찾아다니면서 운영과 장례 절차를 배워서 연화장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장례 가격을 표준화하였다. 연화장은 많은 수원 시민들의 고별의 장소가 되었다.

여수내 청주 한씨 집성촌의 지역 유지로서, 한상진이 살던 집은 넓은 대지의 기와집이었다. 소풍을 가던 학생들이 구경하고 갈 정도로 전망도 좋았다. 한상진이 정치 활동 및 각종 지역 활동을 하느라 집안을 제대로 돌보지

한상진 부부가 운영하던 덕수궁(한상진 제공)

않자, 부인이 이 집을 이용하여 경제활동을 하면서 가게를 유지하였다. 기존의 방을 월세방으로 꾸며 방 한 개당 25만~30만 원 정도의 월세를 받으며 10년간 꾸려 나갔다.

또한 아내는 원천유원지 주변에 용궁, 수궁, 왕궁 등의 이름을 붙인 음식점들의 영업이 잘 되는 걸 보면서, 세입자를 내보내고, 2001년에 '덕수궁'이라는 식당을 창업하였다. 주요 메뉴는 수육과 숯불 돼지였다. 2,000평 부지에 족구장과 주차장을 설치하니 삼성전자, 검찰청, 국토지리원 등에서 단체손님이 몰려와 야유회, 워크숍 등을 열었다. 예전에는 원천유원지 인근 식당은 봄에만 반짝 영업을 했는데, 덕수궁이 영업하면서 사철 영업이 시작되었

수원학연구센터
SUWON RESEARCH INSTITUTE

다. 덕수궁은 7년간 운영되다가, 광교신도시 조성을 위한 개발사업 때문에 2006년에 철거되었다. 한상진은 덕수궁이 한옥이기에 계속 보존되길 희망했으나, 결국 사라지게 되었다. 덕수궁이 수용될 때 많은 수원 사람들이 "앞으로 어디에 가서 놀아야 되냐?"며 많이 아쉬워했다고 한다. 한상진은 과거를 회고하며 작성한 글에서, '덕수궁' 개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한상진 우리 마누라가 장사해서 돈 벌었는데, "내가 양반이 무슨 장사야?" 그랬더니, "돈 벌려면 장사를 해야 된다! 이 큰 터에." 그래 갖고 이 거를, 수원시 팔달구 하동 400번지는 나의 고향이자 나의 생가이기도 하다. 이 땅은 고(故) 한순석 씨인 나의 할아버지가 일구어 온 땅이다. 그 뒤로 나의 부친이신 고(故) 한건수 씨가 지켜 오셨고, 나의 5남매를 키워 오신 땅이기도 하다. 그 뒤로 장남인 내가 이 터를 지켜 갖고, 이 땅에 나오는 '덕수궁'이라는 간판을 걸고 나의 가문에 혁신적인 새바람을 불어 넣었다. 이것이 다 생존 경쟁의 일환이었고, 나로서는 엄청난 망설임이었다. 그러나 후회는 하지 않는다. 현대사회의 변화였다고 할까?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었으니까!

3. 주민에게 이로운 개발, 화합을 위한 노력

하동이 광교신도시로 개발되면서 주민들은 전통 마을이 해체되는 과정을 겪게 되었다. 광교신도시는 수원시 구시가지의 도시기능 재배치와 첨단지식기반산업 위주의 자족형 복합기능을 갖는 수부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참여정부에서 수원시 주도로 추진하였다. 대상지역은 수원시 이의동·하동·원천동으로, 문중들의 집성촌, 선산, 논밭 등이 산재된 곳이었다. 주민들은 대부분 개발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한상진 100% 반대지. 왜냐? 땅 가진 사람은 거기 원주민들인데, 고향 떠나서 싫어. 그리고 남의 농사, 소작 농사 지어먹던 사람들은 땅 떨어지면 올 데 갈 데가 없어. 가진 게 농사꾼인데. 그나마 원천서 하꼬방 집 옆에 장사하던 사람인데 그거 보상비 받으면 수원에 어디 가서, 어? 갈 데가 죽어도! 그래 광교에서 떨어진 60%가 다 거지라니까. 땅 가진 사람은 30%밖에 안 돼. 종중 땅 50%는 다 거지야. 50%는 거지 돼서 나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개발 직전 하동 웃여수내 마을 전경(2002년)

갔고. 인계동이고 어디고 못 사는데 단칸방이라도 보상 쪼금씩 주니까. 가게 한 애들, 가게 보상 이런 것 주니까, 전세방 얻어 나갔고. 두 번째는 뭐냐. 이주자택지 줬잖아. 이주자 택지 땅값만 5억, 건물 지으려면 10억 이상 14~15억 들어가. 순수하게 집 지으려면. 그러면 14억이 어디 있어? 그냥 보상받은 거 합쳐서, 7~8천, 1억 받으면 잘 받는 건데.

이의동에는 일부 대지주도 있었지만, 남의 토지 위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 종중 땅에서 농사를 짓거나 소작을 하던 사람들이 50%가 넘었다. 이들은 보상금을 얼마 받지도 못하고 정든 땅에서 나가야 했고, 생업을 잃어야 했다. 잘살든 못살든 평생 마을에서 농업을 하며 살 수 있었는데 신도시개발로 삶의 근간이 흔들린 것이다.

한상진 거기 집 짓고 살던 사람.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의 땅에다가 중종 땅에다가 집 짓고, 남의 땅에다 집 지은 사람은 시골엔 그런 집이 많아. 소유권이 없지. 그게, 그게 중요해. 임포턴트(important), 그게 중요하지. 그런 게 50%가 넘어. 그러니 거지가 될 수밖에. 농사 떨어져, 그까짓 그 시골집 그거 몇 푼 받아. … 평생 거기서 그냥 못살든, 잘살든, 먹고사는 거지.

한상진은 시의원으로서 명예도 얻어 봤고, 덕수궁을 운영하며 경제적으로도 윤택했고, 청주 한씨 종손으로 상당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원주민들 중에서도 손꼽힐 만큼 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위치였다. 그럼에도 조상 대대로 살아온 전통 마을과 공동체 문화가 해체된다는 점에서 큰 상실감과 분노를 느꼈다.

이의동·하동개발투쟁위원회 사무실(『광교동! 그리고 내고향 이의동 하동』)

한상진 개발이 반대지. 보상하고 돈 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어차피 가진 게 다 사통팔통 다 내 땅이고, 내 재산이 내가 먹고살 만하고, 연화장 이사장부터 다 겪었는데. 조직부장부터 체육회 국장에서부터 다 겪어보고. 돈이 없어? 뭐가 없어? 그까짓 보상금 그 돈해서 뭐 할 거야? 아까 말마따나 내 땅 팔면 돈인데 그리고 보상하면 개값 받는 거 뻔히 알고. 100만 원짜리 못 받는 거 뻔히 알고. 나는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할아버지부터 우리 한가. 이게 몇 백 년을 묵어 온 전통, 우리 뿌리가 있는 그런 마을에 내가 여기서 태어나고.

그는 주민들의 마음과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이의동·하동개발투쟁위원회

SRI 수원학연구센터 SUWON RESEARCH INSTITUTE

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 이때는 50대 중반에 접어들었고, 수원연화장 고문으로 일하던 시기였다. 오랫동안 갈고 닦은 지역사회 경험과 정치 경력을 바탕으로 그는 주민들의 편에 서서 이들의 이익을 대변하고자 했다. 경기지방공사의 감정평가가 주민들에게 불리했기에, 취득세 부담 등 물질적 피해가 우려된다고 보았다. 그는 보상심의에 대한 책자도 만들었다. 시의원을 하면서 조례를 만든 경험이 있기에 이러한 일들이 어렵지 않았다.

한상진 의원까지 해 갖고 조례를 만들던 사람인데! 쉽게 얘기해서 여섯 가지를 내세운 거예요. 가옥주, 가옥주 대지 이런 것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한 대책. 또 가옥 없고 세입자 그 집에 세 들어 사는 세입자 대책. 그리고 비닐하우스에 집 짓고 사는 그거는 가옥대장이 없잖아. 그 사람들도 거기서 주거를 하던 사람 아니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대책. 그리고 공장 이런 것 하고 주민은 주소는 다른 데 있어도 그 사람들의 근거지 여기 상가 이런 것, 연무동 살고, 어디 살고, 원천에 와서 장사하던 사람 그런 사람들도 주민권을 줘야 할 거 아니야. 그런 대책 그래서 기타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 1900, 저게 법이 언제 생겼냐면 주택법이 건축법이 1988년 몇 월 며칠 생겨. 그 이전에 생긴 거는 무조건 대우를 해줘라. 이전에 생긴 거는 건축법에 못 해 줘. 그러면 너의 집이 언제 생긴 거. 등기부등본이 시골에 우리 집 외에는 없어. 전부 무허가 집이야. 그니까 동사무소 대장에 토지대장 이런 건 있어. 그런데 토지대장은 그 이후고 건축법에 해당되는 그 사람들도 대우를 해 줘라, 100%. 단, 증거물이 뭐냐. 국토지리원에 가면 1988년 2월 15일, 예를 들어서, 그 건축법이. 2월 15일 사진 찍은 게 있어. 그 이후에 찍은 사진은 다 줘라. 그 전에 지은 게 없으면 그건 못 주는 거지. 하

이의동·하동개발투쟁위원회 사무실 부근에 걸린 깃발들(『광교동! 그리고 내고향 이의동 하동』)

SRI 수원학연구센터
SUWON RESEARCH INSTITUTE

루 차이가 나도, 그래가지고 국토지리원에 가서 그걸 다 해 달라면 해줘. 머리가 이렇게 좋아야 돼. 거기 가서 다, "너희 것, 너희 하우스가 언제?" 헷갈린다 이거야. 그거 증거물이 있어야 돼. 항칙에 찍은 거. 그게 법이다. 내가 주고 마는 게 아니라 그게 법이다. 그거보다 더 주는 사람 뭐 주게끔 되어 있는 거다. … 추진 모금을 했지. 우리 한씨 종중에서 돈 100만 원 내라. 김씨 종중에서도 돈 100만 원 내라. 너희 심씨 종중에서도 돈 100만 원 내라. 내가 그래도 위원장이니까 또 100만 원 내마. 10만 원씩 내든가, 강요는 안 했어. 온라인으로 내가. 계좌, 왜. 그냥 주면 입만. 그것도 감사를 다 우리 국장 투쟁위원회 국장이 있어. 우리가 조직적으로 행정 조직을 다 만들어 가지고. 발표도 하고, "1년 때는 이

렇게 되겠습니다." 하고 지라시도 뿌리고, 그 지라시를 누가 뿌리나? 통마다 대표가 있잖아. 개 주면 "네가 복사해서 너희 동네 것, 싹 발라다 갖다 놓고, 너희는 네가 돌리고." 이렇게 조직적으로, 행정 조직하고 똑같이. 내가 행정을 하던 사람이니까.

주민들이 의견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과격한 시위 대신 원만하게 행동하기 위해 그는 노련함을 발휘하였다. 주민 500여 명을 이끌고 경기도청에 찾아가서 그가 대표로 손학규 경기도 지사와 면담하였다. 본인과 주민들이 그의 지지자이자 유권자임을 설명하고, 마을과 주민이 처한 상황을 알렸다. 한상진은 세법이 바뀌기 전에 조기 집행을 통해 손실률을 줄이고, 이주 시 보상받는 대지 규모를 최대한 늘리며, 보상받을 수 있는 지장물을 늘리거나 범주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일부 주민들은 보상의 규모가 커졌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은 소유지의 규모가 작았기에 안타깝게도 보상비용이 적을 수밖에 없었다.

광교신도시 건설 현장

한상진 "여기 이 순수한 청송 심씨, 우리 청주 한씨, 안동 김씨, 죽산 안씨, 일부, 여기 4개 성(姓)들이, 뿌리박고 300~400년을 뿌리박고 사는 조상들을 다 내쫓고." 내가 손학규하고 가서 한 바탕을, 싸움한 거 알지? 왜? 손학규를 존경하고 좋아하고 그랬어. 쉽게 얘기해서, 경기도지사 시절에, 그냥 한 500명씩 데려가서 "도청 때려 부숴라!" 그러니까 만나 줘? 왜 데모를 가느냐? 그냥 가보면 잘 안 만나 줘. 데모의 목적은 부시러 가는 게 아니라, 주민들을 몰고, 모시고 가면은 내가 대표로 해서 만나 주니까 가는 거야. 그러면, "손 지사님! 잘 들으시오!" 내가 그 당시에 써먹은 거야. "저 바깥에 있던 500명이 당신 다 찍어준 사람, 유권자다! 저기서 다른 사람 찍은 사람 없어. 나를 따르는 자는 내가 당신 좋아했기 때문에 다 당신 찍었소. 그러니 당신 내 말 잘 들으시고!" 그래가지고 내가 손학규를 아주 존경하고, 대화도 많이 나누고, 이 지역의 보상이, 8월 달에 보상을 받는 건데, 내가 손학규 뭐라고 그랬어. "여보세요, 세법이 바뀌어가지고 8월 달에 보상을 주면 그거는 쉽게 얘기해서 그 40%에 대한 증액금을 묻는데, 지금 6월 달에 보상을, 어차피 예산은 확보된 거니까, 5월 달에 가서, 4월 말에 가서, 6월 안에 보상을 주면 우리는 25%의 보상을, 그러면 당신들이 우리가 땅값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국가가 원하는 감정가에 의한 땅값을 당신이 깎는 것도 아니고, 던지지도 못하고, 공인감정이 해주는 땅을, 나도 배웠으니까. 그러면은 세금은 돈을 확보된 거 미리 주는 거는 지사 당신 마음 아니냐? 도시공사 사장한테 얘기해서 지시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광교원주민상가조합 창립총회(『수원신문』 2009년 3월 30일)

그는 '광교원주민상가조합'의 조합장으로도 활동하였다. 광교원주민상가조합은 조합원 총 308명 규모로, 이주자 딱지를 가진 사람들, 장사하던 사람들, 농사짓던 사람들로 구성되었다.

>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거주했던 원주민들을 중심으로 상가 조합이 본격적인 출발을 알리고 조합원의 이익 극대화와 새로운 광교 만들기라는 청사진을 밝혔다. '광교원주민상가조합(조합장 한상진, 이하 조합)'은 지난 26일 오전 수원 월드컵컨벤션홀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열고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을 선출, 조합 정관을 통과시켰다. 지난 1월 말 사업 설명회를 거쳐 2월 25일 등록을 완료한 조합은 영업 보상과 이주자 택지 보상, 영농 보상 등 147명의 조합원으로 출발했다. 이 조합은 모체 조합 산하에 단위 조합을 조직하는 방식으로 구성됐으며, 조합원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이를 위해 투명한 운영을 다짐했다. 이날 조합장으로 선출된 한상진 씨는 이익을 극대화해 조합원에게 환원하고, 감시와 감사 기능을 강화해 투명하게 조합을 운영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상진 조합장은 "정든 고향을 떠났지만 새로 결성된 조합을 통해 조합원에게 행복과 희망을 주겠다."며 "이익금을 많이 내서 조합원에게 보답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주는 등 새로운 광교를 만들어 내 수원 발전의 역군이 되겠다."고 강조했다.〈「'광교원주민상가조합' 본격 활동 나서」, 『수원신문』 2009년 3월 28일〉

광교카페거리(https://blog.naver.com/taekstory/222095364613)

이러한 인생행로를 걷기까지 우여곡절도 적지 않았다. 연화장 및 광교원

SRI 수원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광교신도시 개발사업으로 변한 하동
(2019년, 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주민상가조합과 관련하여 배임·정비 위반 등을 구실로 여러 차례 무고를 당하기도 했다. 몇 년의 시간 끝에, 모두 무혐의로 처리되었다. 한상진은 광교카페거리의 상가건물에 거주하고 있고, 광교카페거리의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집성촌이 없어지고, 그 자리에 들어온 화려하고 세련된 도시 광교에서 주민과 상인들이 화합하며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는 연화장을 운영하면서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공수래공수거(空手來空手去)'임을 느꼈다.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는데, 인간으로 태어난 우리들은 무엇을 남겨야 되나며 반문하였다. 연화장 시절을 회고하며 남긴 글에는 "정도(正道)를 걷자."라는 깨달음과 교훈이 담겨 있다.

> 화장장, 연화장, 장례식장이라는 곳에 와보니 불가(佛家)에서 말씀하셨듯이 인생이 늘 무상함을 느끼곤 한다. 인생은 '공수래공수거'라는 말도 있고, 이곳의 현실을 보면 가는 자는 말이 없고, 모든 것이 다 필요 없는 양 한 줌의 흙으로 가든지, 한 줌의 재로 변하는 모습을 하루에도 수차례 느껴 보곤 한다. 엽전 세 푼도 자신이 챙기는 자는 아무도 없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호주머니에서 꺼내서 물려준다. 결국 살아있는 사람들이 산 유물이다.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 말이다. 저승보다는 이승이 좋다는 말이 이 때문일까? 말없이 가는 사람은 아무 능력이 없다. 욕심도 권력도 희망도 없다. 그러니 확실한 것은 옛말에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긴다고 했다. 인간을 무엇을 남길까? 인간은 한 가지 그 자신이 살아온 흐름을 남길 것이다. 그가 어떻게 살다가 갔는지 말이다. 훌륭한 인물 중에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 같은 분들이 계셨다. 그분들은 업적은 누구나가 다 아는 바이다. 그분들과 같이는 못 살다 가더라도 흉내는 내다가 살다 죽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말이다. 바로 그 길이다. 바르고 정도 있게 걷다가 죽는 것이 후세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도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다. 참되고 진실되게 그 길을 위해서 열심히 살자.〈「한상진 회고문」〉

광교신도시 개발 이후 다시 돌아온 토박이는 전체의 5%에 불과하다. 집성촌 원주민들이 떠난 자리를 이제는 이주민들이 채우고 있고, 새로운 이웃이 되었다. 마을의 지난 역사를 알고, 전통 마을의 개발 과정, 주민들의 투쟁까지 경험하고 말해 줄 수 있는 어른이 많지 않은 시대이다. 주민들의 대변자였던 한상진의 "참되고 진실 되게 열심히 살자."는 말은 많은 깨달음을 주고 있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01 시집 와 긴 세월을
같이하다

02 아주대학교 학생들과 함께하는
생업과 일상

03 주민 삶을 여유롭게 만드는 곳,
원천저수지에서 광교호수공원까지

제4부

이웃과
삶을 함께하다

매탄동
김남숙과 김교순

시집 와 긴 세월을 같이하다

1. 남편의 빈자리를 메워 준 혈연공동체

전통적인 가족체제가 붕괴되고 핵가족과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시대이다.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 손주에 걸쳐 3~4대가 함께 사는 대가족은 이제 드라마나 영화에서 볼 수 있다. 하지만 불과 몇 십 년 전만 해도 장남의 경우, 부모를 모시고 사는 가정이 많았다. 특히 농촌 마을은 친척들이 모여 살거나 대가족이 많았다. 이미 도시화된 수원에서 집성촌 마을은 더 이상 쉽게 보기 힘든 생소한 모습이지만, 70~80대 이상 고령의 여성 노인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면, 시조부모와 시부모님을 모시고, 시동생들의 뒷바라지까지 하면서 층층시하 위계 구조 속에서 인고의 세월을 보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영통구 서쪽에 위치한 매탄4동 산드래미 마을에는 윗말(윗마을)과 아랫말에 각각 경로당이 있는데, 이 중 아랫말경로당(영통구 산남로4번길 27)은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매탄4동 산드래미 아랫말경로당

주로 주택가에 거주하는 여성 노인들이 이용하는 곳이다. 70~90대에 이르는 여성들이 오전부터 나와 담소를 나누고, 화투를 치는 등 소일거리를 하다가, 점심을 먹고 오후가 되면 귀가하는 생활을 한다. 1970~1980년대 택지개발이 이뤄지면서 시골의 풍경은 사라졌지만, 1980년대 주택가 골목의 모습이 곳곳에 남아 있다. 오래 살고 있는 토박이도 있지만, 다른 동네에서 이주하여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

산드래미 아랫말경로당의 김남숙은 산드래미에서 70년 넘게 살고 있는 터줏대감이자 맏언니이다. 그의 고향은 평택 안중으로, 김해 김씨 집안에서 태어났다. 1933년생이니, 올해 만 90세에 이른다. 예전에는 영아 사망률이 높아 출생신고를 늦게 하는 경우가 많았고, 부모들이 농사일로 바빠서 신고를 못할

2019년 매탄4동 산드래미 아랫말경로당 할머니들(『수원뉴스』 2019년 11월 15일)

SRI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수도 있었다. 면사무소 직원한테 부탁해도 잊어버리고 신고가 늦어져서 2~3년씩 미뤄지는 경우도 있었다. 김남숙도 호적상으로는 세 살 적은 1936년생이다.

김남숙 그런데 3살이 호적에 줄었어, 33년생. 그때는 출생신고 늦게 하는 경우가 많았으니까, 바쁘고, 이제 뭐해라, 그러니까 아빠, 엄마가 못 가지. 그러니까 면 서기 댕기는 사람한테 "우리 애 출생 신고 좀 해 줘!" 그러면 잊어버리면 2년도 가고, 3년도.

평택에서 살다가 여덟 살에 화성군 태장면 신리(현 수원시 영통구 신동)로 이사하였다. 결혼 전 성당에도 다녔고, 태장공립보통학교 야학에도 잠시

다녔다. 예전에는 '방물장사'라 하여, 여자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화장품, 바느질 기구, 패물 등의 간단한 물건들을 동네마다 갖고 들어가 파는 장사꾼이 있었다. 동네마다 다니며 집 밖 외출이 자유롭지 않던 여성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처녀 총각들의 인연도 맺어 줬다. 방물장사 할머니 한 명이 산드래미 마을에 사는 총각과 중매를 서 줬다.

김남숙은 17세의 나이에 송영학과 결혼하여 산드래미 마을에 들어왔다. 요즘 인식으로는 굉장히 어린 나이이지만, 김남숙이 살던 시대에는 10대 후반의 새색시가 많았다. 그는 결혼 전 남편 얼굴도 한 번 보지 못한 채 혼례식을 올렸다. 그때는 부모와 주변 사람들이 권유하면 으레 시집을 가는 것이었다.

김남숙 동네 옛날에 비단장사 이렇게 밀고 댕기네 하는 할머니가 있었잖아. 그 할머니가 산드래미 할머니, 그러니까 우리 신리도 오는데, 이제 중매를 한 거야. 나야 뭘 알어? 그때 열일곱 살. 열여섯 살, 그때 뭐 하러 부모 시집보내는데, 뭐 시집보내는 거고 그러지.

그가 결혼할 때는 한국전쟁 시기였지만, 집에 머물며 며느리 역할을 해야 하는 어린 신부에게는 바깥 사정에 도통 신경 쓸 틈이 없었다. 그래서 김남숙의 삶에서는 한국전쟁이 제대로 기억에 남아 있지 않다. 열일곱 살 새색시의 눈에 비친 산드래미는 어떤 곳이었을까? 산드래미에서 윗말은 송씨, 가운데 마을은 진씨, 아랫마을은 유씨가 많이 거주하였다. 송씨네는 열 가구 정도 살았다. 산드래미 마을에 한문을 가르치는 글방 선생이 있었는데 제법 잘 가르쳤다고 한다. 학생은 남녀 학생 합하여 10여 명 규모였다. 결혼 후 김남숙도 배움에 대한 열정이 있어 잠시 한문을 배우러 다녔다. 고령임에도 언변이 좋고 똑똑한 것은 어린 시절 교육을 받으며 노력했던 덕분이다.

1954년 산드래미(수원시 항공사진서비스 제공)

김남숙 결혼해서 왔더니만 여기에 송씨 사람들이 한 몇 가구, 한 열 가구, 뭐 이렇게 있잖아. 산드래미가 이 가운데 저기가 이렇게 높은 산이 있었어. 그래 가지고 빵 돌려 동네가 있어. 그래서 '산드래미'에요. 산

SRI 수원 SUWON R 수원

원천저수지로 나들이 간 산드래미 여성들(송항섭 제공)

주변에 이렇게, 이렇게, 둘러 있다. 사람들이 한밑창에서 뺑 돌려 살아. 가운데말은 진씨네, 아랫말은 유씨네, 윗말은 송씨네, 이렇게 세 가지 성이 제일 많고. 그 사이에 이제 드문드문 하나씩 딴 성만 껴서 살았지.

남편은 삼형제 중 둘째였다. 처음에는 시댁 식구들과 함께 살다가 작은 오막살이집을 하나 사서 분가하였다. 전쟁 이후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1970년대 산드래미(최종천 작성)

"먹는 게 최고"인 시대였다. 부부는 큰형님 집에 가서 농사일을 거들며 생계를 꾸렸다.

김남숙 이제 큰집에서 몇 년 사는 게 집 하나 다 사서 오막살이 찌그러진 집 사서 시가에서 나더라구. … 나도 농사짓고, 둘이 같이 큰집에 가서 그냥 농사지었는데, 일해 주고, 밥도 먹고, 또 일해 주고, 밥 얻어먹고, 그랬지 뭐. 그땐 입 먹는 게 최고였잖아. 밥 해서 먹는 게 최고.

시아버지인 송천호는 소에게 침을 잘 놓았다. 소가 아프거나 체하면 침을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970년대 여산 송씨 집안 잔치(송항섭 제공)

1970년대 여산 송씨 집안 잔치(송항섭 제공)

SRI 수원학연구센터

놓아 고쳤다. 소를 큰 재산으로 치던 농촌에서 시아버지는 귀한 기술자였던 셈이다. 그래서 수중에 돈이 없을 때도, 시아버지 이름을 대면 필요한 물품을 외상으로 가져올 수 있었다.

김남숙 그런데 우리 시아버님이 소 침을 줘서 잘 고치는 거야 그 기술이 기이여(귀해여). 그래서 이 근처에 모르는 사람이 없지. 진짜 소가 그리고 큰 재산이잖아. 그때는. 없어. 더 재산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소를 침을 놔서 잘 고치셔서. … 그때는 큰 재산이, 소가 이 큰 동네 몇 마리 없었어요.

안타깝게도 김남숙이 30세가 되기 전 남편이 일찍 사망하였다. 그 후 혼자 딸 한 명을 키웠다. 딸은 올해 72세로 어머니를 잘 봉양하고 있다. 어린 시절 결혼하여 시댁에 있다 분가하여 남편만 바라보고 산 젊은 여성은 어떻게 삶을 헤쳐 나갔을까?

함께 도우며 살아가는 산드래미 주민들
(1972년, 수원박물관 제공)

그는 시댁에서 땅을 조금 받아서, 밭농사를 했다. 매탄동 산드래미에서는 오이, 호박, 감자 등을 많이 경작하였다. 큰집에서 키우는 소를 빌려 경작하였다. 육체적으로 큰 노동력이 필요할 때면 송씨네 집안 남성들의 도움을 받았다. 아침에 일어나면 우물에서 두레박으로 물을 길러 쌀을 씻고, 아궁이에 밥을 지었다. 아침 식사를 한 후 설거지는 하지 못하고 설거지통에 넣은 후, 빨리 밭에 나가 농사를 짓고, 그날 많이 자란 야채를 따서 시장에 나갔다. 광주리에 야채를 넣어, 걸어서 한 시간 거리의 지동시장에 가서 노점을 했다. 김남숙뿐만 아니라 산드래미 마을의 다른 여성들도 이렇게 지동시장에 가서 야채를 파는 이들이 많았다. 그는 남들이 어떻게 파는지 시세를 살펴보고, 그보다 가격을 조금 싸게 팔곤 하였다.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김남숙 나는 오이하고 호박, 뭐 다 심었지. 감자, 뭐 가지 여러 가지 심어 가지고, 되는 대로 따 가지고 가는 거, 그날 되는 대로 좀 많이 열린 거 따 가지고 가서 그날 팔고 오고 그러면은 그게 제법 좀 그래도 도움이 됐나 봐요. 사는데 그래 가지고, 여기 분들은 다 그렇게, 여기 옛날 사람들 참 열심히 살았지. … 지동시장까지 가는 거리 시간 한 시간, 그 옛날에 그 전에 교도소로 해서 지동으로 해서 지동성당에 가는 거, 성당 쪽으로 해 가지고, 다 내가 파놓은 거예요. 잘 팔고 오는 사람이 있고, 못 팔고 오는 사람, 난 그냥 괜찮게 잘 팔어. 아이, 남보다 조금 싸게 팔면 얼른 … 그럼 아침에 가면 옆에 사람이 얼마 파는지를 대충 보고 나서 조금 싸게.

시장에서 노점을 하는 동안 자릿세는 없었으나, 일찍 도착한 사람들이 자리를 잡아 놓으면, 늦게 온 사람들은 앉아서 장사할 자리가 없어 쩔쩔 매다

1980년대 지동시장 상점과 노점

가 항의를 하기도 했다. 동네 아는 사람이 일찍 나가 있으면 대신 자리를 잡아 주기도 했다. 상인들끼리 자리다툼과 약간의 텃세는 있었다. 이들은 생계를 위해 치열하고 악착같이 살았지만, 본성이 나쁜 사람들은 아니었기에 되도록 서로 싫은 소리를 내지 않고 원만하게 지내려고 했다.

김남숙 그땐 자릿세는 없었어. 근데 이제 텃세가 많지. 자기가 먼저 자리 잡아 놓고, 막 그냥 싸우고, 뭐 앉을 게 없어서 쩔쩔 매고 그랬지. 그 때는 이제는 내 인심 내가 가지고 있어야지. 그렇지. … 이분들이 다 그렇게 싫은 소리 하거나 그러면서 살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 길옆에 가 앉아. 광우리(광주리)를 넣고 팔면 아는 사람이 있으면 자리 좀 거기 다 먼저 잡아다 주고 그래 놓고.

김남숙은 노점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가가호호 동네를 다니며 방문 판매도 했다. 지동, 팔달산 아랫동네인 남창동 등을 돌아다녔다. 단골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팔았다. 얼른 팔면 집에 빨리 귀가하여 제 시간에 저녁을 먹을 수 있었고, 다 안 팔리면 늦게야 집에 도착하였다. 집에 오더라도 편히 쉴 수 없었다. 저녁에는 등잔불을 켜고 바느질을 하느라 바빴다. 산드래미에서는 여자들도 나무를 베러 산에 올라갔다. 김남숙의 어머니도 직접 나무를 베었다고 한다. 여성들은 자녀 양육뿐만 아니라, 요리, 농사일, 바느질, 장사 등 많은 일을 도맡아 하면서 가정 경제의 비팀목 역할을 했다.

김남숙 지동도 댕기고, 뭐 저기 거기 팔달산, 팔달산 밑창에 거기, 남창동이나 이런 데, 남창동 그리로 다 나가고 싶은 대로 가서 얼른 팔고 오는 거지. 얼른 팔고 오면 집에 와서 일하고.

젊은 나이에 외동딸과 함께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씨족 공동체가 홀로된 여성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도와준 부분도 크다. 큰집에 소가 한 마리 있었는데, 김남숙이 모를 내거나 벼를 벨 때, 시댁의 남자 친척들이 소를 몰고 와서 도와 줬다. 조카들도 그를 따르고, 어른 대접을 했다. 산드래미에는 송씨네가 여러 가구 살았기에 집성촌(集姓村)이나 마찬가지였다. 농사를 지을 때도, 지동시장에서 장사를 할 때도, 딸을 키우면서도, 매 순간 힘들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때가 많았다. 그렇지만 집안사람들을 비롯해 산드래미 여성들이 모두 열심히 살았기에 그 기운을 받으며, 견디고 헤쳐 나갈 수 있었다.

그는 외동딸을 명문학교인 수원여고에 진학시켰다.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 대학까지 보내지 못한 것은 좀 아쉬웠지만, 딸 역시 열심히, 잘 살아왔다. 그는 성당을 꾸준히 다니며 신앙생활을 했다. 90의 나이에도 건강을 유지하며 경로당에 출입할 수 있는 것에 대해 깊이 감사하고 있다. 씩씩하고 부지런하게 살아온 김남숙도, 서로 돌보고 응원하며 남편의 빈자리를 메워 준 산드래미 마을공동체도 대단한 존재이다.

2.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어머니로서의 삶

김교순은 1939년생으로, 1961년 산드래미 진씨네 집안으로 시집을 왔고 이곳에서 60년 이상 거주하였다. 김교순은 용인 구성면 청정리 아랫마을에서 태어났다. 경주 김씨 농사꾼 집안에서 성장했는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집안의 가계는 어머니가 농사를 지으며 이끌었다. 김교순도 어머니를 도와 보리밭에서 보리도 베고, 풀도 베면서 농사일과 살림을 하였다. 김교순은 공부를 하고 싶었으나 당시 평범한 집안의 딸들은 교육을 받기보다는, 집안일을 돕는 게 우선인 상황이었다. 그는 부모 몰래 동네 인근에 있던 구성공립보통학교에 다니며 한글을 익혔다.

김교순　여름에 이제 모기향 피워 놓고서 마당에다가 해 놓고서. 그냥 그때도 아버지가 조금 기억은 나. 그냥 그럼 저녁이면 이제 감자 먹고, 그런 생각이 나왔을 때는 조금 아버지가 그때 계신 거 같에. 그러게 농사짓기가 어려워서 농사만 하잖아요. 그냥 나를 학교를 못 가게 하시는 거야. 살림도 해야 되고, 일하고 그러라고. 그러면 내가 그냥 몰래 몰래가 가지고 학교를 조금 다녀, … 그 당시에는 노래는 별로 모르고, 그냥 공부만 시키더라고. 그렇게 해서 그걸 좀 배웠어요. 농사일, 그냥 저기 뭐 다 했지. 뭐 보리도 숨 많고, 보리밭도 매고, 보리도 베고, 어머니가 일하시는 거 가서, 가서 같이 풀도 뽑고, 또 거두어 드릴 땐 같이 걷어다 드리고, 이렇게 해서 살았어요.

22세에 사촌 언니의 중매로 산드래미 마을에 살던 여양 진씨 가문의 팔남매 중 막내인 진수근과 구식 혼례를 치렀다. 당시 남편은 군인이었다. 결혼 전 김교순의 사촌 언니, 진수근의 누나, 진수근, 이렇게 세 명이 집으로 찾아와 인사를 나눴다. 남편의 인상이 괜찮았고,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다.

김교순　우리 신랑 자리가 막내야. 팔남매의 막내인데, 이제 우리 사촌 언니가 그렇게 중신을 했죠. 근데 그 당시에 군인이었었어요. 그때는 뭐 나이도 어리고, 그래서 뭐가 뭔지도 모르고, 뭐 어느 날 뭐 신랑이 날 보러 온다. 그래 온다. 집으로 그래 가지고는 군인인데 우리 사촌 언니하고 우리 큰 시누, 여기 이렇게 셋이 오더라고. … 그래도 인상이 좋아요.

용인 구성에서 산드래미 마을로 들어올 때, 시숙이 자동차를 대여하여 그를 태우고 왔다. 귀한 대접을 받으며 결혼한 것이다. 시집 올 때, 혼수로 옷감, 이불, 양단 저고리를 해 갔다. 김교순은 결혼하고 곧 아들을 낳아 진씨 집안의 귀중한 며느리가 되었다. 남편 진수근은 당시 군인 신분이라 분가를 하지 못하고, 한동안 큰시숙 집에서 기거하였다. 시부모님은 작고한 상태였

산드래미 여성들(1960년대, 진덕용 제공)

다. 시숙은 사람을 두고 농사를 지으며, 지동시장에서 쌀장사를 했다. 친정에는 일 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갈 수 있었지만 친정과 거리가 가까운 편이었다.

산드래미 마을은 주민들끼리 친화적이고 사이가 좋은 편이었다. 그는 같은 여양 진씨 집안의 여성들과 친하게 지냈다. 남편은 결혼하고 1년 후 제대했고, 지동의 목재소에서 일하였다. 아들을 돌까지 키우고 김교순 부부는 시

1976년 산드래미 새마을공장에서 일하는 마을 주민(수원박물관 제공)

숙의 집에서 분가하였다. 시숙은 슬하에 딸만 두 명 뒀다. 그 시절만 해도 장남은 아들을 두어, 대를 잇고 제사를 지내야 된다는 의식이 팽배하였다. 그래서 김교순이 낳은 큰아들을 시숙 집에 양자로 입적시켰다. 그런데 시숙 부부가 젊은 나이에 연이어 사망하면서 그는 양자로 입적시킨 큰아들과 시숙이 남긴 딸 두 명도 데려와 한 집에서 양육하게 되었다. 김교순 부부 가족은 다섯 식구에서 여덟 식구로 갑자기 늘어났다. 어머니로서 김교순이 돌보고 뒷바라지해야 될 자녀들,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증가하였다.

결혼 전 살던 용인 구성에 비하면 산드래미 마을은 수원 시내와 가깝고, 주민들의 생활력이 강하여 경제력도 우월하였다. 김교순은 매일 시장에 나

수원학연구센터 SUWON RESEARCH INSTITUTE

1991년 제4대 수원시의회 개원식(수원박물관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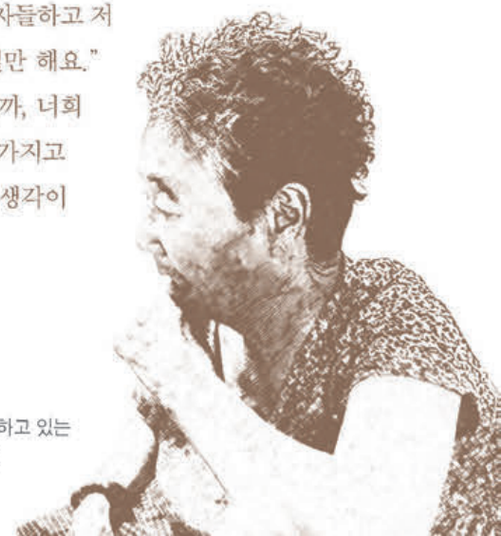
가서 농사한 밭작물을 팔았다. 아침에 농사짓고, 점심 먹고 낮 12시쯤 시장에 내다 팔러 갔다. 오이, 파, 무, 배추를 광주리에 넣어 팔기도 하고, 리어카에 넣어 끌고 가기도 했다. 리어카에 싣고 시장까지 끌어 주는 것은 남편이 하기도 했으나, 파는 것은 여성들의 몫이었다. 산드래미의 여성들은 생활력이 강하였다.

마을에 새마을공장이 들어서자 그곳에서 부업을 하는 여성들도 많았다. 그러나 지동시장에 가서 농산물을 파는 것이 수입 면에서는 나았다. 매탄동이 개발되면서, 대토 농지를 받았고, 화성 향남읍 발안리와 동오리에 토지를 구입하여 계속 농사를 지었다. 자녀들 양육과 교육을 위해 땅 일부를 팔아, 학비를 지원하였다. 김교순은 불과 5년 전인 팔십 세까지도 산드래미와 지동시장을 오가며 야채 장사를 할 만큼 부지런하였다.

남편 진수근은 똑똑하고, 사회성도 뛰어난 인물이었다. 매원국민학교 육성회 이사, 매원유치원 원장, 한국반공연맹 매탄동 지도위원, 매원새마을금고 이사, 매원동방위협의회 위원장, 한국반공연맹 매원동 지도위원장, 민정당 매탄동협의회 명예회장, 수원시의정동우회 감사 등 다양한 감투를 썼고, 늘 분주하였다. 제4대 수원시의회(1991~1995년) 의원을 역임하면서 살고 있는 매탄동의 범위를 벗어나, 수원시 전역에서 많은 일을 감당하였다.

이에 부인으로서 내조할 일도 많았다. 김교순의 며느리는 고령에도 밭에서 일하고, 시장에서 노전을 하던 시어머니의 인생을 보면서, 자신 같으면 그렇게 안 살 거라고 말하였다. 시어머니에 비하면 시아버지는 집 밖에서 훨훨 자유롭게 사는 인생이었다. 그렇지만 김교순은 시댁 식구들이 모두 본인을 귀하게 여겨 줬고, 남편이 밖으로 돌았지만, 한눈을 팔지 않았으니 괜찮다고 항변하였다.

김교순 이것저것 사회 활동 많이, 사회 활동, 그리고 우리 작은며느리가 그래요. "어머니! 저 같으면 안 살아요." 그거, 왜 그래? 그랬더니 "아, 저렇게 그냥 이 차만 끌고, 젊은 여자들하고 저렇게 다니시는데, 왜요? 어머니는 밭에서 일만 해요." "야! 그래도 너희 시아버지는 나밖에 모르니까, 너희 시아버지는 정말 한 눈 안 팔더라고." 그래 가지고는 … 그리고 이제 자녀들 잘 키워야겠다는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고.



인터뷰하고 있는 김교순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3. 여성들끼리의 마실과 외출

김남숙과 김교순이 걸어온 한 평생을 들여다보면 산드래미 마을의 여성 노인들은 어릴 때는 여성이라 차별받고, 유년기에는 억압된 일제강점기를 경험하고, 결혼하면서 한국전쟁이라는 큰 사회적 혼란과 궁핍을 겪은 세대이다. 어린 나이에 아내, 며느리, 엄마라는 역할을 부여받았고, 가사와 육아뿐만 아니라, 농사일과 장사까지 맡아 하느라 바쁘고 여유 없는 일상의 연속이었다. 그렇지만 동네 여성들끼리 모여 마실과 외출을 하면서, 숨통을 틔워주는 시간도 있었다.

김교순은 시집식구들인 진씨네 며느리들뿐만 아니라, 송씨네, 양씨네, 박씨네 며느리들과도 어울려 밤에 바느질을 하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비슷한 처지의 여성들끼리 담소를 나누며 마음 속 이야기들을 공유하다 보니 스트레스도 풀리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었다. 산드래미 마을에 우물이 네 곳 있었는데, 젊은 새색시 시절 이곳에서 물을 긷고, 빨래를 하면서 여성들끼리의 시간을 가졌다. 시집살이의 어려움, 출산과 육아의 경험 등을 나눴다. 한 번은 이 집에서, 한 번은 저 집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밤을 새는 경우도 있었다. 다행히 남편은 이에 대해 싫은 내색을 하지 않았다.

악극단이 마을에 들어와 마당 넓은 집에서 공연한 적이 있다. 큰동서가 같이 구경을 가자고 해서 여자들끼리 다녀왔다. 동동구리무 장사도 함께 들어와 화장품을 팔았다. 공연을 다녀오자, 남편은 젊은 여자들끼리 그런 곳에 다녀왔다며 조금 언짢아하였다. 그는 다음 날 수원에서 가장 번화한 남문 앞으로 나오라고 했다. 그는 김교순을 데리고 수원 중앙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여 줬다. 수원 중앙극장은 한국전쟁 직후인 1953년 9월 10일 수원 팔달문 앞에 개관하였는데, 일제강점기 때 문을 연 수원극장과 더불어 수원을 대표하

악극 공연을 구경하고 있는 산드래미 사람들(진덕용 제공)

는 극장이었다. 남편은 김교순이 좋아할 만한 영화가 들어오면 함께 영화를 봤다.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춘향전' 등이 기억에 남는 영화이다. 특히 신상옥 감독이 만들고, 최은희, 전영선, 김진규, 한은진 등의 배우가 출연한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1961년)는 수원에서 촬영한 것이라, 사람들의 뇌리에 깊이 남아 있다. 태장국민학교에서 영화를 무료로 상영하기도 했는데, 도보로 한 시간이 넘는 거리라서 부인들이 걸어 다니기에는 멀어서 가지 않았다.

김교순 어떨 때 이제 나도 또 밤새고 와. 그럼 우리 영감이 절대 말 안 해. 말 안 해. 바로 새고 와도, 암말 안 해. … 근데 여기는 이제 뭐 고

SRI 수원학연구센터 SUWON RESEARCH INSTITUTE

악극 공연을 구경하고 있는 산드래미 사람들(진덕용 제공)

고질하니까는 동동구리모 장사, 악극단이라고 들어와. 악극단이라 이 동네로 들어와. 이렇게 이제 마당 넓은 데가 자리 잡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잘 구걸 차가 그런 거 팔고 그랬어. 시골이니까 마당 넓은 데가 있잖아. 웬만한 집은 다 마당이 넓잖아. 그래서 이제 한 번 거기 우리 큰 동서 양반이 구경을 가자고. 가. … (남편이) 이렇게 화가 나셨어. 이제 젊은 여자가 그런 데 갔나 싶어서, 그렇게 되면은 내일 시내로 오래. 극장 구경시켜 줬어.

산드래미 여성들은 여자들끼리 어울리고, 이야기 나누며 소소한 재미와 즐거움을 누렸고, 가끔 마실과 외출을 하면서 행복감과 해방감을 느꼈다. 인근 마을보다 산드래미의 경제력이 보다 앞섰던 것은 여성들이 농사일과 장사를 병행하며 억척같이 살았기 때문이다. 급격한 개발과 도시화 속에서 가정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며 중심을 잡았던 여성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오늘날의 발전된 매탄동, 아늑하고 평온한 산드래미 아랫말경로당이 존재한다.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SRI 수원향연

춘향전을 상영하고 있는
중앙극장

원천동
윤재춘과 마명자

아주대학교 학생들과 함께하는 생업과 일상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 원천동에 아주대학교가 들어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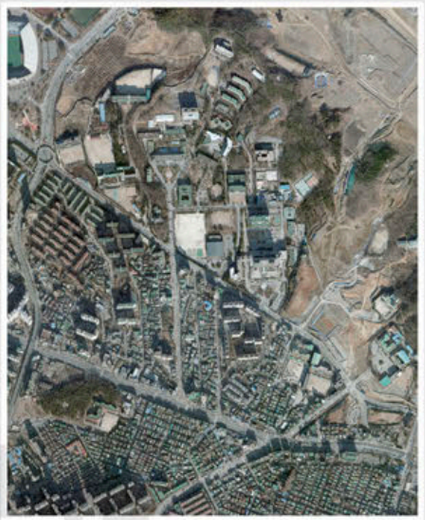
영통구는 전국적으로 교육열이 높은 도시로 꼽히며, 지역 내에 다수의 대학이 위치해 있다. 영통구에 소재한 대학으로 아주대학교, 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가 있으며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는 용인시 서천동에 위치해 있지만, 영통구 생활권에 속한다. 따라서 대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 식당, 카페, 복사집, PC방, 미용실 등이 들어서 있다. 젊은 학생들과 유동 인구가 많다 보니 지역도 활기를 띠고 있다. 이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생업을 유지하는 주민들도 있다.

원천동 주택가는 아주대학교 학생들이 거주하는 원룸, 고시원 등이 많이 입주한 동네이다. 아주대학교 원룸촌을 형성하고 있는 원천동은 원래 '새터마을'이라는 지명을 가진 곳으로, 원천동 77번지에서 78번지 일대에 있었던

1966년 원천동 역말과 새터

1974년 아주대 설립

200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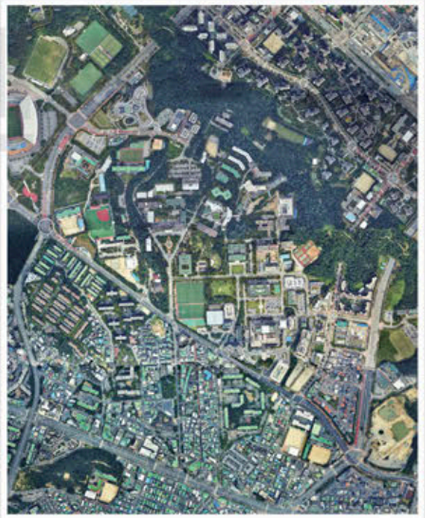


2009년

1990년 택지개발사업 초기

1995년 택지개발사업 완료

2014년



2022년

원천동 새터와 아주대학교의 변화(수원시 항공사진서비스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1972년 아주대학교 건립 예정지 일대(수원박물관 제공)

마을이다. 역말 앞쪽에 있으며, 지금의 원천중학교와 수원정보과학고등학교 일대이다. 원래 이곳은 주로 논과 밭이 있었던 지역이었는데, 현재는 택지로 변하였다.[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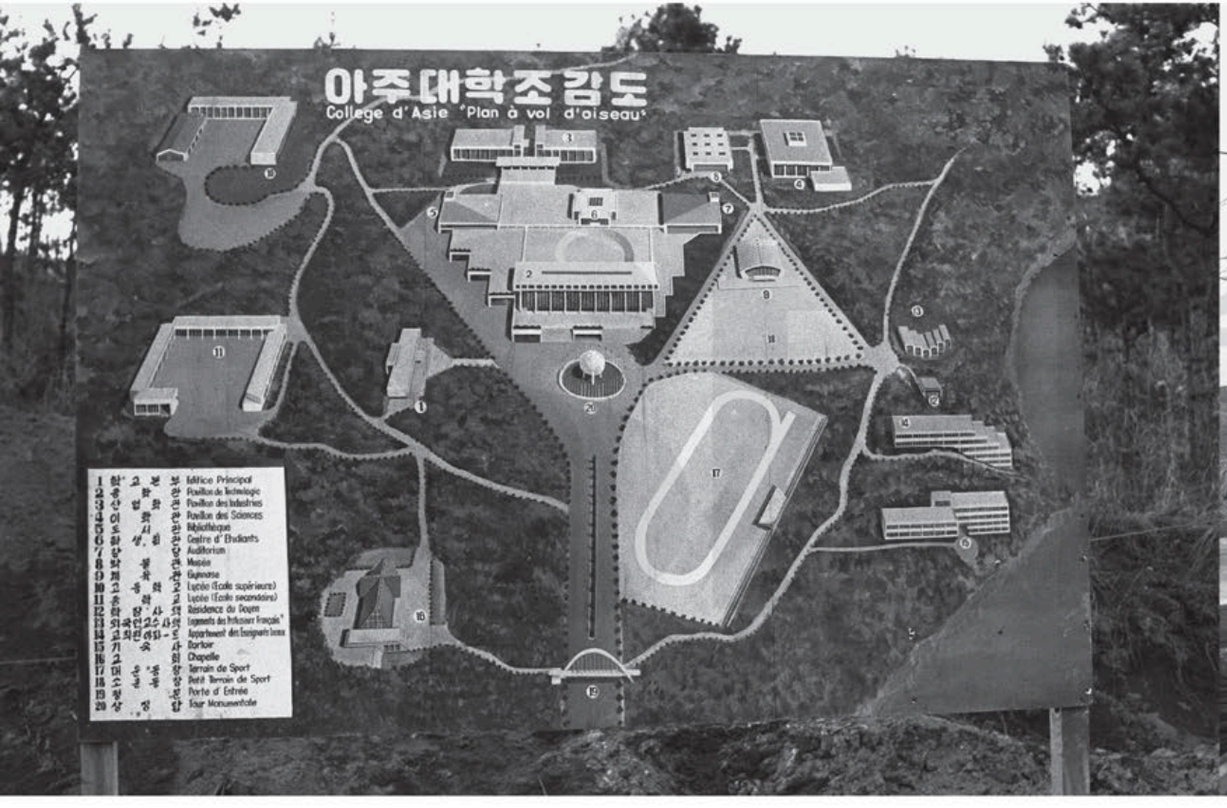
고즈넉한 원천동 새터마을을 원룸으로 이루어진 주택가로 변화시키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은 아주대학교와 아주대학교병원의 설립이다. 아주대학교는 1973년 3월 아주공업초급대학으로 개교하여, 1981년 3월 종합대학으로 승격하였다. 2020년 이후 아주대학교 학생수는 연 9,200~9,600명 수준이다. 1994년 개원한 아주대학교병원은 아주대학교 캠퍼스와 연접하여 설립되었는데 경기권의 대표적인 병원으로, 드라마 종합병원, 해바라기, 하얀거탑, 원더풀 라이프의 촬영지로도 유명하다.

아주대학교 상권은 아주대학교와 아주대학교병원, 창현고등학교, 유신고등학교, 인근 대규모 아파트단지까지 있어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많이 찾고 있다. 대학 상권의 특성상, 방학 때는 손님이 줄어든다. 아주대학교 앞은 강남역, 논현역, 사당역까지 운행하는 여러 광역버스 노선이 있어 서울로의 출퇴근이 편리하다. 아주대학교와 병원의 규모가 커지고, 관련된 인구가 많아지면서 원천동 주택가 사람들의 생활도 바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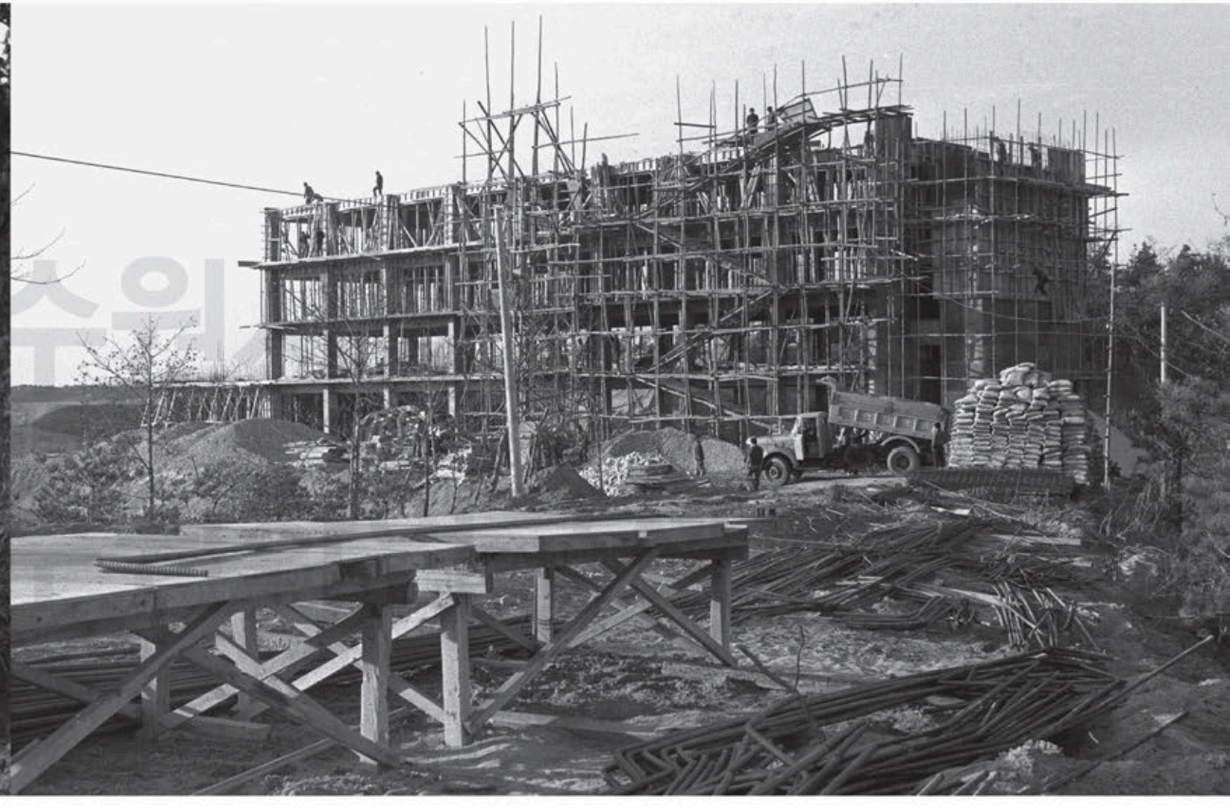
원천동에서 디딤돌공인중개사를 운영하며 수십 년간 대학생들의 주거를 공급해 온 윤재춘은 1987년부터 원천동에서 거주하였다. 그는 원래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출신인데,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1972년 수원에 들어왔다. 북수동 주변에서 자취생활을 하면서, 학업을 마치고 직장생활을 시작하였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972년 아주대학교 부설
고등학교 건설현장(수원박물관 제공)



1972년 아주대학교 조감도(수원박물관 제공)



1972년 아주대학교 건설현장(수원박물관 제공)

1972년 아주대학교 건설현장 전경(수원박물관 제공)

1973년 4월 12일 아주대학교 개교기념식(수원박물관 제공)

1973년 4월 12일 아주대학교 개교기념식(수원박물관 제공)

1973년 아주대학교
개교 기념식과 원천동
(수원박물관 제공)

1984년 새터마을 일대(수원박물관 제공)

다. 생활력도 강하고 성실하던 그는 열심히 저축하여 결혼 전 원천주공아파트를 분양받았다. 북수동성당에 다니다가 만난 남성과 결혼하여 1987년 원천주공아파트의 최초 입주자가 되었다. 이주 후 원천동주민센터에서 지역활동을 하면서 아파트뿐만 아니라 주택가의 토박이들과도 어울렸다.

영통구 원천동은 윤재춘의 고향인 용인으로 가기에 편리했고, 교통편이 양호하였다. 영통구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건설된 후 학군이 점차 좋아지고, 편리한 시설이 증가하면서, 원천동을 떠나 다른 동네로 가는 게 꺼려졌다. 그는 네 명의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아파트가 좁다 보니, 좀 더 큰 집에서 살고자 원천주공아파트에서 도보 5분 정도 거리의 주택으로 이사하였다.

1987년 원천동 새마을부녀회 활동(수원박물관 제공)

SRI 수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윤재춘 결혼하기 전에 분양을 받고 그다음에 여기서 계속 좀 살다가, 그냥 요 동네가 왠지 교통도 편하고 좋은 것 같아. 아마 용인 연결이 잘 돼서 아마 정이 더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주택을 사가지고 계속 살았죠.

마명자는 원천동에서 부녀회장, 바르게살기위원회 위원장, 먼내사랑회 회장, 8통 통장 등을 역임하였다. 그는 토박이, 오래 거주한 사람들과 두루 어울리며 동네 터줏대감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주택가 골목에서 대학생들을 상대로 양식과 주류를 판매하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원천동은 교통이

편리하고, 학군이 좋기에 한번 들어오면 떠나지를 못한다고 한다.

마명자 다른 곳에 가면, 이제 활동하다 보면 영통구가 그래도 확실히 들어왔었어요. 다른 곳에 보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도 학교는 영통에서 시켜야지! 이사를 못 간 거야.

윤재춘이 원천동에 들어왔을 때도, 주택가 주변으로 도로 포장이 안 된 흙길이 많았으며, 집이 몇 채 없는 한적한 동네였다. 논밭이 있어서 주민들은 야채, 고구마 등을 경작하였다.

윤재춘 여기 자연 부락이니까. 그리고 저 위로는 그렇지. 그 정도에는 그랬고 그 이전에 아주대학교 생기면서, 여기가 '새터마을'이야. 여기가 '새터마을'인데 논밭이었어요. 그래서 이 골목도 누구네 소유자 밭이었던 게 다 뜨고 그래요. … 고구마를 많이 기르더라고. 내가 여기 지나 이렇게 보석사우나 요 뒤에, 이쪽에도 건너면 또랑(도랑)을 좀 건너서 이렇게 오는데 고구마 밭이 옆에 있었어요.

군데군데 밭과 도랑이 있던 원천동 주택가는 아주대학교 학생들, 아주대학교병원 직원들, 그 밖에 유동 인구가 많아지면서 원룸과 상가가 들어선 골목으로 바뀌었다. 조용하던 새터마을은 음식점, 원룸, 고시원 공사 등이 우후죽순 생기면서 몇 년간 시끄럽고 분주한 시기를 보냈다.

윤재춘 근데 지금 거기 광장도 생기고, 짬뽕타임 그 건물이 그게 밭에 생긴 거야.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에일고시원하고, 아웃닭, 거기도 다 밭

1988년 원천동 새마을청소(수원박물관 제공)

1988년 원천동 상가(수원박물관 제공)

이었고. 그냥 이렇게 일반 2층짜리 집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밭에다가 그거 집 헐어내고, 그거 헐고 공사하는 거 여기도 또랑이었어요. 그거 헐고, 아주대 올라가는 길만 있었거든요. 그 헐고, 집 짓는 걸 제가 다 봤지.

윤재춘은 성빈센트병원 원무과 직원, 양성평등 교육 강사 등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 그러던 중 자녀들이 커감에 따라 양육과 병행할 수 있는, 시간적으로 보다 자유로운 직업을 물색하게 되었고 집 근처에서 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가 되어야겠다고 결심하였다. 그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재학 중인 아이들이 집에서 숙제를 하는 동안, 본인도 옆에서 책을 펼쳐 놓고 공부하면서 중개사 시험에 응시하였다. 몇 번의 도전 끝에 합격하고 자격증을 취득했고, 아주대학교 대학원에서 부동산학을 전공하기까지 했다. 집 건너편의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인수하여, 2006년부터 지금까지 17년째 운영하고 있다.

윤재춘 애들하고 밥을 벌어먹어야 되는데, 알다시피 이제 내가 직장을 갈 수도 있었어요. 성빈센트병원에 다시 갈 수도 있었고, 제가 그전에 빈센트병원 행정 직원이었으니까. 그리고 아주대 병원이 생겨서 거기 또 들어갈 수도 있었고. 그런데 내가 이제 여러 가지로 아주대학교, 그때 여기 오니까 병원을 짓더라고. 근데 아기들 네 명을 누구한테 맡길 수가 없잖아요. 맡기는 비용이 더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주변에서 내가 애들 케어(care)하면서 하려고 시간을 좀 더 자유롭고 전문 직업을 찾다 보니까. 여기가 학교 앞이고, 그냥 그래도 내가 움직이면 그 일은 밥은 먹고 살겠다 이렇게 생각했죠. …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 해 가지고 야간 고등학교를 다니고, 직장 다니면서 통신대학 다니고, 아주대학교 부동산 전공 대학원까지 했지 … 저도 뭐 아기 기르면서 일할 때부터 관심은 좀 있었어요. 근데 아기 넷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기 기르느라고, 그건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이제 막내아들이 유치원 다닐 때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 하고 같이 공부했지, 가르치면서, 여기서 두세 번 시험 보고,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2002년 아주대학교 전경

2002년 아주대학교와 원천동

2023년 아주대학교 일대 주택가 전경(김승일 제공)

2. 원룸과 고시원이 지어지다

윤재춘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들어서 있는 골목 주변에는 우경빌, 대림스위트하우스, 시티빌, 예일고시원, 캠퍼스타운 등 다양한 원룸 주택과 고시원이 들어서 있다. 골목 안에는 빨래방, 편의점, 미용실, 정육식당, 맥주집, 네일숍, 사진관, 오락실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가게가 있다.

원래 이 골목은 1층짜리 단독주택이 있던 곳이다. 그런데 대학과 병원 때문에 외지에서 들어온 대학생들, 교직원, 간호사, 원무과 직원 등 다수의 젊은 인구들의 거주 공간이 필요한 형편이 되었다. 주택에 살던 주민들은 집에 있던 방 한 개를 월세 놓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2000년대가 되면서 수익을 위해 집을 개조하여 보다 큰 규모의 원룸 건물을 짓거나 상가로 만들기 시작하였다.

윤재춘 원룸이 많지 않았지. 그러니까는. 1층짜리 주택이 많았어. 우리 집도 주택이었는데 그러면 옆 방 하나. 거실에서 옆방 하나 남는 거 하나 주면은 애들이 잠자고 씻고 가고 주인하고 같은 이렇게 거실 공간을 쓰는 그런 방이었어요. 그때 조금 전에 그 전에 그렇게 했고, 2006년도 여기서 부동산 시작할 때는 원룸이 생겼었지. 이런 게 이런 게 좀 생겼고. 애들하고. 이거 보고만 있다 막 이랬는데 어느 순간 이제 원룸이 몇 개가 들어서지. 들어서 원룸이 들어서고 근데 원래 있던 주택이 이제 단층짜리 주택인데 그걸 하고.

집 주인들은 건축업자에게 돈을 빌려 4~5층까지 건물을 지은 후, 완공되

2019년 원천동 원룸촌 전경(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2010년 아주대학교 정문(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면 세입자들의 전세금을 받아서 건축비를 갚아 나갔다. 계속 원룸 수요가 있었고, 전세와 월세가 꾸준히 나갔기에, 주민들은 몇 년 후면 대출금을 거의 갚을 수 있었다. 세입자들도 대출이 있는 집을 꺼렸기에 주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빨리 융자금을 갚는데 애썼다. 자연마을이던 새터마을은 사라지고, 원룸과 상가가 있는 즐비한 골목으로 변신하였다.

윤재춘 처음에 건축비가 그렇게 많이 비싸지는 않았지만 그분들이 기존에 사람들이 자기 땅에 자기 집이니까 건축업자들이 대개 이렇게 집을 짓고 몇 개 전세를 빼서 건축비를 빼갔어요. 땅만 있으면 이제 허가

디딤돌부동산 주변 골목과 상권

SRI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내서 건축을 했지. 그럼 비용은 몇 억씩 빼가는 거니까 뭐. 한 다섯 개 정도 하면 거주비가 되는데 그리고 나머지 자기 새 집에 살고 나머지 월세 받아서 또 이자도 내고 이 동네 건물에 융자 있는 집 별로 없어요. … 왜냐면 원주민들이라서 그 새로 지은 집 있잖아요. 여기 몇 군데 한 두세, 하나, 둘 융자 있는 집에 한 이 새로 진 거 새로 진 거 세 집밖에 없어. … 월세는 괜찮으니까 저희가 설명하는 데도 꺼리지. 설명. 전세 큰돈만 조금 저희가 대항력을 갖추게끔 다 여덟 명하고 확인해 주고 그러거든요. 근데 월세는 사실 큰 문제 안 됩니다. 우리가 최우선 변제도 할 수 있고 전입신고 확정 이자만 받으면 뭐 완전히 그거는 100% 보고

아주대학교 학생과 편의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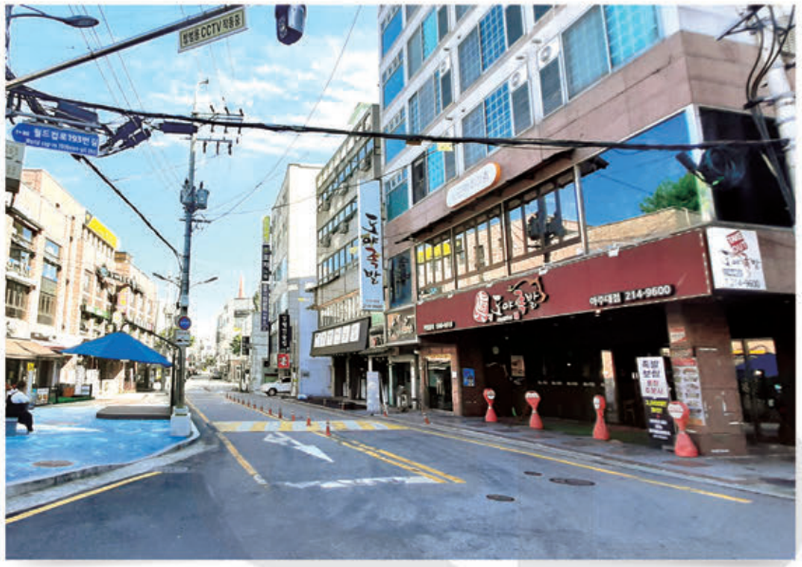
고시원과 원룸

> 좀 되니까. … 이 골목이 상권도 형성되고, 길 건너 팔달구는 거기 우만 2동이 좀 같이 큰 길 라인으로 해서. 그래도 여기가 제일, 병원 식구들도 많이 좋아하구요.

원천동 주택가 원룸의 시세는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이 가장 보편적이다. 이 정도면 방 상태도 양호하고 쾌적한 편에 속한다. 관리비는 월 5만 원에서 8만 원 정도로, 건물 상태와 엘리베이터 유무에 따라 다르다. 원룸은 2월과 6월쯤 구해서 3월과 8월 초에 입주한다. 이 시기에 1년 단위로 계약하는 원룸이나 전셋집을 구하지 못했거나, 보증금이 부담되는 경우는 고시원을 선택한다. 고시원은 화장실과 부엌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기에, 요즘 젊은 사람들은 개인의 사생활이 보장되는 원룸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버스정류장, 은행, 편의점, 식당, 카페, 부동산, 복사집 등 각종 편의시설이 가깝고, 아주대학교 캠퍼스와 병원까지 1㎞ 정도의 거리라서 도보로 10여 분 내외로 도착할 수 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이 끝나는 날이 되면 맥줏집, 식당 등으로 학생들이 쏟아져 나오기에 늦은 밤까지 골목 전체가 떠들썩해진다. 큰 건물 한 채에는 원룸이 60개 이상 들어가 있다. 학기 중에는 동네에 거주하는 학생만 1,000여 명에 달하기에, 인구밀도가 매우 높은 동네이다. 방학을 시작하

SRI 수원학연구센터 SUWON RESEARCH INSTITUTE



아주대학교 일대 상권

면 학생들이 빠져 나가기에, 집도, 상가도 한적해진다. 동네 주민들과 상가 상인들은 학생들의 학사 일정에 밀접하게 일상을 영위한다.

윤재춘 500에 40, 제일 보편적이고 집 상태도 양호하구요. 이렇게 되면 조금 이제 부담스러워 하기도 하고 집이 좀 양호하죠. 관리비 다 따로 받아요. 관리비가 5만 원에서 8만 원. 집의 상태에 따라서, 엘리베이터 있고, 없고, 뭐 이런 것 때문에. … 몇 백 명이 다니지. 왜냐면 이 아래 집만 해도 원룸이 60개인데 그래요. 한 집에 하나만 들어가도, 이 건물 한 채에 10개 정도 애들 이상 살아요. 열다섯 명 정도. 이 동네 못 살

캠퍼스타운 고시텔

원룸과 빨래방

아주대학교 일대 원룸 후면

아도 천 명은 산다. 건물 하나에 15명 이상씩 사는데 여기만 해도 50명이야. 이 라인 세 개.

원천동 토박이들은 1층짜리 주택을 헐어 2층 정도로 짓거나 작은 규모로 원룸을 지은 사람이 많다. 2000년대 들어 외지인들이 집을 구입하여 큰 규모로 원룸이나 고시원을 지었다. 임대인들은 젊은 사람보다는, 노후 대비용으로 수익을 바라보는 나이든 사람들이 많다. 윤재춘의 공인중개사 사무실 주변, 원천동 28번지 일대가 원룸 건물, 고시원, 독서실 등이 제일 많은 동네이다.

주택가의 주민과 여러 업소들은 학생과 공생하는 관계이다. 원룸이나 고시원 건물의 주인들은 직접 해당 건물 안에 거주하면서 관리하기도 하고, 근처에 살면서 오가며 관리하는 경우도 있다. 에어컨 설치와 수리, 방충망 수선, 도어락 교체, 싱크대 배수구 고장, 조명 관리, 누수 탐지, 보일러 체크, 가스레인지 고장 등 크고 작은 일거리가 항상 있다. 그래서 인근 철물점, 서비스센터 등과 연계하여 관리한다. 학생들의 민원 처리, 각종 전달사항 등은 인근 부동산에서 담당한다. 윤재춘은 중개사 사무실 건너편에 있는 주택에서 30년간 거주하다가, 주택을 식당으로 변경하여 현재 그의 아들이 운영 중이다. 원천동 주택가 사람들은 대학생들을 통해 경제활동을 하고 수익을 얻는 만큼, 이를 다시 환원하기도 한다. 수입의 일부를 아주대생들에게 장학금으로 내놓거나 어려운 이들에게 기부하는 이들도 여럿 있다. 아주대학교 학생을 후원하는 가게는 '아주대생 후원의 집, 아주사랑'이라고 적힌 간판을 입구에 내걸기도 한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3. 원천동의 현안, 깨끗한 주택가 만들기

어느 동네나 주민들이 피부에 느끼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아주대학교 인근 원천동 주택가 골목의 주민들은 크게 두 가지 현안을 꼽고 있다. 한 가지는 쓰레기로 지저분한 골목길을 보다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만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차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다.

주택가에는 주민, 상인, 세입자 등 다수가 거주하여 인구밀도가 높다 보니 쓰레기 배출량이 많다. 특히 대학생들은 나이가 어리고, 직접 살림을 해 본 경험이 없다 보니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주택가 주변으로 편의점, 술집, 식당, 오락실 등이 몰려 있다 보니 학생들이 오가면서 캔 음료, 커피, 과자 등을 먹고, 쓰레기를 길거리에 무단 투기하기도 한다. 자취하는 친구 집에 학생들이 단체로 놀러 와서 배달음식을 주문해 먹고, 포장용기 처리를 깔끔하게 하지 못하기도 한다. 그래서 한 때는 동네에서 악취가 나고, 쓰레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졌다. 이에 2020년에는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단속지역으로 지정됐고, 단속과 CCTV를 늘렸다.

주민들은 지속적인 홍보와 노력, 자정작용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원룸 세입자들은 오래 머물지 않고 이주하고, 신입생이 입주하면 또다시 쓰레기 처리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되풀이해야 한다. 윤재춘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원천동 19통장으로도 활동하면서 동네 환경개선에 관심이 컸다. 그래서 부동산에서 월세를 계약할 때 학생들에게 쓰레기 버리는 요령을 설명하고, 다양한 종류와 규격의 쓰레기봉투를 지급하였다. 외국인 유학생과 세입자가 증가하면서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으로 그려진 분리수거 설명서를 보여 주며, 숙지시켰다. 그는 심지어 개인

2023년 원천동 주택가 환경개선을 위한 활동(영통구청 홈페이지 제공)

사비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구입하여 나눠 주기도 했다. 또 원룸 주인들에게 분리수거함 설치와 관리를 당부하기도 했다.

윤재춘 학생보다도 이 건물 학생들 여기서 부동산에서 우리가 계약하면 쓰레기 버리는 요령하고, 그다음에 쓰레기 봉지 음식 쓰레기 봉지, 일반 쓰레기 봉지를 다 나눠 줬어요. 설명을 해서 다 나눠 주고. 지금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묶어서 음식물도 다 챙겼는데. 요새 손님이 없어서 내가 그것도 다 떨어졌네. 그리고 쓰레기 버리는 요령 같은 거를 다 이렇게 전에 그에 따라서 필요한 대로 특징 있게 해서 다 버리고. 이거는 옛날 이게 아니고 해도 되고요. 최근 건데 옛날 게 더 애들한테 이거 외국인들 거 이렇게 그다음에 옛날 노란 색은 어디 갔냐? 노란색 뭐 집 앞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아주대삼거리 버스킹 공연장(영통구청 홈페이지 제공)

에 버리세요. 막 이런 거 있는데. 그때그때 마다 이제 먹히게끔 신경을 많이 써서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 사무실에서 개학하는 학생들은 쓰레기 봉지를 줬어요. 주면서 알려줬어요. … 내 돈 주고 샀지. 쓰레기, 왜냐하면 동네를 깨끗하게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주인들 붙잡고 욕 좀 하면서 싸웠지.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안 놓고 길에다 내놓으니까 주인들한테 분리수거함 해놓으라고 엄청 얘기해가지고 많이 해놨어요. 거의 다 해놨어요. 많이.

원천동주민센터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통장을 비롯한 주민들도 지속적으로 홍보하면서 쓰레기가 무더기로 있던 장소가 점차 깨끗해졌다. 2019년에는 주민세 환원사업으로 버스킹 공연장(원천동 79-26)이 조성되었다. 바닥에는 해변을 연상하게 하는 트릭아트 그림을 그려 놓고, 무대 벽면을 세우고, 관람용 벤치도 설치하였다. 아주대학교 동아리팀들이 기타, R&B, 힙합, 밴드 등 다양한 공연을 하면서 주변 상가와 지역 주민이 함께 어울리는 장이 마련되었다. 지역 주민들은 이를 주민과 학생이 함께 이룬 '역사'라고 표현하였다.

수원시 차원에서도 아주대학교 주변 주택가의 문제를 인지하고, "종량제 봉투,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을 분리할 수 있는 자원순환역 설치를 추진하겠고, 주변 경관과 어우러질 수 있도록 디자인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2]

윤재춘 원룸이 새로 많이 지어져 있지. 그다음에 상가가 상권이 완전히 형성됐죠. 그다음에 중간에 쓰레기가 무더기로 막 저런 데 아무 데나 막 쌓아 놨는데 그거 엄청 통장님들이 같이 홍보하고, 주민센터에서 얘기해서 쓰레기 싹 못 버리게. 버스킹 공연장 생겼지. 역사야! 역사!

원천동 주택가의 현안 중 또 다른 하나는, 주차구역이 많이 부족하여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이 지속되는 것이다. 아주대학교 학생 중에는 자가용을 가진 이가 별로 없어 주차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반면 인근 아주대학교 병원의 직원들 중에는 자차 이용자가 많은데, 이들 중 상당수가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을 신청하여 주차하고 있다. 거주자 우선 주차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가나 상가 지역 주변의 통행량이 적은 생활도로의 일부분에 주차구획선을 긋고, 주변 거주민 또는 근무자에게 유료로 주차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가장 큰 장점은 저렴한 주차비용이다. 홈페이지에서 회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2023년 원천동 주차공간 조성(영통구청 홈페이지 제공)

원을 가입한 뒤 온라인 신청을 하는 형태로 주로 운영한다.

그런데 배정받은 사람이 계속 배정을 받는 구조이기에 새로 이사 온 주민들, 세입자들, 신청방법과 기간을 잘 알지 못해 놓친 사람들은 몇 년이 지나도 주차공간을 배정받기 힘들다. 아주대병원 종사자들은 직장생활을 하면서 정보에 민감하기에, 이를 빠르게 신청하며 선점하였다. 대학병원은 안정된 직장이라 한번 입사하면 오래 다니기에, 주차구역을 계속 점유하는 형태가 되었다.

마명자는 원천동의 고질적인 문제인 주차난에 대해 우려하였다. 주민들은 "아주대병원 직원의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배정을 줄이고, 거주민에게 우선 배정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수원시는 2022년 7월 아주대학교 병원 근무자의 재직 여부를 전수 조사해 주차공간 60면을 확보했고, 10월에는 지역 주민의 주차장 운영시간을 3시간 늘렸다.[3]

또한 주차공간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 수원도시공사와 함께 영통구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일제 정비에 나섰다. 원천주공아파트 주변, 중부대로271번길, 월드컵로149번길, 월드컵로193번길 일대를 대상으로 실사용자 여부를 조사하였다. 우만2동 공영주차장을 열어 차량 173대와 자전거 70대의 주차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로써 아주대학교삼거리와 아주대학교 사이 상가와 주택가의 주차난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4]

2023년 아주대학교 학생과의 대화(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SRI 수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2019년 아주대학교 일대 주택가
(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2023년 아주대학교 원천대동제
(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마명자 주차장, 공영 주차 중에 하나도, 지금 아주대 병원에서 직원들이 다 쓰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 해 가지고 싸우고 있거든요. 애네들이 주차를 아침에 9시까지 빼 달리면 빼서 우리가 진찰을 하는 8시 그 정도 차를 빼 달라. … 신청을 안 해서 그렇다고 그래서. 내가 "나 이사를 지금 늦게 왔다." 주민들은 이사를, 세입자가 뭐 그렇죠. 이동이 있지만, 애네들은 딱 하면은 퇴직하려고 하지 않아요. … 비율을 나눠서 해야 되는데 … 공영주차장 하나 해 달라는 거고, 이쪽에 특별히 뭐 다른 게 다 해봐도 없잖아요!

원천동은 대학생들과 공생하며 젊고 활달한 분위기를 띠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오래된 주택가 특유의 소박한 정과 교류가 남아 있다. 정월대보름에는 지역 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한 척사대회를 연다. 주민들의 안녕과 건강을 기원하는 고사를 지낸 후 참여 주민들을 대상으로 윷놀이와 제기차기 대회를 개최하고, 새마을부녀회가 준비한 오곡밥, 떡과 나물, 부럼과 각종 먹거리 등 대보름 음식을 함께 나눈다. 원천동에 사는 토박이 사람들의 모임으로 '새터모임'이 있는데, 윤재춘의 남편이 총무를 맡고 있다. 1960년생 동갑내기인 윤재춘과 마명자, 1943년생인 이학재 등 60~80대들이 주로 가입하여 활동한다. 새터 회원은 20여명 정도인데 남성이 주축이 되었고, 부부 동반으로 야외에 가는 등 모임을 갖고 있다. 이들은 원천동에서 출생하지 않았더라도, 30~40년 이상 살면서 동네의 변화를 체감하고, 주변 환경에 따라 주거형태와 직업을 바꾸면서 새로운 상황에 적응한 인물들이다. 오래된 동네이다 보니 원주민들도 고령화되고, 새터 회원 중에 사망자가 생기고 있다. 토박이 중에 요즘 왕래하는 사람은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적은 숫자이다.

윤재춘 20명 정도. 이제 부부가 같이 했죠. 남성이 회원이고, 항상 뭐 할 때는 부부가 같이 야외 가고. 이 골목에 쭉 건물 가진 주민들 위주로 원주민들이었죠. … 여기는 그래도 (토박이가) 많은 편이에요. 우리 라인의 한 절반, 그렇지. 둘은 바뀌었고, 하나, 둘, 셋, 절반 넘지 않을까? 돌아가신 분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사는 분이 이제 다섯 손가락이야.

세월이 흐름에 따라 '새터마을', '새터모임'이라는 소박한 명칭도, 이곳을 지키던 주민들도 언젠가 잊힐지 모른다. 주민들은 아주대학교 학생들이 졸업하고 시간이 흘러 젊은 날을 회상할 때, 원천동 골목길에서 보낸 시간이 즐겁고 행복하길 바란다. 연령과 신분의 차이가 있지만, 함께 원천동 주택가에서 복작복작 살고 있는 사람들로서 아주대학교와 학생들의 앞날을 응원하고 있다.

1. 수원시, 『수원의 지명과 도로명 유람』, 2018, 442쪽.
2. 「아주대 주변 주택가를 깨끗한 거리로 만들겠다」, 『수원화성신문』, 2023년 3월 29일.
3. 「아주대 주변 주택가를 깨끗한 거리로 만들겠다」, 『수원화성신문』, 2023년 3월 29일.
4. 「이재준 수원시장 "아주대 일대 무단투기 주차문제 해결"」, 『서울경제』, 2023년 3월 29일.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원천동 박경순 원천동 신현규 하동 한진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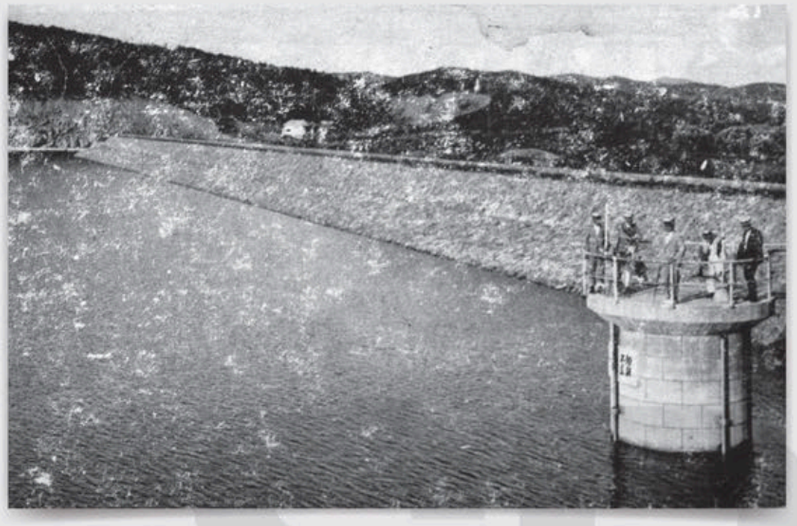
주민 삶을 여유롭게 만드는 곳, 원천저수지에서 광교호수공원까지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 휴식과 놀이, 그리고 일탈의 공간

원천유원지는 영통 주민은 물론 수원 사람들 전체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닌 공간이다. 원천유원지는 지금의 광교호수공원(영통구 하동 1020)이 있는 곳에 있었던 유원지로, 2008년경 광교신도시를 착공하면서 폐업하였다. 원천유원지는 넓게는 원천저수지와 신대저수지의 야산 일대를 포함하며, 좁은 의미로는 1969년 유원지로 개발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원천저수지에 조성된 유원지를 의미한다.[1] 이곳은 1929년 저수지(여천, 신대)로 조성되었다가 1977년 국민관광유원지로 지정되었고, 1980~1990년대에 놀이공원, 수상 레저시설, 위락시설, 식당, 카페, 노점 등이 다양하게 들어서면서 많은 주민들이 찾는 관광 명소가 되었다.

30여 년 넘게 영통의 한 부분을 차지한 원천유원지는 수원 주민들의 일상



수용수리조합에서 조성한 여천저수지(원천저수지)

1950년대 원천저수지로 소풍 온 학생들

에서 여가 활동과 휴식시간의 큰 부분을 담당했으며, 특별한 날에도 함께했던 추억의 장소이다. 다양한 연령과 성별의 영통 주민들을 통해 원천유원지가 어떤 의미였는지, 유원지를 만들고 즐긴 이들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살펴보겠다.

신현규는 1956년생으로 원천동에서 출생하여 지금까지 원천동에서 거주하며, 원천동 안전마을만들기협의회 회장을 지내고 있다. 그는 유년기와 중년 시절까지의 삶에서 원천유원지가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회고한다. 봄에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유원지로 개발 전 원천저수지
(1969년, 경기도청 제공)

1972년 원천유원지에서 배를 타며 데이트를 즐기는 연인들(수원박물관 제공)

1976년 원천유원지 시설(수원박물관 제공)

1970년대 원천유원지로 나들이를 나온 가족

1977년 원천유원지에서 영업 중인 관광마차
(수원박물관 제공)

는 저수지에서 보트를 타고, 겨울에는 썰매나 스케이트를 탔다. 초중고생들은 봄에는 소풍을 하러 단체로 원천유원지에, 졸업할 때가 되면 가을에 졸업앨범을 촬영하려고 원천유원지를 방문하였다. 그래서 '최고의 관광지'로 불렸다.

신현규 그거 얼음 얼고 그러면 썰매 타러 거기로 가고, 거기가 또 '여수내'라고 있어요. 거기 친구들이 오면 도망 오고. 또 우리가 떼거리로 몰려가면 그 친구들 도망가고. 얼음이 엄청 얼었어요. 그 당시에. 원천이 유원지, 그때 당시에는 뭐 거기 물이 이제 농사짓는 데로 내려갔고. 그 다음에 수원 시내에서 이제 결혼하면은 피로연은 다 원천유원지로, 거의 한 99%가 다 이리로 왔어. 피로연 하러. 그때만 해도 여기가 유명했어요. 그래서 관광지로는 최고였었어요! 소풍도 거의 원천유원지죠.

겨울철 원천유원지 빙판에서의 놀이

1975년 원천유원지에서 치러진 결혼식 피로연(최종천 제공)

SRI 수원학연구센터
SUWON RESEARCH INSTITUTE

1960년생인 윤재춘은 용인 출신으로, 삼일공고에 진학하면서 수원으로 이사 와서 자취를 시작하였다. 청년기의 추억으로 원천유원지에서 번데기를 먹고, 오리 보트와 유람선을 타고, 풍선 맞추기 놀이 등을 하던 기억을 떠올렸다. 유원지 안에는 번데기, 아이스크림, 솜사탕 등을 파는 노점이 있어 여러 가지 먹거리들이 즐비하였다. 젊은이들은 원천유원지에서 배나 놀이기구를 타며 데이트를 했다. 수원에서 결혼식을 올린 이들은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 유원지 식당에서 지인들과 피로연을 했다. 결혼식 하객으로 모인 청춘남녀들은 이 피로연 장소에서 서로 호감을 느껴 교제를 시작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1980~1990년대 "유명한 데이트 장소"였다.

1977년 항락객들이 몰린 원천유원지
(수원박물관 제공)

1978년 조정경기가 열리고 있는
원천유원지(수원박물관 제공)

수원시
SUWON RES
수원학

1981년 원천유원지 입구(수원박물관 제공)

1983년 원천유원지 입구(수원박물관 제공)

1983년 원천유원지의 수상식당 용궁(수원박물관 제공)

1983년 수궁(수원박물관 제공)

1983년 광나루(수원박물관 제공)

윤재춘 그 당시에는 결혼한 사람들이 피로연을 그리 다 갔다고. 신랑, 친구, 남자친구를 쫙. 거기 가서 먹고, 놀고, 배타고, 그랬어. 그게 문화였어요. 그리고 유일한 데이트 장소였구요.

한진영은 1965년생인데, 수원시청 공무원으로 근무했고, 퇴직 후 택시 운수업에 종사하고 있다. 그도 중장년 시절까지 "유일하게 와서 놀 수 있는 데"로 원천유원지를 꼽았다.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용인자연농원(현재 에버랜드), 한국민속촌 등이 있었지만, 자연농원은 원천유원지보다 거리가 멀어 접근성이 떨어지고, 민속촌은 옛날 생활모습을 살펴보고 전통문화와 민속놀이를 즐긴다는 특별한 테마를 가진 곳이었다. 그래서 남녀노소 다양한 계층이 아무 때나 부담 없이 찾아가 휴식과 놀이를 즐기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

수원 사람들이 당시 달리 갈 곳이 마땅치 않아서 원천유원지를 갔다고는 하지만,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는 아무리 자주 방문해도 질리지 않는 장소였다. 지금처럼 컴퓨터와 스마트폰으로 여가와 오락을 즐기는 문화가 없었고, 놀 거리가 다양하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이다. 남성들은 주말이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어울려 배를 타고, 식당에서 매운탕에 술 한 잔을 마시며 일상의 피로와 시름을 날려 보냈다.

한진영 고동 그런 거 그런 거 주로 먹고. 놀러 오신 분들은 배 한 번 타고, 식당 같은 거, 매운탕에다 술 한 잔 먹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당시 이게 개발되기 전까지만 해도 수원 시민들이 유일하게 갈 수 있는 곳이 원천유원지에요. 왜냐면, 없잖아요! 수원에. 산 올라가 봐야 먹을 것도 없고, 유일하게 와서 놀 수 있는 데가 여기고.

1983년 매운탕을 판매하는 수정(수원박물관 제공)

워낙 많은 인파가 몰리는 곳이다 보니 시비와 일탈이 생기기도 했다. 유원지 상인들과 관광객들은 간혹 불륜을 목격하기도 했다. 각자 다른 차를 타고 와서 유원지에서 만나 데이트를 하는 중에, 애인이나 배우자가 찾으러 와서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고등학생이 성인 행세를 하며 담배를 피우거나, 몰래 데이트를 하는 장소이기도 했다. 대학생 등 젊은 층이 음주를 하며 소란을 피우는 경우도 있었다. 대학생들이 단체 MT를 왔다가, 술을 먹고 유원지에 빠져 구조하기도 하고, 신변을 비관하여 자살하는 사건도 있었다. 하지만 평소 경찰의 순찰이 잦았고, 워낙 보는 눈들이 많았기에 이른바 깡패, 폭력배 등의 무리는 없었다. 원천유원지는 대체로 평화로운 놀이공원이자 문화의 공간이었다.

SRI 수원학연구센터
SUWON RESEARCH INSTITUTE

1983년 원천유원지에서 영업 중인
수상식당(수원박물관 제공)

1985년 원천유원지에서 영업 중인
보트와 수상식당(수원박물관 제공)

수원의 아이들은 초·중·고 소풍을 원천유원지에서 했고, 어린이날이나 휴일이면 부모를 졸라 놀이기구를 타거나 수영 혹은 썰매를 타며 놀고 간식을 사 먹었다. 대학생이 되면 MT를 왔고, 성인이 되면 데이트를 했고, 결혼식 피로연을 원천유원지에서 했다. 자식을 낳아 자신의 아이와 다시 원천유원지로 놀러왔고, 노년기의 부모를 모시고 휴식과 관광을 즐기러 왔다. 인생의 기념할 만한 순간들이 원천유원지과 관련된 것이다. 유원지를 경유하는 대중교통으로 65번, 66번, 600번 버스가 있었다. 특히 65번 버스는 수원을 관통하는 장거리 노선에다가, 정류장 종점이 바로 유원지 앞이었기에, 주민들에게 각별하고 친근감 있었다.

2. 원천유원지의 상인과 주민들

원천유원지에서 휴식과 놀이를 즐기고, 일상을 향유하던 주민들 외에, 이곳을 거주와 거주의 공간으로 삼던 이들이 있다. 이들에게 원천유원지는 어떤 곳이었을까? 원천유원지에 가까이 붙어 있는 원천동 마을 주민으로 노점을 하던 허은경과 슈퍼마켓을 운영하던 박경순, 하동 청주 한씨 집성촌 출신으로 대규모 한식당을 운영하던 한상진 등을 통해 원천유원지의 면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박경순은 1967년생인데, 서울에서 살다가 결혼하며 20대 중반인 1992년쯤 시어머니의 고향인 원천동으로 들어왔다. 시어머니는 김씨인데, 이 마을에 김씨들이 꽤 살았다. '신명슈퍼'를 운영하며 시부모와 한 집에 살며 생업과 거주를 모두 원천유원지를 기반으로 하였다. 그가 들어오던 시기, 마을은 논밭이 있고 시골과 비슷한 분위기였던 데 비해, 불과 몇 분 거리에 있는 유

1981년 원천유원지 노점상(수원박물관 제공)

SRI 수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원지는 저수지를 중심으로 유람선과 모터보트가 다니고, 밤늦게까지 놀이기구가 운영되던 떠들썩한 곳이었다. 슈퍼마켓은 65번 버스 종점 입구에 있어, 유원지에 출입하던 주민들의 방문이 잦았다. 가장 잘 팔리는 품목은 음료수, 부채 등이었다.

1960년생인 허은경은 1991년경 전셋집을 구하다가 수원에서 집값이 비교적 저렴한 편이었던 원천동으로 들어왔다. 들어와 보니 마을 주민들이 대부분 원천유원지의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는 분위기였기에, 그도 노점으로 번데기 장사를 시작하였다. 당시 번데기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부담 없는 먹거리였다.

1983년 원천유원지 입구에 설치된 이동파출소(수원박물관 제공)

1983년 원천유원지 상가(수원박물관 제공)

허은경 전세로 들어갔었어요. 일단은. 이제 그 당시에 전세라는 금액이 저렴하고, 그래서 가서 보니까 원천유원지였지.

번데기 판매 가격은 1,000원, 2,000원 단위였다. 날씨 좋은 주말의 경우 하루 최대 50만 원을 벌기도 하였다. 원천유원지의 노점은 총 100여 곳에 달하였다. 점포 없이 순수하게 노점만 하는 곳이 20~30여 곳, 점포를 갖고 있는 사람이 본인의 가게 앞에 좌판을 벌여 놓고 물건을 파는 곳이 70~80여 곳에 달하였다. 노점에서 파는 주요 품목은 솜사탕, 아이스크림, 소라, 번데기, 고동 등 먹거리가 많았다. 외부에서 유원지로 들어오는 노점상들은 별로 없었고, 대부분 원천유원지 인근 마을에 살던 주민들이 장사를 했다. 노점은 불법이었으나, 사실상 비공식적으로 허용되는 형태였다. 간혹 단속이 시작되면 상인들은 재빨리 물건을 챙겨 자리를 피하였다. 가만히 있다가는 리어카를 빼앗기거나 심한 말을 듣는 등 험한 꼴을 볼 수도 있었다.

슈퍼를 운영하던 박경순은 가게 내부에 주로 머물기에 유원지를 찾는 관광객의 일거수일투족을 들여다볼 여유는 없었다. 그러나 노점을 하는 이들은 종일 야외에 머물기에 아침부터 밤까지 유원지의 경관을 즐길 수 있었고, 온갖 재미있는 상황과 광경도 보고 들었다. 계절의 변화와 함께 소풍이나 MT를 오는 단체 학생 그룹, 데이트하는 청춘 남녀들, 가족 단위의 나들이객, 노인정 등에서 단체로 오는 관광객 등을 보며 시대와 세태의 변화를 읽을 수 있었다.

허은경의 자녀들은 학교에서 원천유원지로 단체 소풍을 왔는데, 그는 반 아이들 모두에게 공짜로 번데기를 나눠 주었다. 박경순과 허은경이 살던 원천유원지 안쪽의 오래된 마을은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았다. 당시 주소지는 원천동 151-9번지로, 호수에서 1㎞ 남짓 떨어진 거리였다. 도시 근교의 한적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1981년 원천유원지 놀이시설
(수원박물관 제공)

하고 조용한 시골 마을 분위기였다. 주민들은 누가 사는 곳을 물으면 "원천유원지에 산다." 또는 "하동에 산다."고 대답하였다. 수원 시내에서 택시를 타도 기사들도 모르는 곳이어서 "원천유원지에 가자"고 하여 택시 승강장에서 하차한 후, 마을에 걸어 들어갔다.

허은경 가서 보니까, 우리 사는 데 마을은 몰라요. 웬만해서 택시 기사들도 몰라요. 아예 마을이 없는 줄 알아요. 그러면 거기 넘어가면 매원초등학교 있고, 중앙초등학교 있고, 그러는데, 우리는 뭐 아늑하게 이렇게 있었죠.

원천유원지 마을의 주택은 슬레이트 지붕에 구들장이 있었다. 학교가 가까워서 아이들은 학교 다니기 수월했고, 수업이 끝나면 친구들을 집에 데려와 먹고 놀았다. 주민들 집에는 친인척들이 자주 놀러 왔다. 유원지 가까이에 친척과 지인이 사니 집에 며칠 머물면서 놀다 가는 분위기였다. 마을 주민들은 큰 솥에 라면을 삶아 나눠 먹거나, 함께 삼겹살을 구워 먹으며 어울리는 분위기였다. 주민들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관광객들도 자연스레 합류하여 함께 음식을 나눠 먹을 정도였다.

그래서 어린 시절을 원천유원지 마을에서 보낸 아이들은 30~40대가 된 지금도 그 시절을 종종 얘기하며 아름답게 기억하고 있다. 유원지를 조금만 벗어나면 시골과 마찬가지였기에, 공기가 좋았고, 같이 음식을 해 먹고, 장사를 하며, 함께 일과를 보냈기에, 공동체는 활기가 넘치고 화기애애하였다. 동네 주민들끼리 다 친하고, 친척들도 많아서, 문단속도 하지 않았다. 원천호수에서 물놀이를 하고, 썰매를 탔기에 누구보다 계절의 변화를 실감할 수 있었다. 주민들 중에는 집주인도, 세입자도 있었고, 점포 주인도, 노점상도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1981년 원천유원지 상가
(수원박물관 제공)

있었지만, 그 시절을 회고하며 주민들은 "빈부의 격차가 없었다."고 표현하였다.

허은경 그래서 참 재미있고, 지금 우리 애들도 그때 추억이 아주 진짜 좋아요. 많이 하면 뛰어놀았으니. 여기는 가게였지만, 나는 노점을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분위기가 그러면은 뭐 바닥에서 삼겹살도 구워 먹고, 그러면 지나가는 행인 손님들도 같이 어울리고 그랬었지.

박경순 이제 다 동네가 친인척이라 문 열어 놓고, 우리 집에 누가 와서 다 밥 끓여 먹고 애들은 김장도 같이 하고 뭐 맛아. 김장 끝나면 막 배 타고 놀고 굉장했었지. 겨울에는 더 눈이 오고 이러면.

주민들은 수원 남문시장을 갈 때면 "수원 나간다!"고 표현하였다. 행정구역상으로 수원시 원천동에 소속되었지만, 유원지 마을은 시내와는 다른 외곽, 도시와 동떨어진 시골에 산다는 느낌을 줬기 때문이다.

상인들에 따르면 원천유원지는 1년 365일 문을 열었으며, 한창 관광객이 많던 시기에는 밤 12시~새벽 1시까지도 놀이시설을 운영하였다. 3월 초부터 시작하여 봄, 여름, 가을의 날씨 좋은 주말에 인파가 가장 많이 몰려들었다.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장사였기에 사교성과 친화력이 있는 여성들이 주도하였고, 남성들은 이를 보조하거나 지원하는 역할을 많이 했다. 남성들은 여우골 올라가는 산으로 가서 노루 사냥을 하거나, 낚시를 하며 여가를 보냈다. 여우골은 원천동 111번지 일대에 있던 골짜기로, 현재 국토지리정보원이 있는 곳이다.[2]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1991년 가정집을 개조한 원천유원지 음식점(수원박물관 제공)

1999년 늦은 밤까지 활기를 띠던 원천유원지(수원박물관 제공)

SRI 수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자녀들 중 일찍 철이 든 아이들은 유원지 입구에서 물건을 받아 오거나 심부름을 하면서 어머니를 도왔다. 허은경은 원천유원지에서 장사가 잘 안 되는 시기나, 평일에는 전국의 행사장과 축제 일정에 맞춰 찾아 가서 번데기를 팔았다. 인터넷이 활성화되거나,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에도 노점상끼리 각종 정보들이 빠르게 공유되었다. 원천유원지의 주민들은 지역 사람이기에 수영장 할인쿠폰 등을 받아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하였다. 어린 아이들은 간혹 '개구멍'으로 불린 곳으로 몰래 출입하기도 했다. 어린이, 청소년들은 평소 원천유원지에 가서 아무리 자주 놀아도, 싫증을 내지 않고 늘 즐거웠다고 한다.

주민들 중 작게 가게를 운영하거나, 노점상을 하는 사람들은 일 년 내내 종일 일하는 데 비해 큰돈을 벌지 못하였다. 대형 식당, 카페, 모텔 등 큰 규모의 장사를 하던 사람들은 수익이 상당하였다. 원천유원지의 대표적인 식당으로 수상 음식점인 수궁, 용궁, 왕궁 등이 있었고, 호수 주변의 농가들도 오리백숙, 닭볶음탕, 민물매운탕 같은 음식을 팔았다.

수원시의원과 연화장 이사장을 지내며 지역사회에서 큰 역할을 했던 한상진도 한때 원천유원지에서 식당을 운영하였다. 그는 1951년생으로 하동 5통 일대, '여수내'라고 불린 마을의 청주 한씨 집성촌 출신이다. 그가 태어나 자란 곳은 용인군 수지면 하리 400번지로, 2003년 11월 24일자로 수원시 영통구 하동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된 곳이다.[3] 여수내(麗水川)는 마을 주변의 산과 내가 수려하여 지어진 이름이라고 한다.[4] 원천유원지가 광교신도시

1991년 원천유원지 놀이시설 대관람차와 마법의 양탄자(수원박물관 제공)

1991년 원천랜드의 출입구(수원박물관 제공)

로 개발되기 전, 여수내에는 청주 한씨 20여 가구가 거주하였다.

한상진은 하동에서 손꼽히는 부농 집안 출신으로, 2,000평 규모의 큰 기와집에 거주하였는데, 소풍을 하던 학생들이 구경할 정도였다. 한상진과 아내는 본가를 개조하여 2001년 '덕수궁'이라는 상호로 한정식집을 개업하였다. 원천유원지 일대에 수궁, 용궁, 왕궁 등 '궁(宮)'자 돌림의 식당이 있었는데, "육지에 왕궁을 지어야겠다."는 의미에서 상호를 지었다고 한다.

원래 원천유원지 인근 식당은 봄 위주로 영업했는데, 덕수궁이 개업하면서 사철 영업이 시작되었다. 덕수궁은 식당 부지가 넓어 족구장을 설치했고, 주차장도 넉넉하게 마련하였다. 그래서 삼성전자, 검찰청, 국토지리원 등 수원의 기업과 관공서 직원들이 이곳에서 체육대회를 했고, 단체 손님들이 많았다. 덕수궁의 이런 운영 전략은 주변 상가들이 야유회와 숙박이 가능한 대형 음식점으로 전환하는 데 영향을 줬다.

3. 역사 속으로 사라진 원천유원지

원천유원지 일대가 택지로 개발된다는 소문은 꾸준히 있었다. 그러나 정확한 시기를 몰랐고, 대규모 개발사업은 착수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기에, 유원지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과 상인들은 특별히 대처하지 않고 일상을 지속하였다. 이들은 마을에서 농사를 짓고, 관광객들을 상대로 음식과 물건을 팔았다. 그런데 1990년대 이후부터 자본이 있는 외지인들이 개발 보상금, 땅값 상승 등을 목적으로 들어왔다. 이들은 모텔과 카페를 지었다. 유원지 개발이 점차 현실화되면서 주민들은 가축을 키우면 보상에 유리하다는 소문을 듣고, 닭, 오리 등을 길렀다.

박경순 그때 이미 91~92년도 때부터는 "아, 이거 없어진다." 그 전부터 그랬잖아요. 그래서 시어머니 때부터 개발 얘기는 계속 있었는데, 개발 얘기 나오면 30년 뒤에 개발되는구나.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 애들 초등학교 때부터 서서히 "광교 땅 사놔라! 개발된다!" 이런 얘기가 돌았었어. 슬슬 그냥 개발된다 이런 얘기 있었어. 나중에 땅 사도, 여기 다 사나? 돈 있어야지, 아직. 오는 분들은 모르지, 여기가 개발이 되는지, 뭔지. 그런데 개발이 된다니까 집집마다 짐승을 막 여기저기 막 부어 키우는 거야. 그런데 이제 놀러오는 사람들은 몰라요. 거기가 이거 개발된다고 써 붙이지도 않잖아요. 어느 정도 우리가 이사 나가고 중지되니까 이제 아시는 거죠.

2006년 오랫동안 소문으로 무성했던 광교신도시 조성 계획이 발표되었다. 원천저수지와 신대저수지를 연계해 어뮤즈파크라는 대규모 공원을 만드는 계획이 수립되었다. 철수가 시작되면서, 원천동 주민과 상인들도 하나, 둘 마을을 떠나기 시작하였다. 이미 이 시기는 놀이기구 등 시설이 상당히 노후화되었고, 관광객도 줄어든 시점이었다. 개발이 가까워지면서 위락시설에 대한 보수 공사, 리모델링 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위기가 예전만 못하였다. 2000년대 들어서는 원천유원지 외에도 수도권에 갈 만한 곳들이 많이 생기면서, 관광객들의 숫자도 줄었다. 2006년부터 마을 곳곳의 전기가 끊어지고, 철수가 시작되었기에 박경순과 허은경을 비롯하여 원천동 마을 주민들은 2006년에 많이 나왔다. 광교신도시가 착공되면서 원천유원지는 사라졌다.

박경순 사람들도 점점 줄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 예전보다 점점 줄었죠. 이거 벌써 공기가 틀리고, 집이 처음에 몇 년은 안 그랬는데 집이 가게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다양한 놀이시설이 설치된 원천유원지
(2000년, 수원박물관 제공)

광교신도시 개발로
폐쇄되기 직전의 원천유원지

2000년 원천점보풀장(수원박물관 제공)

가 문을 닫고 떠나잖아요. 그리고 이 소문이라는 게 벌써 떠돌지. 노후되니까 조금 더 들어오는 것도 있었던 것 같아. 약간, 뭐 페인트칠도 딱 딱 하고 막 이러면, 또 봄마다 또 해야 되는데, 그만큼 돈을 못 빼니까. 나는 2006년도에 나왔어요.

원천동 주민들 중 노점을 하거나 가게를 운영하던 이들 중 보상금을 많이 받은 이는 거의 없었다. 대규모의 논밭을 소유했던 지주들이나 일부 문중들이 혜택을 볼 뿐이었다. 전세 세입자는 이주비도 없었고, 보상비도 모두 제각각이다 보니, 서로 자세한 사정을 알 수도 없었다. 이들은 원천동을 떠나 인계동, 매탄동 등 수원의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다. 관광지에서 오랜 세월 장사를 하면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평생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몸에 배인 사람들이었다. 개발로 인해 생업을 잃었지만, 새로운 직업에 도전하였다. 60~70대의 경우, 조리사, 요양보호사, 가사도우미 등을 하며 아직도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허윤경 장사하다가 다른 데 가게에서 그냥 쭉쭉쭉 나갔는데, 다들 돈 있는 지주들, 유지들만 살았다니까.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뾰족한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이사를 나갔죠.

그 시절 함께 장사하고, 어울리고, 음식을 나눠 먹던 이들은 지금도 연락하며 돈독히 지낸다. 한때는 서로 자리다툼도 하고, 흉도 보고, 단속에 걸려 모욕을 당하기도 했지만, 산전수전 속에서 수십 년간 같이 한 동지 의식과 쌓인 정이 대단하기 때문이다. 개발로 마을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갑자기 병이 든 이들도 있다. 농촌과 비슷한 환경에서 맑은 공기를 쐬고, 흙을 가까이 하며, 음식을 나눠 먹던 공동체가 사라지고, 도시에서 각박하게 생활하다 보니 심리적으로 힘들어서 그런 것 같다고 말한다. 유원지를 뛰어다니던 어린 아이들도 이제 20~30대가 되었다. 이들은 예전에 동네 사람들끼리 모여 먹은 음식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다고 추억한다.

허윤경 우리는 장사하는 게 너무 너무 재미있었어! 이런 꼴, 저런 꼴 보고, 싸우기도 하고, 매도 맞고, 막 자리싸움도 하고. 별, 진짜 산전수전 다 겪고 그래 가지고 재미있었지. … 이제 나와 보니까 다 좋은 추억이지. 그냥 자유롭고. 일단은 사람들이 좋았던 거!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한상진의 부인이 운영하던 덕수궁도 2006년에 철거되었다. 그가 거주하던 하동의 원주민들, 집성촌 주민들은 대부분 개발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대대손손 살아온 고향땅을 떠나야 되고, 생업인 농사도 중단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 토지를 소유한 이는 30%밖에 되지 않았고, 남의 땅에 작은 집을 짓고 살며 소작을 짓는 이들이 훨씬 많았다. 영세한 농민들이 시골집에 대해 받은 보상금으로는 인근 동네에서 셋방을 얻는 수준에 불과하였다. 평범한 농민의 경우 7,000만 원~1억 원 수준의 보상금을 받으면 잘 받는 것이었다. 이주자 택지를 받더라도 땅값과 건물 값을 합하면 거액이 되기에 이를 감당하며 번듯하게 살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사람은 적었다.

박경순과 허은경 등 원천동 주민들은 별다른 집단 활동 없이 동네를 떠났다. 이들은 집과 토지의 규모가 작아 보상받을 금액이 크지 않고, 농업보다는 장사를 주요 생계수단으로 삼았기에, 빨리 이사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것을 우선시하였다.

반면 이의동·하동 주민들은 대책위원회를 결성해서 단체 활동을 했다. 한상진은 광교개발투쟁위원장을 맡았다. 그는 명문교를 졸업한 엘리트인데다가, 조직 생활과 정치 경험이 있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었다. 이에 본인이 발 벗고 나서서 원주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보상을 최대한 받아내는 데 앞장섰다. 그는 감정 평가를 꼼꼼히 검토하고, 세법이 바뀌기 전에 조기 집행을 통해 손실률을 줄이고, 보상받을 수 있는 지장물을 늘리거나 범주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였다. 불합리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함께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주 시 보상받은 대지 규모를 늘렸으며, 제법 큰 보상을 받는 사람들도 생겼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은 대지나 논 등 소유지의 규모가 작았기에 보상비용이 적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보니 광교신도시 개발 이후 원래 살고 있던 지역으로 다시 돌아온 토박이는 전체의 5%에 불과하였다.

한상진 다 그때, 다 그거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원천 개발이 된다 하는 바람에 몽땅 너희 집, 내 집 할 것 없이 다 집을 비우고 떠나야 돼, 살던 집도 떠나야 돼. … 내가 투쟁위원장, 반대하러 다녔지. 반대했지만, 법이 그런데 어떻게 해? 왜냐? 쉽게 얘기해서 "360만 평 광교신도시 개발로 명한다. 원주민들은 보상받고 떠나야 된다." 그게 법이요. … 100% 반대지. 왜냐? 땅 가진 사람은 거기 원주민들인데, 고향 떠나서 싫어. 그리고 남의 농사, 소작 농사 지어먹던 사람들은 땅 떨어지면 올 데, 갈 데가 없어요. 가진 게 농사꾼인데. 그나마 원천서 하꼬방 집 옆에 장사하던 사람인데 그거 보상비 받으면 수원에 어디 가서 (살아요)? 갈 데가 죽어도 (없지)! 그래 광교에서 떨어진 60%가 다 거지라니까요. 땅 가진 사람은 30% 밖에 안 돼. 50%는 거지 돼서 나갔고.

4. 새롭게 열린 광교호수공원 시대

광교신도시 공사가 시작되면서, 2008년 무렵부터 원천그린랜드를 시작으로 각종 놀이시설, 식당, 원천호수랜드 등이 폐업하였다. 2009년 8월경 인근 도로를 폐쇄하면서 30여 년간 수원 주민에게 사랑 받던 원천유원지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원천유원지 안에 있던 수상가옥 5동, 수영장 2개, 유원지입구 주차장, 대규모 야영장, 심신단련장 등도 보상을 받고 없어졌다.[1] 원천유원지는 개발계획 수립과정에서 유원지 기능을 배제하고, 광교택지개발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원천유원지에서 광교호수공원으로 변경된 명칭(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도심 속 광교호수공원(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사업지구 내 공원으로 계획되었다. 그래서 원천유원지는 오늘의 '광교호수공원'이 되었다.

광교호수공원은 2010년 6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약 3년에 걸쳐 조성되었다. 경기도와 수원시가 약 1,200억 원을 들여 도심 속 호수공원으로 개발하였다. 영통구 하동 1023번지 외 22필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원천호수 37만 3,568㎡, 신대호수 27만 9,435㎡를 합쳐 만들어 총 202만 5,418㎡의 면적을 갖고 있다. 일산호수공원의 1.7배 크기이다. 새로 지은 고층 아파트들 사이에 자리 잡은 광교호수공원은 마치 유명 외국 관광지처럼 멋진 풍광을 자랑한다. 낮에 산책과 피크닉을 즐기기에도 좋지만, 노을이 지는 풍경과 화려한 조명으로 빛나는 야경이 특히 감탄을 자아낸다. 2014년 국토교통부 선정 대한민국 최고의 경관 대상에 선정되기도 했다. 수변 산책로, 분수, 마당 극장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어 광교 주민뿐만 아니라 수원 전역에서 많은 주민들이 찾고 있다.

광교호수공원이 자연과 도시의 조화 속에서 주민들에게 큰 만족감을 주

광교호수공원 프라이부르크전망대(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도시와 자연이 어우러진 광교호수공원(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고 있지만, 수원의 토박이들은 새로운 이름인 '광교호수공원'에 대해 낯설음과 불평을 토로하였다. 원천유원지에서 휴식과 여가는 물론 소풍, 졸업식, 결혼 피로연 등 일생의 중요한 순간을 함께해 온 주민들은 평생 '원천저수지' 혹은 '원천유원지'라고 부르던 곳이 '광교호수공원'으로 변하다 보니, 본인들의 추억의 공간을 빼앗긴 기분이 들었다.

신현규는 원천동 나촌말에서 태어난 토박이로, 원천동 안전마을만들기협의회 회장 등을 동네의 안전과 환경 개선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 그는 1956년으로, 어린 시절부터 중년이 넘어서까지 원천유원지와 함께해 왔다. 그는 원천유원지의 호칭이 광교호수공원으로 변경될 때 토박이들이 반대 운동도 했다고 한다. 그의 지인들도 '광교호수공원'이라는 말이 선뜻 나오지 않아, 아직까지 '원천유원지'라고 부른다고 말한다. 명칭을 바꾸려면 '원천천'도 '광교천'이라고 하지, 왜 원천유원지만 광교호수공원으로 바꿨느냐, 정통성을 따지면 '원천'이 더 맞지 않느냐고 반문하였다. 수원 주민들의 여가와 휴식을 책임지며 오랜 시간 같이 했던 역사와 전통이 사라진 느낌이라 아쉽다고 말한다.

광교호수공원 야경(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광교호수공원 야경(경기도시공사 제공)

신현규 거기 아파트 주민들도 마찬가지예요. 주소지가 원천동인데, 그 '원천유원지'로 유명했던 거를, 그 왜 그걸 '광교'로다! 한 번은 데모를 했어요. 주민들이. 거기 체육관을 설립한다고, 그거 하면 안 된다고 띠 두르고 와서 동사무소 와서. 그냥 굴러 들어온 게 박힌 돌 빼는. … 얼마나 좋아요? '원천동' 그러면 전국 사람이 다 아는 건데. 그걸 '광교' 그러면 저 원천유원지를 아주 잊어버리라고 그랬잖아요. … 난 '광'자라고 안 나와요, "저 원천유원지 앞에" 그땐, 지금도 그렇게 나오지. 그거 안 나와요

아주대생들을 대상으로 원천동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윤재춘은 원천유원지의 이름이 바뀌면서 "신도시에 추억을 완전히 빼앗긴 기분"이라고 토로하였다. 그렇지만 이제 수원의 트레이드 마크이자 키워드가 '광교'가 되었으니, '광교호수공원'으로 이름이 바뀐 것을 이해한다는 입장이다. 유원지에서 17년간 노점상을 했던 허윤경도 "광교호수공원이 된 것은 시대의 흐름"이라고 말하였다.

윤재춘 신도시로 완전히 뺏긴 기분. 그냥 원천저수지라고 말하면 너무. 지금 이만 살아 있지 살아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이름 자체가 저기, 신도시 맞게 한 게 '광교'가 트레이드 마크였으니까. 키워드가 '광교'잖아요.

허윤경 '광교'가 들어서면서 굉장하잖아요. … 그리워하는데, 그 시대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잖아요. 시대는 이게, 시대의 흐름이다.

도시 속 호수공원인 광교호수공원은 광교산과 원천저수지 및 신대저수지의 자연을 보존하며 새로운 문화를 담고 있다. 9개의 분수시설, 총 6.5㎞의 순환보행로, 도심 속 힐링 공간인 가족캠핑장,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다목적 체험장, 야외공연장, 스포츠클라이밍장, 수변 위에 5개의 원형데크와 아치형의 정다운 다리가 있는 조용한 숲, 행복한 꽃섬, 습지와 버드나무가 어우러진 먼 섬 숲 등 여러 가지 특색 있는 공간이 조성되어 있다.[6] 막을 내린 원천유원지는 수원 주민들의 마음속에 늘 추억으로 남아있고, 이제 그 자리에 새로 들어선 광교호수공원이 원주민과 신도시 이주민 사이에 모두 사랑받는 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다. 산책코스이면서 볼거리, 놀 거리를 모두 보유하고 있고, 여러 가지 시설과 프로그램을 통해 남녀노소 즐길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광교호수공원 탐방, 자전거 탄 호수풍경, 나무공예와 같이 주말에 가족이 함께 참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부터 숲속스토리텔링, 산새야 물새야 등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숲속체험 프로그램, 생태모니터링, 호수 사진강좌 등 성인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유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자연과 함께하는 즐거움과 감성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7]

2023년 광교같이공간 숲&힐링 프로그램 포스터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광교호수공원 분수대에서 물놀이를 즐기는 시민들(2019년, 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원천유원지가 수원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로서 주민들에게 기억되고 추억되듯이, 몇 십 년 후면 광교호수공원이 휴식과 여가의 대명사로서 많은 이들의 가슴에 자리하고 있을 것이다.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도시정책연구센터

1. 수원시, 『수원시 이의동지』, 2003, 412쪽.
2. 수원시, 『수원의 지명과 도로명 총람』, 2015, 443쪽.
3. 수원시, 『수원의 지명과 도로명 총람』, 2015, 457쪽.
4. 수원시, 『수원의 지명과 도로명 총람』, 2015, 461쪽.
5. 「원천유원지에는 이런 사연들이 있다」, 『수원일보』 2021년 11월 1일.
6. 광교호수공원 홈페이지(http://www.gglakepark.or.kr/).
7. 「광교호수공원 생태문화 프로그램 참가해요」, 『수원시 인터넷 신문』 2014년 7월 8일.

저수지에서
호수공원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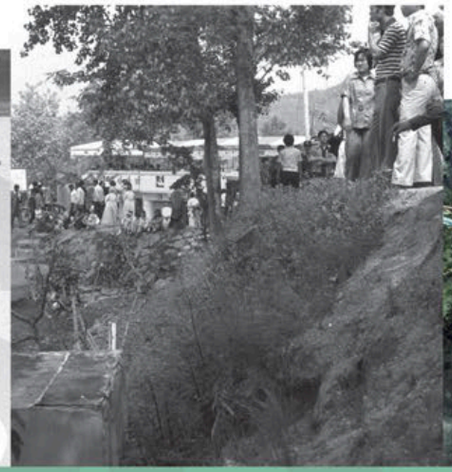
1929년 5월

여천저수지(아랫방죽)과
신대저수지(윗방죽) 축조

龍仁砂防工事
기공축하식

1972년 8월 11일

원천유원지 최초 결정
(3,893,000㎡)



1977년 3월 31일

국민관광지로 지정
(경기도고시 제77-101호)

1981년 7월 2일

유원지 일부지역에 대한 세부시설
결정 및 지적고시(730,480㎡)

1982년 3월 23일

유원지 면적 변경결정
(3,893,000㎡→3,785,895㎡)

1986년 7월 4일

유원지 세부시설 결정
(921,461㎡)

집필
이승연 수원시정연구원 위촉연구원

자료조사
손예온 수원시정연구원 위촉연구원
유현희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원
이승연 수원시정연구원 위촉연구원
홍현영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원

수원학구술총서 6
영통구,
상전벽해의 여정

발행일
2023년 11월 20일

발행처
SRI 수원시정연구원 수원학연구센터 수원특례시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031-220-8058

디자인 및 인쇄
경인M&B

ISBN
979-11-6819-142-6
979-11-90343-82-4 (세트)

*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